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39-01

鵝洛國

가야

고고자료로본

문헌과 三國遺事

2018 11.21.수 ~ 22.목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회 가야사 기획 학술심포지엄

발 표

- 제1부 변한 사회와 가야
- 제2부 가야의 성장과 획기
- 제3부 가야의 국가적 성격
- 제4부 가야와 주변 국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회

韓國古代史學會

한국상고사학회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39-01

鵞洛國

가야 고고자료로본 문헌과 三國遺事

2018

11.21.수 ~ 22.목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회 가야사 기획 학술심포지엄

- 발 표
- 제1부 변한 사회와 가야
 - 제2부 가야의 성장과 획기
 - 제3부 가야의 국가적 성격
 - 제4부 가야와 주변 국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회

韓國古代史學會

한국상고사학회

심포지엄 일정

1일차

시간	내용	
09:50~10:10	개 회 사 축 사 환 영 사	최종덕(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정재숙(문화재청장) 하일식(한국고대사학회장) 이청규(한국고고학회장) 김재홍(한국상고사학회장)
10:10~10:30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의 연구 경향	발표: 강동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부> 변한 사회와 가야		사회: 정인성(영남대학교)
10:30~11:00	발표1 진·변한 사회와 가야의 기원	발표: 박대재(고려대학교)
11:00~11:30	발표2 변한과 가야의 구분	발표: 이동희(인제대학교)
11:30~12:10	1부 토론	
12:10~13:30	<점심식사>	
<2부> 가야의 성장과 획기		사회: 김영민(울산대학교 박물관)
13:30~14:00	발표3 문헌으로 본 가야사의 획기	발표: 남재우(창원대학교)
14:00~14:30	발표4 고고자료로 본 가야사의 획기	발표: 김일규(부산대학교)
14:30~15:10	2부 토론	
15:10~15:30	<휴식 및 장내정리>	
<3부> 가야의 국가적 성격		사회: 윤선태(동국대학교)
15:30~16:00	발표5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발표: 이형기(해양수산부)
16:00~16:30	발표6 3~4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발표: 하승철(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16:30~17:00	발표7 5~6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발표: 박천수(경북대학교)
17:00~18:00	3부 토론	

2일차

시간	내용	
<4부> 가야와 주변 국가		사회: 홍보식(공주대학교)
10:30~11:00	발표8 문헌으로 본 가야와 백제·신라	발표: 백승욱(국립해양박물관)
11:00~11:30	발표9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백제·신라	발표: 김규운(강원대학교)
11:30~12:10	4부 토론	
12:10~13:30	<점심식사>	
<5부> 종합토론		
13:30~15:30	종합토론	좌장: 권오영(서울대학교)
15:30~15:40	폐회사	김삼기(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목 차

●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의 연구 경향 강동석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
● 진·변한 사회와 가야의 기원 박대재 고려대학교	15
● 변한과 가야의 구분 이동희 인제대학교	37
● 「변한과 가야의 구분」에 대한 토론 박대재 고려대학교	62
● 「진·변한 사회와 가야의 기원」에 대한 토론요지 이동희 인제대학교	64
● 문헌으로 본 가야사의 획기 남재우 창원대학교	67
● 고고 자료로 본 가야사의 획기 김일규 부산대학교	85
● 「고고 자료로 본 가야사의 획기」를 읽고 남재우 창원대학교	103
● 「문헌으로 본 가야사의 획기」에 대한 질의 김일규 부산대학교	105
●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이형기 해양수산부	107
● 3~4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하승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125
● 5~6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박천수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151
● 「3~4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토론 요지 이형기 해양수산부	204
● 「5~6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토론 요지 이형기 해양수산부	206
●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한 토론문 하승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8
● 「5~6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한 토론문 하승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10
● 「3~4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과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한 토론문 박천수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211
● 4~6세기 加耶의 對百濟·新羅 관계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213
●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백제·신라 김규운 강원대학교 사학과	229
●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백제·신라」에 대한 토론문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247
● 「4~6세기 가야의 대백제·신라 관계」 토론문 김규운 강원대학교 사학과	249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의 연구 경향



강 동 석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의 연구 경향

강 동 석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목 차

- I. 머리말
- II. 『가야 자료 총서』의 기획과 연구 성과 정리
- III. 학술지에서 보이는 가야사와 가야고고학 연구 동향
- IV. 학위논문을 통해 본 연구자 현황
- V. 학술행사 현황
- VI.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가야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학술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고대사학회에서는 2016년 ‘가야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 이래, 가야사 연구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기획 학술회의를 연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도 2017년 기획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에서 가야유적의 발굴조사 현황과 가야사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최근 활기를 잃은 가야사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검토는 가야에 대한 문헌사적·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가야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연구 성과의 진단과는 별개로, 1991년에 발행된 『가야 연구논저목록』 증보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2017년에 가야사가 국가적으로 주목받은 이후에는 『가야 자료 총서』 발간을 위해 본격적으로 가야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자료를 집성하였다. 이 자료는 연구 성과를 주제별·분야별로 정리하였으며, 학위논문, 학술지,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된 각종 논문과 자료를 총망라하고 있다. 또한,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자료도 총정리하고 있어 유적의 조사·연구 성과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가야사 연구 전반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는 다른 차원에서 가야사 연구의 진전 과정과 성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 결과의 해석을 통해 앞으로 가야사 복원과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II. 『가야 자료 총서』의 기획과 연구 성과 정리

가야 관련 자료의 집성은 그동안 몇 차례 진행되었다. 1989년에는 가야사 관련 문헌사료를 정리한 『伽倻史文憲要抄』¹⁾가 발간되었으며, 1991년에는 『가야연구논저목록』²⁾, 1992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 (신라1·가야편)』³⁾, 2003년 『가야의 유적과 유물』⁴⁾, 2004년 『가야사 연구논문 요약집』⁵⁾과 『(譯註) 加耶史史料集成』⁶⁾ 등, 문헌과 고고자료에 대한 집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로 문헌사료를 정리한 것이었고, 고고자료는 15년 전의 주요 유적과 유물을 다루고 있어 자료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17년 가야사가 국가적으로 주목받던 시점에서 일반인의 가야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기초 자료의 체계적 정리 필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었다.



그림 1. 『가야 자료 총서』 구성

『가야 자료 총서』는 이러한 가야사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먼저 일반인들에게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관심의 정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 자료는 앞으로 ‘가야 역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하여 가야 관련 콘텐츠의 일반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연구자들에게는 다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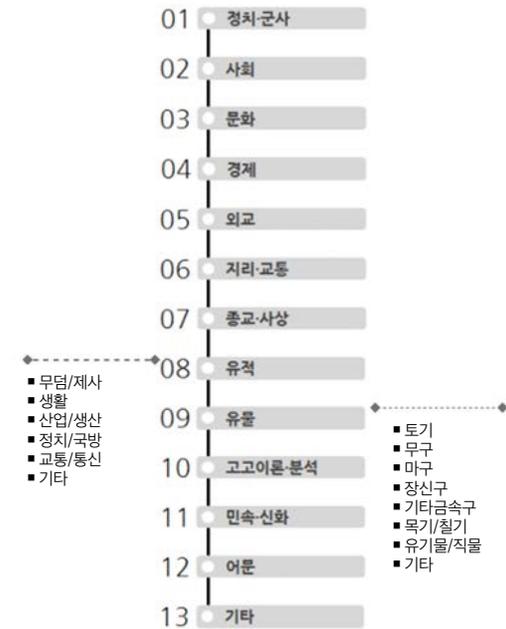


그림 2. 『가야 자료 총서』 논저목록 구성(안)

2018년 발간 예정인 『가야 자료 총서』는 문헌사료, 일제강점기 조사자료, 발굴조사자료, 논저목록 등, 모두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1). 이 가운데 논저목록에서 정리한 주제별·분야별 자료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저목록은 모두 12개 주제로 구분하여 3,664건의 자료를 집성하였다. 주제별 구분은 <그림 2>와 같다.

1) 가야문화편집부, 1989, 『伽倻史文憲要抄』, 伽倻文化2.
 2)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1991, 『가야연구논저목록』.
 3)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 (신라1·가야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4) 박천수·홍보식·이주현·류창환, 2003, 『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5)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 2004, 『가야사 연구논문 요약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6) 김태식 외, 2004, 『(譯註) 加耶史史料集成』, 한국고대사회연구소.

고고자료인 유적과 유물을 제외하면, 정치·군사, 사회, 문화, 경제, 외교, 지리·교통, 종교·사상, 민속·신화, 어문 등의 대주제로 나누어, 정치사회사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 측면에서 가야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가야사 전반의 연구 성과를 주제별·연도별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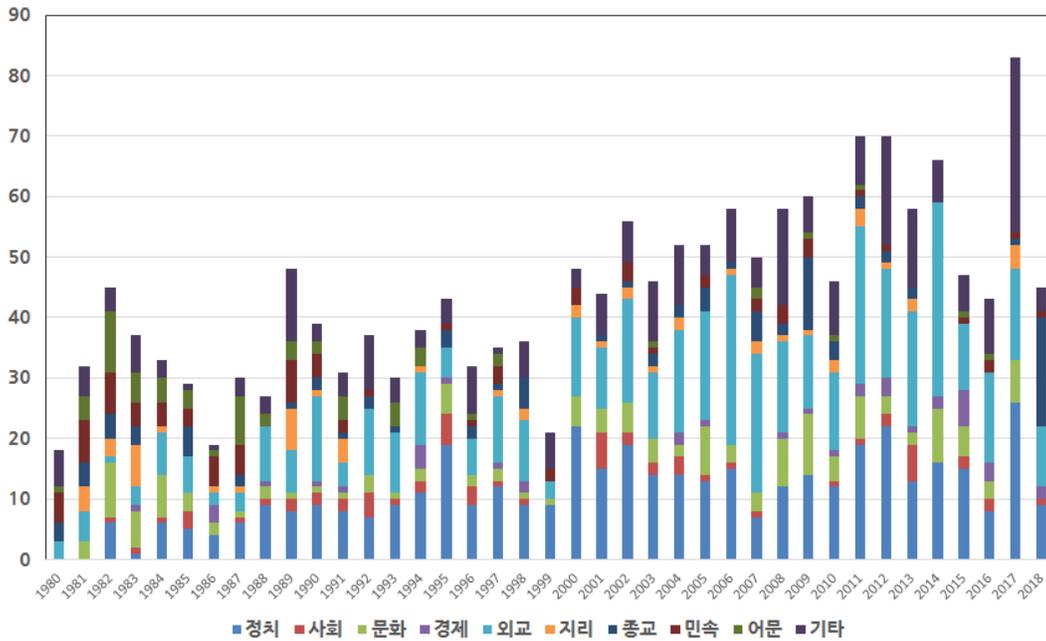


그림 3. 1980년대 이후 주제별 가야 논저목록 현황

가야사의 연구는 조선후기 18~19세기 실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진전은 광복 이후 가야사 연구의 2세대에 의해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이 성과를 정리해 보면(그림 3), 대체로 매해 20건 이상의 연구 실적이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발표 수는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7년에는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야 자료 총서』에서 정리한 자료 전체에 대해 각 분야별로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외교와 관련된 주제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정치 분야, 23%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임나일본부설과 수공업 생산기술의 전파와 같은 대외 관련 연구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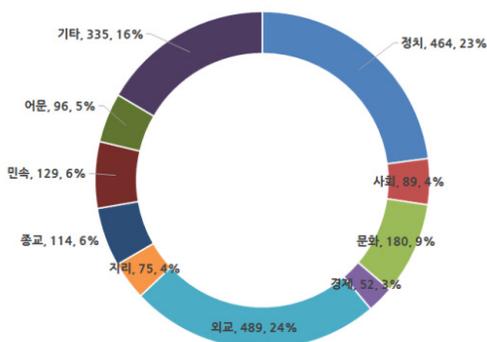


그림 4. 가야 논저목록 주제별 분포 비율

이상의 결과를 보면, 가야사 연구는 정치와 외교 분야의 연구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지리, 종교, 민속, 어문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신라, 백제와 그것과 비교하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소략한 문헌자료, 고고학적 발굴자료에 근거하여 가야사 전반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그림 5·6>과 같다. 먼저 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는 고분을 대표로 하는 무덤·제사유적을 비롯하여 정치국방, 산업생산, 교통통신, 생활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0년을 전후로 하여 대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증가 추세는 합천 옥전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김해 대성동고분군 등, 1990년대를 전후하여 가야 중심권역의 대형고분군이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는 증가 추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구제발굴조사의 증가에 따른 연구자료의 축적 결과로 보인다. 유적성격별 비율을 보면, 무덤과 제사와 관련한 연구 성과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은 순수 학술발굴조사뿐만 아니라, 주요고분군에 대한 유적정비 목적의 발굴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과 관련한 연구 성과이다. 실제 가야인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철유적, 토기 가마와 같은 생산유적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안곡산성과 같이, 가야 성곽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관방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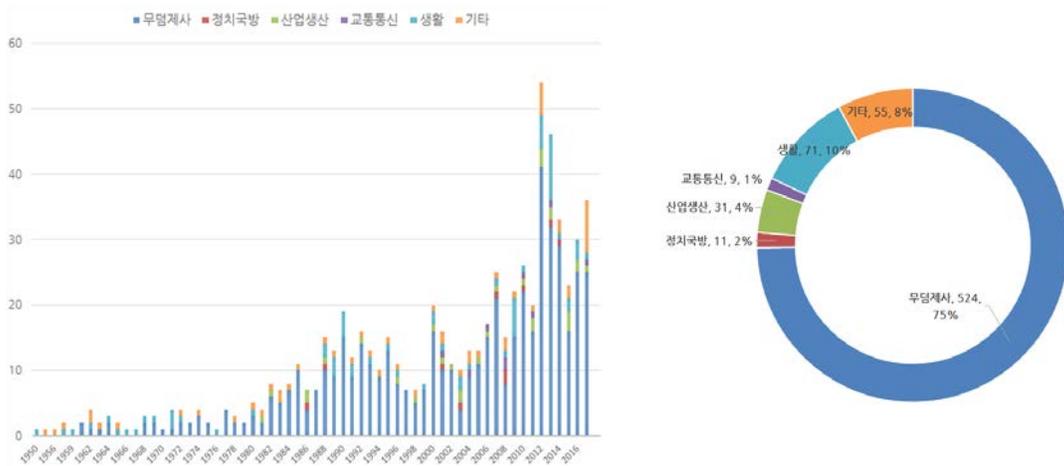


그림 5. 가야 유적 논저목록 현황

이와 같은 유적과 관련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는 고분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미 이러한 편중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고고자료 중 고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야유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최근 5년간 금관가야 핵심권역인 김해 봉황동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라가야 추정왕성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고고학적 연구 분야의 확장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그림 6>을 통해 유물과 관련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물 관련 연구도 유적과 마찬가지로, 1990년과 2010년을 전후하여 연구 성과의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한 해에 평균 30건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가야의 물질자료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분야별로 토기, 무구, 마구, 장신구, 금속기, 목기와 칠기, 유기물과 직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의 오른쪽 도표를 보면, 각 분야별 연구 비율을 볼 수 있는데, 토기 연구가 전체의 3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가야 토기는 각 국의 차별적 문화 양상과 시·공간적 범위, 기술 수준, 물자 유통체제, 기술 전파, 대외 교류 등,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룰 수 있는 고고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무구와 마구, 장신구도 토기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확장 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식에 의해 다루어졌다. 이밖에 소수이지만 목기, 직물 등과 같은 유기물에 대한 연구도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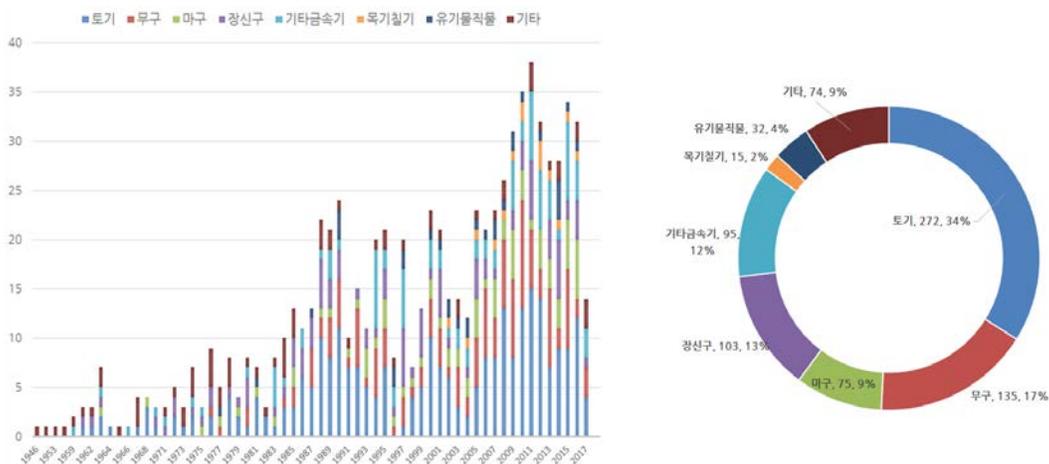


그림 6. 가야 유적 논저목록 현황

이와 같은 유적·유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가야고고학에 있어서 고분과 토기 연구의 중요성이 재차 주목된다. 연구의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와 반성도 있지만,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가야의 물질자료 특성상, 이러한 한계는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고분과 토기가 가야를 대표하는 고고 자료이고, 이것이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한다면,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재분석·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분의 경우, 정치체의 영역과 사회 구조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 자료이기 때문에 묘제 자체에 대한 연구 보다는 고분 간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역적 통합 수준과 의사결정의 집중도, 사회의 수직적 계층화와 수평적 분화 연구 등, 사회고고학적 연구를 활성화하여 문헌사료가 부족한 가야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기 연구도 그동안 집중되어 있던 형식학적 방법에 의한 분류와

편년 연구에서 벗어나, 다변량분석, 공간분석과 같은 통계학·GIS를 활용한 시·공간적 전개 양상의 재고찰, 생산과 유통체계의 과학적 복원 등, 새로운 접근법과 시각에서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료의 분석방법의 다변화가 아니라, 고고학적 현상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혀 가야사를 재조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학술지에서 보이는 가야사와 가야고고학 연구 동향

『가야 자료 총서』를 준비하며 집성한 자료 가운데 1970년 이후 학술지에 발표된 가야사·가야고고학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모두 510건이다. 이 가운데 역사학 연구 성과는 270건, 고고학은 240건이다. 이 두 분야의 성과 비교는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가야’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역사학과 고고학에서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상호 활용을 통해 가야사를 복원·이해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같은 시기에 동일 주제를 대상으로 양측의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발표 건수의 단순 비교를 통해 두 분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7>은 앞서 제시한 510건의 학술지 발표 자료를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17년까지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연구 건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문헌사학의 연구 현황을 보면,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매년 1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가장 많은 성과가 제시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1970년 이후 학술지 발표 건수를 대상으로 한 문헌사학의 40년 추세를 보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가야사 연구의 진전이 다소 정지된 느낌이고, 과속으로 달려 온 것에 대한 그늘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야사 연구가 양질의 두 측면에서 활기를 잃어버리고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⁸⁾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야사 연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의 학술지 발표논문 72건의 연구 주제를 보면, 임나일본부와 관련한 논문이 28건에 해당하여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대외관계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신라, 백제 등과의 대외관계사의 연구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문헌자료가 전경 기사를 중심으로 기술된 영향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야고고학의 경우에는 <그림 7>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1980년부터 2007년까지는 문헌사 연구가 고고학적 연구를 앞서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후부터는 고고학 논문 수가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과 2010년 전후의 연구 성과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90년을 전후한 주요 고분군의 발굴조사와 2000년 이후의 건설공사에 따른 구제발굴조사의 증가에 따라 자료가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림 5·6>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실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 성과가 급증한 결과가 이를 반증해 준다.

7) 이영식, 2017, 「가야사의 문헌사적 연구 현황과 과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현황과 과제.

8) 주보돈, 2017,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進展을 위한 提言」, 『韓國古代史研究』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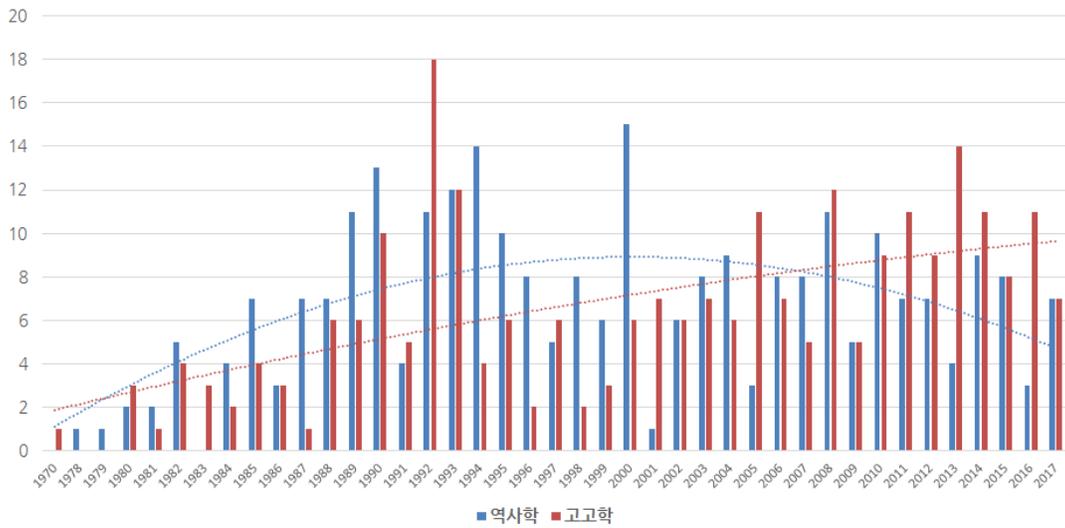


그림 7. 학술지 발표 가야 관련 연구 현황

IV. 학위논문을 통해 본 연구자 현황

학술지와 함께 학위논문은 연구자의 양성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우선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을 전공한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 현황을 정리해 보면,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석사학위논문은 1961년 전길희의 「가야묘제의 연구」이며, 1983년 권학수 「고고학에서 본 가야사회의 고찰」, 김세기 「가야지역 수혈식묘제의 연구」, 이영식 「가야제국의 국가형성 문제-가야연맹체설의 재검토와 전쟁기사분석을 중심으로-」의 학위논문을 시작으로 가야사, 가야고고학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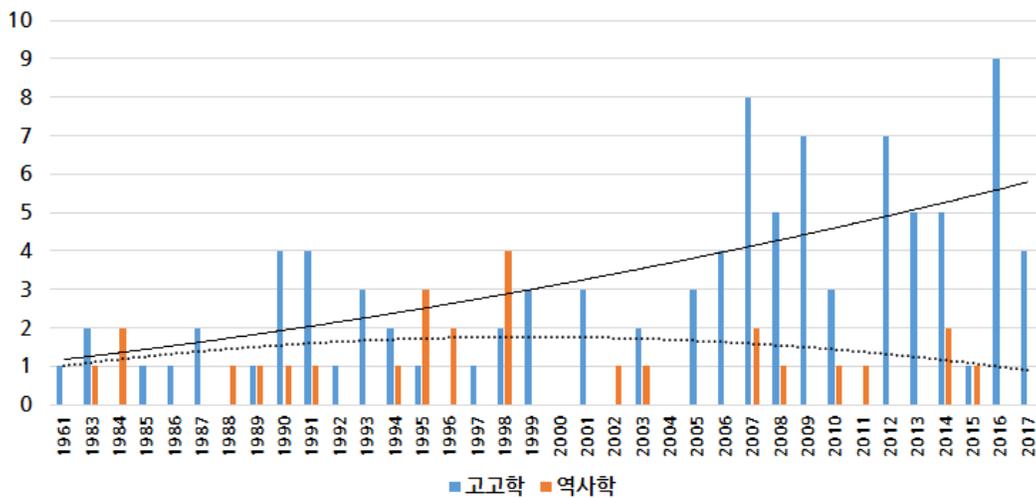


그림 8. 가야사·가야고고학 전공 학위(석사·박사)취득자 현황

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현재까지 가야고고학 전공자는 95명, 가야사 전공자는 27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림 8>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두 분야 간 전공자 수의 차는 크게 벌어져 가야고고학 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상을 보인다. 특히, 최근 10년간 가야사 전공자는 6명에 불과하고, 20년 이내에 석사에서 박사로 이어진 경우는 2명에 지나지 않아 가야사 연구의 현주소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것은 한정된 가야 관련 문헌사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자 자료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기존 사료의 재해석과 고고자료에 대한 문헌사적 이해, 대외 관련 사료의 복합적 연구 방법 등의 제시를 통해 후학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야고고학 분야에서도 한계가 보인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사학위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박사학위논문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가야고고학에서 2010년 이후, 발굴조사의 축적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초적인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고 해석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는 미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석사학위논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묘제와 토기, 철기 등 유물 자체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여 고고학 연구도 전통고고학의 늪에 빠져 있는 듯한 인상이 든다. 이것은 고고학 분야에서도 더 이상 진전된 연구 성과와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연구 영역의 확대와 새로운 연구 방법의 도입을 기대해 본다.

V. 학술행사 현황

가야사와 관련한 학술행사는 1981년 제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가야문화연구의 제문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2건이 개최되었다. <그림 9>의 개최 건 수로 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하여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012년은 경상남도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을 본격화한 해이며,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도가 2000년대 초반 정착되는 시점에서 확인된다.

학술행사의 주체는 <그림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회나 대학에서 순수 학술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전체의 53%가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행사이므로, 사실상 최근의 학술행사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학술행사 개최는 가야사 연구를 적극 독려하고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가야문화권 내 지역 주민들이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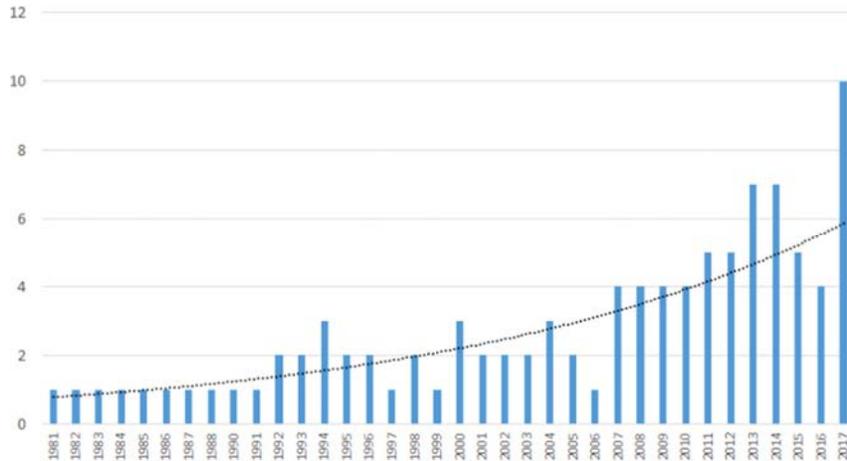


그림 9. 가야 관련 학술행사의 연도별 개최 건수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적인 후원은 그들의 요구에 맞춘 역사 해석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할 우려가 있으며, 지자체가 의도한 목표가 달성되면 연구 활성화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자체가 주도해 왔던 학술행사는 가야사 연구의 진전과 가야사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김해, 함안, 고령에서 매년 개최되는 학술심포지엄은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야사의 특수성과 부합되어 가야 각 국의 역사적·문화적 실체를 규명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자체의 후원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지만, 지자체의 직접적인 개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주제와 발표자 선정 과정에서 학계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자체 주도의 문제점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과 관련한 사례를 보면, 오히려 기존 연구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자료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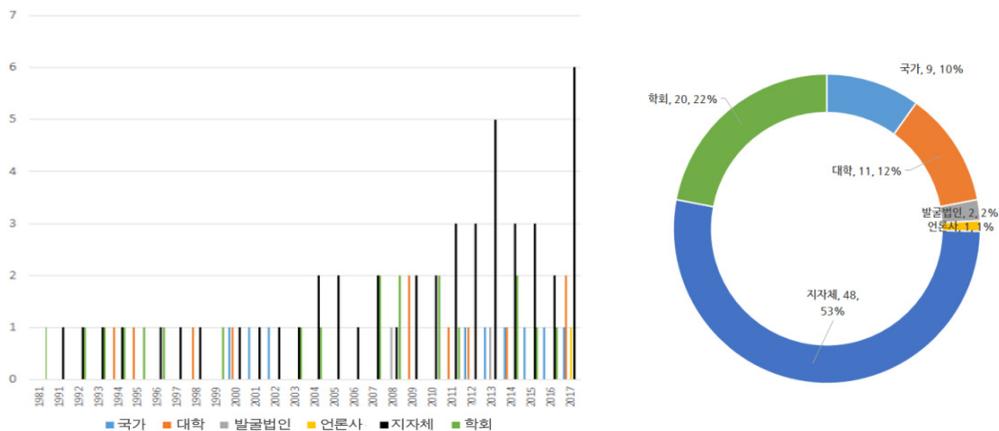


그림 10. 가야 관련 학술행사 주최별 현황

9) 주보돈, 앞의 논문

VI. 맺음말

본 발표에서는 『가야 자료 총서』 발간을 준비하며 집성한 자료를 대상으로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가야사와 관련한 자료를 12개 주제로 구분하면, 정치, 외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 지리, 종교 등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가야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가야 관련 문헌사료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연구 성과의 축적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쟁기사가 주를 이루는 문헌사료의 특성상 정치·외교 분야에 역사학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고고학적 연구에서도 묘제나 형식 분류, 편년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도별 논문 수와 연구 주제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문헌사학에서는 2010년을 전후하여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것은 사료가 한정되어 있는 가야사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여러 선학들이 지적했듯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난 사료의 재검토와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야고고학도 마찬가지로, 비록 발굴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으로 연구 대상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고고학적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이론적 배경을 새롭게 세우고, 보다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나치게 물질자료 자체에 천착한 경향이 있으나, 사회고고학적 시각에서 연구의 폭을 넓혀 가야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학술 자료를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그동안 개최되었던 학술행사를 살펴보면, 학회와 대학에서 주최하는 경우도 상당 수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후원하거나 학계와 공동주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학문적 행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가야사 연구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으로 학술행사가 양적·질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발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기존과 차별화된 가야사 연구를 유도하고, 인적 기반을 확장하여 한국고대사 속에서 가야사가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정립하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이영식, 2017, 「가야사의 문헌사적 연구 현황과 과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현황과 과제』.
주보돈, 2017,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進展을 위한 提言」, 『韓國古代史研究』85.



진·변한 사회와 가야의 기원



박 대 재 | 고려대학교

진·변한 사회와 가야의 기원

박 대 재 | 고려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弁辰과 弁韓
- III. 弁辰과 辰韓의 구분
- IV. 弁辰의 大國과 任那加羅
- V. 맺음말

I. 머리말

신라가 진한의 斯盧國에서, 백제가 마한의 伯濟國에서 기원하였듯이, 가야 역시 변한(변진)의 狗邪國에서 기원했다. 사료에서 신라로, 백제에서 백제로의 변화처럼 구야에서 가야(加羅, 駕洛, 加良)¹⁾로의 전환 역시 借字表記의 변화일 뿐이며 그 실체는 하나라고 이해된다.

지역사 관점에서는 3세기까지 삼한 각 지역의 역사를 신라사와 가야사 등의 前史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한국사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 시기 역시 신라, 가야가 성립한 초기사로서 다루어야 한다. 즉 정확한 건국 연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신라는 혁거세의 徐那伐(徐羅伐, 斯盧國)에서, 가야는 수로의 駕洛國(구야국)에서 출발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사료국과 구야국이 각각 진한과 변한의 1국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관점에서 바로 본 것이며, 사료국과 구야국이 3세기 후반까지 1개 小國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한 시기는 넓게 보아 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 좁게 보아 기원전 1세기~기원후 3세기로 이해된다.²⁾ 이 시기 동안 사료국이나 구야국이 계속 1개 소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면,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계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삼한의 諸國이 일시적으로 소국연맹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을

1) 사료에 보이는 가야 표기를 편찬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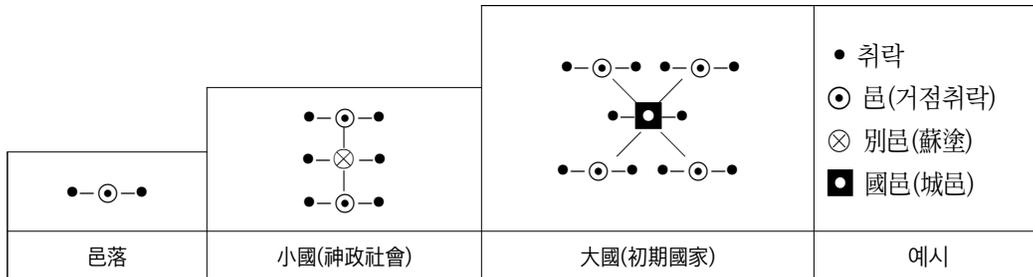
3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狗(拘)邪	加羅	加羅	伽羅 迦羅	加羅	伽耶	駕洛 伽耶	加耶 加羅 加良	伽耶 呵囉
三國志	廣開土王碑 宋書	南齊書	梁書 隋書	日本書紀	釋利貞傳 (輿地勝覽)	駕洛國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2) 박대재, 2017, 「삼한시기 논쟁의 맥락과 접점」, 『韓國古代史研究』 87, pp.6~44.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시적인 국가의 형성·발전 과정에서 보면 삼한 시기는 사로국, 백제국, 구야국이 小國에서 大國으로 성장해가던 시기였다. 부여나 고구려가 단일한 國을 이루고 있던 것과 달리, 삼한(韓國)은 70여 개의 諸國들이 복합되어 있던 중층적인 구조였다. 『삼국지』 동이전에 따르면 삼한의 국에는 대국과 소국의 구분이 있었고, 인구 규모에서 크기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대국과 소국의 거수는 각각 신지와 읍차로 구분되기도 했다.

그동안 國邑을 삼한 諸小國의 중심읍락으로 이해했지만, 국읍과 別邑에 대한 용례 검토를 통해 볼 때 국읍은 인구가 밀집 분포하던 대국의 중심지로 國中에 성곽(성책)을 갖추고 있던 城邑이며, 소국의 제의적 중심지인 별읍(蘇塗)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던 지역 諸國의 중심지로 이해된다. 삼한의 읍락사회는 소국을 거쳐 대국으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국은 제정일치 단계의 복합사회로, 대국은 초기 국가로 발전한 단계로 비정할 수 있다.³⁾



〈삼한사회의 구조와 발전과정〉

진·변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은 이미 선행 연구⁴⁾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급적 할애하고, 변한(변진)과 진한의 구분 문제, 변진의 구야국이 가야의 중심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⁵⁾

3) 박대재, 2018, 「삼한의 '國邑'에 대한 재인식」, 『韓國古代史研究』 91, pp.6-40.
 4)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白承忠, 1995, 「弁韓의 成立과 發展」 『三韓의 社會와 文化』(韓國古代史研究 10).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文昌魯, 2000,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노중국·권주현·김세기·이명식·이형우·이희준·주보돈, 2002,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李在賢, 2003, 「弁韓社會의 形成과 發展」,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박대재, 2006, 「삼한의 기원과 국가형성」 『한국고대사입문』 1, 신서원.
 5) 변한과 가야의 관계 및 시기구분에 대한 연구사 검토는 문창로, 2018, 「'변한과 가야' 연구의 동향과 과제」, 『韓國古代史研究』 89, pp.41-91쪽 참조.

II. 弁辰과 弁韓

삼한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기록은 3세기 후반에 편찬된 陳壽(233~297)의 『삼국지』 동이전이다. 동이전의 韓조에는 마한, 진한, 변한(변진)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변한은 기록에 따라 변진으로도 보이는데, 동이전의 서두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 등으로 기록했으나, 그 뒤의 기록에서는 모두 ‘변진’이라고 표기하여 차이가 난다. 특히 진·변한 24국의 이름을 기록한 부분에서는 변진미리미동국, 변진접도국 등과 같이 국명 앞에 변진을 붙여 진한의 국명과 구별했다. 일반적으로는 변진보다 변한의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삼국지』 뿐만 아니라 『魏略』 『후한서』 등의 기록에선 변진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다.

- A-1. 魏略曰 韓在帶方南 東西以海爲限 地方四千里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辰韓古之辰國也(『翰苑』 蕃夷部 三韓)
2.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三國志』 東夷傳 韓)
3.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桀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祗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勤耆國 難彌離彌凍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冉奚國 弁辰半路國 弁辰樂奴國 軍彌國 (弁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如湛國 弁辰甘路國 戶路國 州鮮國 (馬延國)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馬延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由國 弁辰韓合二十四國 …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其人形皆大 衣服潔清長髮 亦作廣幅細布 法俗特嚴峻(『三國志』 東夷傳 韓)
4.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有十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施竈皆在戶西 其瀆盧國與倭接界(『後漢書』 東夷列傳 韓)
5. 韓種有三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在帶方南 東西以海爲限 …又有弁辰亦十二國(『晉書』 東夷傳 韓)

3세기 중엽 편찬된 魚豢의 『위략』이 『삼국지』 동이전의 저본이 되었으며, 또한 5세기 전반 편찬된 范曄(393~445)의 『후한서』 동이열전이 『삼국지』를 참고하여 약간의 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친 것임도 주지의 사실이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삼국지』의 서두(A-2)에서만 ‘변한’으로 보이고, 『위략』(A-1)과 『후한서』(A-4)에서는 모두 ‘변진’으로 기록되었다. 『삼국지』 내에서도 한전의 후반부(A-3)에서는 모두 변진으로 표기하고 있다. 『삼국지』를 참고한 『진서』 한전에서는 변한과 변진을 혼용하고 있다.

『위략』에서는 마한, 진한, 변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참고한 『삼국지』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표기했다. 그리고 『삼국지』를 참고한 『후한서』에서는 다시 마한, 진한, 변진이라고 했다. 『삼국지』에서

6)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一潮閣.

변한이라고 표기한 것은 “韓…有三種”이라는 기록과 호응하여, 변진을 변한으로 바꾸어 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변진이 본래 명칭이었으며, 변한은 마한·진한과 짝하기 위해 맞춘 별칭임을 시사해준다. 또한 『삼국지』 기록(A-3)에서 진한과 변진의 국호를 열거한 후 “弁辰韓合24國”이라고 한 데서, 진한과 변한을 합칭할 때 ‘진변한’이 아니라 ‘변진한’이라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이전 서두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의 순서였지만, 진한과 변한을 합칭할 때는 변한을 진한보다 먼저 부른 것이다. 진한과 변한을 합해 부를 때는 진·변한이 아니라 변·진한이라 불러야 사료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삼한’이란 용어는 240년대 편찬된 孫吳 謝承의 『후한서』 동이열전에서 처음 보인다. 현재 사승의 『후한서』는 산일되어 전하지 않지만 그 일문이 『太平御覽』에 인용되어 전한다. 그에 따르면 동이 삼한에서는 臘日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여기에 보이는 삼한에 대한 정보는 손오가 요동 공손씨 정권과 교통하며 얻은 정보에 의한 것이라 추정된다.⁷⁾

사승의 『후한서』에 이미 삼한 용어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변진 외에 변한도 일찍부터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裴松之(372~451)의 『三國志注』에 인용된 『위략』 일문의 廉斯鑑 관련 기사에서도 “弁韓布”가 확인된다. 『위략』에서도 변한과 변진이 혼용된 것이다.

그런데 마한, 진한과 짝해 변한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굳이 ‘변진’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보았듯이 ‘변진’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변한은 『삼국지』와 『진서』에서만 나타난다. 이 문제를 『삼국지』와 전후 다른 사서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진서』 동이전(A-5)에서 “辰韓在帶方南 東西以海爲限弁韓”의 ‘辰韓’은 ‘韓’의 오류이다. 『삼국지』(A-2)의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을 잘못 옮긴 것이다. 왜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일까? 짐작컨대 A-5에서 앞의 변한 쪽에 들어가야 할 ‘진’자가 뒤 쪽에 잘못 들어간 것이다. 즉 “三曰弁辰韓 韓在帶方南”이 원래 기록인데, 전사 과정에서 ‘辰’자가 뒤의 ‘韓’자에 잘못 붙어 ‘辰韓’이 된 것이다. 宋代 이전 寫本에서 이런 글자의 착종은 자주 일어난다.

『진서』에서 弁辰의 ‘辰’자가 뒤의 ‘韓’에 잘못 붙어 ‘辰韓’이 된 사례를 참고하면, 『삼국지』의 ‘弁韓’ 기록도 원래는 ‘弁辰韓’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A-2에서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라 되어 있지만, 원래는 “三曰弁辰韓 韓者 古之辰國也”라고 해야 할 것을 ‘辰’자를 뒤의 ‘韓’자에 잘못 붙여 기록한 것이다.

『삼국지』 한전이 『위략』을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진과 변한의 표기에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보았다. 필사본 『翰苑』의 주에 인용된 『위략』 일문에서는 “三曰弁辰 韓古之辰國也”으로 보인다. ‘은’ 필사본에서 앞에 나온 글자가 다시 나올 때 쓰는 표기이다.

현재 전하는 필사본 『한원』은 일본 후쿠오카 大宰府 天滿宮에 전래된 잔본으로,⁸⁾ 여기서만 『위략』 한전의 서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필사본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원』의 기록을 통해 『위략』의 원문을 추정하곤 한다.

7) 박대재, 2009, 「謝承 『後漢書』 東夷列傳에 대한 예비적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55.

8) 『翰苑』에 대한 해제는 湯淺幸孫, 1978, 「國寶 『翰苑』について-銷夏玩物小誌-」,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18, pp.1~6 참조.

하지만 필사본이기 때문에 『한원』 잔본에는 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고구려)조의 시조 주몽에 대한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 B-1. 魏收魏後漢書曰 高句驪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 蒙母河伯女 夫餘王閉於室中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 既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翰苑』 蕃夷部 高麗)
2. 高句麗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 朱蒙母河伯女 爲夫餘王閉於室中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 既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魏書』 列傳 高句麗)

B-1은 魏收(506-572)의 『後魏書』 고구려전 기록을 인용한 것인데, “魏後漢書”는 “後魏書”의 오류이다.⁹⁾ 후대 필사 과정에서 ‘漢’자가 잘못 들어간 것이다.

현재 전하는 위수의 『위서』(후위서, 북위서) 원문과 비교해 보면, ‘朱蒙’기록에도 착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朱蒙母河伯女”라고 해야 할 부분을 “朱蒙母河伯女”라고 잘못 기록한 것이다. 蒙과 母의 순서가 바뀌어 결과적으로 “朱朱蒙”이 되었다. 현존 필사본 『한원』에는 이처럼 기록이 도치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런 필사본의 오류를 감안하면, A-1 “三曰弁辰 韓古之辰國也”의 기록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辰과 韓의 위치가 바뀌어, “三曰弁辰韓 古之辰國也”가 원래 기록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위략』을 참고한 『삼국지』에서 ‘변진한’을 ‘변한’이라고 표기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辰을 뒤로 붙여 辰韓이 辰國의 후신인 것으로 기록한 것은 후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진한이 옛날 진국이라는 기록은 『삼국지』 한전의 서두(A-2)에서만 보인다. 범엽의 『후한서』에서는 삼한이 모두 진국의 후신(皆古之辰國也)이라고 하였으며, 『진서』에서는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韓이 辰國의 후신이란 표현(韓者古之辰國)은 진국과 한의 선후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 진국을 한(삼한)보다 앞서 있던 존재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¹⁰⁾

사실 『삼국지』의 진한 관련 기록에서도 진한의 기원을 秦始皇의 苦役을 피해 韓國으로 망명해 온 秦人들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앞의 “古之辰國” 기록과 서로 모순된다. 진국은 『사기』·『한서』 조선전에 보이듯이,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조선 남쪽에 있었던 토착세력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물론 秦의 망인들이 와 진한을 세웠다고 한 『삼국지』 기록은 중화주의적 화이론에서 나온 부회이다.¹¹⁾ 기원전 3세기의 秦과 기원전 1세기에 성립된 辰韓 사이에 시기차가 클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秦의 망인과 진한을 바로 연결해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같은 『삼국지』 기록에서 진한의 기원을 앞에서는 진국으로, 뒤에서는 秦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삼국지』 한전 서두의 “辰韓者古之辰國也”가 착종된 기록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진수가 진한과 진국이 모두 ‘辰’자를 공통으로 쓴다는 데 현혹되어 양자를 잘못 연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¹²⁾ 이 기록 자체에 착종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9) 湯淺幸孫, 1983, 『翰苑校釋』, 國書刊行會, p.67.
 10) 李賢惠, 1984, 앞의 책 및 權五榮, 1996, 앞의 논문.
 11) 박대재, 2005,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韓國學報』 119.
 12)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변한’보다 ‘변진’ 또는 ‘변진한’이 더 원래 기록에 가깝다고 이해된다. 마한의 ‘日支國’도 『위략』과 『후한서』에 보이는 표기로, 『삼국지』에는 ‘月支國’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지국이라 부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변한보다는 변진 또는 변진한이 더 원형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Ⅲ. 弁辰과 辰韓의 구분

‘辰’자를 넣어 변진 또는 변진한이라고 부른 것은 이들이 진한과 일정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삼국지』 국명 기록(A-2)에서 변진과 진한의 국이 혼재되어 보이고, 또 변진이 진한과 더불어 ‘雜居’했다는 것도 양자의 관련성을 시사해준다.

변진과 진한은 의복, 거처, 언어, 법속 등에서도 같거나 유사했다. 다만 귀신 제사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귀신 제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변진과 진한이 종족적으로 서로 다른 조상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삼국지』에서 진한인들은 원래 秦 망인 출신으로 낙랑인들을 ‘阿殘’이라고 부르는 등 중국계 유이민으로 나타난다. 진한의 언어와 문물이 秦人和 유사했고, 그래서 ‘秦韓’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중화주의적 화이론에서 나온 부회이지만, 진한인들이 낙랑과 관련 있는 유이민이라는 것은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서두의 朝鮮遺民들이 산곡간에 나누어 살며 진한 6部(村)를 이루었다는 기록은, 진한의 성립이 조선유민 즉 낙랑지역 주민과 같은 계통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위만조선에는 위만을 비롯한 전국계 유민들이 들어와 있었으며, 조선의 유민들은 다시 진한 고지로 남하한 것이다. 최치원이 “진한은 본디 燕나라 사람들로 피난해 온 자들”이라고 한 것도,¹³⁾ 위만조선의 유민이 진한의 기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위만조선을 거쳐 온 중국계 유민들이 진한의 성립에 기여하게 되면서, 秦의 고역을 피해 망인들이 진한을 세웠다고 하는 식의 함축적 전승이 생겨난 것이라고 이해된다.¹⁴⁾

『삼국지』에는 진한과 변진의 기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마한, 진한, 변한(변진)이 한의 ‘3種’이라고 한 것으로 이들이 서로 구분된 사회였던 것도 분명하다. ‘종’이라는 표현에서 진한, 변진의 구분이 일차적으로 종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夫餘別種’(고구려), ‘句麗別種’(小水貊), ‘句麗同種’(濊) 등으로 종족과 관련된 種의 표현이 자주 보인다. 특히 아래에서 보듯이 濊와 倭의 정체성을 ‘種’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13) 『三國遺事』卷1, 紀異 辰韓.

14) 박대재, 2006, 「辰韓의 왕과 諸國 복속 전쟁」,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p.162.

- C-1. 自單單大山嶺以西屬樂浪 自嶺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為民 後省都尉 封其渠帥為侯 今不耐濊皆其種也(『三國志』東夷傳 濊)
2. 女王國東渡海千餘里 復有國 皆倭種(『三國志』東夷傳 倭人)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한의 3종 역시 일단 종족적 구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삼국지』에서 종이 반드시 종족 구분으로만 쓰인 것은 아니다. 『삼국지』의 烏丸 3種에 대한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 D. 夏四月 至鄴 五月丙申 天子使御史大夫郗慮持節策命公為魏公曰 … 烏丸三種 崇亂二世 袁尚因之 逼據塞北 東馬縣車 一征而滅 此又君之功也(『三國志』魏書 武帝紀 建安 18年)

후한 建安 18년(213) 曹操가 郗慮를 魏公에 봉하며 그의 공적을 칭송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 烏丸 3種은 “三郡烏丸”을 가리킨다.¹⁵⁾ 3군 오환은 『資治通鑑』의 胡三省 注에 따르면, 蹋頓이 이끄는 遼西烏丸, 蘇僕延이 이끄는 遼東烏丸, 烏延이 이끄는 右北平烏丸을 지칭한다.¹⁶⁾ 후한 말기의 三郡烏丸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 오환전에도 아래와 같이 보인다.

- E. (후)한 말기에 遼西烏丸 大人 丘力居가 무리 5천여 落을 거느렸고, 上谷烏丸 大人 難樓는 무리 9천여 落을 통솔하며, 각각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 遼東屬國烏丸 大人 蘇僕延은 무리 천여 落을 거느리고 스스로 峭王이라 칭했다. 右北平烏丸 大人 烏延은 무리 8백여 落을 거느리고 스스로 汗魯王이라 칭했다. 이들은 모두 계책이 있었으며 용건했다. 中山太守 張純이 배반하여 구력거의 무리 속으로 들어간 후 스스로 彌天安定王이라 칭하고 3郡烏丸의 원수가 되었다. 青州, 徐州, 幽州, 冀州 4주를 침략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이고 붙잡아갔다. 靈帝 말년에 劉虞를 幽州牧으로 임명하여, 胡를 불러 모아 (장)純의 머리를 참하니, 북방이 안정되었다. 후에 구력거가 죽고 아들 樓班이 나이가 어리자 조카 蹋頓이 무예와 지략이 있어 대신 즉위하여 3王部를 모두 거느리니, 무리들은 모두 그의 교령을 따랐다. 袁紹와 公孫瓚이 계속 싸웠으나 승패를 가리지 못하자, 답돈은 사신을 원소에게 보내 화친을 구하고, 원소를 도와 공손찬을 공격했다. 원소는 制를 위조해 답돈, 초왕, 한로왕에게 인수를 하사하고, 모두 單于로 삼았다.(『삼국지』 오환전)¹⁷⁾

오환 3종은 바로 위 기록에서 원소가 單于로 봉했던 요서오환 선우 답돈, 요동오환 선우(초왕) 소복연, 우북평오환 선우(한로왕) 오연을 가리킨다. 이처럼 후한 말기에 오환을 3종으로 구분한 것은 종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정치적 통속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烏丸 3종을 ‘三郡烏丸’¹⁸⁾이라고 달리 표현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韓의 3종도 烏丸 3종과 비슷하게 지역적, 정치적 구분이 반영된 분류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한인 대부분이 토착인임에 비해 진한에는 조선계 유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마한은 서쪽에, 진한은 동쪽

15) 盧弼, 1936, 『三國志集解』 卷1, 93頁; 2006, 中華書局, p.47.

16) 『資治通鑑』 卷64, 漢紀 獻帝 建安 10年, “三郡烏桓攻鮮于輔於獫狁[三郡烏桓 遼西蹋頓 遼東蘇僕延 右北平烏延也 獫狁縣 屬漁陽郡].”

17) 원문 및 주석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4』 三國志·晉書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pp.49~51 참조.

18) 『三國志』 卷1, 魏書 武帝紀 建安 12年조에서도 ‘三郡烏丸’ 기록이 보인다.

에 있어, 양자는 종족적·지역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았다. 반면에 변진과 진한은 지역적으로 잡거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구분보다는 정치적 구분이 더 우선했을 것이다.

변진과 진한은 귀신제사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의식주, 언어, 법속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했다고 한 것을 보면, 서로 다른 계통의 종족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한과 변진이 문화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은 양자가 종족적으로 동일 계통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준다. 물론 진한에는 변한에 비해 조선계 유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민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구성의 차이를 근거로 변진한 24국을 진한과 변진으로 양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 좁게(납작하게) 했다는 扁頭 풍속을 진한 쪽에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편두 문화는 변진 구야국(가야) 지역인 김해 예안리 목곽묘 출토 인골에서 확인된 바 있다.¹⁹⁾ 『삼국지』 기록의 오류라기보다 다른 의식주 문화와 마찬가지로 변진과 진한이 모두 편두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변진과 진한으로 ‘辰’자가 공통되는 것도 양자의 종족적 친연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변진과 진한은 정치적 통속관계의 구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삼국지』에는 변진한 24국명 기록(A-3) 뒤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어진다.

F. 弁辰韓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三國志』東夷傳 韓)

위 기록에 보이는 辰王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진왕이 원래 삼한의 총왕이었다가 후한 무렵 변진의 일부 세력(12국)이 진왕과의 부용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진왕을 辰·馬(목지국)의 진왕이라고 보고 거기에 속해 있던 12국은 진왕과의 부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진한의 세력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A-2에서 변진을 관칭한 12국(13국)이 바로 진왕의 소속에서 이탈한 변진의 일부 세력이라고 본다.²⁰⁾ 이에 따르면 국명 위에 변진의 관칭 여부는 단지 목지국의 진왕에 대한 소속 여부를 표시한 정치적 구별에 불과하고, 어떤 지연적·종족적 구별의 표시는 아니며, 이들 20여 국은 모두 弁辰 종족에 속한 동일지역(영남지역)의 문화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진한을 영남지역이 아니라 경기지역에 비정하고, 영남지역 전체를 변진(변한)의 지역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진한과 변한의 위치는 17세기 韓百謙의 『동국지리지』 이래로 영남지역의 좌우에 비정해 온 것이 종래의 통설이기 때문이다.²¹⁾

그렇지만 변진의 관칭 구분을 정치적 소속 관계의 차이로 파악한 것에는 시사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적, 종족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24국 가운데 12국에만 변진을 붙인 것과 12국이 진왕에게 속했던 사실을 유기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변진한 24국 가운데 진왕에게 속한 12국과 그렇지 않은 12국으로 양분하고, 후자에게만 변진을 붙여 구분했다고 보는 것이다.

19) 金廷鶴, 1981, 「金海 禮安里 85號墳出土 扁頭骨에 대하여-魏志 韓傳의 扁頭記事와 관련하여-」, 『韓治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釜山大學校 博物館, 1993, 『金海 禮安里古墳群Ⅱ』.

20) 李丙燾, 1976, 앞의 책, pp.270-271.

21) 金貞培, 1968, 「三韓位置에 대한 從來說과 文化性格의 檢討」, 『史學研究』20.

진왕에 속하지 않은 12국이 바로 변진 12국이라는 것은 A-2 기록 후반부에 “12국에도 또한 왕이 있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 12국은 문맥으로 보아 변진의 12국임이 분명하다. 변진 12국 각각에 왕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수 내지 1인의 왕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진왕과 구분되는 별도의 왕이 변진 12국에도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따라서 진왕에게 속해 있었다고 한 12국은 진한의 12국이며, 나머지 12국은 변진의 왕에게 속해 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기준에도 진왕에의 소속 여부를 진·변한의 구분 근거로 주목해 본 시각이 있었다.²²⁾ 『삼국지』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기록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12국을 통속한 진왕을 마한 목지국의 진왕과 별개로 보고 이를 경상도지역의 세력 중심체(사로국왕)로 간주한 전제²³⁾ 위에서, 진왕 소속 12국을 3세기 경 사로국의 세력권 내에 소속된 진한연맹체의 소국들로 이해하고 나머지 12국을 변한으로 구분해 본 것이다.

위 기록에서 진왕이 마한인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변진한의 진왕은 마한 목지국의 진왕과는 구별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목지국의 진왕과 동일한 존재였다면 여기서 진왕이 마한인이라는 기록은 불필요한 것이다. 배송지가 이 기록과 관련해 『魏略』의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를 주로 붙여놓은 것을 보아도, 여기서 진왕은 유이민인 진한을 통속하는 진왕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삼국지』를 참고한 『梁書』에서 위 기록의 ‘진왕’이 ‘辰韓王’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12국이 속해 있던 진왕은 진한왕 즉 사로국왕이며 12국은 진한 소속의 諸國들이었다고 이해된다.²⁴⁾

『삼국지』 오환전에서 오환 3종을 정치적 통속 관계로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3한 역시 마한, 진한, 변한에 각각 중심이 되는 왕이 있어서 3종으로 구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마한의 진왕이 마한 50여 국을 모두 통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²⁵⁾ 변진 12국의 왕 역시 1인의 총왕이었던지 각국의 왕인지 명확하지 않지만,²⁶⁾ 삼한에 각각 왕이라고 칭하는 존재(목지국 진왕, 사로국 진왕, 변진의 왕)가 있었던 사실은 주목해 볼 만하다.

요컨대 진한(12국)은 진왕(진한 사로국왕)에게 속해 있었고, 변진(12국)은 진왕에게 속해 있지 않고 변진의 왕에게 속해 있던 사회라고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한 역시 50여 국 전체를 통속하지는 못했지만 목지국에 치소를 두고 있던 진왕이 마한의 중심세력이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마한 전체를 대표하는 마한왕은 280년대 전후의 상황을 기록한 『진서』 동이전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 『진서』에서는 진한왕이 쥘 武帝에게 조공한 기록도 확인된다. 3세기 후반 마한과 진한은 각각 마한왕과 진한왕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보이는 것이다.

『삼국지』에서는 삼한이 3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사회로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진수가 『삼국지』를 편찬한 280년대에 바로 마한왕과 진한왕이 보낸 사신이 쥘에 입조했다는 점에 착안하면, 『삼국지』의 삼한 역시 오환 3종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복속관계에 의한 구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변진의 입조기록이 『진서』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22)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1, p.160.

23) 千寬宇, 1976, 「『三國志』 韓傳의 再檢討」, 『震檀學報』41, p.27.

24) 박대재, 2006, 앞의 책, pp.164-172.

25) 박대재, 2002, 「『三國志』 韓傳의 辰王에 대한 재인식」, 『韓國古代史研究』26.

26) 박대재, 2006, 「弁韓의 王과 狗邪國」, 『韓國史學報』26.

IV. 弁辰의 大國과 任那加羅

1. 狗邪國과 安邪國

변진의 12국 가운데 구야국과 안야국이 다른 諸國들보다 우월한 大國의 규모였다는 것은 아래 기록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G. 臣智 가운데 혹 더 우대해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臣雲遣支報, 安邪馭支, 漬臣離兒不例, 拘邪秦支廉의 호칭이다.²⁷⁾

이 기록은 난해한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체로 마한 臣雲新國, 변한 安邪國, 마한 臣漬活國(臣漬活國), 변한 拘(狗)邪國의 수장(臣智)들을 다른 諸國의 수장들보다 우대해 부른 호칭이라고 풀이된다.²⁸⁾ 여기서 거론된 함안의 안야국과 김해의 구야국이 바로 변한의 대표적인 大國으로 이해된다.²⁹⁾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浦上 8국이 연합하여 공격한 國에 대해, 기록에 따라 ‘加羅’와 ‘阿羅’로 다르게 보이고 있어, 3세기 당시 2국의 지위는 변한의 다른 소국보다 우위에 있던 양대 세력이었음이 시사된다.

구야국과 안야국 가운데 어느 쪽이 우위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포상 8국의 침공 대상이 김해의 가야(가라)라고 보는 설이 조금 우세한 듯하지만,³⁰⁾ 함안의 아라(안야국)라고 보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³¹⁾ 구야국이나 안야국 모두 大臣智의 4국 가운데 하나로 나란히 보이고 있어, 3세기 중엽까지는 구야국의 우위가 절대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구야국의 군장호로 보이는 ‘秦支廉’은 진지(臣智)인 염(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지』 동이전이 曹魏 正始 연간인 240년대를 전후한 시점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렵 구야국의 군장 이름이 ‘염’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삼국유사』 왕력과 「가락국기」에 의하면 당시는 居登王의 재위기간(199~253)이었다.

우대해 불린 신지들의 國이 대체로 마한의 서해안지역³²⁾과 변한의 남해안지역에 집중되어 보이는 것

27) 『三國志』 권30, 東夷傳 韓, “臣智或加優呼 臣雲遣支報 安邪馭支 漬臣離兒不例 拘邪秦支廉之號”.

28) 李丙燾, 1976, 앞의 책, p.279.

29) 白承忠, 1995, 앞의 논문, p.189.

이영식, 2000, 「문헌으로 본 가락국사」,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p.27.

이 기록에 대한 최근 연구사 검토는 신석열, 2015, 「3세기 狗邪國의 對郡縣 교섭과 辰王」, 『구야국(狗邪國)과 고대 동아시아』(인제대 가야문화연구소 편), pp.163~168 참조.

30) 이현혜, 1988, 앞의 논문.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백승충, 1995, 앞의 논문.

이영식, 2016,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 종이.

31) 宣石悅, 1997, 「浦上八國의 阿羅國 침입에 대한 考察 -6세기 중엽 남부가야제국의 동향과 관련하여-」, 『가라문화』14.

남재우, 2003, 『安羅國史』, 해안.

白承玉,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해안.

32) 千寬宇, 1989, 앞의 책, 414쪽 각주33)에서는 臣智 加號에 보이는 ‘臣雲新’이 安邪와 어떤 교섭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하며, 臣雲新國은 해상교통이 편리한 全南의 어느 지점이 아니었을까 추측하였다. 臣漬活國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마한 북부의 대방군과 인접한 지역으로 추정되며(尹善泰, 2001, 「馬韓의 辰王과 臣漬活國」, 『百濟研究』34), 최근에는 김포 운양동유적이거나 파주 육계토성과 관련하여 보

은 삼한에 대한 정보 출처와 관련이 있다. 『삼국지』 한전에는 “그 풍속에 衣幘을 좋아하여 下戶가 郡을 방문할 때 모두 의책을 빌려 스스로 印綬衣幘을 착용하는 자들이 천 여 명이 넘는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인수의책을 빌려 自服하고 郡(대방군)을 방문한 천 여 명의 下戶들은 군현과의 교역에 종사하던 商人 집단이라고 추정된다.³³⁾

‘下戶’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들은 원래 臣智·毘借 등의 수장들이 착용하는 印綬·衣幘을 착용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방군과의 통상을 위해 自服하고 郡에 들어갔던 것이다. 중국 군현의 삼한에 대한 정보는 바로 이들 하호 출신 상인 집단을 통해 수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244~246년 幽州刺史 毋丘儉이 이끄는 曹魏의 군대가 고구려, 동옥저 등 동이 북부지역을 공격하면서 직접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한 것과 달리, 남부의 삼한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답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동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대한 정보의 심도와 정확성에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³⁴⁾

삼한에 대한 정보는 그 관할 邊郡이었던 대방군에서 수집한 정보에 기초하였다. 그 정보의 출처는 郡을 출입했던 천 여 명의 下戶(商人) 집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우대된 臣智 가운데 진한의 국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연해 있던 지역과 대방군과의 교역을 통해 얻어진 정보에 기초했기 때문일 것이다.

삼한과 중국 군현의 교섭은 교역로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다. 대방군은 해로로 통하는 교역을 전담하였고, 육상 교통로에 의한 교역은 낙랑군이 관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³⁵⁾ 낙랑군은 육로를 통해 진한 지역과, 대방군은 서·남해안을 통해 주로 마한·변한과 교역하였던 것이다.

『삼국지』에는 변진의한 ‘國’에서 鐵이 나와, 韓(마한), 濊, 倭뿐만 아니라 2郡(낙랑·대방군)에까지 공급되었다고 하여, 철산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체로 남부지역 철기 생산 유적의 분포를 감안할 때 김해를 중심으로 한 변한·가야 지역이라고 이해된다.³⁶⁾ 변진의 철은 김해 구야국으로부터 남해안-서해안 해로를 통해 대방군을 거쳐 낙랑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대방군에 출입하였던 천 여 명의 하호들은 바로 해상교역에 종사하던 상인 집단들이었다고 이해된다. 이들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에는 자연스럽게 변한과 마한의 정보가 집중되었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해상교통로와 연해 있는 해안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았을 것이다.

구야국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왜인전 서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郡(帶方郡)에서 倭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韓國을 거쳐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면 그 북쪽 對岸인 狗邪韓國에 도착하는 데 7천 여리다”³⁷⁾라는 기록이다. 대방군에서 왜로 가는 曹魏의 사신들이 반드시 지나간 중간 寄港地로 狗邪韓國이 중요하게 기록된 것이다. 왜를 왕래한 중국 군현의 사행들이나 대방군에 갔던 왜의 사행들에 의해 구야국과 그 주변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던 것이다.

는 경향도 있다.

33) 鈴木靖民, 2004, 「文獻からみた加耶と倭の鐵」,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10, p.147.

34) 井上秀雄, 1989, 「中國の歴史書に現れた二・三世紀の韓國と倭國」, 『東アジアの古代文化』61.

35) 윤용구, 1999,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曹魏의 東侵과 관련하여-」, 『國史館論叢』85, pp.116-120.

36) 孫明助, 1990, 「한반도 중·남부지방 철기생산유적의 현황」, 『嶺南考古學』22; 2003, 「加耶의鐵」, 『東アジアの古代文化』114.

37) 『三國志』卷30, 東夷傳 倭人.

이런 교섭 환경 때문에 구야국 지역은 변한 가운데서도 가장 정보 수집이 용이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韓傳 말미에 보이는, “그(변한) 사람들의 형체가 모두 크고 의복이 청결하며 머리가 길다”라는 우호적인 정보나, “폭이 넓은 고운 베를 만들고 法俗이 특히 엄격하다”라는 서술도, 구야국 및 그 주변 지역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변한의 ‘廣幅細布’는 『魏略』의 ‘弁韓布’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변한에 대한 서술은 『삼국지』 韓傳에서 “그(마한) 북방의 郡(대방군)과 가까운 諸國은 그런대로 禮俗을 알지만, 그 먼 지역은 곧 죄수와 노비들이 모인 것 같다”고 한 기록과 대조적이다. 대방군과의 거리로 따지면 변한이 마한보다 더 멀지만, 오히려 변한에 대해 선진적인 상황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도 대방군과 낙랑군에서 변한의 鐵과 布 등이 활발하게 유통된 것에서 영향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변진 제국의 해상교역을 구야국이 일원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기록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변진 諸國들이 분포하고 있던 지역은 경남 해안과 낙동강 하류 일대로 대별된다.³⁸⁾ 이 가운데 경남 해안 일대의 소국들은 서해, 남해,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교역 물자의 운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김해지역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경남 해안 일대의 소국들은 모두 지리적으로 외부 세력과의 접촉이 용이한 개별적인 관문 지역사회(Gateway Community)로 기능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하나로 통괄하는 상위의 세력 주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다.³⁹⁾

다만 변진 소국들 가운데 낙동강을 통해 남해안과 연결되는 낙동강 유역의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하구의 김해 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다. 이처럼 3세기의 구야국은 낙동강 유역의 변진 소국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우세한 관문 지역사회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변진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세력으로까지 확대 해석되기는 어렵다.⁴⁰⁾

이러한 배경으로 『삼국지』에서 변진의 대국으로 함안의 안야국과 김해의 구야국이 함께 병기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80년대 馬韓主와 辰韓王이 卽 武帝에 직접 遣使朝貢한 것⁴¹⁾과 달리 변진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도, 당시까지 변진의 대외교섭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변진 諸國들의 연안 해로를 통한 낙랑·대방군과의 개별 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2. 任那加羅의 등장

3세기 중엽까지의 상황을 전하는 『삼국지』에서는 변진의 구야국과 안야국이 대국인 사실은 엿볼 수 있지만, 양국 사이에 우열 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직까지 구야국이 변진 12국 가운데 독보적인 중심국으로 부상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38) 金泰植, 1986, 「後期加耶諸國의 성장기반 고찰」, 『釜山史學』11, p.42.

39) 李賢惠, 1988, 앞의 논문, p.164.

40) 李賢惠, 1988, 앞의 논문, p.166.

41) 『晉書』 卷97, 東夷傳 馬韓·辰韓.

이에 반해 4세기 말의 상황을 전하는 「광개토왕비」(414년 건립)에는 구야국과 안야국이 각각 ‘임나 가라’와 ‘안라’로 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라에 임나라는 명칭이 붙은 것인데, 「광개토왕비」의 관련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H. (영락) 10년(400)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 군이)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국도)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안라인수병** … 신라성 □성 … 하였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寇大]潰)(「廣開土王陵碑」)⁴²⁾

광개토왕이 보낸 고구려군이 신라를 침공한 왜군을 추격하여 도착한 임나가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김해(금관가야)설, 고령(대가야)설로 크게 나뉘어 왔는데, 최근에는 김해나 고령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가야연맹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까지 나오게 되었다.⁴³⁾

安羅人戍兵에 대한 해석도 안라를 咸安의 아라가야로 보는 설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근래에는 안을 안치하다는 동사로 해석하고 羅人을 新羅人, 고구려 遼人(순라병), 안라인, 임나가라인 중에 하나로 보는 다양한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⁴⁴⁾

그런데 근래의 새로운 견해처럼 안을 동사로 풀기에는 비문의 구성상 어려움이 있다. 영락 10년조에는 ‘안라인수병’이란 표현이 모두 3회나 반복해서 나온다. H 기록 뒤의 비문이 많이 마멸되어 해석이 분명하지 않지만, ‘안라인수병’이 2회 더 판독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감되고 있다.⁴⁵⁾

이처럼 안라인수병이 3회 연속 반복해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하나의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된다.⁴⁶⁾ 즉 기존의 견해처럼 안라(아라가야)인 출신의 변경수비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안라인 수병의 군사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과 반론이 제기 되어 왔다.⁴⁷⁾ 안라인 수병의 성격과 관련한 논의는 미루어두고, 안라라는 국명이 김해의 구야국을 가리키는 임나가라와 함께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앞서 『삼국지』 한전에서 변진의 대국으로 구야국과 안야국이 나란히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400년의 상황을 전하는 「광개토왕비」에는 다시 김해의 구야국과 안야국이 임나가라와 안라로 보이

42)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p.12-19 참조.
 43) 金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6,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p.62-86.
 白承玉, 2003, 앞의 책, pp.89-100.
 김태식은 4세기 후반 任那加羅는 원래 임나(昌原 卓淳國)와 가라(김해 구야국)의 합칭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창원의 임나국이 가야와 백제·왜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김해의 구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임나가 가야제국의 총칭으로 쓰일 때는 김해 구야국을 중심한 가야 전역을 가리킨다고 이해하고 있다. 한편 백승욱은 任이 五方에서 남방을 의미한다고 보아, 임나가라는 김해의 南加羅를 가리킨다고 파악하고 있다.
 44) 신가영, 2017, 「광개토왕비문의 ‘安羅人戍兵’에 대한 재해석」, 『東方學志』178, pp.3-6.
 45) 國史編纂委員會 편, 1995, 「廣開土王陵碑」,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I, pp.1-42의 판독문과 참고문헌 참조.
 46) 田中俊明, 2001, 「高句麗의 任那加羅 侵攻をめぐる問題」, 『古代武器研究』2, p.47.
 47) 高寬敏, 1990, 「永樂十年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참조.

는 것이다. 狗那에서 加羅로, 安那에서 安羅로 한자 국명이 변한 것은 차자표기의 차이일 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은 아니다. 그보다 가라 앞에 임나가 붙어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임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본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 가운데 대체로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任은 主(님), 那는 國(나라)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⁴⁸⁾ 임나의 고훈인 ‘意富’(『日本書紀』 垂仁紀 2년)를 ‘大’의 의미로 보거나,⁴⁹⁾ 任那를 우리말로 ‘님나라(盟主國)’이나,⁵⁰⁾ ‘님나라(王國)·님금나라(君國)’라고 해석하거나,⁵¹⁾ 또는 ‘主邑’으로 풀이하는 시각⁵²⁾도, 모두 ‘임나’를 主國(중주국)의 의미로 보는 셈이다.

임나와 가라를 별개 국명처럼 따로 쓰이기도 했지만, H 기록과 같이 ‘임나가라’가 연칭되어 나오는 용례도 적지 않다.

- I-1. 强首 中原京沙梁人也 … 對曰 臣本任那加良人 名牛頭(『三國史記』 强首傳)
- 2. 倭國在高麗東南大海中 世修貢職 … 二十八年 加使指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如故 … 興死弟武立 自稱使指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 詔除武使指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宋書』 東夷傳 倭國)
- 3. 建元元年 進新除使指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號爲鎮東大將軍(『南齊書』 東夷傳 倭國)

일반적으로 I-2·3의 임나가라는 왜왕이 스스로 6國諸軍事로 과장하기 위해 임나와 가라를 별개의 국처럼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⁵³⁾ 이것도 임나와 가라를 연칭하던 관례에서 나온 표현으로 추정된다. 강수전의 임나가라는 대체로 고령의 대가야로 이해되는데, 여기서의 임나도 ‘大’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임나가라’는 시기에 따라 김해와 고령의 가라를 모두 가리킬 수 있는 것으로, 가야의 중주국인 ‘대가야’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파생되어 임나가 김해나 고령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加耶諸國 전체를 의미하게 되기도 했다. 『일본서기』 欽明紀 23년(562)조에서 신라가 任那官家(고령 대가야)를 멸망시켰다고 하면서, 總言하면 ‘임나’고 別言하면 가라국, 안라국 등 10국이라고 한 기록이 대표적인 예이다.

400년 고구려 군사의 임나가라 침공에 대응해 가야 남부의 안라국 수병이 군사행동을 한 것으로 보

48) 鮎貝房之進, 1931,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 第7輯 上卷, 朝鮮印刷株式會社, pp.39-44.
일반적으로 鮎貝의 연구를 任那=主浦說이라고 분류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任那=主國說이라고 보아야 한다. 鮎貝는 임나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김해의 다른 지명인 臨海와 主浦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任(臨)의 의미가 主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臨海」의 名은 「主浦」의 方言名 「니무가이(ニムカイ)」로부터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浦名으로서는 「니무가이(ニムカイ)」, 國名으로서는 「니무라(ニムラ)」로, 「那」는 「羅」의 轉呼로 「國」의 의미가 된다. (備考)에 제시한 대로 通考에 宋 文帝 때 倭使가 「任羅」를 칭하고 있는데 곧 任那이다.”(위의 책, pp.43-44)라는 서술에서 확인되었듯이, 臨海(主浦)는 浦名으로 任那는 國名으로 구분해 보고 있다.

49) 李丙燾, 1976, 앞의 책, p.340.

50) 金廷鶴, 1990, 「加耶의 歷史와 文化」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p.183.

51) 丁仲煥, 2000, 「辰國·三韓 및 加羅의 명칭」 『加羅史研究』, 해안, p.288.

52) 李炳銑, 2000, 「伽倻史의 再構와 任那 問題」 『인문연구논집』5(伽倻의 歷史와 文化), 동의대 인문과학연구소, p.15.

53) 한편 『宋書』의 倭王 爵號에 등장하는 임나가라에 대해, 임나는 김해의 「南加羅」를, 가라는 고령의 「加羅」를 각각 가리킨다고 보아, 5세기 중엽에 고령의 加羅가 주변제국의 주목을 받으며 약진한 사실과 관련해 이해하기도 한다. (李鎔賢, 2002, 「任那と日本府の問題」,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0, pp.34-35) 이에 따르면 5세기의 임나는 단지 「임나가라」(김해의 남가라)만의 좁은 범주가 아니라 安羅도 포함한 조금 넓은 범위일 것으로 추정되며, 加羅가 등장하는 늦어도 451년 이후에 북부 가야는 임나의 범위에 들어가지고 않고, 남부가야만을 임나로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위의 논문, p.36)

아, 당시의 ‘임나가라’는 함안 인근 김해의 가야(구야국)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김해의 금관국, 함안의 안라국은 이미 4세기 후반에 왜국 및 백제와 동맹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530년경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⁵⁴⁾

그런데 3세기 중엽에 구야국과 안야국이 변진의 대국으로 병기된 것과 달리, 「광개토왕비」에서는 임나가라와 안라로 다르게 표기되어 김해의 임나가라가 가야의 종주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4세기 후반에 성립된 가야와 백제·왜와의 동맹에서도 김해의 구야국이 임나가라로서 대외교섭의 창구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처럼 4세기에 들어가면 김해의 구야국이 가야의 중심국 즉 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최근 학계 일각에서 김해 구야국이 3세기에 쇠퇴하고, 4세기 이후에는 고령 세력이 그 대신 부상하여 가라의 국명을 쓰면서 가야의 중심세력이 되었다고 보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다.

- J. 이상과 같이 신공기 49년조의 기사로 미루어 짐작하면 4세기에 들어와 弃韓에서 가야로 이행되면서 고령과 함께 새로운 몇몇 세력이 유력하게 부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세기까지 변한의 구성 小國 가운데 가장 우세한 지배자의 호칭인 신지를 칭한 것은 安邪狗邪의 둘 뿐이었다. 이들이 당시 유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아무래도 바다로 통하는 교통상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위 가라를 비롯한 7국 가운데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만 그곳을 어디로 비정하더라도 대체로 내륙에 해당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지명 비정이 비교적 확실한 加羅, 多羅, 比自鉢을 통하여 일단 유추된다. 아마도 이들은 낙동강의 본류를 끼고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 주요한 支流의 요충지에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南海岸 혹은 그와 가까운 곳보다 내륙세력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가 到來하였음을 뜻한다.⁵⁵⁾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日本書紀』神功紀 49년조에 나오는 가야 7국 평정 기사에 나오는 국명 표기이다. 比自鉢,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 등의 7국명에서, 남가라는 김해로 가라는 고령으로 비정되기 때문에, 이 때 고령 세력이 가라의 대표세력을 부상하고 김해 구야국은 남가라로 전락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신공기 49년조의 기년이나 주체 문제,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비」보다 8세기 초에 편찬된 『일본서기』의 국명 표기를 더 존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가설에서도 「광개토왕비」의 임나가라를 김해 금관국으로 파악하고 있어 더욱 의문이 남는다. 왜와 함께 신라를 침공했다가 고구려의 주공격 대상이 된 임나가라가 김해 금관국이었다면, 당시까지 가야의 대표 세력은 통설처럼 김해 구야국이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이 가설에서는 신공기 49년조 기사의 주체를 왜가 아니라 백제로 바꾸어 보면서, 369년에 백제가 가야 7국을 정복하고 부용세력으로 복속시켰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서기』欽明紀 2년(541)조에는 백제 성왕이 근초고왕과 근구수왕대를 회고하면서, 安羅·加羅·卓淳 등

54) 田中俊明, 2001, 앞의 논문, p.49.

55) 朱甫曠, 2008, 「새로운 大加耶史의 定立을 위하여-研究上的 새로운 跳躍을 기대하며-」, 『영남학』13, p.35.

과 처음 통교하고 친밀한 우호관계를 맺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로 보아 신공기 49년의 가야 7국 평정기사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4세기 후반에는 남해안의 안가(함안), 가라(가야), 탁순(창원) 등을 중심으로 백제-가야-왜의 교섭체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여기서 벗어나 고립된 신라가 고구려에 의지하여 교역체계를 방해하자 왜는 직접 신라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광개토왕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남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된다.⁵⁶⁾

6세기 초의 『梁職貢圖』에 백제의 旁小國으로 나오는 ‘叛波’는 『삼국지』의 弁辰半路國, 『일본서기』의 伴波로 비정되며 고령 세력으로 이해되고 있다.⁵⁷⁾ 3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까지 고령지역은 반파(로)라는 세력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고령의 반파(로)국이 언제부터 가야를 대표하며 가라 또는 임나로 불렸는지 불확실하지만, 신공기 49년조의 ‘加羅’가 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삼국사기』의 가야 관계 기사는 크게 1~3세기의 기록과 5세기 말 이후 기록으로 양분된다. 이 가운데 1~3세기 기록은 연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⁵⁸⁾ 대체로 그 내용은 김해의 구야국과 관련된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⁹⁾ 3세기까지 김해의 구야국이 신라에게 가야로 알려져 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내해이사금 17년(212)을 끝으로 가야 관계 기사가 280여 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소지마립간 18년(496)에 가서야 다시 나타난다. 특히 중국 사서에서도 4세기에 들어와 백제와 신라는 중국의 東晉이나 前秦과 교섭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가야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의문이다.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김해의 구야국은 늦어도 400년 이전에 가야의 중심국(임나가라)으로 등장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임나가라의 등장 배경과 시기는 백제-가야-왜의 동맹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한 4세기 후반으로 소급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4세기 후반 백제는 가야 남부의 탁순, 안라, 가라 등의 세력을 매개로 왜와 동맹을 맺어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구려 세력을 방어하고자 했다.⁶⁰⁾

백제-가야-왜 사이의 동맹관계에서 지리적으로 김해의 구야국이 중요한 중간 고리의 역할을 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삼국지』 왜인전의 서두에서 보이듯이 김해의 구야국은 대륙과 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상의 결절점(node)이었기 때문이다.

백제가 왜와 직접 교섭하지 않고 가야를 포함시키는 3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전남 해안지역의 세력을 아직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가야를 이용해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던 신라를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역관계 속에서 김해의 구야국이 가야의 중심국인 임나가라로 대두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4세기 후반 임나가라의 존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흥미해 볼 필요가 있다.

56) 선석열, 2000, 「4세기 伽耶와 新羅의 관계-廣開土王 南征의 배경과 관련하여-」, 『인문연구논집』5(伽耶의 歷史와 文化), 동의대 인문과학연구소, pp.190-196.

57) 鈴木靖民·金子修一 編, 2014, 『梁職貢圖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 勉誠出版.

58)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卷, 吉川弘文館; 鬼頭清明, 1974, 「加羅諸國の史的發展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11, p.121.

59) 金廷鶴, 1990, 앞의 책, p.193.

60) 선석열, 2000, 앞의 논문 및 田中俊明, 2001, 앞의 논문.

K. 於是自稱大將軍大都督秦王 署置官司 以平顏爲輔國將軍幽州刺史 爲其謀主 分遣使者 徵兵於鮮卑烏丸高句麗百濟及薛羅休忍等 諸國竝不從 洛懼而欲止(『晉書』載記13 苻堅 上)

L. 기록은 380년 부락이 부견에게 양심을 품고 반역을 모의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부락이 진 왕을 자칭하며, 평안을 유주자사로 임명하여 책임을 맡기고 사자를 나눠보내 선비, 오환, 고구려, 백제, 설라, 휴인 등에 군사를 요청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자치통감』에도 실려 있는데,⁶¹⁾ 薛羅가 新羅로 바뀌어 있을 뿐 나머지 국명은 동일하다. 薛羅(薩羅)는 「五臺山寺吉祥塔詞」에도 보이고 있어 신라의 이칭임을 알 수 있지만, 休忍은 이 기록 외에는 전혀 존재가 보이지 않아 의문이다.

선비, 오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유주자사 관할 아래에 있는 동쪽 방향의 세력이라는 점에서, 休忍도 그 주변에 위치한 세력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지만 『冊府元龜』 등에서도 그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다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삼국과 관련된 세력이 가능성이 높는데, 혹시 任那의 오기가 아닐까 억측된다. 任과 休는 자형이 비슷하나 忍과 那는 차이가 있어 억측에 불과하지만, 자세한 검토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변진과 진한의 구분 기준과 변진의 대국이었던 구야국이 가야의 중심국인 임나가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국지』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변진과 진한은 지역적, 종족적, 문화적으로 구분해 보기 어려운 사회였다. 다만 진한 12국은 辰王에게 속해 있었고, 변진 12국에는 별도의 왕이 있었다고 해서, 두 사회가 정치적 소속 관계에 의해 구분된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진한 12국이 속한 진왕은 마한 목지국의 진왕과 별도로 구분된 진한의 구심체로서 사로국왕으로 추정되며, 3세기 후반에 晉 武帝에게 건사조공했던 辰韓王과 연결되는 존재라고 이해된다.

한편 변진 12국에도 왕이 있었다고 하여, 변진에도 정치적 구심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해의 구야국과 함안의 안야국이 모두 가우호 臣智의 대국으로 나오고 있어, 2국 사이의 우열이 분명하지 않다. 3세기 후반의 사실은 전하는 『진서』 동이전에 진한의 왕은 보이지만, 변진의 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때까지는 아직 변진 12국을 모두 통속한 세력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김해의 구야국과 함안의 안야국 사이에 우열이 명확해진 것은 4세기에 들어가서 인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후반 백제가 가야 남부의 탁순, 안라, 가라 등의 세력을 매개로 왜와 동맹을 맺어 북쪽에서

61) 『資治通鑑』卷104, 晉紀26 孝武帝 太元 5년(380).

내려오는 고구려 세력을 방어하고자 하면서, 김해의 구야국이 이 동맹관계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김해는 백제·가야와 왜를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상의 결절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야국의 지정학적 위상은 제고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김해의 구야국이 가야의 중심국으로 대두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광개토왕비」의 永樂 10년(400)조에 보이는 ‘任那加羅’의 표기는 당시 김해의 가라(구야국)가 가야를 대표하는 중심국임을 시사해준다. 400년 고구려군의 임나가라 침공에 대응해 ‘安羅人戍兵’이 군사적으로 응전하는 사실은, 당시 김해의 가라와 함안의 안라가 동맹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가라에게는 ‘主國(종주국)’을 의미하는 임나라는 명칭을 붙여 당시 김해의 가라가 가야의 중심국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3세기까지는 구야국과 안야국이 모두 변진의 대국으로 병기되었다면, 4세기 후반에 들어와 임나가라와 안라로 국명 표기에 차별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구야국이 4세기에 들어와 가야의 중심국으로 성장했음을 전하는 것이다.

구야국이 가야의 중심국으로 성장한 것은 평지돌출의 사건이라기보다, 그 이전부터 중국 군현과 왜국 사이의 해상교역을 주도하며 대국으로 성장한 데 이어, 4세기 이후 고구려·신라 대 백제·왜국 사이의 역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야의 성립은 그 이전 변진의 구야국으로부터 기원하여 가야의 중심국으로 발전하는 통시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金廷鶴, 1990,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金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6,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남재우, 2003, 『安羅國史』, 혜안.
- 노중국·권주현·김세기·이명식·이희우·이희준·주보돈, 2002,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文昌魯, 2000,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 문창로, 2018, 「‘변한과 가야’ 연구의 동향과 과제」, 『韓國古代史研究』89.
-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 박대재, 2009, 「謝承 『後漢書』 東夷列傳에 대한 예비적 고찰」, 『韓國古代史研究』55.
- 박대재, 2017, 「삼한시기 논쟁의 맥락과 접점」, 『韓國古代史研究』87, pp.6-44.
- 박대재, 2018, 「삼한의 ‘國邑」에 대한 재인식」, 『韓國古代史研究』91, pp.6-40.
- 白承玉,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 白承忠, 1995, 「弁韓의 成立과 發展」, 『三韓의 社會와 文化』(韓國古代史研究10)
- 宣石悅, 1997, 「浦上八國의 阿羅國 침입에 대한 考察 -6세기 중엽 남부가야제국의 동향과 관련하여-」, 『가라문화』14.
- 선석열, 2000, 「4세기 가야와 新羅의 관계-廣開土王 南征의 배경과 관련하여-」 『인문연구논집』5(伽倻의 歷史와 文化), 동의대 인문과학연구소.
- 선석열, 2015, 「3세기 狗邪國의 對郡縣 교섭과 辰王」, 『구야국(狗邪國)과 고대 동아시아』(인제대 가야문화연구소 편).
- 孫明助, 1990, 「한반도 중·남부지방 철기생산유적의 현황」, 『嶺南考古學』22.
- 孫明助, 2003, 「加耶의 鐵」, 『東아시아의 古代文化』114.
- 신가영, 2017, 「광개토왕비문의 ‘安羅人戍兵’에 대한 재해석」, 『東方學志』178.
- 尹善泰, 2001, 「馬韓의 辰王과 臣漬沽國」, 『百濟研究』34
- 윤용구, 1999,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曹魏의 東侵과 관련하여-」, 『國史館論叢』85.
- 이영식, 2000, 「문헌으로 본 가락국사」,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혜안.
- 이영식, 2016,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 종이.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炳銑, 2000, 「伽倻史의 再構와 任那 問題」 『인문연구논집』5(伽倻의 歷史와 文化), 동의대 인문과학연구소.
- 李鎔賢, 2002, 「任那と日本府の問題」, 『東아시아의 古代文化』110.
- 李在賢, 2003, 「弁韓社會의 形成과 發展」,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망』(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혜안.
-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 李賢惠, 1988, 「4세기 가야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1,
-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一潮閣.
- 丁仲煥, 2000, 『加羅史研究』, 혜안.
- 朱甫噉, 2008, 「새로운 大加耶史의 定立을 위하여-研究上의 새로운 跳躍을 기대하며-」, 『영남학』13.
-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 高寬敏, 1990, 「永樂十年高句麗廣開土王의 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 鬼頭清明, 1974, 「加羅諸國의 史的發展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11.

- 鈴木靖民, 2004, 「文獻からみた加耶と倭の鐵」,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10.
- 鈴木靖民·金子修一 編, 2014, 『梁職貢圖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 勉誠出版.
-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吉川弘文館.
- 田中俊明, 2001, 「高句麗の「任那加羅」侵攻をめぐる問題」 『古代武器研究』2.
- 鮎貝房之進, 1931,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 第7輯 上卷. 朝鮮印刷株式會社.
- 井上秀雄, 1989, 「中國の歷史書に現れた二・三世紀の韓國と倭國」, 『東アジアの古代文化』61.



변화와 가야의 구분



이 동 희 | 인제대학교

변한과 가야의 구분

이 동 희 | 인제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변한과 가야의 구분
 - 1. 전기론, 전사론 검토
 - 2. 고고자료로 본 변한과 가야의 구분
 - 3.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성립
 - 4. 변한·가야의 지역성
- III. 맺음말

I. 머리말

辰韓의 斯盧國에서 新羅로, 마한의 伯濟國에서 百濟로 성장한 바와 같이 加耶의 뿌리는 弁韓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변한과 가야를 구분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지만 그 구분이 용이하지는 않다. 가야를 연구하는 문헌사학자들은 대개 前期論의 입장이고, 고고학에서 가야를 보는 관점은 前史論의 측면이 강하다. 필자는 두 가지 관점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변한과 가야의 구분은 변한에서 가장 선진적인 구야국을 주로 다룬다. 고고학적 측면에서 변한(특히, 구야국)과 가야(금관가야)를 구분할 때, 3세기후반대를 경계로 전사론적인 입장에 선 견해가 먼저 제기된 바 있다(신경철 1992). 하지만, 변한의 구야국이 가야국으로 발전하였고 구야국의 김수로왕이 가야국의 시조라는 측면에서 문헌사의 관점에서 전기론(이영식 2016)의 입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 견해에서는 3세기 후반 이전을 가야 전기로 본다. 그런데, 구야국 및 금관가야를 엄밀히 구분해 보면 기존에 언급된 바와 같이 3세기후반의 획기 뿐만 아니라 400년 광개토대왕 남정 이후 532년 멸망할 때까지 쇠퇴하는 100여년이 있어 3기로 구분해야 한다. 즉, 변한·가야사의 시대구분은 단순하지 않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사를 보면 3세기중엽까지의 구야국은 변한 속의 일소국이고, 고고학적인 성과로 보면 3세기후엽~4세기대에는 구야국(가락국·금관가야)이 변한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동강하류역(부산·창원·진영일대)을 정치·문화적으로 주도하며, 종래 낙동강 이서지역의 '변한'의 호칭을 '가야'(구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친 위상으로 격상되어 정치·문화적 영역권을 가진 대국의 위치로 올라간다.

3세기후반 이후에 구야국에서 한 단계 상향된 금관가야(가락국) 성립에 대한 고고학적 구분의 근거(대형목곽묘·순장·부곽·지역양식토기의 등장 등)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부산·창원 일원에 국한된다는 한계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변한과 가야의 관련성에 대한 전기론과 전사론을 먼저 검토해 보고, 고고학적 관점에서 변한과 가야의 전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변한과 가야의 구분에 있어 종래 주로 묘제와 토기양식 등의 출토유물을 주대상으로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주거와 취락, 창고시설 등의 자료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변한에서도 각 소국별로 사회발전단계가 동일하지 않았듯이 가야에서도 여러 나라들 사이에 사회발전단계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변한·가야 소국들 간의 사회발전단계의 차이를 지역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즉, 변한·가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구야국·금관가야와 달리, 문화지체현상을 보이는 서부경남지역의 정치체도 상호 비교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II. 변한과 가야의 구분

1. 전기론과 전사론

진한과 신라, 마한과 백제의 관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가야의 기원은 변한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변한과 가야 간 상호 관련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주보돈(1995)에 의해 이루어졌다. 3세기 이전의 변한사회와 4세기 이후의 가야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는 변한사를 가야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입장을 前期論, 양자를 분리하는 입장을 前史論으로 명명하고 스스로 전사론을 택하였다. 이에 대한 찬반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권오영 2001: 502).

가야를 연구하는 문헌학자들은 대개 변한을 포함한 가야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고고학자 중에서는 변한과 가야를 구분해 보는 의견이 강하다(남재우 2017).

고고학적 관점에서 변한과 가야를 구분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지만 그 구분이 용이하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전기론과 전사론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비교 검토해 보고, 그 절충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1) 문헌사에서 본 전기론과 전사론

(1) 전기론

전기론은 가야의 전기가 변한이므로 가야와 변한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본다.

먼저, 권오영은 백제·신라·가야가 삼한의 백제국·사로국·구야국에서 잉태된 만큼 양자의 관계를 단절시켜 볼 수는 없으며 연속선상에서 국가의 형성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권오영 1995).

가야사를 전공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대개 전기론의 입장에 서 있다.

먼저, 김태식은 3세기말~4세기초라는 시점은 가야사에서는 변한의 해체 및 가야사의 시작이 진행된 단절의 시기가 아니라 3세기경부터 성립된 구야국 중심의 소국연맹체가 보다 강화되어간 발전의 시기로 보았다. 광개토왕 남정을 대변동기로 보아 가야사의 전·후기 구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김태식 2000: 160-161).

전기론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이영식의 다음 견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야국을 비롯한 변한 12개국은 가야제국이 종말을 고하는 6세기 중엽까지 병립해 있던 왕국들로 삼국지가 기록한 변한사가 가야사와 구별되는 前史로서가 아니라 연속적인 가야 前期의 역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야국과 가야국 사이에 혁명적인 주민이동이나 왕권교체를 상정하기 어려운 만큼 변한의 12개국을 전기가야의 12개국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변한과 가야를 구별하여 변한 12개국이 가야와 무관하고 3세기 후반부터를 가야사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김해의 소국인 구야국이 가야국과 같은 것이기에 이때를 가야사의 시작으로 본다.

최초 가야 소국의 성립을 청동기문화가 철기문화로 교체되는 시기와 변화에서 찾고, 소국에서 대국으로 성장했던 전기를 대성동 29호분의 등장처럼 대형목곽묘가 출현하고 풍부한 철산이 확인되는 3세기 중후반의 단계로 보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3세기 후반 대성동 29호분을 가야사의 시작으로 보고 김해 가락국과 고령 가락국의 멸망까지 250~300년도 못 되는 기간을 가야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이영식 2016:530-560).

이와 같이, 이영식 견해의 논점은 고고학에서 보는 3세기 후반 대성동 29호분을 가야사의 시작으로 보면 존속 기간은 금관가야 기준으로 보면 300년이 안 되며, 삼국지 속의 구야국이 가야국이기에 철기문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가야사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성동 29호분 단계가 하나의 획기이긴 하지만 소국에서 대국으로 성장한 전환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2) 전사론

전사론 논의의 대표자인 주보돈은 한국고대사를 고대 동아시아 전체 틀 속에서 파악하였는데, 3세기 후반 내지 4세기초를 중요 획기로 보았다. 즉, 중국 대륙에서 五胡세력의 진출로 인한 정치적 파동과 그로 인한 고구려의 313년·314년 낙랑군과 대방군의 축출은 삼한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역체계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정치변동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인 백제·신라·가야가 출현했다고 보았다(주보돈 1995: 18).

주보돈의 최근 논고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변한을 가야사의 전기라고 설정한 사실이 큰 문제다. 즉, 변한으로부터 가야로 이행해간 과정이나 양자의 관계를 해명하지도 않은 채 당연시 여기는 것은 큰 문제다. 그 점은 삼한의 일원이었던 마한으로부터 백제로, 진한으로부터 신라로 전환하여 간 사정과 대비하면 저절로 드러난다. 마한과 진한의 경우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변동을 경험한 결과로 그 속에서 백제와 신라가 각기 출현하였다. 마한과 진한은 낙랑과 대방이 몰락하면서 발생한 유이민의 유입 등 외부로부터 가해진 충격으로 야기된 내부의 통합 운동을 거치면서 하나의 왕국으로 성장·발전해간 것이다. 그 결과로서 내부의 질적 변화를 거쳐

백제와 신라가 탄생 하였다. 마찬가지로 가야 사회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비록 결과론적으로 통합 왕국을 성립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유독 변한만이 아무런 변동을 겪지 않았다고 단언하기에는 곤란하다. 일단 백제와 신라처럼 변한으로부터 가야 사회로의 이행도 역시 내부적인 변동을 경험한 결과라 풀이하여도 무방하다. 4세기 가야연맹체의 존재를 설정하게 된 것은 직전의 변한연맹체의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겠으나 그것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양자의 구조적인 차이·운영상의 차이 등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주보돈 2017).

2) 고고학에서 본 전기론과 전사론

(1) 전기론

전기론적 견해에 따르면, 늦어도 기원전 1세기부터 가야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기원후 3세기후반의 물질자료와 4세기의 물질자료에서 획기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고학에서 전기론적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임효택과 이성주이다. 즉, 분묘군의 위계화 과정을 분석하여 변한과 가야 사회의 획기 설정이 어렵다는 견해(이성주 1993)와 분묘 및 부장품의 구성을 통해, 큰 사회적 변화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임효택 1993)가 있다(홍보식 2017: 67-68).

김해지역의 정치체 성장을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상을 보인다(홍보식 1999). 즉, 홍보식은 김해지역의 분묘·출토유물에 근거해 위계화의 양상을 검토하였는데, 1기(기원전후~2세기전반), 2기(2세기후반~3세기3/4분기), 3기(3세기4/4분기~5세기초)로 구분된다. 1기에는 구성원간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명확한 위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기에는 구성원간 계층화가 진전되며 3기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2) 전사론과 그 반론

① 전사론

전사론적 관점에 있는 신경철의 견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신경철은 금관가야 최초의 왕릉이라 할 수 있는 대성동 29호분의 연대를 3세기말로 편년하고 거기에 부장된 동복이나 마구류·금공품·도질토기¹⁾ 등의 후장, 순장, 선행분묘의 파괴 등의 매장예가 북방 기마민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북방 기마민족 이주의 결과로 대성동 29호분이 축조되며 금관가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신경철 1992).

이와 같이, 고고학적 관점에서 변한과 가야를 구분하는 기준은 대개 대성동고분군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변한(구야국)과 금관가야(가락국)의 구분이다.

② 전사론에 대한 수정론과 반론

이러한 전사론에 대해 반론이나 수정론이 제기된 바 있다.

먼저, 박천수의 견해는 북방 기마민족의 이주보다는 구야국에서 금관가야로의 자체발전론의 입장에 서

1) 토기의 다량 부장은 대성동 29호분 단계 이후부터이며 앞 시기의 목곽묘와 분명히 구별된다(신경철, 2000).

있다. 박천수의 견해를 살펴본다.

“대성동 29호분의 축조시기가 3세기 중엽으로 소급되고 무덤이 부장품으로 보아 그 축조세력을 북방 기마민족으로 볼 수 없다. 구야국의 왕묘역이 양동리에서 김해 시내 대성동고분군으로 이동하고 양동리 고분군에서 볼 수 없었던 구릉 정상부에 독립된 왕묘역이 형성되고 순장이 행해지는 것은 이 지역 사회의 큰 변화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를 북방 기마민족의 이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대성동 고분군의 남쪽에 인접한 원삼국시대의 칠기·동경·칠초철검이 출토된 유력 수장묘인 가야의 숲 3호 목관묘를 비롯하여 계기적으로 분묘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 대성동 29호분 같은 탁월한 수장묘의 축조는 자체적인 성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립기인 3세기 후반에 대성동고분군에 북방기마민족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고분에 반드시 부장하는 마구가 전혀 부장되지 않는 것은 이 고분군 축조집단이 기마민족이 아닌 구야국 이래의 토착세력임을 웅변하는 것이다”(박천수 2016: 9-11).

한편, 김영민에 의해 수정론이 제기되었다.

토기의 다량부장이나 도질토기 등장 등의 제요소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순장이나 오르도스형 동북 등의 요소는 김해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특이한 현상임이 분명하며, 직간접적으로 북방문물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요소들이 부여족의 남하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교역이나 교섭에 의한 산물의 가능성도 있다.

토기의 다량 부장은 북방문화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김해지역 목곽묘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질토기가 북방문물의 소산이라고 할 결정적 증거가 빈약하다. 와질토기가 도질토기로 발전할 내재적 가능성도 충분하다. 오르도스형 동북의 경우도 북방적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부여족의 남하가 아니더라도 교역이나 유민의 이주과정에서도 유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성동 29호묘에 보이는 제요소들 중에서 북방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순장과 오르도스형 동북을 제외하면 다른 사례들은 직접적으로 북방요소로 간주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김영민2008:87-89)

그리고, 순장을 자체발전에 의한 산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순장이 실시된 것은 부곽의 등장과 일맥상통하며 특정인의 권력 표현의 산물이며, 외부로부터 들어온 습속이 아니라 생산력 발달에 의한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홍보식 1998: 54).

이러한 점에서 순장은 권력의 성장에 따른 자생적인 면과 함께 일부 북방 이주민의 영향 혹은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 등 다각도로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다.

③ 대성동 고분군 중복현상에 대한 해석과 전사론의 재검토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목곽묘 단계에 무덤간의 중복현상이 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3세기 후반에 대성동 29호분이 만들어졌고, 4세기 후반에 39호분에 의해 29호분이 파괴하면서 중복관계를 보인다. 두 무덤은 3세대 정도의 시간차이로, 손자 세대의 39호분이 할아버지 세대의 29호분을 파괴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다(이영식 2009 : 112-118).

첫째로, 새 이주 집단이 전 시대의 권위를 파괴하고자 의식적으로 토착집단의 무덤을 파괴하면서 자신들의 무덤을 세웠다는 견해이다(신경철 1992). 3세기 후반에 만주의 길림시 일원에 있던 부여국이

285년에 모용외의 침입을 받아 두만강 하류지역으로 피난했을 때, 한 갈래가 동해를 거쳐 김해에 들어와 새 왕조를 세웠던 증거로서 그 주인공의 무덤이 29호분이며, 가락국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9호분이 다른 고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대의 39호분 때문에 파괴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문자 기록에서 보더라도, 부여에서 갈려 나갔던 동부여는 물론, 고구려와 백제까지 드문 기록 속에서도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가설대로라면 부여족이 세운 왕국이 가락국이었을 것인데 그에 관련된 티끌만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홍보식의 반론도 제기된 바 있다.

즉, “Ⅱ류 목곽묘(부여계)가 Ⅰ류 목곽묘(낙랑계)를 파괴하는 현상을 부여족의 남하에 의한 의도적인 파괴행위로 해석하여 목곽묘의 계통이 다르다고 한다(신경철 1992). 그런데 Ⅱ류 목곽묘 출현기의 것으로 되어 있는 대성동 29호묘는 Ⅰ류 목곽묘를 파괴하고 설치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목곽묘에서의 중복현상은 김해지역 분묘군에서만 나타난 고유한 현상이 아니고 남부지방 목곽묘에서의 보편적 현상이다. 그리고 대성동 고분군에서 중복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4세기 후반대이다. 분묘간의 중복현상은 대성동뿐만 아니라 양동리·칠산동·예안리고분군과 합천 옥전고분군, 부산 노포동고분군, 울산 하대고분군, 흥해 옥성리고분군 등에서도 보인다”(홍보식 1998:52).

둘째로, 墓域論이다. 무덤을 쓰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견해(임효택 1993)이다. 수백년간 이 좁은 언덕에만 무덤을 썼으니, 중복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재의 김해 도심에서 대성동의 ‘애구지’만이 묘역으로 선택되었고, 같은 언덕에서도 다시 좋은 땅과 나쁜 땅의 구별이 있어, 좋은 땅에만 무덤을 쓰느라 중복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이다.

셋째는, 일본인 연구자(田中良之)가 단편적으로 언급했던 생각의 하나로, 대성동 고분군의 중복이 몇 개의 무리로 나누어져 있다는 특징과 일본에서 비슷한 경우의 인골 자료에 대한 연구를 거쳐 얻어진 해석이다. 몇 기의 고분이 서로 중복된 덩어리가 하나의 친족집단이었다는 것이다. 즉, 자식이 죽은 뒤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선대의 무덤 한 부분을 깨고 후손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성동 고분군에서 보이는 중복은 하나의 가족 또는 친족집단의 표시이다.”라는 해석이다.

김해 대성동고분군 외에도 영남 동남부지방의 여러 고분군에서도 분묘간 중복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해당 집단의 무덤을 쓰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묘역론과 조상 무덤에 귀의한다는 2가지 요인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원시부족에 대한 조사 성과가 참고된다. 즉, 인도네시아 숭바섬에서는 할아버지의 석관에 손자가 합장되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이동희 2011).

한편, 대성동고분군의 규칙성 있는 무덤 중복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도 제시되었다. 즉, 왕묘급의 고분은 새로운 묘역을 개척해 나가고, 1세기가 지난 후 좀 더 작은 고분은 선대 왕묘급의 묘지에 중복된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중복됨은 왕족의 방계가 선대왕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선대 왕묘의 주변이나 위에 묘를 축조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다분히 의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김용성 2018: 242-243).

이 견해도 세 번째 견해와 일맥 상통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④ 소결

신경철의 전사론은 대성동 29호분 단계에 북방이주민의 이동과 관련 문물을 근거로 하여 정치적인 큰 변혁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신경철이 북방이주민에 의한 무덤 파괴를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획기인 대성동 29호분은 기존의 목곽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9호분이 1세기 뒤의 39호분에 의해 일부 파괴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묘역의 제한성에 기인하거나 지배 친족 집단내에서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듯하다. 그리고, 도질토기의 등장을 와질토기의 내재적 발전으로 볼 수 있고, 동북도 부여족의 남하가 아니더라도 교역이나 유민의 이주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중요한 획기인 3세기후반대의 대성동 29호분 단계를 급진적인 변혁보다는 완만한 자체발전론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요컨대,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에 있어 3세기말-4세기초를 획기로 큰 변혁을 겪는 것은 優號 칭호를 받은 변한의 유력세력의 자체성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세기말 4세기초 무렵 동북아의 급변기라는 외부 충격과 함께, 마한권에서의 백제의 성장·진한권에서의 신라의 성장이 자극이 되어 변한권 주요 세력(구야국과 안야국) 스스로 자체적인 내부 통합을 도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외부의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변한소국 단위에서 소국들이 상호 상호연맹 관계를 가지며 정치적 발전을 하는 주체는 토착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세기 중엽이전에도 변한의 大國이었던 구야국·안야국이 자연스레 그 지역에서 주변 지역을 아우른 연맹왕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과정에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이주민을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체제를 뒤흔들만한 사건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사론의 문제점은 드러난다. 선진문물이나 새로운 장묘 부장 풍습 등을 모두 이주민과 직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만일, 구야국을 북방이주민의 영향으로 국가체제가 새로이 개편되었다면, 비슷한 시기에 연맹왕국으로 성장하는 안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고고학적 양상은 그렇지 않다.

2. 고고자료로 본 변한과 가야의 구분

1) 분묘로 본 변한과 가야의 구분

변한의 대표적인 묘제인 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된 새로운 무덤 양식이다.

목관묘 단계에 수장급이라 할 만한 후장묘는 상대적으로 극소수이다. 즉, 일정 지역집단에서 한 세대에 하나 정도가 존재할 정도이며, 목관묘군에 누세대적으로 조영되는 수장계열은 없다. 반면에, 목관묘 단계는 일정 능선을 누세대적으로 점유해간 수장묘열이 나타난다. 3세기 후반에 이런 중심고분군이 등장하고 그것을 지배적 친족집단의 등장이라 볼 수 있다(이성주 1993·2016).

영남지역에서 목관묘는 2세기 중엽에 출현하는데, 3세기 중엽까지는 동래 복천동, 김해 양동리, 창원 다호리 등의 여러 세력과 비교해서 대성동 세력이 절대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서로 독자성을 유지한 대등한 정치체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야국이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정치 세력인 점에서 보면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일정한 구심세력을 중심으로 연합이나 공동보조를 취했

을 것이다. 그러다가 3세기 후엽부터는 대성동세력이 주변의 여러 세력들보다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이들을 정치체의 하부단위로 편제하여 보다 큰 국가단계의 정치체로 발전하였는데 그것을 학계에서는 이전시기의 구야국과 구분하여 금관가야로 칭하고 있다(이재현 2003: 100).

3세기후엽에 편년되는 대성동 29호분은 구릉에 단독으로 입지한 대형 목곽묘로 순장이 최초로 확인되고 피장자의 발치에 토기를 대량 매납한 부장공간을 마련한 것도 확인된다. 이어서 축조된 대성동 13호분(4세기전반)부터는 피장자 발치에 주곽과는 별도의 토광을 파고 부곽을 설치한 이혈주부곽식 목곽묘로 발전하는데, 이는 신라식목곽묘라 불리면서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서 유행한 동혈주부곽식 목곽묘와 대비된다. 금관가야의 목곽묘는 주곽만 확인되는 단곽식과 주곽과 부곽이 분리되어 각각의 묘광을 마련한 주부곽식으로 구분되고, 4세기를 기점으로 전자에서 후자로의 대략적인 변화상이다. 독립 부곽의 발생은 목곽묘가 구조적으로 대형화됨과 동시에 극단화된 유물의 후장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해지역에서는 대성동 29호분의 단곽식목곽묘에서부터 출현한 순장의 풍습이 부곽의 출현과 함께 더욱 더 성행하는 특징을 보인다(김수환 2005). 이러한 이혈주부곽식목곽묘는 김해 양동리고분군·대성동고분군·예안리고분군·화정고분군 등에서 조사되었는데 목곽의 규모와 유물의 질적인 면에서 대성동고분군이 여타 고분군과는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시 금관가야의 중심세력임을 짐작할 수 있다(김준식·김규운 2016: 73-85).

이상과 같이, 대성동 29호분 단계이후 대성동 13호분에 이르기까지 대형 목곽묘의 조영, 순장, 토기의 다량 부장, 외래계 위세품,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의 출현 등의 양상은 앞 단계의 분묘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구야국에서 금관가야(가락국)으로의 성장의 획기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혈주부곽식은 신라식 목곽묘(동혈주부곽식 목곽묘)와 분명히 다르다는 점에서 가야와 신라의 분화와도 맞물려 있다.

2) 생활유적으로 본 변한·가야의 구분

고분 뿐만 아니라 생활유적인 주거·취락을 통해 변한·가야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거형태를 보면, 3세기후반·4세기초에 변한권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낙동강하류역의 김해를 중심으로 한 창원·진해 일원이 서부경남지역과 구분되는 모습이 보인다. 주거 형식의 분화 획기를 300년경으로 본다면, 변한·가야의 구분시기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변한에서 가야로의 전환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남지방의 주거·취락의 최근 연구성과(공봉석 2015)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변한·가야의 전환기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주거양식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전반 무렵까지 영남 일원의 주거지 특징은 대개 평면 원형(타원형), 벽주식 또는 다주식의 주혈배치, 석재 구들 및 부뚜막 등으로 요약된다. 원삼국시대 주거는 세부 시기 별로 약간의 구조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동일한 유형이 영남 일원에서 유행하였다(공봉석 2013:130).

그런데, 3세기 후반을 전후한 무렵부터 낙동강을 경계로 영남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구분되고, 서부지

역은 낙동강하류역과 서부 내륙·남해안 일대의 비교적 광역단위별로 주거지의 구조가 분화되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남 서부권은 낙동강하류역과 서부내륙·남해안 일대 지역을 구분하여야 한다. 낙동강하류역은 김해를 중심으로 한 창원과 진해지역이다(공봉석 2015: 29).

이와 같이, 3세기후반대 이후의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문화권은 영남동부권과 유사하면서 경남서부권(서부 내륙·남해안 일대)과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점이 특별한데, 김해를 중심으로 창원과 진해지역 등이 4세기에 모두 금관가야토기문화권에 속하는 점과도 맥락이 통한다. 이러한 점은 이 지역이 낙동강 서부권에서는 가장 선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남서부권에서 4세기 후반대 이후 점차 낙동강하류역의 주거문화를 수용한다는 점에서도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문화권세력이 선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낙동강하류역은 원삼국시대 원형계 주거지가 4세기 초엽까지 일부 관찰되나 대개 3세기후반경에 등장한 방형계 주거지가 4세기후반까지 지속된다. 방형계 주거지는 ㄱ자형 점토 구들이 설치되고 벽구시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벽주식 또는 무질서한 주혈 배치 양상을 보이는 등 영남 동부지역 주거지와 매우 유사한 구조이다(권귀향 2012).

이에 비해, 경남 서부 내륙 및 남해안 일대는 원삼국시대부터 줄곧 유행하였던 원형계 주거지의 전통이 4세기 후엽까지 지속되는데 중심주는 확인되지 않고 벽주만 설치된다. 구릉에 입지한 주거지는 벽주와 더불어 벽구의 설치비율이 높다(김진철 2008). 구들은 주거지의 벽을 따라 점토를 이용하여 설치하되 전체 둘레의 1/3 이상을 넘지 않는 특징이다. 4세기후엽을 전후한 시기부터 영남서부지역은 더 이상 원형계 주거지가 사용되지 않고 방형계 주거지가 등장하여 6세기 전반경까지 이어진다(이동희 2013). 방형계 주거지는 대개 부뚜막이 설치되는 예가 많으며 중심 4주와 벽구가 설치되기도 한다(공봉석 2015: 29).

이와 같이, 낙동강하류역 즉 금관가야문화권(김해·창원·진해 일대)이 영남 동부지역과 유사한 주거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야권에서는 이질적이고 특징적이다. 3~4세기에 금관가야 주거형식은 신라권과 오히려 유사한 특징을 보여 가야권 내에서 가장 선진지역이면서 서부경남과는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변한-가야의 전환기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경남 서부내륙 및 남해안 일대에 타원형주거지가 4세기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한권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관가야권역의 방형계 주거문화는 문화지체현상이 있는 서부내륙의 변한권과 차별성을 보인다.

요컨대, 낙동강하류역의 발전된 방형계 주거지의 서부지역으로의 확산은 선진문화의 파급으로 볼 수 있다. 낙동강서부 하류역인 김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창원·진해)에서 방형계가 일찍 보이는 것은 3세기 후반이후 김해가 단위 소국이 아니라 주변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상황과 부합된다. 4세기 후엽 이후 경남 서부권까지 낙동강하류역의 주거문화의 확산은 경남서부권이 선진적인 금관가야 주거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4세기말 5세기초도 가야의 발전에 있어 큰 획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무렵에 가야의 초기 중심지인 금관가야문화가 경남서부까지 파급되는 시기로 추정된다.

(2) 창고시설

3세기후반이후 대규모 취락에서 창고시설이 집중되는 것이 주목된다. 통상 창고는 잉여생산물을 저

장·분배 등의 기능과 직결되며 나아가 수취물이 보관되는 시설이기에 취락 내부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성장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 제공하므로(권오영 1996), 3~4세기대 영남지방의 창고 운영방식 등을 통해 신라와 가야의 형성과 성장을 알 수 있다(공봉석 2015: 40).

금관가야권역에서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지상식 건물지, 수혈 등은 김해 봉황동유적 지상식 건물지 26기·수혈 182기, 김해 퇴래리 지상식 건물지 21기·수혈 1기, 창원 남산 수혈 13기, 창원 가음정동 지상식 건물지 1기·수혈 10기, 창원 신방리 지상식 건물지 7기·수혈 19기 등이다.

3~4세기대 고상 창고와 저장혈 등 대규모 창고군을 갖춘 취락은 주로 영남 동부지역에 집중된다. 다수의 주혈군을 지상식 건물지로 본다면 김해 봉황동유적을 중심으로 낙동강 하류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경남서부 내륙지역과 남해안 일대는 단일 취락 내 주거 건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지상식 건물지나 수혈유구 등 부속시설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즉 대규모 창고시설을 갖춘 취락의 비율이 매우 낮다. 예를 들면 함양 화산리유적이나 사천 봉계리유적, 진주 가좌동유적 등 대규모취락에서 수혈유구와 지상식 건물지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3~4세기대 김해 봉황동 제 유적의 양상을 고려하면 봉황대를 중심으로 동쪽에 최상위 계층의 주거역·생산시설(제철), 서쪽에 항구와 같은 교통시설이 있고, 이와 관련된 창고역이 주거역과 항구 주변의 일정공간에 대규모로 분포한다. 현재로서는 낙동강 하류역에 김해 봉황동유적을 제외하면, 대규모 창고군을 가지는 취락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공봉석 2015: 40-44).

요컨대, 김해 봉황동유적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권역에서 대규모 창고군의 존재는 철 생산 및 대외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금관가야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경남서부 내륙권에서 대규모 창고시설을 갖춘 취락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뚜렷이 대비되는 것으로, 변한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관가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김해 양동리 고분군에서 대성동 고분군으로의 중심 세력 변화의 의미

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양동리고분군 일대의 조만천변이 구야국의 중심지로 성장한다. 이 고분군에서는 한·왜의 문물과 함께 철기가 다수 출토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의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구야국에서는 철을 산출하며, 한·예·왜가 모두 철을 구해 가고 시장의 매매에서도 모두 철을 사용한다. 즉, 낙랑·대방에도 공급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철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의 교역이 구야국을 중심으로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동리고분군에서는 대형 목곽묘가 조영되거나 중소형 목곽묘와 같이 묘역을 형성하고 있어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조의 “비록 국읍에 主帥가 있으나 읍락이 잡거하여 잘 제어하지 못한다”는 기록과 부합한다. 3세기 중후엽부터 김해 시내 중심부의 대성동고분군에서 양동리고분군을 능가하는 대형 목곽묘의 조영이 개시되며 이때부터 대성동고분군이 위치한 해반천변이 중심지로 성장한다(박천수 2016: 10-11).

김해 주촌면 양동리 고분군의 1~3세기 고분들에서 천군과 같은 종교적 지도자의 성격을 볼 수 있다면 가락국왕(금관가야왕)으로서 정치적 君長의 면모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대성동 고분군이다. 가락국의 역대 왕릉이 자리한 대성동 고분군 가운데 최초의 왕릉이라고 할 수 있는 3세기 후반대의 29

호분에서는 파편이긴 하지만 금동으로 만든 왕관이 나오기도 하였다(이영식 2009 : 92-108).

3세기 후엽의 대성동 29호분 단계가 되면 양동리고분군과는 더 이상 견줄 수 없게 되고 김해지역의 부와 권력은 대성동고분군으로 집중된다. 이 단계부터 구야국(가락국)은 대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국으로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 해상교역과 더불어 철 생산시스템의 구축이다. 『三國志』의 철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기술도 바로 이러한 가야를 기록한 것이다(이영식 2018: 28).

대성동 29호분에서는 시신이 안치되는 바닥면에 관상철부 100여점을 열을 지어 깔았으며 음식물을 공헌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점의 토기가 동북과 함께 부장된다. 3세기 전반까지 조영된 양동리고분군의 대형 목곽묘에서는 철기가 주로 부장되고 토기는 소수였으나 이 시기부터 음식물을 공헌한 토기가 다수 부장된 것에서 가야인의 내세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양동리고분군에 보이지 않던 순장이 처음 시행되는데 이는 계세사상과 관련된다. 계세사상은 죽은 후의 세계에서도 삶의 현재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으로, 사후의 세계가 현세와 같으며 내세의 삶을 위하여 생전의 생활을 그대로 저승으로 가져간 것이 厚葬으로 표현되는 것이다(박천수 2016: 10-11).

이와 같이, 대성동 29호묘의 등장은 변한 속의 구야국에서 한 단계 발전한 금관가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이다. 금관가야의 등장은 변한소국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초기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이며 이후 금관가야는 주변의 유력정치체와 연합함으로써 점차 정치세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영민 2008).

3.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성립

한국고대사에서의 정치체 발달 과정은 읍락단계→읍락통합단계(「國」단계; 국읍단계; 小國단계)→연맹왕국(소국연맹단계→部체제단계)→집권적 귀족국가(집권국가)로 정리될 수 있다.

한성백제 성립과정 연구에서는 연맹왕국을 국가(state)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정토기양식의 형성과 분포 양상, 대형 분묘의 출현, 성곽의 등장이라는 3가지 고고학적 현상이 국가체의 형성을 보여주는 지표임을 확인하였다(박순발 2001:251).

같은 맥락에서 변한은 소국 단계, 가야는 소국간 연맹체가 형성된 다음 단계로 보고자 한다. 연맹왕국 단계의 고고학적 현상이 변한소국단계보다 더 강력해진 국가 권력인데 그러한 증좌가 대형분묘, 토기양식의 출현, 순장, 토성 등 방어시설 등이다.

고고자료에 근거하여 가야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금관가야(가락국)를 중심으로 가야의 성립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금관가야(가락국)

(1) 토기양식의 출현²⁾

금관가야양식 토기의 출현은 대성동 29호분 축조 다음 단계인 김해 구지로 1호분에서 환형파수부 노

2) 고구려, 신라 등의 예에서 삼국시대 토기양식 분포권과 정치영역이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양식 토기의 형성 및 그러한 양식의 공간적 지배는 국가단계 정치체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된다(박순발 2001:251).

형기대와 격자문타날호가 조합을 이루는 3세기 후엽으로 파악된다. 김해지역과 부산지역의 토기 양식이 같아지는 시기는 복천동 38호분에서 환형과수부 노형기대가 부장되는 4세기 초엽이다. 이는 복천동 38호분에서 대성동고분군에서 다수 출토된 통형동기가 부장되기 시작하는 것에서도 그러하다. 4세기 1/4 분기에는 금관가야의 영향력이 부산 복천동까지 확대된 연맹왕국의 시작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박천수 2010: 144-145).

김해 대성동세력과 부산 복천동세력이 4세기초에 문화적 동질성을 보인다는 것은 3세기말에 이미 그 네터워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토성의 출현

봉황토성의 연대에 대해서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시기로 과연 성 전체가 이 시기에 축조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축조되었지만 이 때 개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전옥연 2013, 이성주 2018).

4세기후엽 대성동 고분군에서 마지막으로 조영된 왕묘인 1호분에서 유개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봉황토성 내에서도 이 시기의 토기가 확인되기에 적어도 4세기 후반에는 본격적인 왕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봉황토성은 봉황대를 둘러싼 하단 폭이 20m에 달하고 내외면을 증석한 성벽을 가진 평지성으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금관가야의 왕성이며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임라가라 종발성’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관가야의 발전을 웅변하는 유적이다(박천수 2016: 12-13).

이와 관련하여 경산 임당토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당유적의 경우, 4세기 어느 시점에 토성을 축조하게 되고 엘리트 주거는 그 안으로 이주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장용석 2008·2016, 하진호 2010, 이성주 201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가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관가야(가락국)의 봉황토성도 4세기대에는 토성을 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조사성과를 기대한다.

(3) 순장의 출현

순장은 초월적인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존재를 나타낸다(이재현 2003).

한반도 남부에서 순장은 3세기후엽 금관가야의 대성동고분군에서 처음 시작된다. 가장 이른 사례는 대성동 29호분이고, 4세기대가 되면 순장은 이전보다 순장규모가 확대되고 순장을 시행하는 계층도 확대된다. 순장이 확인된 고분은 대성동 13호·91호·2호·88호·70호·23호·3호·39호·57호 등이다. 3세기말 최고지배층의 순장자가 1명인데 비해, 4세기대에는 3~5명, 5세기전엽에는 5~6명, 5세기 중후엽에는 1명으로 순장규모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어가는 경향이 확인된다. 순장이 시행되는 시기는 대형목곽묘의 등장과 북방의 문물이 대거 유입되던 때이자 인구 증가와 생산력 증대 등 내재적 발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던 때이다. 금관가야의 순장은 4세기대 대성동고분군 조영집단을 비롯한 금관가야 연맹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한다. 금관가야 내 연맹관계인 김해 양동리고분군에서는 4세기 후엽의 양동리 349호분과 5세기 전엽의 양동리 304호분 단 2기에서만 순장이 확인되며 순장규모는 1명으로 단순하다.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는 4세기 전엽에 순장이 시행되며 이후 신라지배를 받는 5세기

중엽을 거쳐 5세기말까지 지속된다. 순장규모는 4명을 매장한 복천동 11, 22호분을 제외하면 1~2명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금관가야연맹내의 중심고분군 간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김수환 2018: 159-176).

이상과 같이 순장의 시작은 금관가야의 중심 세력인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이르면서 성행하였고, 연맹관계인 양동리고분군이나 부산 복천동고분군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관가야연맹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4) 대형 고분의 출현

대성동고분군은 훼손되어 현재로서는 육안상 봉토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의 목곽을 덮을만한 방대형의 봉토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경주의 경우, 평지에 고분을 축조함으로써 무덤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데에 높은 봉토가 필요함으로서 단위 고분마다 높은 봉토를 축조했고, 금관가야의 경우 比高 15m인 애꼬지라는 독립된 구릉 자체가 族團의 묘지로 선정되어 그것이 이미 묘지로서 표지를 이루고 있기에 단위 고분의 봉토를 높게 축조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또한 개별적인 단위 조상보다는 족단의 공통 조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덤을 축조해 감으로써 독립된 봉토분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김용성 2018: 24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성동고분군이 입지한 구릉 전체를 지배층의 유택으로서의 큰 분구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5~6세기대 말이산·지산동 고분군의 개별적인 거대 봉토분과 달리, 3~4세기대에 낮은 구릉 전체를 활용한 대성동 고분군은 지배층만의 배타적인 묘역을 가진 공동체의식의 잔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

(5) 연맹왕국의 출현

변한의 구야국이 금관가야(가락국)로의 전환은 연맹왕국과 관련될 것이다. 즉 구야국이 주변 소국을 통제하는 주도적 동맹관계일 것이다. 금관가야(가락국)의 성립은 대성동 29호분 단계와 관련되며 연맹왕국 단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경철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즉, 동래 복천동세력을 금관가야의 한 세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원삼국시대 김해에는 구야국, 동래에는 독로국이 존재하였으며 4세기대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부산 복천동고분군에서 동일 양식의 토기와 통형동기를 공유한 것은 양국간의 정치적 연합으로 구야국에서 금관가야로 전환하는 고고학적 증거로 보았다(신경철 1995a).

이와 관련하여, 홍보식도 김해세력이 3세기 후반경에는 소국단계를 벗어나 초기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해와 부산세력이 결합된 소국연맹국가라고 보았다. 구야국의 대성동집단이 독로국의 복천동집단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홍보식 1999). 김해와 부산지역이라는 지역 단위의 연맹을 상정한 점에서 일종의 지역연맹체론이다(권오영 2001).

4세기초 이후에는 금관가야가 진영분지, 창원분지, 진해·마산만까지 권역을 넓히는 것으로 파악된다(홍보식 1999). 그 권역은 금관가야양식토기의 분포로 볼 때 동으로는 복천동고분군이 조영된 부산지역, 북으로는 파수부노형기대가 출토된 김해 퇴래리고분군이 조영된 진영지역, 서로는 파수부노형기대가 출

토된 창원 삼동동 고분군이 자리하는 창원분지 포함한다. 이 시기를 획기로 보는 이유는 구야국이라는 옛 김해만 연안의 소국을 탈피하여 독로국을 비롯한 창원분지의 소국과 광역연맹체를 형성하고 그 교섭대상이 규슈지역을 벗어나 새롭게 일본열도의 중심지로 성장한 나라분지 북부의 사기세력으로 확대되는 시기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313년·314년 낙랑과 대방의 멸망을 계기로 한 동아시아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박천수 2010: 144-145).

대가야연맹이 고령의 가라가 대표이고 나머지 구성국은 독립성을 유지하되 어느 정도의 상하관계를 맺은 것으로 본다면(이희준 1995: 420), 금관가야 연맹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즉, 금관가야 연맹도 김해의 가라국이 대표이고 부산 등의 구성국은 독립성을 유지하되 상하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맹체내의 대표국(대국)과 소속국(소국)과의 관계는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진·변한 국간에는 대국과 소국으로 규모의 차이가 생겼는데 그것은 생산기반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삼국지에 기록된 대국에는 사로국과 구야국이 포함되는데 철기생산과 대외교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가진 공통점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소국이 우호적인 관계로 결합한 정치연합체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대국은 철기생산과 대외무역, 주변소국으로의 중요자원 공급 등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고, 주변의 소국은 농업과 가내수공업적 생산기반을 기초로 하면서 대국과의 사회·경제적 관계, 소국 내의 재분배와 유통 등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다. 상층의 엘리트세력은 목곽묘에 대량의 기물을 부장하였고, 주변 엘리트 세력은 대국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철기의 입수, 자체적인 단조철기 및 와질토기의 생산과 유통은 중요한 경제적·정치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이재현 2016: 97-101).

(6) 소결

3세기 후반-4세기 초엽에 변한(구야국)에서 가야(금관가야, 가라국)로의 질적 성장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속성을 거론할 수 있다. 즉, 토기양식, 순장, 토성 등의 방어시설, 대형분³⁾의 출현과 함께 연맹왕국의 성립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적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다. 최초의 왕릉인 대성동 29호분이 축조된 낮은 구릉을 누세 대적으로 활용하는 고층의 경관, 금관가야토기양식 출현, 순장 등과 함께, 금관가야의 부산·창원·진해 등지로의 영향력의 확대는 연맹왕국의 출현으로 볼 수 있고, 백제·신라와 비교해 보아도 고대국가로 가는 경로상에 있음은 뚜렷이 확인된다. 즉, 금관가야양식토기의 출현과 주변지역으로 파급⁴⁾, 부곽을 가진 대형 목곽묘의 출현과 주변으로의 확대 등은 김해 대성동 세력을 정점으로 부산·창원·진해 등지에 걸쳐 간접지배 혹은 주도적 동맹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2세기-3세기(중엽)대에 구야국 단계에 김해세력이 낙랑·대방군과의 대외교역에서 창구 역할을 하면서 여러 소국의 대표격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이는 경제적 관계에 치중한 것이고, 좀 더 정치적인 관계의

3) 고분으로서의 필요조건은 입지의 우월성, 매장주체부의 대형화와 부곽의 등장, 무기의 개인집중화, 순장 시행 등이 거론된 바 있다(최종규 1983).

4) 고구려, 신라 등의 예에서 삼국시대 토기양식 분포권과 정치영역이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양식 토기의 형성 및 그러한 양식의 공간적 지배는 국가단계 정치체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된다(박순발 2001:251).

발현은 연맹왕국의 시작과 관련되며 그 시작은 3세기말-4세기초에 해당한다.

요컨대, 초대형 목곽묘의 출현과 후장·외래위세품의 다량 부장·부곽과 순장·토성 등의 방어시설의 등장·금관가야(가락국)만의 토기양식의 출현과 전과 등은 가야권역에서 가장 이르며, 이는 구야국 단계부터 철의 생산과 유통, 교역 중심지로서 구야국의 내적 성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2) 아라가야(안라국)⁵⁾

3세기 중엽의 안야국은 김해의 구야국과 함께 진왕으로부터 優號를 받는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이영식 2016: 528, 박천수 2016:18).

안야국은 3세기 중후엽에서 4세기 전반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포상팔국 전쟁을 계기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다. 포상팔국 중 일부 국의 병합과 진동만을 통한 해안으로의 진출이 중요 성장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부터 국명도 安羅로 바뀌었을 것이다(백승욱 2003).

아라가야토기의 성립 단계는 4세기 1/4분기로 추정되며, 남강유역인 의령 남부인 예둔리까지 확대된다. 즉, 4세기 이후 안라국의 영역은 급격히 확장되어 남강유역권인 의령 남부와 진주 동부권 외에 마산만·진동만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 단계가 획기로 볼 수 있다(박천수 2010: 63).

아라가야양식토기의 출현과 주변지역으로의 영역 확장 시기인 4세기 이후는 안야국의 국호가 안라국(아라가야)으로 변경된 시점과 부합된다. 통형고배 등의 아라가야토기에 근거해 보면 4세기 이후 안라국의 영역은 급격히 확장된다. 특히, 안라국의 마산만·진동만의 확보는 남해안 여러 세력 및 倭 등과의 폭넓은 교류와 교섭을 가능하게 하여 안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마산만 일대의 정치체나 철원의 칠포국 등 종래 소국명을 가진 정치체는 포상팔국 난 이후 안라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는데, 직접지배라기보다는 간접지배 혹은 상하연맹체 정도라고 파악된다. 마산만 일대에서 아라가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유적은 마산 현동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4세기초부터 통형고배 등의 아라가야양식의 토기들이 다량 출토된다(동서문물연구원 2012).

아라가야에는 대성동 29호분에 준하는 목곽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함안 도항리 일원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아라가야 궁성터가 조사되고 있어 주목된다. 고고학적 추가조사가 완료되면, 변한 소국(안야국)에서 성장한 4세기대 가야 연맹왕국의 중심국 가운데 하나인 아라가야(안라국)의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대가야와 소가야

소가야·대가야의 토기 양식 및 고분의 출현은 5세기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소가야·대가야의 연맹왕국으로의 성장은 금관가야·아라가야에 비해 후진적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견해는 참고된다.

“5세기대가 되면 서부경남 가야고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앞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목곽묘가 축조되면서 갑주와 마구의 부장과 함께 귀금속류의 冠帽와 귀걸이 등이 새롭게 부장

5) 안라국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글(이동희 2018)을 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된다. 이처럼 무덤이 커지고 다양한 철기와 귀금속류가 부장된 유구는 이러한 유물을 소지한 자의 강대한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알려주며 궁극적으로는 거대 정치체, 즉 가야소국의 등장을 알려주는 고고자료임이 분명하다”(조영제 2018: 6-7).

대가야의 지배층 고분군인 고령 지산동 30호분에서는 5세기 전엽경의 대가야양식토기, 즉 통형기대·발형기대·장경호·고배가 기종을 이루어 부장된 것이 확인된다. 이 시기야말로 대가야양식토기의 성립기라 할 수 있으며 지산동고분군에 대규모 고총이 출현하는 시기이다(박천수 2010: 180). 또한, 지산동고분군에서는 5세기전엽부터 순장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한편, 고성과 통영지역에서는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소가야양식토기가 출토되고 소가야형묘제가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고성지역이 5세기 전반 이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소가야의 중심지인 것으로 상정된다. 토기 외에 고성지역 대형 고총군의 분포 역시 이를 시사한다. 5세기 전반에는 고성 중심으로 경남 서남부지역을 비롯해 남원 아영지역 전남동남부지역까지 세력을 넓히게 된다. 5세기후반에는 대가야에 의해 호남동부지역이 모두 권역에서 벗어나고 6세기에는 소가야의 권역이 급격히 축소되고 소가야내 제지역의 집단 결속력도 완화된다고(김규운 2009).

소가야는 고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소국연합이나 이 지역에도 송학동고분군에 필적하는 내산리고분군이 존재하고 산청군 중촌리고분군에도 대형분이 조영된 점에서 연맹국 간에는 대가야권·아라가야권과 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명확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박천수 2016: 34).

4) 소결

본고에서는 가야 성립기를 이주민에 의한 혁명이 아닌 자체발전의 관점에서 소국단계를 넘어선 연맹왕국 단계로 보고자 한다. 연맹왕국 단계의 고고학적 현상이 변한단계보다 더 강력해진 국가 권력인데 그러한 증좌가 대형분묘, 토기양식의 출현, 순장, 토성 등의 방어시설 등이다.

그런데, 같이 성장하던 신라(사료국)와 가야(가라국)의 차이점이라면 가야는 광개토왕 남정을 계기로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비교적 좁은 범위의 연맹왕국에서 멈추었다는 점이고, 신라는 지속적으로 고대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야(금관가야·아라가야·대가야·소가야 등)는 개별 소국이 아니라 인접한 가야 소국 몇 개가 합쳐진 명칭으로 지역연맹체 수준이다. 즉, 가야의 시작은 연맹왕국의 고고학적 현상이 드러나는 단계로서, 그 상한은 3세기 후엽이며 가장 선진적인 금관가야가 이에 해당한다⁶⁾.

가야가 다른 삼국에 빨리 멸망한 것은 수개로 분리된 소국연맹체(연맹왕국)가 멸망기까지 통일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야 멸망기에 10여개국의 국명이 확인되므로 개별 연맹체 내부에 자치권이 있는 소국이 존재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개별 연맹체내의 구조가 맹주와 소속국의 구조라면 간접지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맹체구조는 고고학적 유물상(문화적)으로는 유사성을 보이지만 개별 소국이 자치권이 있는 셈이다. 대가야의 늦은 단계에는 연맹왕국 다음 단계로, 부체제 그리고 고대국가에 근접하는 단계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소속국인 다라국은 문화적으로는 대가야와 긴밀한 연결성을 보이면서도

6) 물론, 5세기후반 이후의 대가야는 고대국가까지 성장했다는 것이 최근 고고학계의 의견이며, 그럴 가능성이 높다.

독자성도 함께 확인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변한소국에서 연맹왕국으로의 전환시기는 각 연맹체별로 상이하다. 즉, 금관가야는 3세기 후엽-4세기초, 아라가야는 4세기초, 대가야와 소가야는 고고학적 양상으로 보면 5세기초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변한-가야 전환기를 논의할 때 지역성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개별 소국 단계였던 변한을 초월하는 새로운 단계, 즉,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연맹체 단계의 시작을 가야의 시작으로 보았다. 즉, 고고학적 유물상(특히, 토기)이나 묘제 문화권으로 보면 4-5개 정도의 문화권으로 구분되는 것이 지역연맹체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 단계는 개별 소국간의 관계가 단순한 교류관계가 아닌 한쪽 나라가 인접 나라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변한의 여러 나라 중 대국으로 나오는 안야국과 구야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자연스럽다. 그 중에서도 변한을 대표하는 구야국이 인접 독로국과 연맹관계를 맺은 가운데 구야국이 독로국을 통제할 양상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백제·신라가 마한·진한권역내 인접 소국과 연합하여 주도권을 가지면서 鄣단계, 고대국가로 나아갔듯이 변한의 주도적 세력이 그러한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를 사회발전 단계상 가장 큰 획기로 볼 수 있다.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 남정이 가야사 전체적으로 큰 획기이지만 이는 외부의 충격이고, 자체 발전과정으로 보면 그 이전단계에 소국간의 연합체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단계는 변한 소국 중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였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사회발전단계상에서도 새로운 진보이다.

물론, 포상팔국과 같이 4세기 이전단계에 연맹의 기사가 보이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 강하고 이해관계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합한 경우로서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포상팔국의 연맹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적 물증이 보이지 않기에 그 시기를 하향조정해 5세대 소가야의 고고자료와 연결하고자 하지만, 합리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요컨대, 가야의 성립은 변한 속의 구야(소국단계, 병렬적)가 아니라 주변 소국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새로운 금관가야 단계(소국연맹단계, 지배·종속적)로 진입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왕의 권력이 강력해졌으며, 고고학적으로 발현된 것이 대형분묘(목곽묘)·순장·부곽·지역양식토기·토성 등 방어시설 등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4. 변한 · 가야의 지역성

이렇듯 3세기후반~4세기초엽에 구야국에서 한 단계 발전된 금관가야(가락국)으로의 성장을 고고학적 구분의 근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해·부산·창원 일원에 국한된다. 그 뒤를 이어 4세기 초엽에 안야국이 안라국(아라가야)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서부경남이나 고령 대가야권역에서는 현재까지 5세기가 되기 전인 3~4세기대에 금관가야문화권과 같이 구분되는 고고학적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弁韓 諸國의 규모 차이를 거론할 수 있다. 즉, 변한 여러 나라 가운데 구야국이나 안야국 같은 대국은 5千家에 달하지만 소국은 千

家 미만이다. 대국과 달리, 서부경남같은 주변부에서는 그 발전상황이 지체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 구야국 기준으로 주변 작은 소국을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요컨대, 3세기 후반대에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변한 내의 사회발전단계 차이와 동일하게 가야내의 발전단계의 차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연맹체와 같이 소국연맹체의 시작을 가야의 시작으로 본다면, 변한·가야의 지역성은 뚜렷하다. 즉, 변한에서 새로운 정치체 단계인 가야로의 전환은 시기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서부 경남권은 변한 연장선에서 오래 지속되어, 소가야와 대가야연맹체의 성립은 5세기 이후로 볼 수 있다.

서부경남의 정치체들이 읍락 수준의 비교적 작은 정치체가 많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국읍 있는 읍락과 국읍 없는 읍락 등 정치체의 규모상의 차별성을 고려한다면⁷⁾, 대국인 구야국 기준으로⁸⁾ 서부경남권의 소규모 변한 정치체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동·산청·의령·사천과 고성 of 내륙지역에서는 아예 와질토기 문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소가야지역으로 비정되는 서남부경남지역에는 변한소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다. 고성 동외동패총에 대해 후기 와질토기 문화의 존재를 근거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고자미동국이 이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는 있으나, 동시기 김해나 경주지역의 양상을 보면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해 양동리의 거대 목곽묘와 부장유물, 경주·경산 등지의 이 단계와 유구·유물은 아주 밀집되어 있으면서 규모도 크고 철기유물도 다량으로 부장되고 있기에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진변한 정치체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동외동 패총 자료는 이러한 자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와질토기문화를 종식시키고 등장하는 고식 도질토기 문화는 보다 거대해진 목곽묘의 축조와 함께 더 많은 철제무기가 부장된다. 극히 일부 지역이지만, 갑주나 마구가 부장됨으로써 본격적인 가야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대성동·양동리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김해의 가락국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김해지역을 벗어난 다른 가야지역에서는 고식 도질토기 단계의 유구나 유물을 볼 때 가야소국의 존재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로 4세기까지도 함안지역에 안라국이나 소가야지역에도 가야소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조영제 2018: 6-7).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얼마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와질토기문화와 변한 소국을 직결시켰는데, 와질토기문화는 영남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영남동남부지역이 변한내의 중심지임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정치체의 규모의 차등성을 감안하면 경남서부권에 소규모일지라도 변한 정치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낙동강하류역과 경남서부권은 여러 고고학적 양상이 다르다. 서부경남권이 문화적으로 지체되었음이

7) 마한의 '대국'과 진·변한의 '大國' 가운데 성과와 官家를 갖추고 있던 중심지를 국읍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읍이 주변의 읍락을 제어하는 대국의 구조와 달리, 소국은 소수의 읍락이 서로 대등하게 연결된 구조일 것이다. 대국은 국읍을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형 구조로 주변의 읍락이 복속되어 있다면, 소국은 중심읍락 없이 읍락들이 평면으로 연결된 별집형 구조라고 보인다(박대재 2018: 24-25).

8) 『삼국지』기록을 보면 3세기 당시 구야국과 안야국은 변한에서 양대 세력이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목곽묘의 규모나 부장품의 차이 뿐만 아니라, 원삼국시대 토기 양상도 다음과 같이 뚜렷한 차별성이 보인다.

와질토기의 제작이 정형화단계에 들어가면서 김해·부산지역은 일찍부터 일상토기에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늑도식토기에서 연질토기로의 전환이다. 와질토기의 영향으로 원저 중심의 토기문화로 변한다. 이에 비해, 서부경남지역은 늑도식 토기가 2세기까지 잔존하며, 3~4세기대까지도 봉계리식토기와 같은 무문토기의 전통이 매우 강하게 남아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이창희 2016: 74).

『三國志』에 표현된 東夷 사회의 정치체들은 그 규모와 조직의 수준에 극히 불균등하다. 韓의 ‘國’중에도 그 규모는 천차만별이어서 대국의 인구는 소국에 약 20여배나 될 정도이다. 즉, 읍락 십수개를 연결하여 하나의 국을 이루기도 했지만 하나의 읍락 정도가 독립적 정치체로서 행세하기도 했을 것이다. 3세기 진변한 국의 규모와 조직이 무척 불균등하였던 것은 국의 형성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영남지역 안에서도 동남부지역에서는 국의 성장이 이르고 북부와 서부 내륙으로 갈수록 정치체의 성장이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남 북서부지역 국의 중심취락과 국의 중심고분군의 형성도 상대적으로 늦다. 3세기 후반이면 동남부지역에서는 능선의 정선부를 따라 대형 목곽묘가 배열되는 중심고분군의 형성이 시작되지만 동시기 내륙지역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없으며 수장묘군의 형성시기는 훨씬 지체된다(이성주 2018: 91-92).

같은 맥락에서 변한으로부터 가야의 성립과 발전과정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Ⅲ. 맺음말

변한과 가야의 연구에서 3세기 이전의 변한사회와 4세기 이후의 가야사회에 대한 인식차는 前期論과 前史論으로 대비된다. 즉, 변한사를 가야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입장을 前期論, 양자를 분리하는 입장이 前史論이다. 이에 대한 찬반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야를 연구하는 문헌학자들은 대개 변한을 포함한 가야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고고학자 중에서는 변한과 가야를 구분해 보는 의견이 강하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변한과 가야를 구분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지만 그 구분이 용이하지는 않다. 이미, 고고학적 관점에서 변한과 가야를 구분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성동 고분군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변한(구야국)과 가야(금관가야)의 구분이다(신경철 1992). 이 견해에서는 변한과 구분되는 가야의 등장을 대형의 분묘(목곽묘)와 탁월한 입지·순장·후장·토기양식의 출현 등에 근거한다. 가야로의 전환 시기를 3세기후엽으로 비정하고, 변한 소국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김해 대성동세력을 중심으로 부산·창원 등이 연맹체를 형성한 단계로 보고 있다.

신경철의 전사론은 대성동 29호분 단계에 북방이주민의 이동과 관련 문물을 근거로 하여 정치적인 큰 변혁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신경철이 북방이주민에 의한 무덤 파괴를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획기인 대성동 29호분은 기존의 목곽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9호분이 1세기뒤의

39호분에 의해 일부 파괴하는 현상은 설명이 어렵다. 이는 묘역의 제한성에 기인하거나 지배층 친족집단내에서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듯하다. 그리고, 도질토기의 등장을 와질토기의 내재적 발전으로 볼 수 있고, 동북도 부여족의 남하가 아니더라도 교역이나 유민의 이주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중요한 획기인 3세기후반대의 대성동 29호분 단계를 급진적인 변혁보다는 완만한 자체발전론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본고에서는 변한과 가야의 전환기를 이주민에 의한 혁명적 변화가 아닌 자체발전의 관점에서 소국단계를 넘어선 연맹왕국 단계로 보고자 한다. 연맹왕국 단계의 고고학적 현상이 변한단계보다 더 강력해진 국가 권력인데 그러한 증거가 대형분묘, 토기양식의 출현, 순장, 토성 등의 방어시설 등이다.

가야의 성립은 변한 속의 구야(소국단계, 병렬적)가 아니라 주변 소국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새로운 금관가야단계(소국연맹단계, 지배·종속적)로의 진입과 관련된다.

3세기말~4세기초를 전후하여 금관가야와 아라가야가 연맹왕국으로 전환되는 큰 변혁은 優號 칭호를 받은 변한의 유력세력(구야국과 안야국)의 자체성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세기말 4세기초 무렵 동북아의 급변기라는 외부 충격과 마한권에서의 백제의 성장, 진한권에서의 신라의 성장이 자극제가 되어 변한권내에서 구야국과 안야국이 각기 자체적인 내부 통합을 도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외부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변한 소국들이 주체가 되어 상호 연맹관계를 가지며 정치적 발전을 이룩하였을 것이다.

3세기 중엽이전에도 弁韓의 大國이었던 구야국·안야국이 해당 지역에서 각기 주변 지역을 아우른 연맹왕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과정에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이주민을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체제를 뒤흔들만한 사건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사론의 문제점은 드러난다. 선진문물이나 새로운 장묘 부장 풍습 등을 모두 이주민과 직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만일, 구야국이 북방이주민의 영향으로 국가체제가 새로이 개편되었다면, 안야국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고고학적 양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관가야·아라가야·대가야 등은 모두 개별 소국이 아닌 여러 가야 소국이 합쳐진 명칭으로 지역 연맹체 수준이다. 즉, 가야의 시작은 고고학적으로 뚜렷이 연맹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이 발현된 단계이다. 그 상한은 금관가야로서 3세기 후엽으로 본다.

물론, 포상팔국과 같이 4세기 이전단계에 연맹의 기사가 보이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 강하고 이해관계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합한 경우로서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포상팔국의 연맹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적 물증이 보이지 않기에 그 시기를 하향조정해 5세대 소가야의 고고자료와 연결하고자 하지만, 합리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야 멸망기에 10여개국의 국명이 확인되므로 개별 연맹체 내부에서는 자치권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개별 연맹체내의 구조가 맹주와 소속국의 구조라면 간접지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맹체 구조는 문화적으로는 유사성을 띠지만 자치권이 있는 셈이다. 대가야의 늦은 단계에는 연맹왕국 다음 단계로, 부체제 그리고 고대국가에 근접하는 단계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소속국인 다라국을 보면 문화적으로 대가야와 긴밀한 연결성을 보이지만 개별 소국의 자치성이 확인된다.

변한소국에서 가야연맹왕국으로의 전환시기는 각 연맹체별로 상이하다. 즉, 금관가야는 3세기 후반,

아라가야 4세기초, 대가야와 소가야는 현재 고고학적 양상으로 보면 5세기 초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한-가야 전환기를 논의할 때 지역성이 언급되어야 한다.

서부경남이나 고령 대가야권역에서는 현재까지 3~4세기대에 고고학적으로 가야연맹체와 관련지를 만한 특징(고총·지역양식토기·순장 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전단계인 변한 소국의 규모 차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변한 여러 나라 가운데 구야국이나 안야국 같은 대국은 5千家에 달하지만 소국은 千家 미만이다. 대국이 먼저 발전하였고 서부경남같은 주변부에서는 그 발전상황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구야국같은 대국 기준으로 주변 소국을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문헌

- 공봉석, 2013, 「영남지방 원삼국·삼국시대 주거,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 공봉석, 2015, 「신라·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영남고고학』73호, 영남고고학회.
- 권귀향, 2012, 「낙동강 이서지역 삼국시대 주거지의 전개양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오영, 1995, 「삼한의 국의 구성에 대한 고찰, 『삼한의 사회와 문화』, 신서원.
- 권오영,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오영, 2001, 「가야제국의 사회발전단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 김규운, 2009,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소가야의 변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환, 2018, 「가야의 순장, 『가야사총론』(가야고분군 연구총서 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김영민, 2008, 『금관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성, 2018, 「왕묘급 고분을 통해 본 가야묘제의 특성,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김준식·김규운, 2016, 「가야의 묘제, 『가야 고고학 개론』, 진인진.
- 김진철, 2008, 「삼국시대 타원형 수혈주거지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식, 2000, 「가야연맹체의 성격 재론, 『한국고대사논총』10.
- 남재우, 2017, 「전기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85.
- 동서문화연구원, 2012, 『마산 현동유적 I』.
- 박대재, 2018, 「삼한의 국읍을 통해 본 구야국,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 제2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 박순발, 2001,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문화사.
- 박천수, 2010, 『가야토기』, 진인진.
- 박천수, 2016, 「가야사 연구 서설-소국에서 영역국가로-, 『가야 고고학 개론』, 진인진.
- 백승욱,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해안.
- 신경철 1992, 「김해 예안리 160호분에 대하여, 『가야고고학논총』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신경철, 1995a, 「김해대성동·동래복천동고분군 점묘-금관가야 이해의 일단-, 『부대사학』제19집, 부산대학교사학회
- 신경철, 1995b, 「삼한·삼국시대의 동래, 『동래구지』, 동래구지편찬위원회.
- 신경철,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결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 이동희, 2011, 「인도네시아 슴바섬과 한국 지석묘사회의 비교 연구, 『호남고고학보』38, 호남고고학회 .
- 이동희, 2013, 「삼국시대 남해안지역 주거·취락의 지역성과 변동, 『한일취락연구』, 한일취락연구회, 서경문화사.
- 이동희, 2018, 「고고학을 통해 본 안라국의 형성과정과 영역 변화, 『지역과 역사』제42호, 부경역사연구소.
- 이성주 1993,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한국고대사논총』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이성주, 2016, 「복합사회 형성과 발전에 대한 고고학 연구, 『진·변한 '國'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 이성주, 2018,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 제2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 이영식, 2009,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여행』, 지식산업사.
- 이영식, 2016, 「문헌사학으로 본 가야,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 이영식, 2018, 「가야사의 시기구분과 공간적 범위, 『가야사총론』(가야고분군 연구총서 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이재현, 2003, 「김해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무덤의 변화, 『대성동고분박물관 전시안내도록』, 대성동고분박물관.
- 이재현, 2003, 『변·진한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현, 2016, 「진·변한 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진·변한 ‘國’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 이창희, 2016, 「변한의 성장과 정치체의 형성」, 『진·변한 ‘國’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 임효택, 1993, 『낙동강하류역 가야의 토광목관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용석, 2008, 「4세기 신라의 토성축조 배경-달성과 임당토성의 예를 통하여-」, 『영남고고학』46, 영남고고학회.
- 장용석, 2016, 「임당토성 축조에 따른 취락공간의 재편」, 『한국고고학보』101, 한국고고학회.
- 전옥연, 2013, 「고고자료로 본 봉황동유적의 성격」, 『봉황동유적』,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주류성.
- 조영제, 2018, 「소가야의 고분문화」,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2018년 가야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
- 주보돈, 1995, 「가야사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 주보돈, 2017, 「가야사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제언」, 『쟁점 대가야사-대가야의 국가발전단계』(대가야학술총서 11), 대동문화재연구원·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최종규, 1983, 「경주 구정동 일대 발굴조사」, 『박물관신문』139.
- 하진호, 2012, 「임당유적 취락의 형성과 전개」, 『영남문화재연구』25, 영남문화재연구원.
- 홍보식, 1998, 「묘제의 비교로 본 가야와 고대일본」, 『가야사논집1-가야와 고대일본-』, 김해시.
- 홍보식, 1999, 「고고학으로 본 금관가야-성립·위계·권역-」,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제2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홍보식, 2017, 「전기 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쟁점과 전망」, 『한국고대사연구』85.

「변한과 가야의 구분」에 대한 토론



박 대 재 | 고려대학교

1. 이동희 교수의 발표는 前期論의 입장에서 가야의 성립을 변한의 구야국으로부터 내재적으로 발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자의 이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세기 말 4세기 초를 마디로 변한에서 가야로의 전환으로 보는 前史論이든, 가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전기론이든, 서기 300년 무렵을 지나치게 劃期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기 300년 이전 시기를 변한으로 보든 전기 가야로 보든 모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희 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변한소국에서 연맹왕국으로의 전환시기는 각 연맹체별로 상이하어, 금관가야는 3세기 후반~4세기 초, 아라가야는 4세기 초, 대가야와 소가야는 5세기 초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변한과 가야의 관계는 시간의 선후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고, 지역성을 고려한 공시적 지역 관계로 파악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마한과 백제가 4세기 이후 상당 기간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변한과 가야의 관계도 300년을 획기로 선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해나 함안 등지의 중심부(가야)와 경남서부지역이나 내륙지역의 주변부(변한)로 구분되며, 3~4세기 동안 가야 대국(초기국가)과 변한 소국의 공존 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2. 김해의 구야국이 연맹왕국 금관가야(가락국)로 성장한 3세기 후반 이후, 함안의 안야국(안라국, 아라가야)과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야국도 4세기 초에 연맹왕국인 안라국으로 성장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4세기대 금관가야와 아라가야는 각각 지역연맹체로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금관가야를 우위로 한 보다 광역의 연맹체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광개토왕비」의 임나가라와 안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3. 발표문에는 소국, 대국, 초기국가, 연맹왕국, 지역연맹체 등의 개념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개념 간 구분이 다소 모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구야국이 소국에서 출발해 대국을 거쳐 연맹왕국(초기국가)으로 발전한 것으로 서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대국이 곧 연맹왕국 단계인 것처럼 서술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국과 연맹왕국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조영제 교수의 서술을 인용한 부분[“서남부경남지역에는 변한소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다. … 김해지역을 벗어난 다른 가야지역에서는 고식 도질토기 단계의 유구나 유물을 볼 때 가야소국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런 사유로 4세기까지도 함안지역 안라국이나 소가야지역에도 가야소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조영제 2018)]에서 언급된 「변한소국」, 「가야소국」은 이동희 교수의 소국, 대국, 연맹왕국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소국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대국이나 연맹왕국 단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서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소국의 용어나 개념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弁辰과 弁韓, 弁辰과 辰韓의 구분 외에 弁辰의 大國이었던 狗邪國이 加耶의 중심국인 任那加羅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몇 가지 이견이나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진·변한에도 마한과 마찬가지로 諸國마다 특별지역으로 別邑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삼한사회의 구조> 모식도를 보면 別邑(蘇塗)이 소국에만 확인되고 대국에는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다소 도식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보면 소도로 추정되는 환호유구들이 구릉정상부에서 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소도 추정 환호유구들이 오늘날의 한 개 시군에도 1기가 아닌 다수가 확인되며 그 크기도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의례유구들이 한 개 소국에도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別邑만이 아니라 읍락이나 거점취락 단위별로 의례를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발표자는 “삼한의 읍락사회는 소국을 거쳐 대국으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국은 제정일치 단계의 복합사회로, 대국은 초기국가로 발전한 단계로 비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읍락→소국→대국 단계로 정치체의 성장을 상징할 수 있지만, 삼한 늦은 단계의 구야국 같은 대국이 있는 단계에도 동시기에 소국이나 읍락 단계의 소규모 정치체가 공존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弁辰에서도 구야국·안야국 같은 선진적인 대국은 주로 경남 동남부권에 위치하는 데 비해, 경남 서북부권에서는 대국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고고학적 증거들이 확인된다.

그리고, 삼한사회는 기본적으로 제정일치사회로 파악하는데, 발표자는 神政社會(소국)와 初期國家(대국)로 구분하였다. 신정사회와 초기국가의 차이점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바란다.

셋째, 고고학적 측면에서 구야국이 성장하여 1개 소국 범위를 넘어서 주변 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간접지배까지 간 단계를 3세기말-4세기 전엽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무렵을 소국에서 대국(금관가야)으로의 전환기로 보는 것이다.

발표자는 “김해의 구야국은 백제-가야-왜의 동맹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한 4세기 후반경에는 가야의 중심국(임나가라)으로 등장하였다”고 보았다. 상기한 고고자료를 볼 때, 가야가 중심국으로 등장한 시기

가 좀 더 소급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가야의 중심국으로서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주변 가야 세력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부연설명을 바란다.

넷째, 발표자는 “400년의 상황을 전하는 광개토왕비에 구야국과 안야국이 임나가라와 안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구야에서 가라로, 안야에서 안라로 한자국명이 변한 것을 차자표기의 차이일 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고고자료로 보면, 4세기 이후에 김해양식토기와 함안양식토기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주변 소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이자 완만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고 보아 하나의 획기로 보기도 한다. 국명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보고 싶다.



문헌으로 본 가야사의 획기



남재우 | 창원대학교

문헌으로 본 가야사의 획기

남재우 | 창원대학교

목 차

1. 서론
2. 가야사 시기구분
3. 가야사의 획기, 4세기
 - 1) 한국고대사와 4세기
 - 2) 가야사에서의 4세기
4. 결론

1. 서론

가야사 연구의 진전도 그 시기의 현재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았다. ‘임나일본부설’에 바탕을 둔 가야에 대한 언급이 그랬고, 해방이후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한국사연구에 주어진 과제 속에 언급된 가야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이후의 가야사연구가 가야를 주제로 한 연구로 바뀌게 된 것도 그 시기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작으로 인해 가야사연구가 확대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현정부의 가야사연구와 복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의 가야사연구는 동시기의 삼국과의 비교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한국의 고대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 문헌은 ‘삼국’이라 표현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이다. 이후의 역사서에서도 삼국은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가야사는 삼국과의 관계 속에서 삼국의 발전과정을 모델로 해서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발전과 성장과 쇠퇴와 멸망을 이야기했다.

잘못된 시각은 아니었다. 거의 동일한 공간에서 인근의 백제, 신라와 전혀 무관한 상황이 도출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은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 나아가 고구려와의 비교와 관계 속에서 가야사를 이해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가야사회 내부의 발전과정이 삼국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백제와 신라처럼 통합되지 못한 것은 가야 내부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연맹체로 설정하고 고대국가 이전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편견일 수 있다. 가야가 인근의 백제와 신라와 달리 동일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역사발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글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진전되어온 가야사 시기구분과 획기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시기구분에서 가야사의 변곡점을 4세기대로 설정하고, 그 근거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을 예시하고, 가야사회 내부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보았다. 4세기에 주목한 것은 당시 한반도 상황과 가야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2. 가야사 시기구분

가야사의 시기구분은 삼한과 가야, 즉 변한과 가야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변한 혹은 변·진한을 가야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1980년대 이후부터 『삼국지』와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가야사를 시기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주로 3세기말 4세기 초, 4세기말 5세기초가 기준이 되었다.¹⁾ 문헌 중심의 가야사연구자들은 변한을 가야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고고학자 중에서는 변한과 가야를 구분해 보기도 한다.²⁾ 삼한사를 다루는 연구자들도 변한과 가야를 별개로 보기도 한다. 前期論과 前史論으로 나뉘어진다.

전사론의 입장에서는 가야사의 시작을 4세기초로 설정한다. 고대 동아시아사회 변동의 획기를 3세기말 4세기초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대륙에 대한 五胡세력의 진출로 인한 정치적 파동과 그로 인한 고구려의 313년, 314년 낙랑과 대방의 축출 과정은 삼한사회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기존의 교역 체계가 변화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인 백제, 신라, 가야가 출현했다는 것이다.³⁾ 가야사의 시작을 금관가야의 성립으로 보고, 3세기 후반 대형목곽묘 등장을 국가성립의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기도 한다.⁴⁾ 1~3세기를 변한사로서 가야의 모태시기로, 가야사로 전환된 3세기말~4세기초에서 4세기말까지는 구야국 중심의 연맹체시기로, 5세기초에서 6세기 전반까지는 대가야 중심의 연맹체시기로, 남가라가 멸망한 532년 경에서 540년까지는 대가야·아라가야의 남북이원체제시기로 그 이후는 백제에의 부庸관계 시기로 설정하기도 한다.⁵⁾

전기론의 입장은 3세기초의 포상팔국전쟁을 금관가야의 쇠퇴기로 보거나⁶⁾, 5세기초 고구려의 남정을 전기가야연맹 해체의 계기로 보았다.⁷⁾ 그렇다고 4세기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포상팔국전쟁에 주목하여 전쟁시기를 3세기말, 혹은 4세기 초로 설정하여,⁸⁾ 가야사의 획기로 이해하기도 한

1) 김태식, 2014, 「가야연구의 흐름」, 『사국시대의 가야사연구』, 서경문화사, 335~349쪽.

2) 신경철, 1989, 「三韓·三國 統一新羅時代の 釜山」, 『釜山市史』1, 392~394쪽.

3) 주보돈, 1995, 「序說-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경상북도, 13~21쪽.

4) 신경철, 앞의 논문, 392~394쪽.

5) 노중국, 2001, 「가야사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43쪽.

6) 백승중, 1989,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추이-수로집단의 등장과 포상팔국의 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13, 27~32쪽.

7)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85쪽.

8) 남재우, 1997, 「포상팔국전쟁과 그 성격」, 『가야문화』10.

포상팔국전쟁을 4세기초반으로 보는 김태식은 전쟁을 계기로 가야연맹이 환안 안라국 중심의 서부지역과 김해 가야국 중심의 동부지역으로 분열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낙랑을 통한 일방적인 문화기준이 사라지자 한반도 남부 각지의 세력들은 각기 이리저리 연합하여 자생적으로 통용되는 국지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 계기를 포상팔국전쟁으로 이해하였다. 『4~5世紀 國際情勢와 加耶聯盟의 變動』, 『4~5世紀 東亞細亞 社會와 加耶』(제7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2001), 67쪽.

다. 5세기초를 획기로 보는 입장은 광개토왕 남정을 계기로 김해의 가락국이 쇠퇴하고,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락국 중심의 전기가야연맹이 해체되고,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연맹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사론과 전기론을 ‘4세기분기론’으로 묶으려는 견해도 있다.⁹⁾ 전기론과 전사론은 4세기부터 삼국시대 및 고대국가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사론에서는 삼한을 소국연맹체단계로 이해하고, 4세기 이후부터 고대국가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보다 『삼국지』 한전을 취신하여 3·4세기 사이에서 삼한에서 삼국으로 전환되었다고 이해한다. 전기론에서는 『삼국사기』의 연대를 취신하여 3세기 이전을 삼국시대 전기 내지 초기로 보는 입장이다. 다만 가야의 경우, 변한의 연맹체단계에서 변한보다 좀 더 결속력이 강한 연맹체가 가야였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백제, 신라, 가야 3국은 그 기원이 삼한의 백제국, 사로국, 구야국에서부터 시작하며, 그 주변에 공존한 소국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즉 삼한이 3국의 기원이므로 삼국의 源史이고, 전사론과 전기론은 모두 삼한을 起源史로 본다는 점에서 源史論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한, 진한, 변한을 백제, 신라, 가야의 기원으로 삼국시대에 포괄해 이해하는 쪽이 한국사의 체계를 세우는데 더 생산적이라는 것이다.¹¹⁾

『晉書』의 遣使기록을 근거로 가야사회의 변화를 읽기도 한다. 변한이 전사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은 3세기 후반에 사로국이 구야국을 압도하고 낙동강 수로의 통제권을 장악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자료로 이해한다. 즉 구야국이 낙동강수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구야국의 경제기반이 위축되었고 이를 틈타서 남해의 해안지대에 위치한 세력들이 구야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인 것이 포상팔국전쟁이라 이해하였다.¹²⁾

건국신화를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삼국유사』 오가야조의 가락국 건국신화,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고령군 건치연혁조의 대가야 건국신화이다. 가락국 중심의 연맹체와 대가야 중심의 연맹체로 나누었고, 같은 시기에 병존한 것이 아니라 각기 시차를 두고 달리 보았다.¹³⁾ 변동시기는 313·314년 낙랑과 대방이 한반도로부터 축출되는 시기였던 4세기 초반이었다. 또 다른 시기구분은 400년 광개토왕남정을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남정 이전은 가야의 전기로서 가락국 중심의 가야연맹체, 후기는 대가야 중심의 연맹체로 변천했다는 것이다.

구야국이 존재했던 시기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야 중심세력의 변동을 기준으로 시기구분한 것인데,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 관계 기사 중에서 서기 212년(나해왕17)까지의 초기 가야 중심은 김해의 금관가야이고, 280여년의 공백을 지나 서기 496년(소지왕 18)이후의 만기가야의 중심은 고령의 대가야라 하였다.¹⁴⁾ 이후 이 견해는 4세기말 5세기초 광개토왕남정을 근거로 전후 구분하여 1~4세기는 김해 가야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연맹, 5~6세기는 고령의 대가야국을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연맹으로 변화했다.¹⁵⁾

9) 박대제, 2017, 「삼한시기 논쟁의 맥락과 접점」, 『한국고대사연구』87, 8쪽.

10) 박대제, 위의 논문, 36쪽.

11) 박대제, 위의 논문, 43~44쪽.

12) 전덕재, 2000, 「4세기 국제관계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역사와 현실』36.

13) 주보돈, 1995, 앞의 논문, 16쪽.

14) 전관우, 1976, 「삼국지」 한전의 재검토, 『진단학보』41.

국가발전단계론도 시기구분의 기준이 되었다. 변한의 가야사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4세기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기원전 2~1세기를 先가야시대, 서력기원후 1~3세기를 변한연맹국가 단계의 가야시대 전기, 4~6세기를 가야연맹국가 단계의 가야시대 후기로 설정한다.¹⁶⁾ 나아가 1~3세기는 변한 12나라가 있었던 성읍국가 단계이고, 4~6세기는 고총고분이 발생한 이후의 연맹왕국단계라고 하는 견해¹⁷⁾는 가야사의 시작을 4세기로 보아 ‘前史論’으로 발전하였다. 즉, 1~3세기는 변한사로서 가야사의 전사이고, 4~6세기가 진정한 가야사라는 견해¹⁸⁾이다.

가야의 국가발전단계를 ‘연맹’이라 이해하고, 연맹의 형태가 시기구분의 기준이 되어왔다. 먼저 가야 지역 전체 연맹체설이다. 종지관계설화에 근거하여 처음의 맹주국은 上加羅(대가야, 고령일대), 후기는 下加羅(本加耶, 김해일대)였는데,¹⁹⁾ 가야를 가야제국의 연맹체로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이후 가야연맹체설이 구체화되었다.²⁰⁾ 가야를 전후기로 나누어 전기가야연맹, 후기가야연맹으로 설정하였다. 전기가야는 1~4세기동안 김해 구야국을 중심으로 한 변한 12국을 말하며, 3~4세기에 김해지역이 우월성을 드러내었는데, 전기가야연맹의 시기이며, 구야국이 맹주였다는 것이다. 후기가야는 5~6세기로서 고령의 대가야가 5세기 후반부터 520년까지 우월성을 드러내며 후기가야연맹의 맹주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후기를 나누는 계기는 광개토왕남정이었다.

지역연맹체설이 제기되었다. 가야전체를 포괄하는 대가야연맹체를 부정하고 김해지역연맹체, 고령지역연맹체 등으로 지역단위의 연맹체를 설정했다. 김해지역연맹체의 분열시기를 3세기후반~4세기로 보았다. 즉 안야국이 등장하고(3세기 중반) 종래의 사회기반인 교역권마저 신라 위주로 재편(3세기 후반)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 가야사를 구분하는 변동기로 설정하고 있다.²¹⁾ 또 다른 지역연맹체설인 ‘소지역연맹체’설도 있다. 3~4세기단계의 가야가 금관가야연맹체, 아라가야연맹체, 소가야연맹체, 대가야연맹체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한다.²²⁾

4세기 이후의 가야를 연맹왕국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연맹왕국은 정치적 지배자가 성읍국가를 연맹체로 통합·발전시킨 결과로서 고조선, 위씨조선, 부여를 비롯하여 유리왕대, 고이왕대, 내물왕대의 삼국이 연맹왕국단계라 한다.²³⁾

부체제에서 영역국가적인 중앙집권체제로 진전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합천 저포리의 한 고분에서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下部思利利’가 그 시작이었다. 상부-하부 중심의 2부체제라는 주장도 있었다.²⁴⁾ 하지만 대가야의 경우 연맹체 단계로 성장했으나 연맹 소속국의 외교권이 맹주국에 의해 통제되어 대외창구가 단일화된 엄격한 의미의 부체제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부체제가 부정되기도 했다.²⁵⁾ 대가야의

15) 김태식, 2002, 「가야사의 시기구분 문제검토」, 『한국사의 시기구분 문제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 김정학, 1977, 『任那と日本』, 小學館

17) 이기동, 1982, 「가야제국의 흥망」, 『한국사강좌』1, 일조각.

18) 주보돈, 1995, 앞의 논문.

19) 李丙燾, 1985, 「加羅史上的 諸問題」,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0) 김태식, 1993, 『가야연맹사』, 일조각.

21) 백승충, 1995, 『加耶의 地域聯盟史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 이형기, 2003, 「대가야의 형성과 발전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 김영하, 2007, 「고대의 개념과 발달단계론」, 『한국고대사연구』46, 22쪽.

24) 백승충, 2000, 「가야의 정치구조」, 『한국고대사연구』17, 336~337쪽.

25) 김태식, 2000, 「加耶聯盟體의 部體制 성립여부에 대한 小論」, 『한국고대사연구』17, 293쪽.

국가형성론을 1~3세기 삼한소국단계(반로국)→4세기 지역연맹체단계→5세기 중엽 부체제(고대국가 직전)로 보는 견해가²⁶⁾ 있다.

가야사에서 ‘초기고대국가’를 설정하기도 한다. 즉, 초기고대국가는 상당한 중앙집권력을 갖춘 사회를 말하며, 한국고대사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이에 해당한다. 가야의 경우 6세기대로 설정하고, 그 이전 1세기까지를 군장사회, 2-5세기까지를 소국 및 소국연맹체로 이해했다.²⁷⁾ 가락국의 사회발전단계를 군장사회(기원전1세기~2세기말)→복합군장사회(3~6세기 전반)→고대국가(532~)라 하여 3세기 초를 변동기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²⁸⁾

연맹이나 부체제를 사회발전단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 내부의 정치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연맹이 중심부 소국에 대한 주변부 소국의 복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가발전단계로 볼 것이 아니라 지배체제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²⁹⁾, 씨족사회, 읍락국가, 고대국가끼리도 연맹결성은 가능하며, 사회발전정도가 다른 정치집단들 끼리도 연맹형성이 가능하므로 가야사의 전시기 동안 연맹체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³⁰⁾

따라서 가야를 연맹체로 설정하여 시기구분하는 것은 문제이다.³¹⁾ 가야사회를 연맹체 단계로 보았던 이유는 한국의 고대사회가 소국에서 연맹을 거쳐 중앙집권화된 고대국가로 발달했다는 전제하에서 가야는 중앙집권화 되지 못했다는 것에 근거해 왔다. 연맹체로 존재했던 시기가 3~4세기, 5세기 후반부터 520년경까지, 길게 잡아도 200년 정도에 불과했는데, 가야의 역사를 ‘연맹’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 지는 의문이다.³²⁾

가야를 시간적인 개념이 탈색된 설화 속에 나타나는 혈연적 宗支關係, 兄弟關係를 통해 6가야연맹체로 설정하거나, 삼한의 변한12국에서 구야국을 연맹의 맹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다. 『삼국지』의 기록에서 구야국이 맹주국이었던 증거도, 변한 12국이 연맹을 형성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가야사의 발전과정을 지나치게 미숙하게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한국의 고대사회가 소국에서 연맹을 거쳐 중앙집권화된 고대국가로 발달해 갔다는 전제하에서, 소국과 연맹은 고대국가보다 미숙하고 열등한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가야연맹은 근대 서구 중심의 사고가 만들어낸 왜곡된 역사관이며, 가야연맹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지적 오만이며, 가야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소사회를 지양했고, 강대국 사이의 정치적 완충지대, 중립지대로서 교역의 활성화에 이끌려왔다. 소사회에 기초하여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에 이르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교역으로 묶어낸 열린 공간으로 규정했다.³³⁾

이상에서 보아 가야사의 시기구분, 사회발전단계 설정에서 그 기준은 3세기말 4세기초, 혹은 400년

26) 이형기, 2009, 『대가야의 형성과 발전연구』, 경인문화사.

27) 김태식, 2003, 「초기 고대국가론」, 『강화 한국고대사』제2권,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8) 이영식, 2018, 「가야제국의 발전단계와 초기고대국가론」, 『한국고대사연구』89, 115쪽.

29) 김영하, 2000, 「한국고대국가의 정치체제발전론」, 『한국고대사연구』17, 74쪽.

30) 백승욱, 2001, 「가락국과 주변 가야제국」, 『대가야와 주변제국』, 제2회 대가야사학술세미나 자료집, 84쪽.

31) 가야연맹체에 대한 제논의는 다음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남재우, 1995, 「加耶史에서의 聯盟의 의미」, 『창원사학』2.

권오영, 2001, 「加耶諸國의 사회발전단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32) 남재우, 1995, 앞의 논문, 19쪽.

33) 윤선태, 2013, 「한국 고대사학과 신출토 문자자료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사학보』219, 9쪽.

광개토왕남정이었다. 후자는 전·후기 가야연맹체설의 근거였을 뿐이다. 가야 역시 고대동북아시아, 한국 고대사회의 변천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3세기말 4세기 초의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을 것이다. 4세기 초를 하나의 변동기로 설정하였다는 사실에서는 나름의 일정한 의미가 찾아진다. 바로 이 시점이 한반도 남부 지역 전체를 살필 때 삼한에서 삼국으로 이행하는 커다란 격동기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곧 변한사회로부터 가야사회로의 전환도 진행된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³⁴⁾

가야사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한국고대사, 즉 삼국시대사 전체의 전개과정 속에서 가야의 성립과 변천을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대외관계를 통해서만 가야사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가야 주체의 가야사 발전을 이해하는데 부족하다. 사료상의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야사회의 내부구조와 내재적 발전 원인 등을 통해서 가야사회의 변천을 읽어내야 한다.

3. 가야사의 획기, 4세기

1) 한국고대사와 4세기

한국고대사에서 4세기는 주목받은 시기다. 낙랑군 대방군이 소멸된 후(313·314) 중국의 영향력이 후퇴하고 독자적 운동력에 의한 삼국의 본격적인 분립이 전개되는 양상이었고,³⁵⁾ 내부 통합은 가속화되었다.

삼한과 삼국과의 관련성도 그 이유다. 삼한을 삼국의 前史로 보거나 前期로 본다. 또한 이 시기를 原三國時代, 그리고 삼국형성기로 이해하기도 한다. 전사론과 전기론은 모두 삼한을 起源史로 본다는 점에서 넓게 보아 源史論이 등장하기도 했다.³⁶⁾

4~6세기는 이전 사회와의 차이가 명확한 시대구분상의 획기로 이해되어 왔다. 부체제는 해체되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구축되어 관료제가 가동되었다. 지방에 대한 지배방식은 공납을 통한 간접지배였고, 그 이후 주군(현)제에 의한 직접지배로 나아갔다. 읍락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개별 가호의 자립성이 증대한 시기였다. 농업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의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귀족 중심의 신분제가 구축된 시기이며, 친족공동체가 해체되었고, 불교의 수용을 통해 종교·신앙도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³⁷⁾ 4~6세기는 농업생산력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철제농기구의 보급, 우경의 실시, 수리시설의 축조 등에 따른 현상이었다.³⁸⁾

삼국이 경쟁하기 시작한 것도 4세기 부터이다. 4세기 초에 고구려가 한반도 서북부의 낙랑군, 대방군

34) 주보돈, 2017, 「가야사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제언」, 『한국고대사연구』85, 2017, 17쪽.

35) 임기환, 1998, 「4~6세기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14, 1998.

36) 박대재, 앞의 논문, 44쪽.

37) 강종훈, 2007, 「한국사의 획기로서의 4~6세기」, 『한국고대사연구』47, 15~28쪽.

38) 전덕재, 1990,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4, 한국역사연구회.

을 축출하면서부터 비로소 세 나라가 경계를 접하게 되고, 곧이어 백제와 신라가 각기 마한과 진한을 통합함으로써 삼국이 정립하게 된 것이다.³⁹⁾ 가야도 백제, 신라처럼 통합되어 가지는 않았지만 사회내부의 변화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4세기부터 한반도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낙랑·대방을 축출한 고구려는 342년 前燕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되는 패배를 맛보았고 371년에는 백제의 공격을 받아 故國原王이 평양성에서 전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수림왕은 울령반포, 불교수용, 태학설립 등으로 국가 통치체제를 완비하고, 뒤이은 고국양왕은 신라와의 관계수립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그리고 391년 즉위한 광개토왕은 영역 확대를 본격 추진했다.

백제는 4세기에 이르면 마한소국의 伯濟國에 벗어나 百濟로 발전하였다.⁴⁰⁾ 근초고왕은 369년과 371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4세기 후반의 30여 년 동안 옛 지방지역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기나긴 전쟁이 벌어졌다.

신라 역시 진한소국이었던 斯盧國단계에서 新羅로 성장하게 된다. 4세기 후반에 斯盧國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新羅’라는 국호로 공식적인 외교교섭을 가졌다. 이는 신라가 지방에 대한 통치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⁴¹⁾ 신라가 4세기 후반에 이전과 다른 통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정황은 381년 전진의 符堅이 신라사신으로 온 衛頭에게 “그대가 海東의 일을 말함에 옛날과 다른데 무슨 이유냐”라고 묻자 위두가 “중국의 시대변혁, 名號의 改易과 같은 것이니 (해동의 경우도) 어찌 지금이 옛날과 같겠습니까?”라든 대답에서 짐작 가능하다. 名號의 改易은 마립간이라는 王號 뿐만아니라 국호도 공식적으로 新羅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⁴²⁾ 사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읍락국가란 좁은 의미이며, 신라는 주변의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다.⁴³⁾ 356년 내물니사금이 왕위에 오른 후 남방의 안정을 원했던 고구려의 의도에 부응하여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고구려의 지원에 힘입어 377년 前秦에 사신을 보냈다.

2) 가야사에서의 4세기

가야사에서도 4세기는 의미있는 시기이다. 역시, 삼한과 삼국, 특히 변한과 가야와의 관계 때문이다. 4세기는 가야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시기구분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하지만 4세기대의 가야에 대한 기록은 찾기 힘들다. 특히 한국고대사를 이해하는데 필수 사료인 『三國史記』에는 4세기대의 가야관계기사가 없다.⁴⁴⁾ 물론 가야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

39) 강종훈, 앞의 논문, 28쪽.

40) 권오영, 2001, 「伯濟國에서 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40.

41) 전덕재, 2000, 「4세기 국제관계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역사와 현실』36, 91-92쪽.

42) 377년 신라가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 신라가 新羅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380년 전진에 반기를 든 符洛이 고구려, 백제, 薛羅(新羅)에 사신을 파견하여 군사를 징발하려 하였다고 전하는 『晉書』卷 113符堅條에서 알 수 있다(전덕재, 2000, 앞의논문, 92쪽 주) 47참조).

43) 후보돈, 1995, 앞의 논문, 40쪽.

44) 『三國史記』新羅本紀에는 奈解王 17년(212)이후로부터 炤知王 3년(481)이전 까지 가야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는포상팔국전쟁 시기를 4세기와 관련시켜 보는 견해가 있다.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고구려남정기사에서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기사도 가야가 실재했던 증거이다. 『日本書紀』神功紀 기사도 4세기대 가야의 존재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들 기록들은 가야사회 내부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포상팔국전쟁기사와 광개토왕남정 기사를 대외관계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야지역에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이 미친 가야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천착해야 한다.

6年(201) 봄 2월에 가야국이 화친을 청하였다.… 14年(209) 가을 7월에 포상팔국이 모의하여 가라를 침입하므로가라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니 王이 태자 우로와 이별찬 이음으로 하여금 육부병을 이끌고 가서 구원케하였다. 팔국의 장군을 쳐서 죽이고 사로잡혀갔던 6천인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왔다. 17년(212) 봄 3월에 가야가 왕자를 보내어 인질로 삼았다.(『삼국사기』신라본기 나해니사금)

물계자는 나해니사금때의 사람으로서 집안은 한미하였으나 사람됨이 쾌활하여 어릴 때부터 큰 뜻을 품었다. 당시 팔포상국이 동모하여 아라국(阿羅國)을 침입하므로 아라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니 니사금이 왕손 날음을 시켜 가까운 군대와 육부군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케 하니 드디어 팔국병이 패하였다.… 그 뒤 3년에 골포·칠포·고사포의 삼국인이 갈화성에 와서 침공하므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원하니 삼국의 군대가 대패하였다.(『삼국사기』열전 물계자전)

제10대 나해왕 즉위 17년(212) 임신에 보라국·고자국(지금의 고성)·사물국(지금의 사주)등의 팔국이 힘을 합하여 변경을 침략하므로 왕이 태자 날음과 장군 일별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니 팔국이모두 항복하였다.… 20년 을미에 골포국(지금의 습浦)등 삼국왕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갈화(굴불인듯하니 지금의 울주)을 공격하니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이를 막으니 삼국이 모두 패하였다.(『삼국유사』 피은 물계자전)

포상팔국전쟁 관련기록은 가야사회 내부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또한 가야에 대한 기록에서 단일 사건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일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포상팔국전쟁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전쟁 시기, 전쟁이유, 전쟁대상국, 포상팔국의 위치 등이다.

전쟁시기에 대한 논란이 많다.⁴⁵⁾ 4세기 전후 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3세기 후반~4세기 초⁴⁶⁾, 3세기 말⁴⁷⁾, 4세기 전반⁴⁸⁾ 등이다. 이러한 시기 설정은 3세기말 4세기초의 시기가 삼한사회에서 삼국시대로 이행하는 시기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전쟁대상은 함안 즉 阿羅, 혹은 加羅 즉 김해이다. 전쟁대상 설정에 따라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전자의 견해는 전쟁을 가야사회 내부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 전쟁이유는 바닷가에

45) 남재우, 2017, 「전기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85, 46~49쪽.

46) 백승욱, 2011, 「포상팔국전쟁과 지역연맹체」,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주류성.

47) 남재우, 1997, 「浦上八國戰爭과 그 性格」, 『伽倻文化』10.

48) 김태식, 1994,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한국사연구』86.

위치한 포상팔국이 농경지 확보를 위하여 내륙지역으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골포(창원),고사포(고성),사물국(사천) 등은 함안지역에 인접해 있고, 가까운 지역이다. 포상팔국이 보다 진전된 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역보다는 농업생산성 확보를 위하여 내륙지대로 진출했다는 주장이다. 함안지역으로 진출하면 남강을 건너 경남 내륙지대로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⁴⁹⁾ 후자의 입장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통설에 가깝다. 즉, 포상팔국이 김해의 가락국이 독점하고 있는 해상교역권을 빼앗기 위해 벌인 전쟁으로 이해하였다.

전쟁의 성격을 교역이라는 측면보다 가야사회 내부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고대사에서 정치집단의 발전과 성장과정을 집단이동이나 교역관계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내재적 성장, 이주세력과의 갈등과 전쟁이 사회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적극 확인해야 한다. 실제 포상팔국전쟁에서 함안의 아라가야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아라가야는 한단계 진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안야국에서 안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권역도 확대되었는데, 인근 지역인 진동, 의령, 칠원, 창원 등지로의 진출이 그것이다. 해안으로도 직접 진출하게 되어, 대외교역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⁵⁰⁾

가락국 내부의 변동도 주목된다. 4세기 초가 되면 기존의 대외교역체계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다. 중국-낙랑-한(韓)-왜를 연결하던 동아시아 원거리 교역체계의 중심점이었던 낙랑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철생산과 대외교역을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던 가락국이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락국은 위기상황을 극복했다. 4세기대의 유적과 유물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대성동고분군은 가락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4세기대의 가락국은 새로운 교역망을 확보했다. 즉 일본내의 여러 정치집단과의 교섭을 강화하였다. 대성동고분군에서 나타나는 왜계유물은 3세기대까지의 기타큐슈 유물에서 긴키지역의 유물로 교체되고 있다. 이것은 가락국의 교역망이 기타큐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대외교섭에서 긴키지역으로 확대되고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⁵¹⁾ 즉 낙랑·대방 2군의 쇠퇴와 소멸로 2군이 주도해왔던 국제교역체제가 와해되자 일본과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가락국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대성동고분에서 보여지는 분묘규모의 대형화와 철기 및 토기류 등 유물 후장하는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대가야도 변화가 감지된다. 반운리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반로국은 4세기 초기에 사회의 발전과 정치집단의 성장으로 넓은 영역을 지닌 주산 아래의 구릉지인 연조리로 그 중심을 옮겼다. 즉 반로국은 낙동강 하류의 가락국과 교류하면서 선진 지역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고, 새로운 문물을 수입하게 되었다.⁵²⁾ 특히 제철기술의 습득과 철기의 제작에 의한 무장력 강화와 철제농기구의 사용으로 인하여생산력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철기 제작 기술을 소유한 집단이거나 철기 제작자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집단이 군사적 무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어 보다 진전된 사회발

49) 남재우, 1997, 앞의 논문.

50) 남재우, 2016, 「안야국에서 안라로의 변천」, 『사림』58.

51) 李盛周, 2003, 「加耶-倭 相互作用에 대한 考古學의 解釋」, 『가야문화』16.

52) 이형기, 앞의 학위논문, 61쪽.

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 중심지를 이동했던 것이다.⁵³⁾ 연조리일대는 배후인 서쪽에 높은 주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어 외적 방어에 용이하고, 동쪽으로는 들판과 회천을 내려다보기 좋은 지형이므로 도읍지로 모자람이 없다.

그리하여 비자발(比自陔)·남가라(南加羅)·탁국(喙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7국을 평정하였다.(『일본서기』권9, 신공기 49년(369) 3월조)

이들 정치집단 중에서 가라(대가야)는 반로국의 다른 이름으로서 한 단계 진전된 정치집단이다. 즉 반로국이 4세기대에 가라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00년 광개토왕 남정도 가야사회 변화를 수반했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광개토왕 남정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광개토왕비문」에는 가야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安羅人戍兵’, ‘任那加羅’가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가 가야지역으로 남정하게 된 것은 고구려와 대립하고 있었던 백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립하고 있던 백제가 가야제국의 교역체계와 연결되어 후방지역인 가야, 왜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고구려에게는 탐탁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신라구원이라는 명분으로 가야지역을 공략했다.⁵⁴⁾

10년 庚子에 교서로써 步騎 5만을 보내어 新羅를 구하게 하였는데 男居城을 따라 新羅城에 이르니 倭가 그 중에 가득했으나 官軍이 이르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倭의 뒤를 급히 추격하여 任那加羅 從拔城에 이르니 城이 즉시 항복하였다.

安羅人戍兵이 신□성, 염성을 공략하니 왜구가 크게 무너지고 성안의 십중의 구가 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니, 안라인수병이 …을 잡아서 … 나머지 왜가 역시 안라인수병에 따랐다.

400년 전쟁을 ‘고구려-신라’연합과 ‘백제-가야-왜’ 연합 간의 전쟁으로 이해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가야제국이 김해 가락국을 중심으로 한 연맹이었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즉 ‘전기가야연맹체’이다. 고구려의 가야지역 진출과정에서 김해의 가락국인 任那加羅는 전쟁에서 패했지만 아라가야는 전쟁이후 오히려 정치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라가야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가락국이나 왜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광개토왕비문에 ‘安羅人戍兵’이라는 기록이 세 차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확실해 보이므로 고구려-신라 연합군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⁵⁵⁾

아라가야는 고구려 편에 동조했기 때문에, 김해지역과 달리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히려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가락국이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경남 서남부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53) 김세기,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연구』, 학연문화사, 219쪽.

54) 남재우, 2003, 『安羅國史』, 혜안, 127~164쪽.

55) 南在祐, 1997, 「廣開土王碑文에서의 ‘安羅人戍兵’과 安羅國」, 『史林』12·13合輯, 成大史學會.

틈을 타서 아라가야가 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5세기 초엽부터 대형목곽묘가 나타나고, 분묘 속에 다량의 철제무구류가 등장하는 것은 아라가야가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6세기초의 아라가야가 가야사회에서의 외교활동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의 반영이다.

대가야가 새로운 성장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도 광개토왕남정이다. 대가야 지배집단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지산동고분군으로 알 수 있다.

가락국은 광개토왕 남정으로 인하여 쇠퇴의 계기가 되었다. 임나가라 종발성이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해지역이 이 전쟁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크다. 5세기대 이후 가야세력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고총고분군이 대가야, 아라가야, 비화가야 등지에서 나타나지만 김해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그 증거이다.

이상으로 가야사의 중요한 사건인 포상팔국전쟁, 광개토왕남정과 두 전쟁으로 인한 가야사회의 변화를 엿보았다. 가야사에서의 획기는 가야사회 자체 내부의 사회적 변화와 발전이 수반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포상팔국전쟁은 4세기 초의 가야사회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광개토왕남정은 5세기 초의 상황이다.

포상팔국전쟁은 4세기대의 가야사회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동일 시기의 백제, 신라의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신라와 백제의 경우도 4세기를 계기로 신라와 백제가 되었다. 다만 5세기를 강조하는 것은 광개토왕의 남정을 계기로 김해의 가락국이 쇠퇴하고,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기가야연맹에서 후기가야연맹으로의 교체를 의미할 뿐이다.

광개토왕 남정, 400년을 획기로 보려는 경향은 가야를 연맹체단계로 이해하고, 전기가야연맹체가 해체되고 후기가야연맹체가 등장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400년이 기준이 되려면, 그 사회가 어떤 내부적 변동을 겪으면서 원래의 기본 구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어졌기에 것처럼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별될 수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막연하게 가야연맹체의 맹주가 전후로 바뀐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야사회 자체 내부의 발전과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도출된 견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정치사회 발전에 대한 전체상이 도출된 바탕 위에 추진한 시기 구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나눈 데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⁵⁶⁾

포상팔국전쟁이 가야사의 획기로 볼 수 있다.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 전쟁 이후의 상황이 가야사회 내부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시기 한반도의 상황변화와 연동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가야가 백제, 신라와 같이 통합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가야 또한 새로운 변천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야만이 별개로 동떨어져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변진 12국에서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가라 7국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가야사회가 후기가야사회로 전환되게 되었던 것이다. 가야의 주체적 발전과정에서 가야사회 내부의 발전모습 특히 가야사 변화의 계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 주보돈, 2017, 「가야사연구의 새로운 進展을 위한 提言」, 『한국고대사연구』85, 7-13쪽.

4. 결론 – 가야사 연구의 한계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역사연구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역사연구란 것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가야사연구와 복원’이 정책과제로 선정된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영호남의 균형적 발전’ ‘동서화합’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그기에 가야사연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현재까지의 가야사연구 결과는 가야의 공간적, 문화적 범위가 영남지역 뿐만 아니라 호남의 일부지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활동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별로 다른 게 없고, 연구자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은 가야사연구의 부진을 지적하는 최근의 견해가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인지도 모르겠다. 가야사연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착실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꾸준히 축적되어온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밑바닥으로부터 분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던 환경적 요인, 즉 정치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즉, 국가기관 주도의 활발한 유적발굴 성과로 인한 가야고고학이란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다. 외부로부터의 행·재정적 지원은 연구자들의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지자체의 재정적 후원은 요구에 맞춘 역사해석으로 호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지적을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 하지만 한국고대사에서 삼국은 고대국가 완성의 전형이었고, 삼국을 기준으로 나머지 국가들의 발전수준을 비교판단했다. 그래서 고대국가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야사연구의 확대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큰 요인이기도 하다.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분권이라는 과제는 지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통합되지 못하고 분립된 상태로 始終되었던 가야사에서는 여러 지역 각각이 독립성을 보유한 중심부로 인식”⁵⁸⁾되었던 것이다. 지방분권이 한국사회의 과제라면 ‘순수한 학술적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신진 연구자’가 이러한 주제에 매진하는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따라서 가야사연구의 부진은 다른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첫째, 삼국의 발전과정을 가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가야사회의 발전 단계를 저급하게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聯盟體說’이 그것이다.⁵⁹⁾ 한국고대사에서 연맹단계는 고대국가 이전의 발전단계로 규정되어 왔다. 따라서 가야사에서의 연맹체설은 가야가 고대국가 이전단계에 머물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맹이란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국가 발전단계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聯盟은 단지 고대국가형성이전의 단계에서만 형성되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로 볼 수도 없다. 국가의 발전단계는 영역의 크기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치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구조로 설명해야 한다. 三韓段階와 三國時期의 정치집단의 발전수준 또한 달랐을 것이다. 시기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유력국을 중심으로하는 연맹체의 설정을 국가발전단계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

57) 주보돈, 「가야사연구의 새로운 進展을 위한 提言」, 『한국고대사연구』85, 2017, 7-13쪽.

58) 주보돈, 위의 논문, 11쪽.

59) 聯盟에 관한 제논의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南在祐, 1995, 앞의 논문.

의 停滯性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야사회의 발전단계를 저급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 변진한에서 함께 출발한 신라가 연맹 수준을 넘어 6세기대에 고대국가체제를 완성했음에도, 유독 가야만 동일한 시기에 수 백년 동안 정치사회발전이 저급했다는 인식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가야의 정치 사회발전을 지나치게 낮추어 본 과거의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삼국 발전과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소국과 연맹은 고대국가보다 미숙하고 열등한 사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 소사회를 지양했고, 강대국 사이의 정치적 완충지대, 중립지대로서 교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냈으며, 소사회에 기초하여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에 이르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교역으로 묶어낸 열린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⁶⁰⁾ 가야 제국이 백제와 신라처럼 통합하지 않았던, 통합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야제국의 발전은 삼국처럼 영역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한국고대국가 발전의 다양성을 가야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三韓시기와 加耶史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에 와서 가야사연구가 진전되면서 弁韓의 형성을 加耶의 형성과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三韓과 加耶는 한국고대사의 전체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三韓이란 시기는 삼국시대라는 시대적 범주의 일부에 불과하며, 삼국시대의 이른 단계는 고구려와 삼한사회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삼한시대’라 명명하기 보다는 ‘삼한 단계’로 사용함이 적절하다.⁶¹⁾ 이와 관련하여 고고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原三國時代’라는 용어보다는 ‘三國 形成期’⁶²⁾나 ‘早期’⁶³⁾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前期論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기론이 등장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三國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馬韓에서 百濟가, 辰韓에서 新羅가, 弁韓에서 加耶가 라는 도식적인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伯濟國 = 百濟, 斯盧國 = 新羅, 狗邪國 = 加耶라는 등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고대사의 발전과정에서 본다면 삼한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발전과정에서 백제·신라·가야의 성립을 이해해야 한다. 단지 변한만을 가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진변한의 변화과정에서 新羅·加耶의 성립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⁶⁴⁾ 기록상으로도 辰韓과 弁韓은 차이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弁辰은 辰韓사람과 뒤섞여 살았으며, 祭祀儀式을 제외한 의복·주택과 언어·법속이 서로 비슷했다는 것은⁶⁵⁾ 加耶와 新羅가 辰韓과 弁韓의 변동 속에서 나아가 三韓의 변동 속에서 변화·발전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하나의 근거이다.

물론 변한과 가야의 관계, 狗邪國과 加耶의 계승관계를 전면 부인할 수는 없지만 弁韓=加耶, 狗邪國=加耶라는 도식으로부터 벗어나서 弁·辰韓, 아니면 三韓의 변화발전과정에서 加耶가 성립되었을 것이며, 狗邪國은 弁韓諸國과 함께 加耶諸國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백제, 신라, 가야가

60) 윤선태, 2013, 「한국 고대사학과 신출토 문자자료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사학보』219, 9쪽.

61) 권오영,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9쪽.

62) 金瑛河, 1991, 「新羅의 發展段階와 戰爭」, 『韓國古代史研究』4.

63)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쪽.

64)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 209쪽.

65)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窰皆在戶西”(『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弁辰條).

삼한의 백제국, 사로국, 구야국에서 잉태된 만큼 양자의 관계를 단절시켜 볼 수는 없으며 연속선상에서 국가의 형성과정을 이해해야 한다.⁶⁶⁾

셋째, 가야사연구가 대외관계 중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가야사 내부의 발전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주와 교류라는 관점은 여전하다. 사료의 한계가 그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가야의 형성과정에서는 집단의 이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교역과 문화교류를 통하여 가야사 이해에 접근하고 있다. 이주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국과 마찬가지로 가야 역시 사회내부의 발전동력을 찾아야 한다. 지식묘사회에서 변한12국 그리고 13국으로 변화발전하는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포상팔국전쟁은 가야내부의 사회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이 틀림없다.

66) 권오영, 1995, 「삼한의 國에 구성에 대한 고찰」,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참고문헌

-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김세기,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연구』, 학연문화사.
- 남재우, 2003, 『安羅國史』, 혜안.
- 이형기, 2009, 『대가야의 형성과 발전연구』, 경인문화사.
- 백승충, 1989,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추이-수로집단의 등장과 포상팔국의 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13.
- 전덕재, 1990,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4, 한국역사연구회.
- 신경철, 1989, 「三韓·三國 統一新羅時代の 釜山」, 『釜山市史』1, 392~394쪽.
-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
- 김태식, 1994,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한국사연구』86.
- 권오영, 1995, 「삼한의 國에 구성에 대한 고찰」,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 남재우, 1995, 「加耶史에서의 ‘聯盟’의 의미」, 『창원사학』2.
- 주보돈, 1995, 「序說-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경상북도.
- 백승충, 1995, 『加耶의 地域聯盟史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재우, 1997, 「浦上八國戰爭과 그 性格」, 『伽倻文化』10.
- 南在祐, 1997, 「廣開土王碑文에서의 ‘安羅人戍兵’과 安羅國」, 『史林』12·13合輯.
- 임기환, 1998, 「4~6세기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14.
- 백승충, 2000, 「가야의 정치구조」, 『한국고대사연구』17.
- 전덕재, 2000, 「4세기 국제관계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역사와 현실』36.
- 권오영, 2001, 「伯濟國에서 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40.
- 권오영, 2001, 「加耶諸國의 사회발전단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 노중국, 2001, 「가야사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 김태식, 2002, 「가야사의 시기구분 문제검토」, 『한국사의 시기구분 문제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태식, 2003, 「초기 고대국가론」, 『강좌 한국고대사』제2권,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李盛周, 2003, 「加耶-倭 相互作用에 대한 考古學의 解釋」, 『가야문화』16.
- 이형기, 2003, 「대가야의 형성과 발전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중훈, 2007, 「한국사의 획기로서의 4~6세기」, 『한국고대사연구』47.
- 김영하, 2007, 「고대의 개념과 발달단계론」, 『한국고대사연구』46.
- 백승욱, 2011, 「포상팔국전쟁과 지역연맹체」,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주류성.
- 윤선태, 2013, 「한국 고대사학과 신출토 문자자료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사학보』219.
- 김태식, 2014, 「가야연구의 흐름」, 『사국시대의 가야사연구』, 서경문화사, 335~349쪽.
- 남재우, 2016, 「안야국에서 안라로의 변천」, 『사림』58.
- 남재우, 2017, 「전기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85.
- 박대재, 2017, 「삼한시기 논쟁의 맥락과 접점」, 『한국고대사연구』87.
- 주보돈, 2017, 「가야사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제언」, 『한국고대사연구』85, 2017.
- 이영식, 2018, 「가야제국의 발전단계와 초기고대국가론」, 『한국고대사연구』89.



고고 자료로 본 가야사의 획기



김 일 규 | 부산대학교

고고 자료로 본 가야사의 획기

김 일 규 | 부산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가야 고고학의 제 획기 검토
 - 1. 금관가야의 성립
 - 2. 도질토기의 일반화
 - 3. 마구와 갑주의 출현과 확산
- III. 제 획기의 배경과 의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고고학에서의 획기는 시·공간적으로 공통된 양식의 물질문화가 종적 시간상에서 그 변화 발전이 단절되거나 혹은 새로운 물질문화의 출현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제 분야의 변혁을 시사하기도 한다.

가야 고고학에서 획기는 금관가야의 성립, 도질토기 및 마구와 갑주의 출현과 제일성, 대성동고분군에서의 대형 목곽묘 조영 중단, 제 가야토기 양식의 성립, 고총 고분의 성립을 들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가야 고고학에서 확인되는 획기의 시점 및 그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II. 가야 고고학의 제 획기 검토

1. 금관가야의 성립

가야 고고학에서는 김해 대성동 29호분에서 확인된 殉葬, 토기의 厚葬, 도질토기, 금동관, 북방식 銅鍍으로 대표되는 소위 북방식 문물의 등장과 주·부곽식 목곽묘의 출현 및 이와 연동한 묘제의 분화-김해형과 경주형, 선형분묘의 파괴 현상, 철제갑주와 기승용 마구의 출현 시점을 획기하여 금관가야의 성립으로 정의하고 있다.¹⁾

대성동 고분에서는 29호분을 시점으로 하여 이후의 대형분에서는 상기한 중국(계) 문물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북방(계) 문물이 많다. 29호분에 후속하여 조영된 91호분, 70호분, 88호분, 2호분, 23호분 등에서는 북방계로 분류되는 삼연마구는 물론, 한경, 진식대금구 등의 중원(계)유물과 로만글라스와 같은 서아시아계의 물품도 출토되었다. 따라서 대성동 29호분에 나타나는 양상을 북방적 요소로 한정하고 그것을 금관가야의 성립배경으로 본 논지²⁾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며,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외래문물의 계보와 출현 배경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시점을 살펴보겠다.

1) 순장과 목곽묘

(1) 순장과 주·부곽식 목곽묘의 출현 배경

대성동 29호분에서 보이는 주·부곽식 목곽묘 구조와 순장 습속 같은 이데올로기적 속성은 부여 고분에서 찾을 수 있다. 吉林省 帽兒山 부여고분군의 목곽묘는 주·부곽식의 구조와 규모 등에서 대성동고분군의 목곽묘와 거의 흡사하며, 『삼국지』위서동이전의 부여조에서 부여의 순장 습속을 확인할 수 있다.³⁾

대성동고분을 비롯한 복천동고분, 양동고분에서 확인되는 주·부곽식 목곽묘와 순장 습속에 한정한다면 西晉 太康6年(285년) 기사와 관련한 부여 일족의 남하에 따른 결과의 가능성을 제시한 신경철의 견해는 충분히 경청할만하다.

(2) 순장의 확산 시점과 배경

가야에서의 순장은 대성동 29호분을 필두로 하여 대성동고분군에서 대형 목곽묘의 조영이 중단된 시점까지는 금관가야 중심인 대성동, 양동, 복천동의 대형분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 지역의 정치체 내 지배 권력 구조가 순장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였거나,⁴⁾ 아니면 공간적으로 계층 분화와 지배구조의 틀이 명확히 확립되어 장송 의례에 철저한 제한과 통제가 이뤄졌었다고 볼 수 있다.

대성동 93호분을 끝으로 금관가야에서 대형 목곽묘의 조영이 중단되고, 이후 함안의 말이산고분, 창녕 교동고분, 합천 옥전고분, 고령 지산동고분 등의 고층 고분에도 순장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대형 봉토분이 등장하는 5세기 중엽을 시점으로 하여 가야의 전 영역으로 순장이 확산되었다.

1) 신경철, 1992, 「김해예안리 160호분에 대하여-고분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야고고학논총』1.

신경철, 1995, 「김해대성동·동래복천동고분군 점묘-금관가야 이해의 일단」, 『부대사학』19.

신경철,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신경철, 2013, 「대성동88,91호분의 무렵과 의의」, 『고고광장』13, 부산고고학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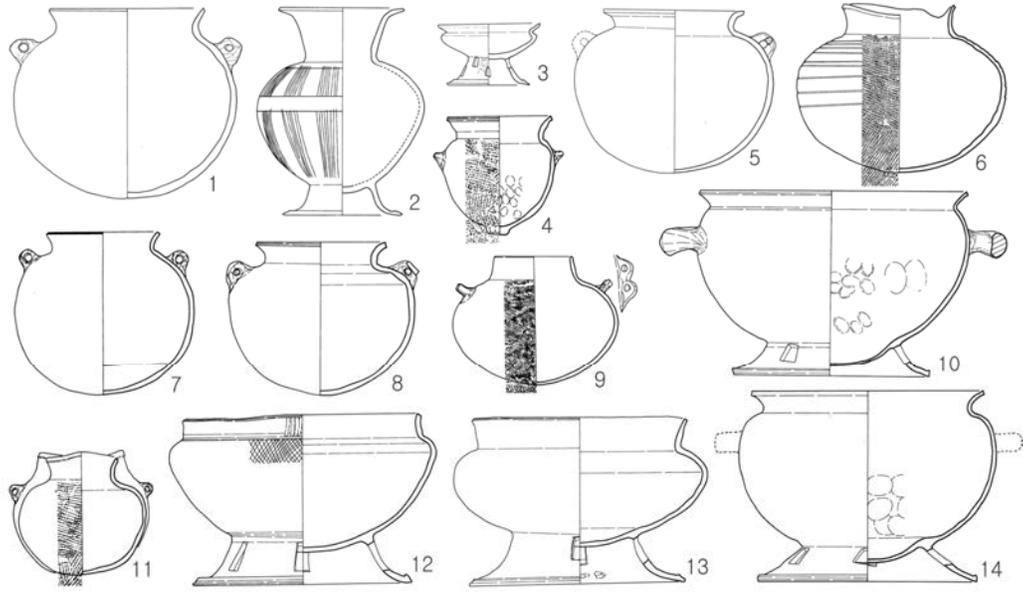
신경철, 2017, 「가야·신라 초기마구의 성격과 의미」, 『古文化』9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 『通典』太康6年條의 모용외의 부여공략에 의한 부여족 옥저 피난 기사와 관련하여, 이때 피난한 부여족 일파의 김해지역 남하에 따른 사회변혁의 결과로 본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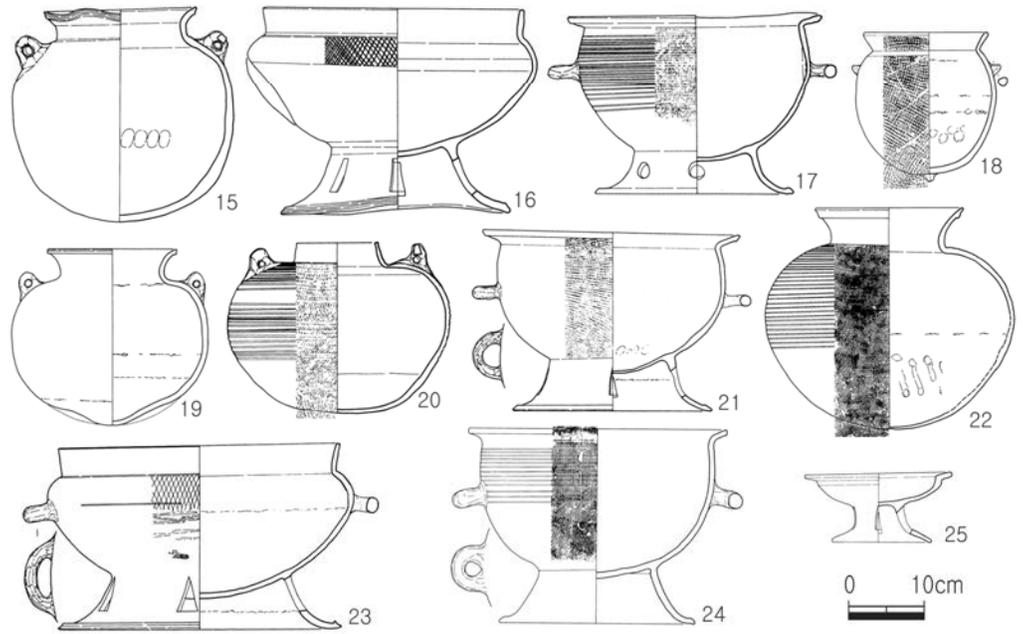
3) 지금까지 부여의 고분 자료에서는 딱히 순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이산고분의 목곽묘 구조가 대성동 29호분과 같은 동혈주부곽식으로 대성동고분의 목곽묘와 구조와 규모가 아주 흡사하여, 순장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 보고서가 공간 되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4) 김수환, 2018, 「가야의 순장」, 『가야사 총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 도질토기의 계보와 출현⁵⁾



〈도질토기 1단계〉



〈도질토기 2단계〉

1~3:김해 양동리235호분. 4,8,12,13:김해 대성동55호분. 5,6,10,14:대성동29호분.
7,9,11대성동52호분. 15,16,17,20:대성동59호분. 18,19,21,22,23:김해 예안리160
호묘. 24,25:부산 노포동17호묘. (1,5,7,8,15,19: 도질, 나머지 와질)

도면 1. 도질토기 출현기 양상

5) 여기에 제시한 내용은 아래 논문의 내용과 같다.
김일규, 2018a, 『금관가야고분 출토 외래유물의 성격과 의의』, 『호남고고학보』60, 호남고고학회.

3세기대 부여의 도기와 모용선비의 도기에서는 도질토기와 유사한 소성도, 자연유, 색조를 가진 硬陶는 찾아볼 수 없다. 부여에서는 3~5세기대로 편년되는 모아산고분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회도가 출현하고, 4세기대 三燕의 도기에서도 연유도기는 확인되지만, 경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장강 이북의 화북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여전히 평요계열의 만두요에서 청자가 소성되었다. 따라서 도질토기의 기원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서진시대에 월주 자기의 용요 제도기법이 중국 동북지방에 전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도질토기는 窯法과 기물의 소성도, 색조, 자연유 등 제도기법의 제 속성이 장강 유역의 龍窯 및 硬陶의 그것과 흡사하다. 장강 유역에서는 동한 중만기에 청자가 출현한 이후에도 경도가 생산되었다. 장강 유역의 경도와 청자는 모두 용요에서 소성된 것이며, 도질토기도 용요와 거의 구조가 같은 등요에서 소성되었다. 용요와 등요, 경도와 도질토기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도질토기가 소성된 등요는 장강 유역의 용요와 직접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도질토기는 280년 東吳의 멸망, 그 직후 일어난 팔왕의 난과 같은 혼란을 피해 장강 유역에서 이주해온 유민이 직접 생산하였던지, 혹은 유민으로부터 제도기술의 정보를 받아들인 현지 도공이 새로운 제도기술로 제작한 토기로 정의할 수 있다.

3) 금동관⁶⁾

금(동)관식은 內蒙古 鄂爾多斯市 杭錦旗阿魯柴登 匈奴墓에서 출토된 전국시대 흉노족 선우의 왕관인 鷹頂金冠飾⁷⁾이 帶狀의 冠으로 보요 장식이 없지만, 대성동 29호분 출토품은 보요 장식의 금동관이다.

동한 만기 선비족이 남하하여 정착한 내몽고 중남부에서 요서지역에 이르는 공간은 전국~서한시대에 흉노의 주요 활동지역이었지만, 동한만기에 檀石槐을 비롯한 선비족이 남하하여 활동한 주 무대이다. 이 지역의 위진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보요 장식이 주로 출토되었다.⁸⁾ 이처럼 보요부 장식은 선비족의 영역에서 출토되는 장신구의 특징이므로 대성동 29호분 출토 금동관은 부여보다 선비 문물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 동북⁹⁾

동북은 몽고고원의 흉노식 동북에서 그 기원을 구한다.¹⁰⁾ 동북은 내몽고 서남부에서 흑룡강성 동부의 雙鴨山지역에 이르는 아주 넓은 분포권을 가지고 있다. 동북은 기면의 문양 유무와 합범 흔적의 위치에 따른 제작수법의 차이에 의해 계통을 나누거나,¹¹⁾ 臺脚의 유무와 그 형태 차이로 분류하여 분포범

6) 김일규(2018a)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7) 田廣金·郭素新, 1980, 「內蒙古阿魯柴登发现的匈奴遺物」, 『考古』4期.

陳凌, 2009, 「鄂爾多斯金冠源流考」, 『鄂爾多斯青銅器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科學出版社.

8) 이송란, 2011, 「위진남북조시대 금단문당과 금보요관의 시원과 전개」, 『고문화』78.

조운재, 2015, 「고고자료를 통해 본 삼연과 고구려의 문화적 교류」, 『선사와 고대』43.

김일규, 2018a, 「금관가야고분 출토 외래유물의 성격과 의의」, 『호남고고학보』60, 호남고고학회.

9) 김일규(2018a)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0) 潘玲, 2015, 『中國北方晚期鐵器研究』, 科學出版社.

11) 이해련, 2015, 「몽골 출토 동북에 대한 검토」, 『博物館研究論集』21, 釜山博物館.

위를 나누기도 한다.¹²⁾ 그렇지만 이렇게 구분된 동북의 계통과 분포범위가 딱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해 대성동 29호분에서 출토된 형태를 가진 동북은 탁발·모용선비의 영역은 물론 山西省과 陝西省, 한반도의 서북한지역, 심지어 湖北省 鄂州의 東吳유적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으므로¹³⁾ 반드시 부여족 남하에 따른 결과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1,23:김해 대성동29호분, 2:내몽고 烏蘭察布市, 3:黑龍江省 雙鴨山 有利南山城址, 4,5:吉林省 帽兒山 夫余무덤군, 6:김해 대성동47호분, 7:북표 라마동 II M166, 8:북표 라마동 II M125, 9:라마동 II M43, 10~12,20:북표 풍소불묘, 13:십이대향전창88M1, 14: 김해 대성동3호분, 15,16:김해 대성동1호분, 17:북표 라마동 II M16, 18:김해 대성동2호분, 19:內蒙古 鄂爾多斯市 杭錦旗阿魯柴登 匈奴墓. 21:朝陽 牯草溝M2, 22:內蒙古 達爾罕茂明安聯合旗 前河子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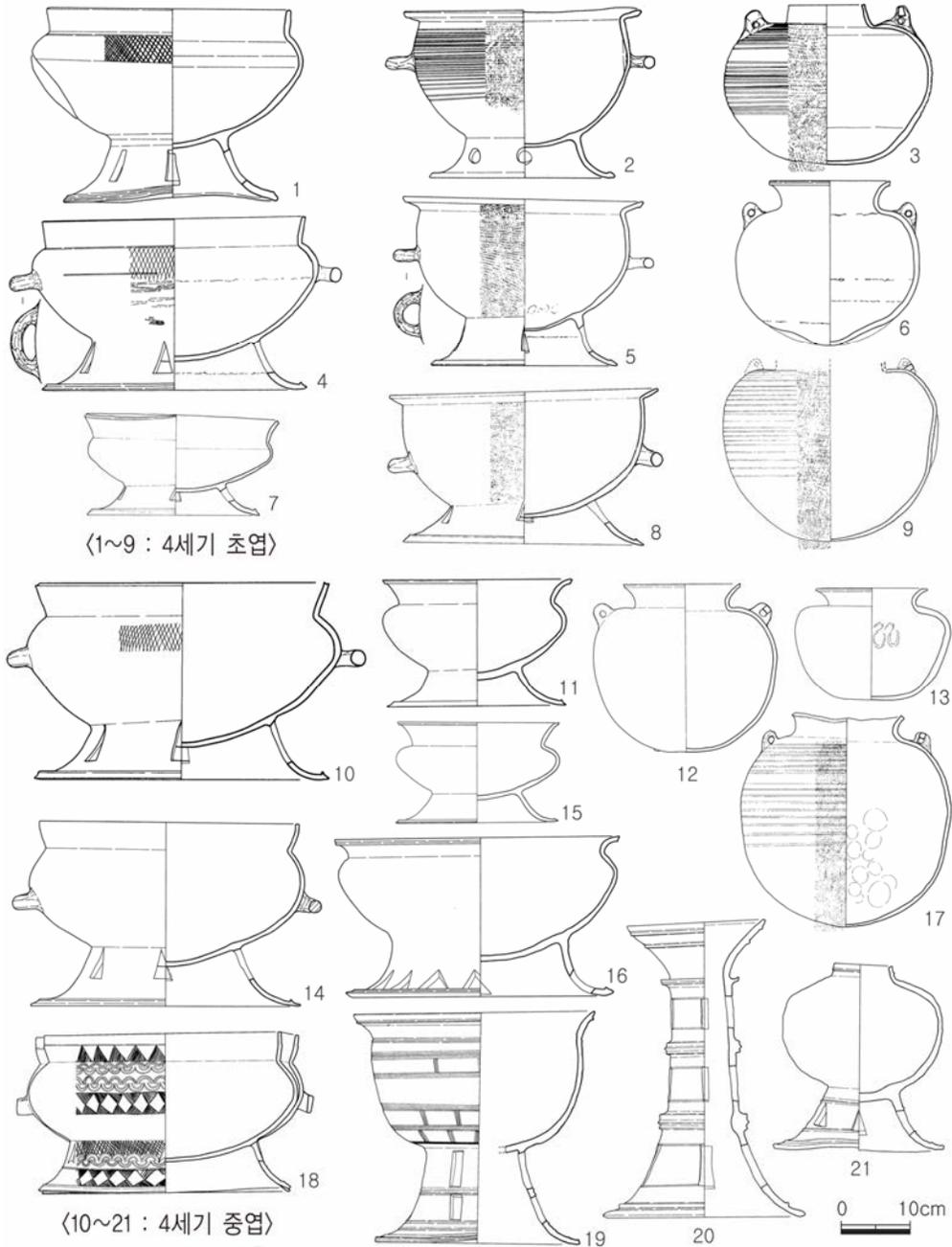
도면 2. 대성동고분 출토 동북, 금동관, 마구와 비교자료(김일규 2018a)

12) 潘玲, 2015, 『中國北方晚期銀研究』, 科學出版社.

13) 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鄂州市博物館, 2007, 『鄂城六朝墓』, 科學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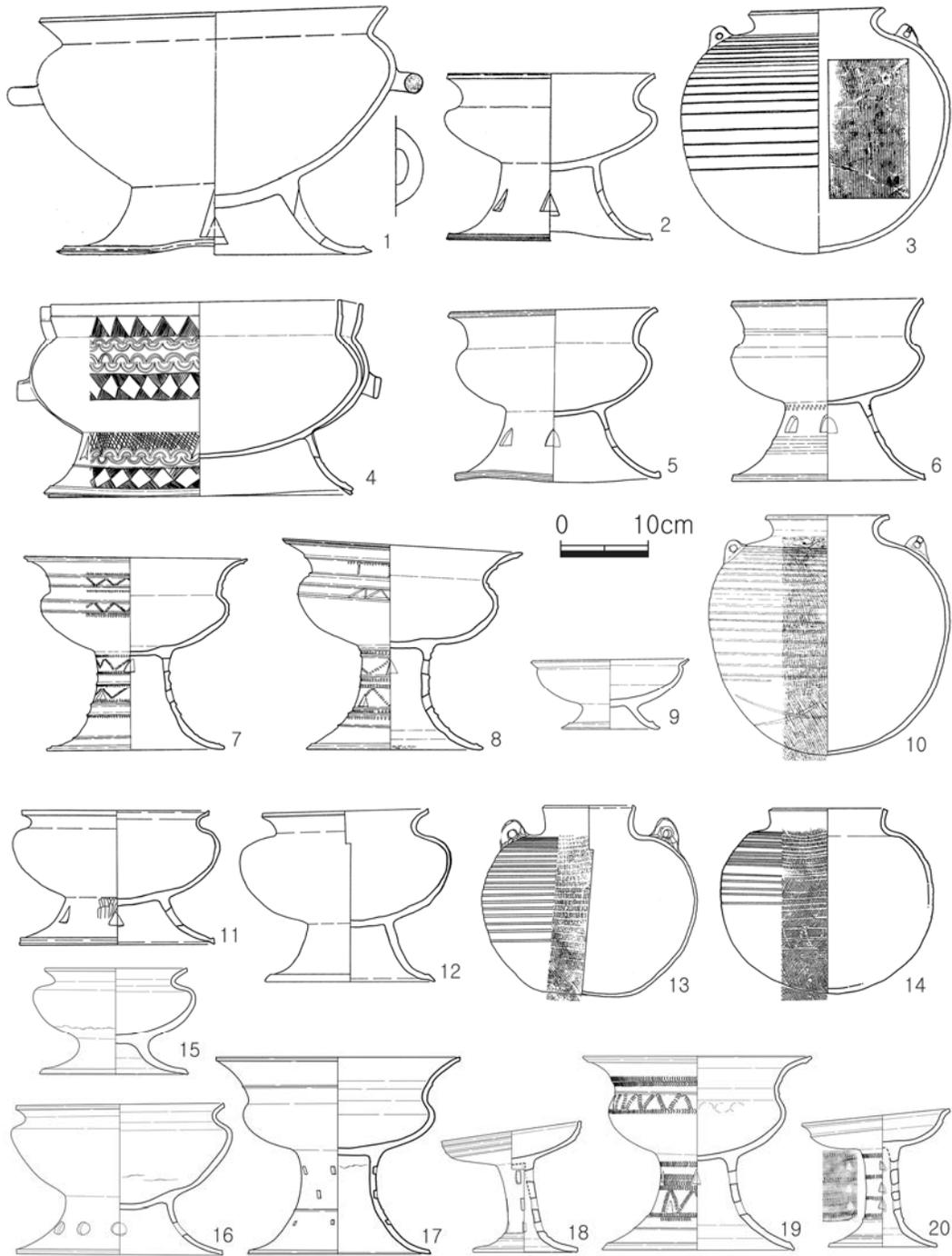
2. 도질토기의 일반화

1) 금관가야 양식 토기의 성립과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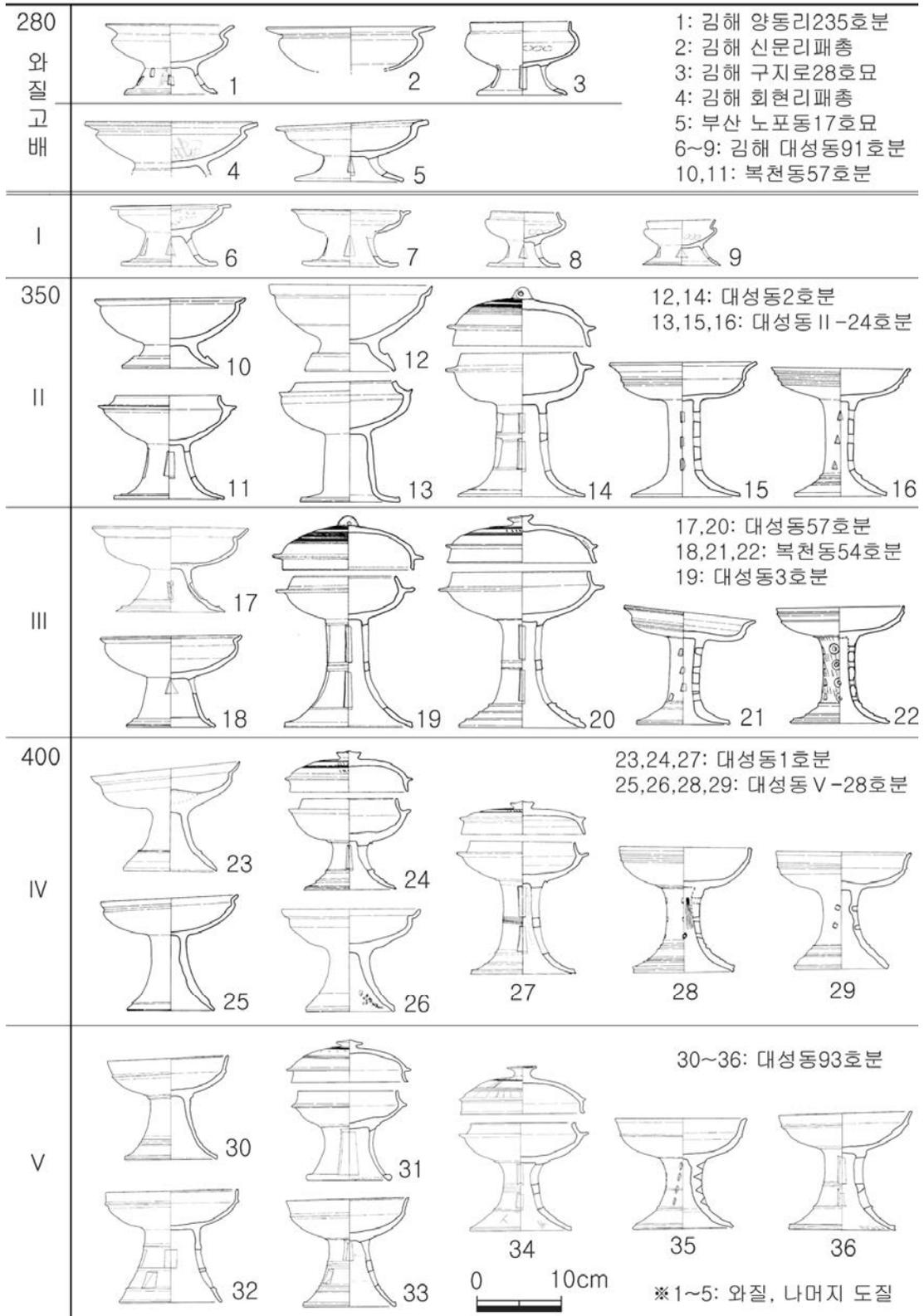
1~3:김해 대성동59호분. 4~6:김해 예안리160호묘. 7~9:김해 구지로1호분.
 10~12: 대성동91호분. 13,14,16:대성동13호분. 15:대성동18호분. 17,18:
 대성동70호분. 19~21:대성동2호분

도면 3. 금관가야 토기 중심양식



1~3:김해 퇴래리7호묘. 4~10:김해 대성동 70호분. 11~14:함안 도항리(문)35호묘.
15~18:진주 사곡리3호묘. 19,20:진주 사곡리58호묘.

도면 4. 금관가야 토기 주변양식 성립기(김일규 2018b)



도면 5. 금관가야 중심양식과 주변양식 고배의 출현과 변천(김일규 2018b)

도질토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세기 말엽에 출현하여 4세기 초까지 그 기종과 기형은 소문단경호에 한정된다. 4세기 초엽에 도질제 승문타날단경호가 일부 확인되지만 아주 소수이다.

4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소문단경호 이외에, 승문과 격자문의 타날단경호, 고배, 기대, 대옹 등 기왕의 와질토기 기종과 기형도 도질로 소성되어 도질토기가 제일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4세기 중엽이 되면 부장유물 조합에서도 앞 단계와는 완전한 차별성이 나타난다. 앞 단계까지 존속하던 신식와질토기단계의 대표 부장유물인 유개대부호와 노형토기가 완전히 사라진다.¹⁴⁾

4세기 중엽에는 낙동강하구 유역에서 외절구연고배, 파수부노형기대의 부장 토기 조합이 완성되어, 주변 지역과 철저히 차별화된다. 이러한 장송 의례와 관련된 부장 예기의 차이는 공간적으로 계층 분화와 그에 따른 지배구조의 틀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4세기 중엽이 되면 남강유역과 합천지역에서도 도질토기가 출현하는데, 초현기 기형은 소문단경호, 발형기대, 승문타날단경호 위주이며, 곧바로 통형고배와 통형기대, 파배가 부가된다.

4세기 중엽에 출현한 함안식 토기로 분류되는 고배를 비롯한 기대, 승문타날단경호 등의 금관가야 주변양식¹⁵⁾ 토기는 출현과 동시에 낙동강하구 유역은 물론 합천, 경주, 대구 지역 등 영남 내륙 전역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영남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공통양식으로 보는 견해¹⁶⁾ 및 함안지역과 영남 제 지역의 교류에 따른 함안지역 토기문화의 확산, 즉 함안지역이 토기의 생산과 공급의 주요거점이었다는 견해¹⁷⁾로 양분되어 있다.

4세기 중엽의 대표 고분으로는 중엽 전반의 대성동 91호분, 18호분, 13호분, 복천동 38호분이 있고, 중엽 후반은 대성동 2호분, 70호분, 88호분, 94호분 등이 있다. 도질토기가 일반화된 시점인 대성동 91호분은 출토된 삼연(전연)마구의 검토에서 4세기 2/4분기로 편년 되었다.¹⁸⁾

함안식으로 분류되어온 금관가야 토기 주변양식의 출현시점은 도면4·5에서 보듯이 4세기 2/4분기를 더는 소급할 수 없다. 이것으로 볼 때 금관가야 토기가 낙동강하구 유역의 중심양식 및 주변양식으로

14) 노형토기는 4세기 중엽까지도 일부 존속되지만, 신식와질토기의 전통적 문양은 사라지고 도질화 되었으며, 아주 극소수만 존재한다.
 15) 김일규, 2018b, 「3-4세기 영남지역의 고배의 변천과 사회변동양상 비교검토」,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중앙연구원.
 16) 김정완, 2000, 「함안권역 도질토기의 편년과 분포변화」, 『伽耶考古學論叢』 3.
 김정완, 2006, 「筒形高杯 再考」, 『석헌 정경원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안재호, 1993, 「Ⅵ.고찰」, 『김해에안리고분군Ⅱ』, 부산대학교박물관.
 안재호·송계현, 1986, 「고식도질토기에 관한 약간의 고찰」, 『영남고고학』1.
 우지남, 2000, 「2. 함안지역 출토 도질토기」, 『도항리·말산리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이주현, 1998, 「토기로 본 安羅와 新羅」, 『가야와 신라』, 제4회 가야사학술회의.
 조영제, 2006, 「서부경남 가야제국의 성립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박천수, 2000, 「고고학으로 본 加羅國史」,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박천수, 2005, 「가야고분의 편년」, 『伽耶文化』18.
 윤운식, 2006, 「4세기대 함안 지역 토기의 변천과 영남지방 토기의 「樣式」論」, 『東壇學術論文集』8.
 이성주, 1998, 『신라·가야사회의 기원과 성장』, 학연문화사.
 이정근, 2006, 「함안지역 고식도질토기의 생산과 유통」,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주희, 2008, 「함안양식 고식도질토기의 분포정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승철, 2008, 「2. 진주 안간리 출토 고식도질토기에 대한 일고찰」, 『진주 안간리유적』, 경남발전연구원.
 박승규, 2018, 「가야토기」, 『가야 고분군Ⅱ』,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18) 沈載龍, 2013, 「中國系遺物로 본 金官加耶와 中國 東北地方」, 『中國 東北地域과 韓半島 南部의 交流』第22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심재용, 2016, 「金官加耶의 外來系 威勢品 受用과 意味」, 『嶺南考古學』74, 嶺南考古學會.
 김일규, 2015, 『백제 고고학 편년 연구』, 학연문화사.
 이현우, 2016, 「삼연마구의 성립과 그 배경」, 『가야의 마구와 동아시아』, 제22회 가야사국제학술회.
 신경철, 2017, 「가야·신라 초기마구의 성격과 의미」, 『古文化』9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분화되는 시점은 4세기 중엽-4세기 2/4분기로 편년 할 수 있다.¹⁹⁾

2) 제 가야토기 양식의 성립

5세기 초엽이 되면, 낙동강하구 유역을 제외한 주변 지역에서도 중심양식 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즉, 낙동강하구 유역에 한정된 중심양식 토기 부장의 공간성이 파괴된다. 중심양식의 토기가 제 가야권역은 물론 울산, 포항, 경주, 임당 등 신라권역의 무덤에도 부장된 양상이 확인되었다.²⁰⁾ 이러한 현상은 4세기까지 유지되던 낙동강하구 유역과 주변 지역 간의 정치적 역학 구도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신라지역과도 직 접적인 상호작용 관계망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²¹⁾

5세기 중엽-4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대성동고분 최후의 대형 목곽묘인 93호분에서는 도면5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금관가야 양식 토기와 신라 양식 토기가 공반되고, 후행하는 대성동 73호 석곽묘의 부장 토기는 신라 양식 일색으로 된다.

이처럼 5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금관가야 양식은 해체되었는데, 남강 유역은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쪽의 소가야 양식과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아라가야 양식, 그리고 북쪽의 합천-고령지역 중심의 대가야 양식 및 창녕 양식으로 분화된다.

3. 마구와 갑주의 출현과 확산

1) 마구와 갑주의 출현

(1) 마구의 출현

대성동 91호분, 복천동 38호분에서 출토된 재갈은 재갈멈치에 바로 고삐를 연결한 漢式 재갈과 달리 재갈멈치에 인수가 부가된 표비로, 소위 북방식 재갈이다. 그런데 흉노, 선비, 무여, 고구려 표비의 인수는 일주하는 철환의 중간을 눌러 제작한 표주박형이거나, 철봉을 U자상으로 흰 후 한쪽 끝부분을 두드려 납작하게 하여 구멍을 내고 나머지 한쪽 끝부분을 직각으로 구부려 구멍에 끼워서 고정된 구조가 대부분이다. 복천동 38호분 재갈의 인수는 전자와 같은 형태로 전형적인 북방식 표비이다.

그렇지만 도면 1-5, 그림 1, 2의 대성동 91호분 출토 재갈의 인수는 철봉을 U자상으로 만든 후 양쪽 끝부분에 구멍을 내고 별도의 철봉을 끼워 넣어 양쪽을 리벳상으로 고정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4세기 중엽 전연의 무덤인 안양 효민동 154호묘와 조양 원대자벽화묘에서 출토된 재갈의 인수 제작방법과 같다. 더불어 공반된 금동제령부운주와 십금구 또한 전연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동 형식이다.

한편 대성동 91호분에서 공반된 표비 중에는 그림 1-2와 같이 철봉을 꼬아 1조선으로 만든 후 인수 외환부분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마치 삼자루의 형태로 만든 것도 있다. 이는 전연제 마구를 모방하여 현지화한 것이다.

19) 김일규, 2018b, 「3-4세기 영남지역의 고배의 변천과 사회변동양상 비교검토」,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중앙연구원.

20) 일부 중심양식 토기가 주변 가야권역의 무덤에 부장되는 것이 확인되지만, 일반적 현상은 아니다.

21) 김일규, 2018b, 「3-4세기 영남지역의 고배의 변천과 사회변동양상 비교검토」,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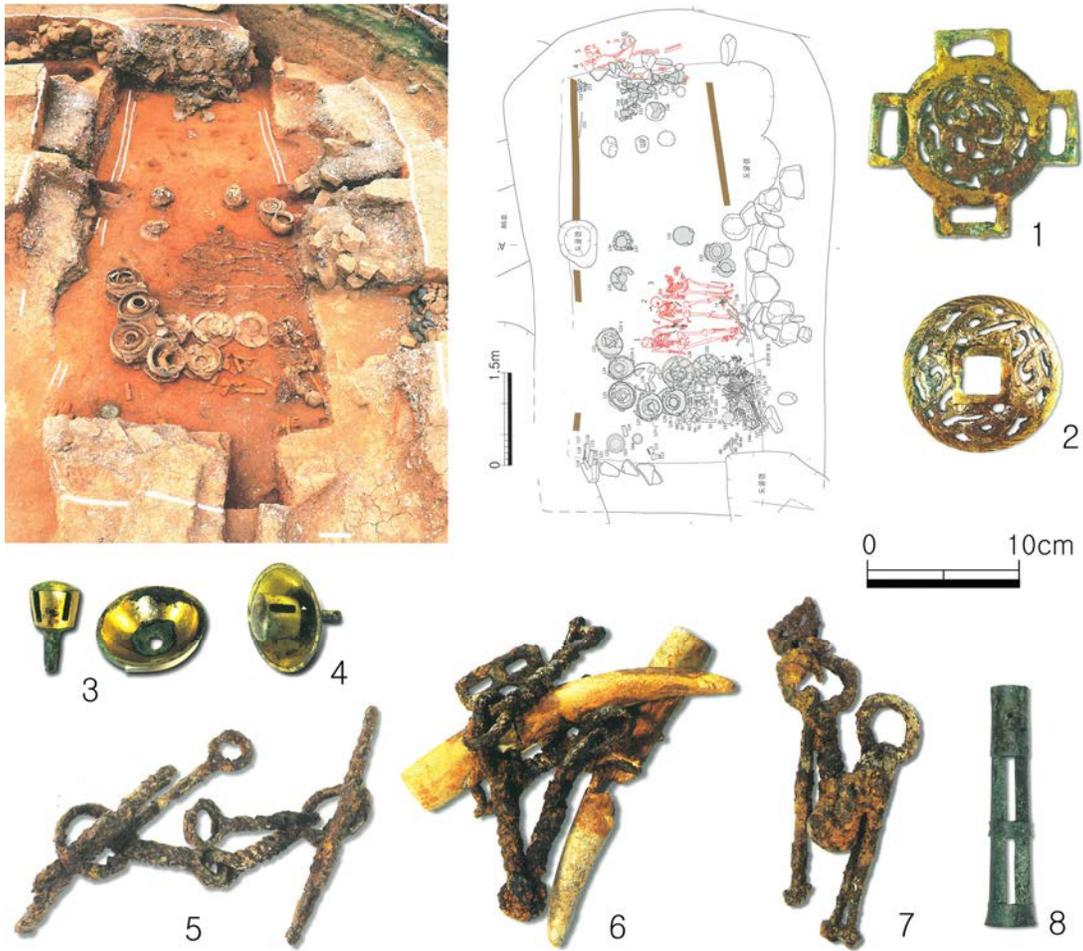


그림 1. 대성동 91호분과 출토유물(김일규 2018c에서)

이처럼 대성동 91호분의 마구는 전연에서 제작한 것과 삼연(전연)마구를 모방하여 현재에서 제작한 삼연(전연)계 마구가 모두 확인된다. 이는 대성동 91호분보다 이전에 북방식마구가 이 지역에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모용선비 내지 부여의 마구일 개연성이 높다.²²⁾ 따라서 대성동 29호분에서 확인된 북방문물이 유입될 때 마구도 공반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²³⁾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가 삼연(전연)마구이며 그 출현 시점은 대성동 29호분까지 소급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앞서 언급한 보요부금동관과 더불어 북방문물의 계보는 딱히 부여에 한정되지 않는다.

(2) 갑주의 출현

대성동 18호분에서 출토된 종장관주와 복천동 38호분에서 출토된 종장관갑주의 존재에서 4세기 중엽

22) 이는 91호분에 후행하는 대성동 2호분에서 출토된 청동계 판비가 전연 내지 후연의 무덤인 북표 라마동ⅡM16 출토 판비와 거의 흡사한 것에서도 방증된다.

23) 신경철, 2017, 「가야·신라 초기마구의 성격과 의미」, 『古文化』9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그림 2. 복천동 38호분 갑주

에 가야에 중장갑병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장판갑은 영남 지역 독자의 것으로 기왕의 피혁 내지 칠제 갑주를 철제화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장판주는 동한 이래 중원지역과 부여 등 중국 동북지역에서 유행한 형태로 역시 중국계 문물이 유입될 때 함께 수용된 것일 것이다.

한편, 4세기 말엽으로 편년되는 대성동 57호분에서는 三燕계 馬胄가 출토되어 4세기 후반에는 마갑도 유입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 주변권역에서 마갑은 5세기 중엽의 마갑총과 지산동 75호분에서 확인되며, 신라에서는 5세기 초엽의 경주 쪽샘C-10호분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처럼 4세기 후반에는 마주만 확인되고 마갑은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마갑 출현단계에는 피혁제의 마갑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2) 마구와 갑주의 확산

5세기가 되면 함안과 고령지역의 무덤에서도 마구와 갑주가 출토되기 시작한다. 마구는 5세기 초엽부터 출토가 확인되지만, 갑주는 중엽이 되어서야 부장되었다.

5세기 초엽으로 편년되는 도항리(문) 3호묘와 43호묘, 옥전68호묘에서 판비가 출토되는 것을 시점으로 5세기 중엽이 되면 고령지역에서도 마구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더불어 5세기 중엽에는 말이산(경) 13호묘와 도항리(문) 36호묘에서 각각 삼각판철단갑과 중장판주가 마구와 공반하였으며, 마갑총에서는 마갑의 부장도 확인되었다. 고령지역에서도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지산동75호묘에서도 갑주와 마갑, 마구가 공반하여 부장되었다.

이처럼 5세기 중엽이 되면 마구와 철제 마갑과 마주, 갑주가 제 가야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부장되었다.

Ⅲ. 제 획기의 배경과 의의

낙동강하구 유역은 대성동 29호분을 시점으로 그 이전과는 판이한 중국(계) 문물이 돌출하였다. 이 중국(계) 문물에는 중국 동북지방에 기원을 둔 북방문물인 마구, 보요부장식 금동관, 동북, 순장 습속 및 중원에 기원을 둔 진식대금구, 한경 그리고, 장강하구 유역의 용요를 기반으로 한 제도기법에 기원을 둔 도질토기가 대표적이다.

도질토기는 東吳의 멸망(280년), 그 직후 일어난 팔왕의 난(291~306년)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세를 피해 장강 유역에서 이주해온 유민이 직접 생산하였던지, 혹은 유민으로부터 용요의 기술정보를 받아들인 현지 도공이 새로운 제도기술로 제작한 토기로 정의할 수 있다. 도질토기를 비롯하여 상기한 문물은

해당 지역과 직접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유입된 것들이다.²⁴⁾

그러므로 기왕의 가야 고고학에서 제시하였듯이 대성동 29호분으로 대표되는 이 시점을 금관가야의 태동기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며 그 시점은 역시 3세기 말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대신 금관가야 성립과 관련된 중국 선진문물은 그 기원이 일원적이지 않고, 동오의 멸망, 팔왕의 난에 따른 북방민족의 남하와 같은 중국 각지의 혼란스러운 정세 변동이 낙동강하구 유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4세기 초엽에 낙동강하구 유역에서 완성된 금관가야양식 토기 복합체-신식와질토기와 다른 부장 토기 조합은 4세기 중엽에는 도질화가 완성되어 서부 경남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해-부산 지역으로 한정하는 중심양식과 나머지 지역의 주변양식으로 분화된다.

이러한 도질토기 문화의 확산은 낙동강하구 유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가 그 정치권역의 범위를 서부 경남지역까지 확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유물부장품에 있어서 중심양식과 주변양식으로 철저히 분리되고 통제된 현상은 금관가야의 정치적 성격이 단순한 연맹체가 아닌 낙동강하구 유역을 정점으로 한 정치적 카르텔 형성되어 있었던 구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세기 중엽부터 금관가야는 정치영역의 범위가 서부 경남지역까지 미친 고대 국가로 봐도 무방한 듯하다.

5세기 초엽이 되면 금관가야 중심양식 토기가 낙동강하구 유역을 벗어난 주변 지역의 무덤에도 부장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남 전역에서 새로운 양식의 공유에 의한 통합양상이 전개되는 양식복합기²⁵⁾라기보다는, 무덤 부장품의 조합에서 철저히 금관가야 중심양식과 주변양식의 이분화로 표출되던 금관가야의 정치적 역학 구도가 해체된 결과로 볼 수 있다.²⁶⁾

5세기 중엽이 되면 금관가야 토기 양식은 해체되고 소가야 양식, 아라가야 양식, 대가야 양식 등으로 분화된다. 이는 대성동고분군에서 대형 목곽묘의 조영 중단 시점과 일치하고, 바로 해당 각 지역에서 고총 고분이 출현한다.

이러한 현상은 토기와 묘제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전까지 철저히 낙동강하구 유역에 한정되던 순장, 갑주와 마구의 부장도 이 시점부터 각 지역에서 확인된다. 이는 낙동강하구 유역을 정점으로 유지되어온 정치적 카르텔의 해체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5세기 중엽 시점부터 금관가야의 전기가야는 막을 내리고 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 제 가야로 분화된 후기가야가 시작된다. 소위 <6가야 연맹체>의 시작은 이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5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대성동 93호분을 끝으로 대성동고분군에서 대형 목곽묘의 조영이 중단된다. 따라서 5세기 2/4분기까지는 금관가야세력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庚子年 광개토대왕의 남정과 금관가야세력의 와해를 연관시키던 견해는²⁷⁾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많은 외래(계)유물의 존재로 볼 때, 3세기 말엽에 일어난 대변혁과 함께 성

24) 김일규, 2018a, 「금관가야고분 출토 외래유물의 성격과 의의」, 『호남고고학보』60, 호남고고학회.

25) 박승규, 2018, 「가야토기」, 『가야 고분군Ⅱ』,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6) 김일규, 2018b, 「3-4세기 영남지역의 고배의 변천과 사회변동양상 비교검토」,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중앙연구원.

27) 신경철, 1995, 「김해대성동·동래북천동고분군 점묘-금관가야 이해의 일단」, 『부대사학』19.

신경철, 2017, 「가야·신라 초기마구의 성격과 의미」, 『古文化』9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립된 금관가야는 중국 동북지역-모용선비의 삼연 및 일본열도와 직접적인 교류를 지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수한 선진문물을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 재차 전파하는 문물교류의 창구 지위를 담당하면서 번영하였다.²⁸⁾

그러므로 낙동강하구 유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 와해는 庚子年 광개토대왕의 南征보다는 437년 北燕 멸망에 따른 대 중국교류의 거점상실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²⁹⁾

IV. 맺음말

가야사는 한국 고대사에서 삼국의 일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주변으로 여겨져 왔었다. 이는 문헌 사료를 중심으로 한 고대사 연구에서 피치 못할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세기말부터 가야와 관련된 많은 고고학 자료가 발굴 조사되어 가야 고고학 연구성과의 축적은 이미 문헌학적 연구를 추월하였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고고학 분야에서는 선사와 달리 문헌과 그 연구성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고학은 어디까지나 유물론적 학문이다. 고고학 자료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질적 史料이므로 시간성의 제약이 많은 문헌 사료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료적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고대사에서 가야 고고학을 포함한 삼국시대 고고학이 심도 있게 논의·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8) 김일규, 2018a, 「금관가야고분 출토 외래유물의 성격과 의의」, 『호남고고학보』60, 호남고고학회.

29) 김일규, 2018a, 「금관가야고분 출토 외래유물의 성격과 의의」, 『호남고고학보』60, 호남고고학회.

참고문헌

[단행본]

- 김수환, 2018, 「가야의 순장」, 『가야사 총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김일규, 2015, 『백제 고고학 편년 연구』, 학연문화사.
- 김일규, 2018b, 「3~4세기 영남지역의 고배의 변천과 사회변동양상 비교검토」,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일규, 2018c, 「김해 대성동고분군 목곽묘의 변천과 특징」, 『가야 고분군 I』,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김정완, 2006, 「筒形高杯 再考」, 『석헌 정정원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 박승규, 2018, 「가야토기」, 『가야 고분군 II』,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박천수, 2000, 「고고학으로 본 加羅國史」,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 潘玲, 2015, 『中國北方晚期鍍研究』, 科學出版社.
- 신경철,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 이성주, 1998, 『신라·가야사회의 기원과 성장』, 학연문화사.
- 이정근, 2006, 「함안지역 고식도질토기의 생산과 유통」,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주희, 2008, 「함안양식 고식도질토기의 분포정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제, 2006, 「서부경남 가야제국의 성립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陳凌, 2009, 「鄂尔多斯金冠源流考」, 『鄂尔多斯青铜器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科学出版社.

[보고서]

- 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鄂州市博物館, 2007, 『鄂城六朝墓』, 科學出版社.
- 안재호, 1993, 「VI.고찰」, 『김해예안리고분군 II』, 부산대학교박물관.
- 우지남, 2000, 「2. 함안지역 출토 도질토기」, 『도항리·말산리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 하승철, 2008, 「2. 진주 안간리 출토 고식도질토기에 대한 일고찰」, 『진주 안간리유적』, 경남발전연구원.

[학술지 게재논문]

- 김일규, 2018a, 「금관가야고분 출토 외래유물의 성격과 의의」, 『호남고고학보』60, 호남고고학회.
- 김정완, 2000, 「함안권역 도질토기의 편년과 분포변화」, 『伽耶考古學論叢』3.
- 박천수, 2005, 「가야고분의 편년」, 『伽倻文化』18.
- 신경철, 1992, 「김해예안리 160호분에 대하여-고분의 발생과 관련하여」, 『伽耶考古學論叢』1.
- 신경철, 1995, 「김해대성동·동래복전동고분군 점묘-금관가야 이해의 일단」, 『부대사학』19.
- 신경철, 2013, 「대성동88,91호분의 무렵과 의의」, 『고고광장』13, 부산고고학연구회.
- 신경철, 2017, 「가야·신라 초기마구의 성격과 의미」, 『古文化』9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심재용, 2016, 「金官加耶의 外來系 威勢品 受用과 意味」, 『嶺南考古學』74, 嶺南考古學會.
- 안재호·송계현, 1986, 「고식도질토기에 관한 약간의 고찰」, 『영남고고학』1.
- 윤은식, 2006, 「4세기대 함안 지역 토기의 변천과 영남지방 토기의 「樣式」論」, 『東壇學術論文集』8.
- 이송란, 2011, 「위진남북조시대 금단문당과 금보요관의 시원과 전개」, 『고문화』78.
- 이주현, 1998, 「토기로 본 安羅와 新羅」, 『가야와 신라』, 제4회 가야사학술회의.
- 이해련, 2015, 「몽골 출토 동북에 대한 검토」, 『博物館研究論集』21, 釜山博物館.
- 田廣金·郭素新, 1980, 「內蒙古阿魯柴登发现的匈奴遺物」, 『考古』4期.
- 조운재, 2015, 「고고자료를 통해 본 삼연과 고구려의 문화적 교류」, 『선사와 고대』43.

[학술대회 게재논문]

沈載龍, 2013, 「中國系遺物로 본 金官加耶와 中國 東北地方」, 『中國 東北地域과 韓半島 南部의 交流』第22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이현우, 2016, 「삼연마구의 성립과 그 배경」, 『가야의 마구와 동아시아』, 제22회 가야사국제학술회.

「고고 자료로 본 가야사의 획기」를 읽고



남재우 | 창원대학교

발표자는 “고고학으로 보는 가야사의 획기는 금관가야의 성립, 도질토기 및 마구와 갑주의 출현과 제 일성, 대성동고분군에서의 대형 목곽묘 조영 중단, 제 가야토기 양식의 성립, 고총 고분의 성립 등이 근거가 되어”은 것에 동의하며, 가야사의 획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기존의 견해와 다른 인식이 곳곳에 담겨 있어, 생각을 많이 했던 글이었다. 온전하게 글의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요약하면서 의문을 몇 가지 적어 보겠다.

첫째, 금관가야의 성립을 가야사의 시작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금관가야의 성립 배경을 북방적 요소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 기존의 견해 : 금관가야의 성립은 “김해 대성동 29호분에서 확인된 殉葬, 토기의 厚葬, 도질토기, 금동관, 북방식 銅鍍으로 대표되는 소위 북방식 문물의 등장과 주·부곽식 목곽묘의 출현 및 이와 연동한 묘제의 분화-김해형과 경주형, 선행분묘의 파괴 현상, 철제갑주와 기승용 마구의 출현 시점”으로 보았다.
- 발표자는 “29호분에 후속하여 조영된 91호분, 70호분, 88호분, 2호분, 23호분 등에서는 북방계로 분류되는 삼연마구는 물론, 한경, 진식대금구 등의 중원(계)유물과 로만글라스와 같은 서아시아계의 물품도 출토되었다. 따라서 대성동 29호분에 나타나는 양상을 북방적 요소로 한정하고 그것을 금관가야의 성립배경으로 본 논지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럼, 가야의 시작을 금관가야의 시작으로 본다면, 구야국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금관가야의 성립배경을 북방적 요소, 중원, 서아시아계로만 볼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

둘째, 가야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획기는 5세기 중엽이다.(93호분 축조) 금관가야 후기와 ‘6가야연맹체’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 5세기 중엽이 되면 금관가야 토기 양식은 해체되고 소가야 양식, 아라가야 양식, 대가야 양식 등으로 분화된다. 이는 대성동고분군에서 대형 목곽묘의 조영 중단 시점과 일치하고, 바로 해당 각 지역에서 고총 고분이 출현한다.
- 이전까지 철저히 낙동강하구 유역에 한정되던 순장, 갑주와 마구의 부장도 이 시점부터 각 지역에서 확인된다. 이는 낙동강하구 유역을 정점으로 유지되어온 정치적 카르텔의 해체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 낙동강하구 유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 와해는 庚子年 광개토대왕의 南征보다는 437년 北燕 멸망에 따른 대 중국교류의 거점상실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5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대성동 93호분을 끝으로 대성동고분군에서 대형 목곽묘의 조영이 중단된다. 따라서 5세기 2/4분기까지는 금관가야세력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 남정으로 인한 금관가야세력의 와해를 연관시키던 견해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 5세기 중엽 시점부터 금관가야의 후기,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 제 가야로 분화된 후기가야가 시작된다. 소위 <6가야 연맹체>의 시작은 이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개토왕 남정은 가야사회 내부 질서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다. 5세기대 이후 나타나는 고고자료, 즉 김해지역을 제외한 고총고분은 그 증거로 간주되어왔다. 5세기 중엽, ‘6가야연맹체’라는 언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때로부터 6가야가 시작되었다는 뜻인지, 아직도 ‘6가야’란 말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금관가야의 성장은 왜와의 교류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셋째, 금관가야 내부의 획기는 4세기 중엽으로 설정하고, 금관가야 정치영역의 범위가 서부 경남지역까지 미친 고대 국가로 이해하였다.

- 도질토기 문화의 확산은 낙동강하구 유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가 그 정치권역의 범위를 서부 경남지역까지 확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유물부장품에 있어서 중심양식과 주변양식으로 철저히 분리되고 통제된 현상은 금관가야의 정치적 성격이 단순한 연맹체가 아닌 낙동강하구 유역을 정점으로 한 정치적 카르텔 형성되어 있었던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4세기 중엽의 고대국가라고 말하는 ‘고대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서부경남지역까지 미쳤다고 하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4세기대 아라가야 토기의 확산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넷째, “역사고고학 분야에서는 선사와 달리 문헌과 그 연구성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고학은 어디까지나 유물론적 학문이다. 고고학 자료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질적 史料이므로 시간성의 제약이 많은 문헌 사료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료적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물론적 학문’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여 가야사를 이해하기 보다는, 가야 각국을 중심에 두어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가야 전체사를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문헌으로 본 가야사의 획기」에 대한 질의



김 일 규 | 부산대학교

남재우 선생님의 발표는 문헌사료를 검토하여 4세기대의 가야사를 획기하고, 향후 가야사 연구의 지향할 바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 지향점은 첫째, “삼국의 발전과정을 가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삼한시기와 가야사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가야사 연구가 대외교역과 문화교류 이외에 삼국과 마찬가지로 “사회 내부의 발전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가야사에서 획기는 가야사회 자체 내부의 사회적 변화와 발전이 수반되는 상황에 주목되어야 한다고 하며, 포상팔국전쟁과 광개토왕남정을 획기로 제시하였는데, 전자에 주로 중점을 두고 후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포상팔국전쟁을 4세 초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변동(낙랑, 대방 축출과 5호16국 수립)이 가야사회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즉 포상팔국전쟁을 4세기 초 가야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경자년 광개토왕의 남정은 전기 가야연맹에서 후기 가야연맹으로의 교체만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가야사회 내부의 발전과 구조의 변화에 대한 고려는 물론 정치사회 발전에 대한 전체상이 도출된 바탕 위에 추진된 시대구분이 아닌, 선형적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고 그 의미를 크게 부여치 않았다.

선생님의 4세기 가야사의 획기에서 제시한 논지에 대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상팔국전쟁의 시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고고학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한 부분입니다. 즉 포상팔국으로 비정되는 고성지역의 4세기 초의 고고학적 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소가야로 정의되는 공간이지만, 소가야는 물론 아라가야의 고고학적 양식은 5세기 중엽에서야 성립된다. 4세기 초는 물론 4세기~5세기 전반의 고성지역 고고자료 중 동시기 김해지역은 물론 함안지역과 비견될 정도의 고고학적 양상은 전무하고, 가야고분에서 대표적 위세품으로 분류되는 마구는 6세기 초부터 고성지역의 무덤에 부장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포상팔국전쟁의 시점이 소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등이 성립된 5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 될 개연성은 없는지?

다음은, 광개토왕 남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가락국-김해지역의 쇠퇴요인 및 아라가야와 대가야의 성장배경은 남정에 있고, 아라가야는 남정 때 고구려 편에 동조하여 남정 이후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어 서부경남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면서도 가야사 획기에서 경자년 남정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논지 전개상 다

소 모순적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사회 내적 변화와 발전에 따른 결과는 아닐지라도, 본문에 제시한 남정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결과가 앞서 제시한 포상팔국전쟁 이상으로 사회변동에 미친 파급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문의 논지대로라면, 경자년 남정 역시 가야사의 큰 획기로 다루어도 무방한 것은 아닌지?

상기한 두 가지 질의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이 형 기 | 해양수산부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이 형 기 | 해양수산부

목 차

- I. 머리말
- II. 건국신화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 III. 포상팔국 기록을 통해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 IV. ‘하부’ 기록을 통해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 V. 맺음말

I. 머리말

가야는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라에 멸망당한 나라로 알려져 왔다. 역사란 대부분 승자의 기록만 남기 마련이어서 신라에 의해 멸망당한 가야에 대한 문헌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가야에 대해서 간접적이거나 전하는 자료로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중국의 『三國志』, 『後漢書』와 『南齊書』, 일본의 『日本書紀』 등의 사서가 대표적이다. 또한 『廣開土王陵碑文』과 『昌寧 眞興王拓境碑』, 『陝川 埋安里碑』 등과 같은 당대에 만들어진 금석문도 있다. 고대사에 관련된 사료들이 그러하듯 이들 사료와 금석문에 실린 내용 가야관련 내용들이 소략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헌기록의 부족은 가야사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개발로 인하여 훼손될 위기에 처한 많은 유적들을 발굴조사하게 되고, 그 성과들이 학계에 보고되면서 가야사 연구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유적의 파괴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개발이 가야사 연구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겠다. 어쨌든 고고학 성과들은 문헌자료의 부족을 물질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고대사와 고고학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사서에 가야 전체를 통칭하는 용례도 보이지만, 더불어 멸망하는 시기까지도 가야지역 범위 내에 개별 국가의 국명이 존재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가야제국들에 대해 주로 가야를 전후기의 단일연맹체제로 보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연맹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지역연맹체론과 함께 연맹체¹⁾로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²⁾ 최근에는 가야를 부체제³⁾에 이르렀다고 보거나

초기 고대국가⁴⁾, 또는 고대국가⁵⁾까지 도달했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야사회를 지역국가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⁶⁾

이 글은 문헌기록을 토대로 가야의 국가적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가야의 국가적 성격을 이야기하는 기본 자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건국신화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가야의 건국신화는 두 계통으로 남아있는데 대표되는 것이 김해 가락국 중심의 『삼국유사』, 가락국 기초와 대가야의 건국신화를 기록한 『新增東國輿地勝覽』, 高靈縣 建置沿革條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 ①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裏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 圓如日者……過浹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開合 而六卵化為童子 容貌甚偉……日月而大 踰十餘晨昏 身長九尺則殷之天乙 顏如龍焉則漢之高祖 眉之八彩則有唐之高 眼之重瞳則有虞之舜 其於月望日即位也 始現故諱首露 或云首陵(首陵是崩後諡也) 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卽六伽耶之一也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三國遺事』卷2, 紀異2 駕洛國記條)
- ② 本大伽耶國 自始祖伊珍阿豸王(一云內珍朱智) 傳十六世至道設智王(十六世凡五百二十年 按崔致遠 釋利貞傳云 伽耶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耶王惱室朱日 金官國王惱室青裔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豸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 大伽耶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婁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羅眞興王并其地 置大伽耶郡(『新增東國輿地勝覽』, 高靈縣 建置沿革條)

A ①의 가락국기는 6란설화 형식으로 남아있다. 이 신화는 김해 가락국의 후손들이 김씨성을 받고, 여기에 대한 일대기를 저술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건국신화는 아니지만 사료 B의 오가야조는

1) 가야연맹의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통일된 견해없이 논자마다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가야사에 대한 논의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가야사에서의 연맹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南在祐, 1995, 「加耶史에서의 ‘聯盟’의 의미」, 『昌原史學』 2, 昌原大學校 史學會; 朱甫暉, 1995, 「序說-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金泰植, 1997, 「加耶聯盟의 諸概念 比較」, 『加耶諸國의 王權』, 신서원.

2) 최근 들어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한 여러 견해는 백승욱, 2017, 「가야 ‘연맹체설’의 비판과 ‘지역국가론’ 제창」, 『쟁점 대가야사 대가야의 국가발전단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재)대동문화재단연구원; 이영식, 2018, 「가야 제국諸國의 발전단계와 초기고대국가론」,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류성 등이 참고된다.

3) 蔡尙植, 1989, 「陝川 苧浦4號墳出土 土器의 銘文」, 『伽耶』2; 盧重國, 1995, 「大伽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李炯基, 2002, 「于勒十二曲의 上加羅都와 下加羅都-大伽耶의 地方支配에 관한 試論的 考察-」, 『盟主로서의 金官가야와 대가야』(第8回 加耶史學術會議 發表 要旨), 김해문화원; 2009, 『大伽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4)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연구』, 서경문화사.

5) 김세기,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朴天秀, 1996, 「大伽耶의 古代國家形成」,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이희준, 1995,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6) 백승욱,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가락국기의 내용에 더하여 가야의 국명을 전하고 있다. A ②는 대가야 시조 이진아시왕과 수로를 형제로 묘사하고 있다. 이 두 신화는 내용은 물론이고 시기와 무대도 각각 다르다. 이는 가야사의 전개와 종말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가락국과 대가야의 중심이며, 대국이었던 자존의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

위 A ①의 내용에서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으로 기록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가야단일연맹설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건국신화의 내용과 사료 B의 오가야조를 통해서 가야사는 전기와 후기가야로 나뉘어지며 전기는 김해의 가락국, 후기는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로서 가야사회를 이끌었다고 보는 것이다. 부족집단의 장으로 추장인 九千이 首露를 추대하는 과정에서 ‘부족연맹왕국’이 형성되었다고 보거나⁸⁾ 육가야 또는 오가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맹단체로서 맹주국을 제외하고 말할 때는 오가야, 맹주국까지 합하여 말할 때에는 육가야라고 하면서 오가야조에서 金官·大伽耶의 이름이 빠지는 것은 전자나 후자나 각기 맹주국을 제한 오가야를 지칭한 것으로, 전기는 대가야 맹주시대, 후기는 금관가야 맹주시대로 파악하고 있다.⁹⁾ A ①과 B에서 인용된 本朝史略에서의 내용상 차이는 낙동강 중류의 대가야와 하류의 금관가야가 육가야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저마다 영도권을 주장하면서 두 가야가 주체가 된 가야연맹이 결속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A ②는 상하의 두 가야가 주체가 되어서 가야 전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신화의 필요성에 의해서였다고 한다.¹⁰⁾

이러한 가야의 단일연맹체설은 1990년대 들어 위에서 인용된 기사는 물론 『일본서기』 등의 내용도 비판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고고학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가야사 연구의 중요한 논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가야의 開國紀年은 대체로 2세기 전반으로¹¹⁾ 3세기 전반 당시에 『三國志』에 나오는 弁辰 12국(또는 13국)이 교역과 鐵産을 바탕으로 狗邪國 중심의 弁韓小國聯盟 즉 前期加耶聯盟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전기가야연맹은 낙랑·대방군의 멸망으로 선진문물 보급의 핵이 사라짐으로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고구려군이 낙동강 하류까지 진출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후 일부 잔여 세력은 자기 영향력이 미치던 여타지역으로 흩어지거나 경주 중심의 신라지역으로 이탈함으로써 전기가야연맹은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고령에 위치한 대가야가 5세기 후반 新羅의 팽창에 자극을 받아 5세기 후반에 후기가야연맹을 형성하였으며, 520년대 후반에는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이후에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大加耶와 阿羅加耶의 南北二元體制, 百濟의 附庸體制 등을 겪으면서 후기가야연맹은 종식되었다고 한다.¹²⁾

단일연맹체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야내부에는 단일한 연맹체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만한 어떠한 사료도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임나멸망 기사¹³⁾ 등을 통해서 가야지역에는 꽤 많은

7) 이영식, 2002, 「대가락과 대가야의 건국신화」(제8회 가야사학술회의); 2016, 「대가락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 종이.

8) 孫晉泰, 1981, 『孫晉泰先生全集』, 太學社, pp.22~23.

9) 이병도는 변진 제소국 중 사로 등 십여국은 目支國의 辰王 세력에 소속되고 있음에 반하여 狗邪 등 10여국은 거기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대외활동을 하고, 또 그들 중에는 별개의 연맹체를 조직하고 거기의 맹주가 되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처음의 맹주국은 上加羅(大加耶), 다음은 下加羅(本加耶)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新增東國輿地勝覽』, 高靈縣 建置沿革條 釋利貞傳에 보이는 宗支關係의 설화를 들고 있다(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p.311~313).

10) 金哲堧, 1965, 「韓國古代國家發達史」, 『韓國文化史大系』 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p.484~486.

11) 金泰植, 1991, 「가야사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韓國古代史論叢』 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p.16~38.

12)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숫자의 독자성을 가진 국가들이 멸망 당시까지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연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내용인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합리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가야는 독립성을 지닌 소국의 존재가 멸망 순간까지도 존재하였다는 점은 하나의 연맹체제로 설명하기에는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고학적 성과에 비추어 볼 때 小地域圈 등을 상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몇 군데의 지역성이 가야지역에서 확인된다는 사실 등이다.¹⁴⁾

건국신화는 아니지만 단일연맹체론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자료면서 가야 내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는 앞서 잠시 이야기한 『삼국유사』 오가야조가 있다.

B 五伽耶(按駕洛記贊云 垂一紫纓 下六圓卵 五歸各邑 一在茲城 則一爲首露王 餘五各爲五伽耶之主 金官不入五數 當矣 而本朝史略 竝數金官 而濫記昌寧 誤)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 古寧(爲加利縣) 三 非火(今昌寧恐高靈之訛) 餘二 阿羅-星山(同前 星山或作碧珍伽耶)(『三國遺事』卷2, 紀異2 五伽耶條)

이 기사는 형식상 다섯 개의 가야국명만을 보이거나 실제로는 육가야설을 근거로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의 이름을 보면 오가야조와 본조사략이 서로 다른 내용을 보이는데, 오가야조에는 아라·고령·대·성산·소가야의 명칭이 보이는데 반해 본조사략에는 금관·고령·비화·아라·성산가야가 언급된다. 일연은 금관국의 경우에는 가야연맹의 맹주국이기에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보이는 7개의 가야국명은 비록 막연하게 ‘가야’라는 이름이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퍼져 있었다는 후대의 관념이 반영 되었을 것이다.¹⁵⁾ 그렇지만 이 기사의 내용이 일정부분 당대의 사실을 반영해 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겠다. 여러 나라들은 낙동강 강안 및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우월한 규모를 지닌 고총고분군의 존재 등 고고학적인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나타나는 지역에 위치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이는 7개의 가야국명은 가야제국 중 대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⁶⁾

국가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과 별개로 위의 A ②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가야사회에 새로운 신앙체계가 등장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신앙은 불교였을 것이다. 이 신화의 내용은 천신인 夷毗訶와 가야산신인 正見母主와의 결합에서 시조인 惱室朱日과 惱室青齋가 태어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천신과 산신에 대한 숭배가 바위에 그려져서 암각화가 되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내려 온 것이 대가야의 건국신화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¹⁷⁾ 여기에서 보이는 ‘정견모주’의 ‘정견’은 불교에서 실천 수행

13)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二十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嵯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浪國 稔禮國 合十國)(『日本書紀』, 欽明紀 23年條).

14) 權鶴洙, 1994, 「加耶諸國의 相關關係와 聯盟構造」, 『韓國考古學報』31, 韓國考古學會.
이러한 모습을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학계에서는 가야사회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2000,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한국고고학회편, 2000,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편, 2018, 『가야 각국사 연구동향과 과제』, 2018년 한국고대사학회 가야사 학술회의 자료집.

15) 金泰植, 1993, 앞의 책, p.74.

16) 朱甫暉, 1982,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慶北史學』4, 慶北史學會, p.165.

해야 할 8가지 덕목인 八正道の 하나이다.¹⁸⁾ 대가야에서 불교를 수용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에 백제와 일정 부분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연화문과¹⁹⁾ 대가야 성문이 전단목으로 만들어진 梅檀門²⁰⁾이었다는 것이다.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에 의해 대가야가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건국신화이지만, 이 신화가 자리잡을 때는 즉 불교가 선사시대 신앙을 대신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 30호분²¹⁾ 하부석곽 개석에 새겨진 암각화는 신앙의 대상이었던 바위그림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기왕의 신앙체계가 필요없게 되었거나, 새로운 신앙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기왕의 신앙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분의 존재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신성한 이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곧 초월적인 신분이 등장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곧 새로운 단계로의 질적인 변화가능성을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당시 고령지역 최고지배자들의 권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며 국가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가야에서는 5세기 3/4분기 지산동32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통해 王者의식이 구현으로 이야기한다.²²⁾ 즉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왕’이 존재하고 그 권위의 상징으로서 금동관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적인 존재의 등장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래되어 오는 건국신화를 만들면서 극대화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Ⅲ. 포상팔국 기록을 통해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공통으로 다루는 가야관련 사건은 ‘포상팔국전쟁’이다. 이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C ① 秋七月 浦上八國 謀侵加羅(加羅 勿稽子傳皆作阿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 與伊伐浪利音 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奈解尼師今 14年條)

17) 대가야 건국신화는 지신족의 선주집단이 도래집단인 천신족을 받아들여 가야를 건국해 가는 모습으로서 양전리 암각화에 보이는 동심원은 천신, 방패신상은 지신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張明洙, 2000, 『韓國先史時代 岩刻畫 信仰의 展開樣相』, 『韓國岩刻畫研究』2, 한국암각학회, p.34).

18) ‘정건’은 불교의 팔정도 즉 경건·정사·정언·정업·정명·정정진·정사유·정념에서의 정건을 말하며, 모주는 ‘聖母’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丁仲煥, 1962, 『加羅史草』, 釜山大學校 韓日文化研究所; 2000, 『加羅史研究』, 혜안, p.96).

19) 고아동벽화고분에 그려진 연화문은 꽃잎의 표현방식 등에서 고구려 평양계열과 비교되는 면도 일부 있으나, 백제 연화문의 일반적 특징의 하나인 넓고 둥근 꽃잎, 무녕왕릉 출토 양비 頭枕 장식문양 중의 연화문이 지닌 요소와 친근성이 높은 물방울형 꽃술과 굵은 윤곽선의 꽃잎은 6세기 전반경 백제에 수용, 소화되고 있던 다양한 연꽃표현방식의 한 갈래가 고령의 대가야에 소개되어 대가야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되고 재창조된 것으로 이해된다(전호태, 「가야고분벽화에 관한 일고찰」, 『한국고대사논총』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1, 192쪽).

20) 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舍副之 斯多舍領五千騎 先馳入梅檀門 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三國史記』4, 新羅本紀4 眞興王23年條). 전단목은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로 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거나 향으로 사용된다.

21)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高靈池山洞30號墳』, 高靈郡·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22) 지산동32호분 출토 금동관은 대가야의 독자적인 왕자의식 형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단갑은 전쟁과 함께 선진문물의 자극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영식, 「대가야의 영역과 국제관계」, 『가야문화』10, 가야문화연구원, 1997, 108쪽).

② 勿稽子 奈解尼師今時人也……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侏音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後三年骨浦·柒浦·古史浦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三國史記』卷48, 列傳8 勿稽子條)

③ 勿稽子 第十奈解王即位十七年壬辰 保羅國 古自國(今固城) 史勿國(今泗州)等八國 併力來侵邊境 王命太子侏音 將軍一伐等 率兵拒之 八國皆降……十年乙未 骨浦國(今合浦也)等三國王 各率兵來攻竭火(疑屈弗也 今蔚州) 王親率禦之 三國皆敗……(『三國遺事』卷5, 避隱8 勿稽子條)

위의 문헌기록들은 보라국·고자국·사물국 등의 포상팔국 연합군이 김해의 가라국을 침범하여, 가라국의 왕자가 신라에 구원을 청하고 도움을 받았던 내용을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본기와 열전의 내용을 보면 포상팔국이 침범한 곳이 각기 가라와 아라로 달리 나타나고 있어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정약용이 阿羅를 柯羅로 고쳐 써 가라로 본 이래로²³⁾ 가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위의 기록들에서 보이듯 『삼국유사』의 가라국을 침범하였으나 실패하고 3년 뒤에 포상팔국 중 세 나라가 울주의 갈화성을 공격하였으나 패퇴하였다는 내용의 기록으로 보완한다면 포상팔국이 진출하고자 한 곳은 김해의 가라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⁴⁾

한편, 포상팔국의 이름으로는 골포국·칠포국·고사포국·보라국·고자국·사물국 등이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고사포와 고자국은 지금의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고자국으로 같은 곳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덟 나라 중에서 이름이 전하는 것은 다섯 개 나라이다. 이들의 위치는 창원의 골포, 고성의 고자국, 사천의 사물국, 칠원의 칠포국 등의 위치비정과 칠포·골포·고사포 등의 해안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미루어 보아 경남해안지대에 위치한 8개의 소국으로 여겨지며, 그 중심은 고자국이었을 것이다.²⁵⁾ 이들 나라들은 김해의 구야국과 마찬가지로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해 나갔을 것이다.

포상팔국은 남해안 연안에 위치하여 당시 해로를 이용하여 활발한 대외교류활동을 통해 성장하던 古自國이 인근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맹체를 이룬 것으로 것으로 생각한다.²⁶⁾ 이와 관련지어 주목되는 자료가 앞의 사료 B 오가야조이다. 그 내용을 일반적으로 이전의 설화를 참고해서 편찬된 후대인 즉, 고려인들의 관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투영되어 사료적 가치가 그리 많지 않아 소극적으로만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오가야조의 내용이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오가야조의 가야국명들 일단 가야제국 중 유력세력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이미 있어 왔다.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이는 오가야조에 보이는 여러 나라들은 낙동강변 및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다

23) 丁若鏞, 『與猶堂全書』6, 疆域考 弁辰別考條.

24) 포상팔국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위가야, 2018, 「安羅國 대외관계 연구의 쟁점과 전망-6세기 前半 安羅國 주도의 加耶諸國 관계 이해를 위한 기초적 검토-」, 『가야 각국사 연구동향과 과제』(2018 한국고대사학회 가을학술회의 자료집)가 참고된다.

25) 앞의 사료 B에 보이는 오가야조가 포상팔국으로 비정되는 남해연안 지역 중에서 고성지역 만이 고총고분군이 존재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성지역의 고분군 분포에 대해서는 (경남대학교 박물관·창원문화재단연구소, 『소가야문화권 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선사·고대-』, 1994) 참조.

26)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인 固城東外洞貝塚에서 중국과 일본계통의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해양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여 교역을 통한 발전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金東鎬, 1986, 「고고학상에서 본 소가야문화의 제문제」, 『嶺南考古學』1, 嶺南考古學會, pp.63~71) 安羅國의 통합을 받는 존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白承忠, 1995,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93).

른 지역보다는 우월한 규모를 지닌 고총고분군의 존재 등 고고학적인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나타나는 지역에 위치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주 屋山洞古墳群, 고령의 池山洞古墳群, 昌寧 校洞·松峴洞古墳群, 함안의 末山里·道項里古墳群, 고성 松鶴洞古墳群, 김해의 大成洞古墳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들로서 여기에 전하는 가야국명들은 주변의 소국을 아우른 지역연맹체의 맹주국이고 이들이 고려시대까지 전승됨으로 해서 오가야조에 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전하는 변한 12국의 존재와 『三國史記』, 地理志나 浦上八國 관련 기록에서 보이는 여러 소국들이 통합이 진전되어 가면서 지역연맹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浦上八國戰爭의 성격은 3세기초 소가야연맹체로까지 발전한 고자국이 세력 확장을 더욱 피하기 위해 역시 지역연맹체로 성장하였던 금관가야연맹체와 交易權을 둘러싼 전쟁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²⁷⁾ 戰爭은 신라의 개입으로 인하여 포상팔국의 패배로 끝난다.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소가야연맹체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삼한 제 소국 가운데 대국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고성의 고자국이 大國化하려고 하였으나 좌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고대국가 단계로의 진입실패로 귀결되었다고 하겠다.²⁸⁾

그런데 포상팔국전쟁을 거치면서 김해세력이 교역의 구심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함안세력이 새로운 구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이러한 사실은 전쟁 이후 고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가야연맹체가 쇠퇴하면서 소속 소국들이 아라가야연맹체로 흡수되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 바 있다.³⁰⁾ 즉 포상팔국전쟁 이후로 소가야가 급격히 영향력을 상실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비록 전쟁에 패하여 소가야연맹체가 일시 세력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남해안 연안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는 고자국이 충분히 중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³¹⁾ 5세기대 이후 서부 경남 일원에 이른바 소가야양식 토기들이 널리 분포하는 사실로서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³²⁾ 이때 함안의 안야국이 소가야연맹체 소속 소국들을 흡수함으로써³³⁾ 급격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외적 방어 및 농업생산력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해 나가던 안야국은 포상팔국 전쟁 이후 고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가야연맹체가 쇠퇴하게 되면서 그 소굴들을 안야국 중심의 연맹체로 흡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함안지역에서 진동만 쪽으로는 600여m의 고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大峴을 통해서 연결되는 폐쇄적인 지형을 가짐에 따라 외국과의 직접 교역하기에 곤란한 입지조건이다. 따라서 직접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안야국의 노력이³⁴⁾ 포상팔국 전쟁 이후

27) 李炯基, 1997, 「小伽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民族文化論叢』17,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p.15~16.

28) 白承玉, 1997, 「固城 古自國의 形成과 變遷」,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韓國古代史研究 11), 신서원, p.177.

29) 白承忠, 1995, 앞의 글, p.96.

30) 李炯基, 1999, 「阿羅伽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史學研究』57, 韓國史學會.

31) 김해 세력의 몰락이후 가야지역의 대외교역에 있어 새로운 관문역할을 한 곳이 固城일 가능성이 이미 제기되었다.(李盛周, 2002, 「南海岸地域에서 出土된 倭系遺物」,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三國의 交涉』(2002년도 북천박물관 국제학술대회), 福泉博物館, pp.71~72)

32) 4세기말 이후 분포범위의 확대와 축소 등의 변화는 있지만 합천, 산청, 고성, 창원, 함안 등 넓은 서부경남 넓은 지역에 소가야토기가 널리 출토되고 있다(尹貞熙, 1997, 「小伽耶土器의 成立과 展開」, 慶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p.40~48).

33)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편이다. 다만 칠포, 골포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던 소가야연맹체는 전쟁 직후에는 『三國史記』 지리지에 보이는 대로 사수현과 상선현만을 포함하는 작은 정치집단으로 축소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34) 대외교섭의 해안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마산만과 진동만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포상팔국과 안라국의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한다(金亨坤, 1995, 「阿羅伽耶의 形成過程-考古學的 資料를 중심으로-」, 『加羅文化』12, 慶南大學校 加羅文化研究所, p.52).

소가야연맹체 소속 소국들을 흡수함으로써 급격히 성장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³⁵⁾

포상팔국 전쟁 당시 가야남부사회의 중심국은 구야국이였다. 김해의 구야국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낙동강을 통해 남해안과 연결되는 강안 좌우의 세력들은 대외접촉을 위해 해안으로 진출할 때 낙동강 하구의 김해라는 관문을 거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김해와 같이 낙동강 하구에 있었던 교역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해 구야국이 관문사회 역할을 하면서 물자의 집산과 보급을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3세기 구야국의 세력기반과 활동성격은 변한사회의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비록 구야국이 다른소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세력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변한사회전체를 포괄하는 존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곧 3세기 변한사회는 대외적인 교역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³⁶⁾ 3세기대까지 남해안 연안에 있었던 여러 세력들은 각기 교역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구야국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포상팔국 전쟁은 대외교역을 통해 지역연맹체로서³⁷⁾ 소가야연맹체로까지 발전한 고자국이 세력 확장을 더욱 피하기 위해 금관가야와 교역권을 둘러싼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포상팔국전쟁은 결국 교역권을 둘러싼 전쟁으로 그 결과, 함안의 안라국이 가락국과 더불어 가야지역의 새로운 구심체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남 해안일대의 가야제국들은 커다란 세력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또한 남해안 연안에 3세기 단계에 지역연맹체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락국을 중심으로 하는 金官加耶聯盟體, 안라국을 중심으로 하는 阿羅加耶聯盟體, 고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小加耶聯盟體가 성립되어 있었음이 확인할 수 있다.

IV. ‘下部’ 기록을 통해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5세기초 고구려 남정으로 거의 몰락하다시피한 김해세력 일부가 고령지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왕에 개발되어 있던 冶爐鐵鑛이 더욱 개발되었을 터이고,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선진 제철기술 및 교역기술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변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다. 이는 소위 대가야식 묘제와 토기가 고령을 중심으로 합천, 거창, 함양, 남원일원에까지 분포한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가락국에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었을 것이다.³⁸⁾

가락국에 요구된 질적인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합천댐 수몰지구의

35)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의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 臣雲遣支報 安邪毚支 滇臣離兒不例 拘邪秦支廉之號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에 보이는 안야국 수장에 대한 우대칭호인 ‘安邪毚支’도 결국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6)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1, 지식산업사, pp.165~167.

37) 盧重國, 1990, 「雞林國攷」, 『歷史教育論集』13·14合, 歷史教育學會, p.192 註 70).

38) 李炯基, 2009, 앞의 책.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下部思利利”란 銘文이 새겨진 단경호이다.³⁹⁾ 이 토기는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대가야계통의 것인데, 이를 토대로 대가야에 ‘하부’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대가야가 접어든 새로운 단계란 부체제라고 짐작할 수 있다.⁴⁰⁾ 삼국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체제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기 직전의 정치발전단계로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가야도 대외적으로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졌을 5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을 것이다. 대가야의 부체제를 설명할 때 눈여겨 보아야 할 또 다른 자료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于勒十二曲의 ‘上加羅都’와 ‘下加羅都’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D 加耶琴 亦法中國樂部箏而爲之 風俗通曰 箏秦聲也 釋名曰 箏施絃高 箏箏然 并梁二州箏形如瑟……加耶琴雖與箏制度小異 而大概似之 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諸國方言各異聲音 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造十二曲……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泥文所製三曲 一曰烏 二曰鼠 三曰鷓(赦字未詳)(『三國史記』卷32, 樂志1 加耶琴條)

가야금곡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가야금곡을 당시의 소국에 연결하려 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가야연맹에 소속된 소국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서 대가야연맹을 분석하기도 하였다.⁴¹⁾ 모든 곡을 대가야연맹 소속 소국으로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수궁하기 힘든 점이 있지만 당시 우륵 12곡의 해석에서는 탁월한 견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가야사를 다루는 연구자들의 경우 각론에서는 그 견해를 달리 할지라도 총론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⁴²⁾ 필자도 여기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있다.

‘상가라도’와 ‘하가라도’를 ‘상·하의 加羅都邑’으로 이해하여 단순히 ‘터’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⁴³⁾ 그보다는 ‘중심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⁴⁴⁾ 우륵십이곡에서 나타나는 명칭들이 개개의 소국들을 지칭하는데 반해 상·하가라도는 그와 다르기 때문에 고령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을 것이다. 이때 대가야와 관련이 있는 고층분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上加羅都是 대가야의 도읍이었던 高靈으로 비정하는데 별 이견이 없는 실정이다. ‘加羅’라는 국명이 김해와 고령의 금관가야와 대가야에만 칭해졌었다는 사실과 가라국왕 하지의 남제조공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필자도 상가라도가 고령이라고 생각한다. 下加羅都是 함안으로 비정하는 견해도⁴⁵⁾ 있긴

39) 釜山大學校 博物館, 1987, 『陝川芋浦里E地區遺蹟』, pp.69~71.

40) 여기에서의 하부를 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金泰植, 1990, 「가야의 사회발전단계」,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p.101;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pp.259~260) 대가야와 관련있는 것으로 봄이(蔡尙植, 1989, 『陝川芋浦4號墳출토 土器의 銘文』, 『伽耶』2; 白承忠, 1992, 「于勒十二曲의 해석문제」, 『韓國古代史論叢』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盧重國, 1995, 앞의 글; 李炯基, 2002, 「4~5세기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26, 서경문화사) 일반적이다.

41) 田中俊明, 1990, 앞의 글; 1992, 앞의 책.

42) 우륵십이곡에 보이는 국명들의 위치비정에 대한 정리는 李炯基, 2017, 「大加耶의 部體制에 대한 考察」, 『쟁점 대가야사-대가야의 국가발전 단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재)대동문화재연구원, p.94 참조

43) 梁柱東, 1965,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p.565.

44) ‘都’라는 용어에 대하여 연맹중심지(田中俊明, 1992, 앞의 책, pp.110~113) 대가야의 도읍으로 上都와 下都가 있었으며, 하가라도는 대가야 영역의 또 다른 중심지(李永植, 1997, 「대가야의 영역과 국제관계」, 『伽耶文化』10, 伽耶文化研究院, p.96) 上·下加羅都에서의 ‘都’는 ‘都邑’ 나아가 ‘王都’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이 확실하고, 고령을 자체가 도읍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가 곧 왕도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의 존재가능성을 높여준다고(朱甫曠, 2000, 「加耶史 認識과 史料問題」,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學研文化社, pp.923~924) 설명하는 등 위치비정에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중심지와 관련된 것으로 대개 해석한다.

하지만 크게 ‘金海’설과⁴⁶⁾ ‘陝川’설로⁴⁷⁾ 나누어진다. 하가라도 지명비정의 전제조건으로 가라의 용례가 김해, 고령 뿐이라는 점, 범대가야세력권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 악곡의 제작시기가 6세기 전반이라고 할 때 상가라도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⁴⁸⁾되었는데, 경청할 만하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하부’명 토기가 출토되고 芋浦里遺蹟, 礪溪堤古墳群 등이 위치한 합천군 봉산지역이 하가라도였을 가능성이 무척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⁴⁹⁾ ‘하가라도’를 합천으로 비정하는 경우 대개 옥전고분군이 위치한 ‘다라’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데, 이곳은 늦은 시기까지 고유국명을 유지하고 있어 우륵십이곡에 등장한다면 ‘다라’라고 나타났어야 한다는 점에서 따르기가 어렵다. 봉산지역 일대가 비교적 풍부한 고고자료 등이 출토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체의 존재가 있음직 하지만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도 하가라도로 편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이 일대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上·下加羅都의 위치가 각각 고령, 합천 봉산면일대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하가라도를 하부와 동일시하는 견해들이 이미 제기되어 있다.⁵⁰⁾ 필자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상가라도는 上部가 될 것이고 그 일대는 고령일 것이다. 상부를 상가라도와 연결할 수 있다면 하부는 하가라도와 연결하여 곧 합천 봉산일대가 될 것이다.

합천 봉산지역은 대가야가 황강을 따라 거창, 함양, 남원쪽으로 진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으로 대가야의 전초지로서 가장 먼저 진출한 지역일 것이다. 아울러 가장 강력한 지배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가야로서도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임은 쉽게 추정 가능하다. 이에 大加耶가 領域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봉산면일대를 王畿로 삼고⁵¹⁾ 하부로⁵²⁾ 편제하였으리라 추측되는 것이다. 6세기 1/4분기에 이 지역의 고분군에서 중대형묘가 축조되지 않아 대가야의 직접 지배에 들어갔으리라 여겨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가야는 上·下 二部體制였음이 확인된다.⁵³⁾ 비록 부체제를 백제로부터 받아들였는지는⁵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가야는 왕

45) 下加羅를 阿尸良·阿羅加耶 = 아랫가야로 보아 威安으로 보았다(梁柱東, 1965, 앞의 책, pp.30~31).
 46) 金泰植, 1993, 앞의 책; 白承玉, 2002, 「加羅國과 주변 加耶諸國」, 『大加耶와 周邊諸國』, 高靈郡·韓國上古史學會.
 47) 田中俊明, 1990, 「于勒十二曲と大加耶連盟」, 『東洋史研究』48-4, p.13; 白承忠, 1992, 「于勒十二曲의 해석문제」, 『韓國古代史論叢』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469; 盧重國, 1995, 앞의 글. 다만 노중국은 최근 하가라도를 ‘김해’로 비정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다.(노중국, 2017, 「대가야의 국가발전과정」, 『쟁점 대가야사·대가야의 국가 발전단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재)대동문화재단연구원)
 48) 白承忠, 1992, 앞의 글, pp.468~469.
 49) 저포지역이 신라화하면서 옥전지역으로부터 사민되어 왔던 집단의 주요 인물 가운데 신라화 직후 최초로 사망한 자로 보면서 ‘하부’는 ‘사리리’가 생전에 주로 살았던 옥전지역과 관련된 명칭으로 보기도 하고(李熙濤, 1995, 앞의 글, p.426; 2017, 「합천덤 수물지구 고분 자료에 의한 대가야국가론」,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p.216) ‘하부’의 치소인 옥전에서 사민되었거나 하부 출신의 하위 지방관이 파견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세기, 2003, 앞의 책, pp. 273~279).
 50) 백승충은 ‘下部思利利’銘 토기가 출토된 고분군에서 고령양식 토기가 출토되지만 옥전고분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有刺利器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池山洞古墳群→玉田古墳群, 玉田古墳群→芋浦里古墳群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구조를 상정하기도 하였다.(백승충, 2000, 「가야의 정치구조-부체제- 논의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17, pp.334~335)
 51) 李炯基, 2002b, 「于勒十二曲의 上加羅都와 下加羅都-大加耶의 地方支配에 관한 試論의 考察-」, 『盟主로서의 금관가야와 대가야』(第8回 加耶史學術會議 發表 要旨), 김해문화원, p.76. 하가라도의 의미로 보아 여기까지 왕도일 가능성도 있다. 전덕재는 ‘가라도’는 고령지역을 가리키고, 이를 두 개의 지역인 상가라·하가라로 나누었다고 보기도 하고(김태식편, 2009, 「樂師 于勒과 宜寧地域의 加耶史」 종합토론), 「악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우륵문화발전연구회, p.392, 전덕재 토론) 왕기라는 개념까지 설정한다면 상·하가라도를 합천 북부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태식편, 2009, 앞의 토론, pp.396~397, 이기동 토론).
 52) 고구려에서의 下部가 西部를 지칭한다고 할 때 합천에서 고령을 의식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한다.(李永植, 1993, 앞의 글, pp.607~609) 이 때에도 지역연맹체단계보다는 독자성이 그리 강고하지는 않았겠지만 일정부분 독자성을 온존시켰던 것 같다(盧重國, 1995, 앞의 글, pp.161~162).
 53)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학연문화사, pp.275~277; 백승충, 2009, 「下部思利利 명문과 가야의 部」, 『역사와 경계』58, 부산경남사학회, pp.121~126

이 거쳐하고 있는 고령지역과 대외진출하는 데에 중요한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곳을 部로 삼아 직접 지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부체제단계에 접어들면서 스스로 가라국은 ‘大加耶’를⁵⁵⁾ 칭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거창, 함양, 남원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군들의 존재는 5세기 이후 대가야가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대가야에는 ‘왕’이 존재하였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왕 아래의 지배체계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을까? 대가야연맹체의 수장은 ‘王’을 칭하게 되면서 이전 지역연맹체 단계보다는 훨씬 광범한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고, 이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편입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편제하였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영향권 아래의 각 소국의 수장들의 위상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 한기의 칭호가 지역연맹체의 대표자 칭호였는데, 그것이 각 소국의 장들에게도 칭해졌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 E ① 安羅次旱岐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旱岐·散半奚旱岐兒·多羅下旱岐夷他·斯二岐旱岐兒·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關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百濟聖明王謂任那旱岐等言(『日本書紀』, 欽明紀 2年條)
- ②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君·斯二岐君·散半奚君兒·多羅二首位訖乾智·子他旱岐·久嗟旱岐……安羅王·加羅王俱遣使同奏天皇(『日本書紀』, 欽明紀 5年條)

위의 내용은 소위 ‘任那復興會議’에 참가하는 이들의 명단이다. 여기서의 한기는 각 소국의 수장을 의미하므로 지역연맹체 단계에서의 대표자를 한기로 칭한 것과는 분명 다르다 하겠다. 이는 대가야가 부체제로 편제하면서 그들의 위상을 높여준 것으로 봄이 어떨까 한다. ‘부체제’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王’호를 칭하게 된 대가야의 왕이 그 아래의 독립 정치체들의 수장들에게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이 하여금 쉽게 대가야에 흡수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D ②에서는 대가야와 더불어 안라국에서 왕의 존재가 확인되며, 이 두 나라는 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나부흥회의에는 각각 下旱岐와 上首位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각 정치체의 수장들이 旱岐를 칭하였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들 소국의 한기는 소국의 왕 자신을 가리키고 安羅의 한기와 加羅·多羅의 首位는 왕 아래에 있는 관직일 것이다.⁵⁶⁾ 아울러 이 세 나라의 참석자만이 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차)한기, 상·이수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하리라 본다.

그런데 대가야에서는 ‘首位’의 존재가 확인된다. 수위는 加羅와 多羅에서만 보인다. 그리고 多羅의 경우에는 원래 ‘下旱岐’로 칭했다가 ‘二首位’를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소국들에는 ‘旱岐’가 그대로 칭해지거나 ‘君’을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왕이 존재하던 가라와 안라에서는 수위와 한기

54) 盧重國, 1995, 앞의 글, p.169.

55) ‘大’의 冠稱은 장엄을 표시한 것으로 가라국이 5세기대 이후 주도세력이었다는 점과 아울러 『三國史記』 地理志에 전하는 ‘大加耶郡’은 가라국 당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白承玉, 2001, 「加耶 各國의 成長과 發展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p.81~82)->가야각국사연구로 대체

56) 白承忠, 1995, 앞의 글, p.177. 한편, 각 부의 유력자들이 중앙귀족으로 전화하면서 한기층으로 재편되고 왕도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盧重國, 1995, 앞의 글, p.170)

가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가야에서는 왕 아래 上首位 - 二首位 - …… 등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⁵⁷⁾ 이때 수위는 원래 반로국 수장 아래에 두어진 관제였으나 부체제에 접어들면서 왕 직속의 관제로 재편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⁵⁸⁾

앞에서 이야기한 ‘우륵십이곡’을 보면 대가야가 部體制에 접어든 이후에도 여러 소국들의 국명은 멸망 당시까지도 전해진다. 이는 대가야가 전국을 묶는 어떤 체제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거창, 함양, 남원 등에서 확인된 고분양상은 대가야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으므로 대가야는 나름대로 이들을 편제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대가야가 부체제 단계에 접어들었을 무렵에는 中央과 地方이라는 구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日本書紀』, 繼體紀 23年 3月條에 보이는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爲女從 受而散置諸縣” 중 ‘散置諸縣’이다. 대가야의 왕이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으면서 같이 온 여종들을 각지에 흩어 배치하였다는 내용으로, 왕이 지방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당시에 대가야가 州郡縣制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⁵⁹⁾ 여기에 대해서는 주군현제란 이름의 지방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최소한 중앙과 지방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던 것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⁶⁰⁾ 이와 더불어 수인기 2년 조에 보이는 郡公, 郡衛, 郡家 등의 표현은 대가야가 복속지역을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편제한 것을 짐작케 해준다. 郡은 그 자체가 아니라 城 혹은 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여기서의 諸縣이 실질적으로는 ‘諸國’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라가 소국을 주군현제로 편제하였으며, 당시에 편제된 가야의 소국들을 縣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를 달리 본다면 비록 독자성을 온존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당시 편제 소국들의 그것이 그만큼 줄어들어 신라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지방단위로 비추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가야에서 ‘왕’을 칭하게 되면서 이전 지역연맹체 단계보다는 훨씬 광범한 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쳤고, 이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편입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편제하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독 卒麻·斯二岐·散半奚⁶¹⁾의 장을 E ②에서는 ‘君’으로 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 ①에서는 다른 집단의 장들처럼 冑岐를 칭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君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내부에 어떤 변화를 반영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년의 시차밖에 없고, ‘首位’의 首가 ‘선두’, ‘상위’를 가리키면서 ‘君’과 통한다고 할 때⁶²⁾ 의미를 부여함은 무리가 따르는 추측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⁶³⁾ 회의 참석여부가 달리 나타나는 것까지 기록하고

57) 안라국에서도 冑岐의 분화가 확인되고 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대가야처럼 부체제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58) 盧重國, 1995, 앞의 글, pp.182~183. 한편 이들 분화된 수위의 모습은 고령지역 내에 위치한 고분군의 대소와 연결지를 수 있다고 한다.

59) 가야연맹 소속의 소국을 ‘諸縣’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와(金泰植, 1993, 앞의 책, p.196) ‘諸縣’의 실체는 城(村)으로 縣은 후대의 관념이 투영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盧重國, 1995, 앞의 글, p.184)

60) 縣과 관련해서 『三國史記』, 가야금관련 기사에 보이는 우륵의 출생지가 ‘省熱縣’으로 기록된 것이 주목된다. 성열현은 대개 의령 부림면 일대로 비정되는데, 대가야에서의 ‘주군현제’ 실시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縣의 존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후대 신라의 지방조직에 대한 관념이 뒤떨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李永植, 1997, 앞의 글, p.96)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도 우륵의 출신지에 대한 가야측의 전승이 신라의 지방조직과 같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최소한 중앙과 지방의 개념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61) 필자는 卒麻를 거창 가초(?), 斯二岐를 함천군 삼가면, 散半奚을 의령군 부림으로 보고 있다.(이형기, 2002, 앞의 글, 2009, 앞의 책)

62) 백승충, 1999, 앞의 글 참조.

있는 기사에서 수장칭호의 차이를 그냥 넘길 수만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대가야의 지방 지배방식에서의 변화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君’의 자전적 의미에 ‘諸侯’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체제단계에서 이야기하는 侯國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⁶⁴⁾ 旱岐號와 君號를 칭한 국가의 차이는 대가야에 대한 예측성에서 기인할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가야가 영역국가로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가야에서의 직접지배에 대한 검토들이 이미 있어왔다.⁶⁵⁾ 이러한 움직임이 ‘君’稱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소국의 수장을 한기로 칭할 때 중앙에 의해 일정한 재판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지지만 君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도 이들이 고령으로 이주되었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찾아지지 않는다.⁶⁶⁾ 오히려 임나부흥회의에 참가하는 이들의 면면으로 보아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당시까지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대가야가 부체제기까지 접어들었고 지방을 일정하게 편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속력 자체는 그리 강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나부체제 전체에 미치는 ‘王法’⁶⁷⁾이 존재하는 사실로 미루어 비록 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법 체계가 가야에서도 상정될 가능성은 있다.⁶⁸⁾ 왕명으로 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과 각 부 안에 자체의 관습법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⁶⁹⁾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가야가 부체제로 접어들었을 무렵에는 고령 중심지가 王都⁷⁰⁾ 즉 上部로, 합천댐 상류지역인 봉산면 일대는 王畿 = 下部로 편제되고 이들은 대가야의 직할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의 합천, 거창, 함양, 동부 남원일대의 지역은 지방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 소국의 수장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가 가능하였다. 이는 임나부흥회의에 이들이 동원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원의 월산리, 두락리 등에서 출토되는 장경호 등이 재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63) 제2회 ‘任那復興會議」(『日本書紀』, 欽明紀 5年 11月)에서는 1회(훈명기 2년 4월) ‘임나부흥회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君’이 등장하는데 ‘卒麻’와 ‘散半奚’의 예에서 君은 ‘旱岐’와 별도의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李鎔賢, 1998, 「加耶諸國의 權力構造」, 『國史學』164, p.6).

64) ‘부체제’하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장이 왕이나 마립간으로서 5부나 6부의 長이며, 피복속민인 집단예민과 하위 동맹국이나 종속국인 ‘侯國’을 포함한 국가의 장이었다고 한다(노태돈,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부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17, p.8).

한편, 신라의 초기 지방통치방식은 첫째 의례적인 공납으로 신속을 표하되 완전한 자치 허용하는 경우, 둘째 피복속지역의 자치는 인정하되 유력세력은 중앙에 의해 일정하게 재판하는 경우, 셋째 피복속지역의 유력세력을 중앙으로 이주시켜 귀족화하고 그 지역을 식읍과 유사한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넷째 군사요충지에는 중앙에서 직접 군관파견 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朱甫暉, 1998, 『新羅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pp.43~49) 이러한 지방통치방식이 가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君’으로 표현된 단계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절충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65) 李熙濬, 1995, 앞의 글, p.423~426.; 趙榮濟, 2001, 「5·6世紀의 大加耶와 倭」, 『古墳時代の伽耶と倭-繼體大王時代の日韓交流-』, まつおか越の國伝説実行委員会, pp.39~43.

66) 직접지배라 함은 지방관을 파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러한 수장층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의 위치비정이 정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들 君들을 지방관으로 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67) 告曰 吾儕小人 故犯王法 不勝愧悔 願公赦過 以令自新 則死無恨矣(『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條).

68) 『日本書紀』, 繼體紀 23年 3月條에 보이는 의관제 관련 내용도 이를 방증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69) 金賢淑, 1995, 「高句麗 那部統治體制的 運營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0, 歷史教育學會, p.81.

70) ‘王都’가 一國의 중심지이기는 하지만 그 ‘國’의 발전단계에 따라 王都가 지칭하는 대상이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김영심, 1998, 「百濟의 支配體制 整備와 王都 5部制」, 『百濟의 地方統治』, 學研文化社, p.109) 大加耶의 ‘王都’는 古代國家段階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삼국정립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대가야의 경우에는 지방관 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중앙과 지방이라는 개념이 성립된 이후의 중앙을 상징하는 ‘왕도’가 아니라 단순한 일국의 중심으로 여겨진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가야의 국가적 성격을 보여주는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해서 단일연맹체론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국가적 성격으로 규정되다가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맹자체를 부정하거나, 지역연맹체론, 지역국가론, 부체제론 등으로 나뉘어져 이해되었다. 최종 발전단계는 부체제 또는 초기 고대국가, 고대국가까지 나뉘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격으로 규정되고 있는 가야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문헌자료는 앞에서 든 바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고고학 조사 및 연구성과와 결부지어 융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어느 정도 국가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가야사 연구도 그 동안의 논의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번 학술회의가 그 시발로서 자리잡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선학들의 질정을 바란다.



참고문헌

[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興猶堂全書』, 『日本書紀』, 『南齊書』, 『三國志』.

[단행본]

김세기,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김태식,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백승욱,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白承忠, 1995,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2000,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孫晉泰, 1981, 『孫晉泰先生全集』, 大學社.

이영식, 2016,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 종이.

李炯基, 2009,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丁仲煥, 2000, 『加羅史研究』, 혜안.

주보돈 외, 1995, 「大伽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주보돈 외, 2017, 『쟁점 대가야사 대가야의 국가발전단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재)대동문화재연구원.

朱甫暉,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한국고고학회편, 2000,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연구회편, 2018,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류성.

[보고서]

경남대학교 박물관·창원문화재연구소, 1994, 『소가야문화권 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선사·고대-』.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高靈池山洞30號墳』, 高靈郡·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학술지 게재논문]

權鶴洙, 1994, 「加耶諸國의 相關關係와 聯盟構造」, 『韓國考古學報』31, 韓國考古學會.

金泰植, 1991, 「가야사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韓國古代史論叢』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金泰植, 1997, 「加耶聯盟의 諸概念 比較」, 『加耶諸國의 王權』, 신서원.

金賢淑, 1995, 「高句麗 那部統治體制의 運營과 變化」, 『歷史教育論集』20, 歷史教育學會.

김영심, 1998, 「百濟의 支配體制 整備와 王都 5部制」, 『百濟의 地方統治』, 學研文化社.

南在祐, 1995, 「加耶史에서의 ‘聯盟’의 의미」, 『昌原史學』2, 昌原大學校 史學會.

盧重國, 1990, 「雞林國政」, 『歷史教育論集』13·14合, 歷史教育學會.

노태돈,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부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17, 한국고대사학회

朴天秀, 1996, 「大伽耶의 古代國家形成」,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白承玉, 1997, 「固城 古自國의 形成과 變遷」,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韓國古代史研究 11), 신서원.

白承忠, 1995,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釜山大學校 史學會』.

- 백승충, 2000, 「가야의 정치구조-부체제 논의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17.
- 백승충, 2009, 「下部思利利 명문과 가야의 部」, 『역사와 경계』 58, 부산경남사학회.
- 이영식, 2018, 「가야 제국諸國의 발전단계와 초기고대국가론」,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류성.
- 李鎔賢, 1998, 「加耶諸國의 權力構造」, 『國史學』 164.
-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 1, 지식산업사.
- 李炯基, 1997, 「小加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民族文化論叢』17,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李炯基, 1998, 「星山加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加耶史에서의 地域聯盟體에 대한 一試論-」, 『民族文化論叢』 18·19합,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李炯基, 1999, 「阿羅加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史學研究』57, 韓國史學會.
- 李炯基, 2000, 「加耶 地域聯盟體의 構造와 性格-大加耶聯盟體의 成立과 推移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88, 國史編纂委員會.
- 李炯基, 2000, 「大加耶 聯盟構造에 대한 試論」, 『韓國古代史研究』 18, 서경문화사.
- 李炯基, 2002, 「4~5세기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26, 서경문화사.
- 趙榮濟, 2001, 「5·6世紀의 大加耶와 倭」, 『古墳時代の伽耶と倭-繼體大王時代の日韓交流-』, まつおか越の国伝説実行委員会.
- 朱甫暉, 1982,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慶北史學』 4, 慶北史學會.
- 朱甫暉, 1995, 「序說-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 蔡尙植, 1989, 「陝川 苧浦4號墳출토 土器의 銘文」, 『伽耶』2.

[학술대회 게재논문]

- 위가야, 2018, 「安羅國 대외관계 연구의 쟁점과 전망-6세기 前半 安羅國 주도의 加耶諸國 관계 이해를 위한 기초적 검토-」, 『가야 각국사 연구동향과 과제』, 2018 한국고대사학회 가을학술회의.
- 李盛周, 2002, 「南海岸地域에서 출토된 倭系遺物」,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三國의 交涉』(2002년도 복천박물관 국제학술대회), 福泉博物館.
- 李炯基, 2002, 「于勒十二曲의 上加羅都와 下加羅都-大加耶의 地方支配에 관한 試論的 考察-」, 『盟主로서의 금관 가야와 대가야』, 第8回 加耶史學術會議.



3~4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하 승 철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3~4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하 승 철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목 차

- I. 머리말
- II. 3~4세기 가야의 유적과 유물
- III. 3~4세기 가야의 국가적 성격
- IV. 맺음말

I. 머리말

가야란 무엇인가?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머지않아 멸망을 눈앞에 둔 시점에도 여러 나라들이 모여 제각각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 모습에서 과연 하나로 뭉쳐진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고, 가야의 일부 유력한 세력은 초기국가를 뛰어넘어 고대국가라 부를 만한 상태에 진입하였다는 견해도 접한다. 과연 시종일관 하나의 연맹체를 이루고 이를 지속해 갔던 것인가, 지역별로 소규모 단위의 연맹체를 유지한 것인지, 연맹이란 아예 존재한 적이 없었는지 답을 구해야 할 순간을 맞고 있다. 가야사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가야 전 시기를 일관된 잣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가야 제국의 관계를 세분하여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기획 의도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고고자료를 통해 3~4세기 가야의 국가적 성격을 논의한다면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를 빼놓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금관가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귀결될 것이다. 본 글의 대부분도 금관가야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지만 함안의 아라가야와 경남 서부지역 고고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고자 한다. 금관가야의 성장과 발전은 주변 가야 제국의 동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3~4세기 가야지역은 대형 목곽묘가 군집된 중심고분군이 축조되고 방어시설을 갖춘 중심취락이 형성된다. 일정한 범위에 유사도가 높은 토기양식이 출현하면서 문화권을 형성하기도 한다. 남해안 일대는 중국·왜와의 원거리 교역이 이루어지고 수입된 다양한 유물이 무덤에 부장된다. 토기와 철기 생산을 주업으로 삼은 취락이나 생산시설이 조사되기도 한다. 이 모두가 國 또는 國家 사회로 이행해가는 중요한

표지적 요소로 평가된다.

본 글에서는 금관가야, 아라가야, 경남서부지역에서 조사된 3~4세기 토기양식과 고분군, 중심취락과 토성을 검토하고 그 출현과정을 통해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3~4세기 가야의 유적과 유물

고대 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권력을 장악한 지배 계급의 출현과 사회 계층의 분화를 보여주는 가장 적극적인 고고학 자료로 대형 분묘의 군집을 들 수 있다. 특히 성이 등장하는 곳에 인접하여 대형 분묘가 집중하는 것은 연맹왕국 단계의 정치체의 성립을 시사하는 고고학적 자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¹⁾가 있다. 가야의 경우 목곽묘의 군집은 기원전 1세기부터 확인되지만 대형 분묘의 군집은 2세기 후반 김해·부산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대형 목곽묘는 입지와 규모, 부장유물에서 중소형 목곽묘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특정 지역을 아우르는 유력 집단이 출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손색이 없다. 목곽묘의 군집과 위계를 통해 가야 국가 형성 과정을 논의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금관가야로 한정된다. 경남 서부지역과 함안지역은 상위 지배층의 고분이 확실치 않고, 남해안권과 창녕권, 고령권은 자료의 공백지대나 다름없다.

1. 금관가야

1) 고분군

금관가야는 3세기 후반부터 외절구연고배와 파수부노형토기 등 특징적인 기종구성과 조합을 통해 낙동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공통의 토기문화권을 형성한다. 이후 4세기 후반에는 진영·창원분지, 기장 고촌리고분군, 진해 웅천패총, 창원 가음정동고분군과 도계동고분군으로 분포범위가 확대된다. 홍보식²⁾은 외절구연고배와 통형동기의 공동 부장을 통해 양동리와 대성동, 복천동고분군이 친연관계에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금관가야 핵심권역을 설명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금관가야의 고분 변천에³⁾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의 목곽묘는 양동리와 내덕리유적, 망덕리유적, 대성동유적에서 확인된다. 3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목곽묘는 대성동과 양동리를 중심으로 구지로, 화정, 두곡, 예안리, 칠산동, 망덕리, 내덕리, 능동, 여래리, 퇴래리 유적이 있다. 길이 6m 이상의 대형 목곽묘는 대성동과 양동리고분군

1) 박순발, 2007,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p.14.

2) 홍보식, 2000, 「考古學으로 본 金官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pp.1-48.

3) 대성동고분의 내용은 다음의 두 글을 참고로 작성함. 김일규, 2018, 「김해 대성동고분군 목곽묘의 변천과 특징」, 『가야고분군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pp.33-65; 이재현, 2018, 「김해지역의 고대묘제 변천과 대성동고분의 특징」, 『가야고분군Ⅲ』,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pp.6-33.

에 집중하고, 기타 유적에는 길이 6m 미만의 중·소형분만 축조된다.

2세기 후반부터는 상위 계층에서 대형 목곽묘를 축조하는데 대표적인 고분은 양동리 162호묘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94cm, 너비 344cm이고, 목곽은 길이 388cm, 너비 240cm이다. 주인공 주위에 판상철부와 철모, 철검 등의 철기류와 청동거울 등을 부장하였고, 후한경 2면과 8면의 방제경은 중국·일본과의 원거리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시기 대성동고분군에도 대형 목곽묘가 출현한다. 가야사 조성사업 주차장부지 내 1호묘가 해당된다. 대성동고분군이 축조되는 구릉의 북쪽 시작점에 조성되어 있어 고분군 조성의 기획이 엿보인다. 조사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전모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잔존규모는 길이 350cm, 너비 250cm이다. 와질토기와 봉상철부, 철제단검 등이 부장되었다.

대성동고분군에는 3세기 전엽부터 입지의 차별화, 부장 규모의 확대가 나타난다. 대형 목곽묘는 구릉의 주능선을 차지하며 열상으로 배치된다. 이 시기부터 중원지역은 물론 북방유목민족, 왜 등과 원거리 교역을 통해 입수한 유물을 부장한다. 대성동 45호묘는 전모를 알 수 없지만 묘광 길이 750cm, 너비 475cm이고, 확인된 목곽의 규모는 길이 565cm, 너비 340cm로 대형 목곽묘임은 확실하다. 유물부장 공간이 확대되고 토기의 부장량이 늘어난 것은 변화된 모습이다.

같은 시기에 양동리고분군에도 대성동고분군에 필적할 규모의 고분이 축조된다. 3세기 중·후엽에 해당하는 양동리 235호묘는 묘광 길이 760cm, 너비 390cm이고, 목곽은 길이 540cm, 너비 320cm이다. 바닥에 판상철부를 깔고 상부에 주인공을 매장하였다. 북방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동북이 부장되었다.

3세기 후엽이 되면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의 차이가 확연해지며, 대성동고분군 집단 내부의 위계도 한층 강조된다. 대성동고분군 지배자 집단은 구릉 정선부에 고분을 줄지어 축조하는 경관을 연출하면서 신분의 계보의식을 인민들에게 드러낸다. 3세기 후엽에 축조된 29호분은 이러한 특별한 경관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29호분은 변화된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신경철 2000), 목곽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별도의 부장칸을 마련하였으며, 판상철부로 시상을 마련한 점, 와질토기를 대체하여 도질토기가 부장된 점, 북방계 유물인 동북이 부장된 점, 순장이 실시된 점, 각종의 물품을 담은 토기 부장공간을 마련한 점, 금동관이 출현한 점 등이다. 다량의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목곽의 규모도 극대화되는데 묘광 길이 960cm, 너비 560cm, 깊이 130cm이고, 목곽은 길이 640cm, 너비 320cm이다.

4세기 전엽이 되면 목곽묘는 더욱 깊어지고, 별도의 독립된 부장곽이 설치되는 異穴主副槨式 목곽묘가 축조된다. 앞 시기에는 바닥에 철부를 까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시기부터 판상석을 깔아 시상대를 조성한다. 4세기 전엽을 대표하는 고분은 13호묘이다. 13호묘는 구릉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異穴主副槨式구조이다. 주곽은 묘광의 길이 602cm, 너비 394cm, 깊이 145cm이고, 목곽은 길이 500cm, 너비 240cm이다. 부곽은 주곽과 120cm 이격되어 있는데 묘광의 길이 370cm, 너비 398cm이고, 목곽은 길이 165cm, 잔존너비 27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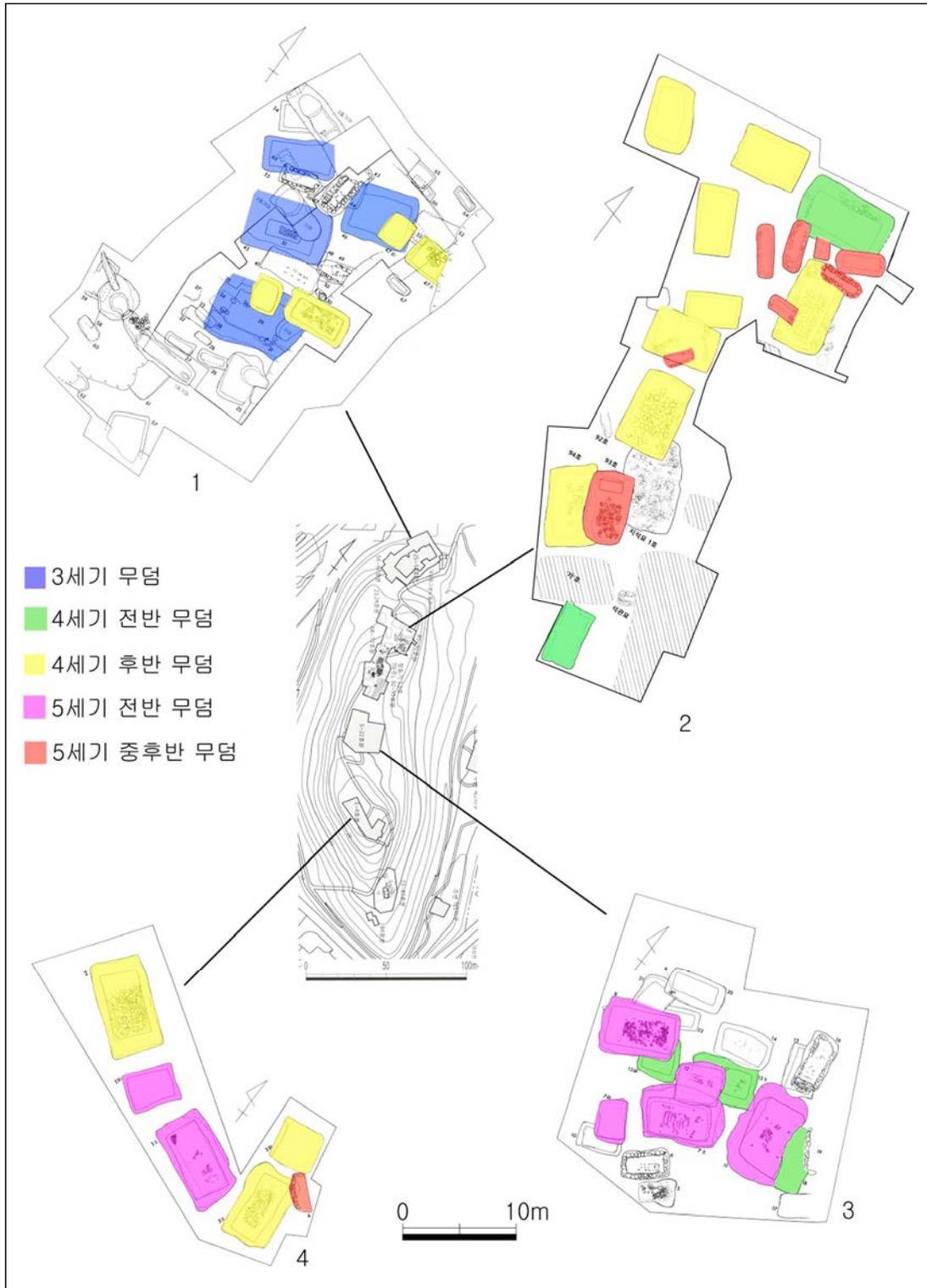
4세기 중·후엽에는 2호·3호·23호·39호·47호·70호·88호·91호묘가 축조된다. 88호묘는 묘광의 길이 810cm, 너비 450cm, 깊이 170cm이고, 목곽은 길이 590cm, 너비 270cm이다. 묘광과 목곽 사이는 돌로써

목곽외부를 채우고 바깥에는 패각과 점토를 다져서 충전하였다. 북쪽 단벽의 충전토 상에 남성 1인, 여성 2인을 순장하였다. 바닥에는 북쪽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에 판석을 동서 6열, 남북 1열로 배열하였다. 판석 위에는 철정이 일부 깔려있다. 23호묘는 단독묘이고, 묘광은 길이 630cm, 너비 440cm, 깊이 175cm이고, 목곽은 길이 460cm, 너비 275cm이다. 바닥에는 평탄하게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목곽을 설치하였다. 목곽의 벽면을 따라 4인 이상을 순장하였다. 39호묘는 독립된 부곽을 가진 목곽묘이다. 주곽의 묘광은 길이 560cm, 너비 295cm, 깊이 143cm이고, 목곽은 길이 410cm, 너비 205cm이다. 부곽의 묘광은 길이 260cm, 너비 315cm이고, 목곽은 길이 210cm, 너비 240cm이다. 주곽에는 토기부장공간을 제외하고 전면에 판석을 깔았다. 북쪽 장벽에 연해서 2인을 순장하였다.

5세기 전엽에는 1호·7호·8호·11호·24호묘가 축조된다. 이 시기는 묘광이 깊어지는데 1·7호묘의 경우 깊이가 3m에 달한다. 1호묘는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주·부곽식 목곽묘이다. 주곽의 묘광은 길이 790cm, 너비 440cm, 깊이 300cm이고, 목곽은 길이 600cm, 너비 230cm, 높이 200cm이다. 부곽은 주곽과 2m 이격되어 있는데 묘광은 길이 330cm, 너비 430cm, 깊이 84cm이다. 11호묘는 단독목곽묘로서 묘광은 길이 670cm, 너비 328cm, 깊이 350cm이고, 목곽은 길이 510cm, 너비 265cm이다.

대성동고분군은 5세기 2/4분기에 조영된 93호묘를 끝으로 목곽묘의 축조가 중단된다. 이후 5세기 3/4분기에 축조된 73호 석곽묘가 지배층 고분의 계보를 이어간다.

3~4세기 금관가야는 대성동과 양동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다수의 중·소형급 고분군이 결집하는 구조를 보인다. 양동리고분군은 3세기 후엽부터 대성동고분군에 비해 위계가 낮아진다. 부산 북천동고분군은 4세기부터 묘의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대성동고분군과 비슷해지지만 부곽의 형태나 바닥의 판대시설에서 차이가 있다.



도면 1. 대성동 고분군 시기별 목곽묘 분포양상(김일규 2018)

2) 김해 봉황토성

가야지역에서 국읍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유적으로 김해 봉황토성과 대성동고분군을 꼽을 수 있다. 봉황토성이 축조된 구릉은 남북으로 뻗은 독립성 저구릉으로 서쪽은 해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북쪽에 대성동고분군이 위치한다. 구릉에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가야 유적이 밀집한다.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주거지가 밀집하기 시작하며 4~5세기에 토성 내부의 공간 기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⁴⁾. 경사가 급한 구릉의 서쪽과 남쪽에는 회현리패총이 분포하고, 완만하게 펼쳐진 동쪽과 북쪽에는 주거지와 고상건물지 등이 집중되어 있다. 해반천과 접한 구릉의 서쪽 하단부에서 접안시설과 창고군이 확인되었다. 토성의 축조시기는 5세기로 보는 견해⁵⁾가 우세하지만 城牆의 초축시기, 개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며, 城牆 주변에서 채집된 토기 중 상당수가 4세기에 해당하므로 4세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토기의 출토맥락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봉황토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성동고분군이 4세기에 최성기를 맞은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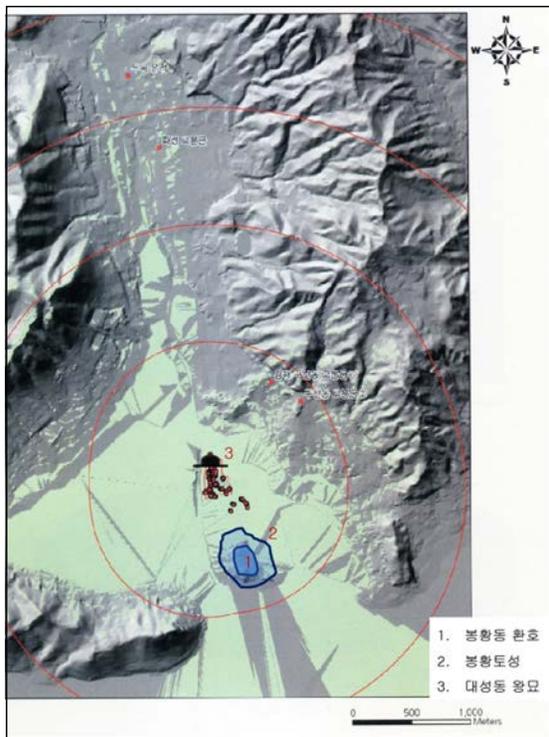


그림 1. 봉황토성과 대성동고분군
(이성주2018)

일반 주거지와 차이를 보이는 대형의 지면식건물지와 방형주구형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토성 외곽의 김

봉황토성은 생활유적인 봉황동유적과 대성동고분군의 경계에 축조되어 있다. 규모는 동서 약 400m, 남북 약 550m로 추정된다. 토성의 상단 너비는 16.5m, 하단너비는 22m, 높이 2.8m이다. 성벽은 중심부, 외벽석축, 내벽석축으로 구분되는데 그 폭은 대략 7m 정도이다. 석축은 화강암으로 쌓아올렸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사다리꼴이다. 기저부 상층은 점질토와 황갈색사질토, 혼패토를 반복적으로 관측하면서 불로 경화시켜 다진 흔적이 확인되었고, 영정주도 확인된다.

봉황동유적은 금관가야의 성장과 함께 점차 주변으로 확장되고 주거 밀도가 증가하였다. 유적 외곽에 설치된 환호와 토성은 핵심과 주변을 구분하고 외부세력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조성된다. 토성의 서쪽 해반천변에 축조된 고상 창고와 접안시설은 금관가야 성장의 원동력이 대외교역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깊다. 아직 전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토성 내부에서는

4) 이성주, 2018,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pp.71-99.

5)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鳳凰土城』, p.125.

해 한옥생활체험관 조성부지에서 수혈과 채토장, 토기가마, 토기제작 수혈 등 생산시설이 조사되었다.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로도 금관가야 도성으로 손색이 없지만 향후 궁전과 종묘, 의례를 위한 특별한 제단, 철기·금 등 다양한 물건을 제작하던 공방이 확인된다면 금관가야 국가 성립의 지표로 더욱 주목 받게 될 것이다.

2. 아라가야

5~6세기 말이산고분군에 축조된 고층의 압도적인 경관은 아라가야 발전기를 웅변하지만, 1~4세기 아라가야 성립기를 알려주는 고고학 자료는 극히 적다. 이런 사정으로 3세기에 작성된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에 변한의 12국 중 하나인 安那國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제기된다. 확인되지 않는 분묘자료에 매몰되기보다 다각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시야를 돌려보면 왕궁지가 눈에 들어오고, 남강을 배경으로 늘어선 아라가야 토기 가마와 대외교역항인 현동유적도 찾아진다. 체계화된 수공업 생산시설과 원거리 교역망은 발달된 정치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용하기 힘들다. 아라가야 토기의 분포권을 통해 원거리 교역망을 구성해보고, 권력의 독점을 보여주는 말이산고분군, 아라가야 왕궁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1) 토기양식

아라가야 양식 토기는 4세기부터 5세기 전반의 시기에 가장 넓은 분포권을 형성한다. 5세기 후반에는 함안 분지를 중심으로 한정된 분포권을 보이며, 6세기 이후에는 점차 축소된다.

4세기 아라가야 토기는 통형고배·노형기대·양이부단경호가 대표적인 기종이다. 통형고배는 함안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지역에 분포권을 형성하고, 김해 대성동·부산 북천동·울산 조일리·칠곡 심천리와 전남 동부지역에 확산한다. S자상으로 외반하는 구경부를 지닌 노형기대 역시 함안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지역과 함천, 창녕이 주요 분포권이며, 부산 북천동 74호묘, 경주 죽동리 2호묘, 광양 지원리 창촌 2호 주거지 등에서 출토된다. 양이부단경호는 가장 넓은 분포권을 형성한다. 김해 대성동·예안리고분군, 부산 북천동고분군, 양산 소토리고분군, 울산 하대·조일리·다운동·중산리고분군, 경주 황성동 33호묘·인왕동 7호묘·죽동리 1호묘·황오동 385-10번지 출토품 등이 있다. 남해안을 따라 백제지역에도 다수가 출토된다. 대구와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아라가야 토기는 아라가야 공인의 이주 또는 제작 기술의 전파를 보여준다⁶⁾.

고식도질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기종 구성에 차이가 없고 기형이나 제작기법이 유사하므로 영남의 광범위한 지역을 공통양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⁷⁾. 반면 몇 곳의 선진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토기 생산과 유통 체계가 구축되었고, 이 중 아라가야 양식이 광

6) 정주희, 2008, 「咸安樣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0-81.

7) 김정완, 2000, 「咸安圈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 變化」, 『伽耶考古學論叢』3, 伽耶文化研究所.

조영제, 2006,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9.

범위하게 유통되면서 분포권을 형성하였다는 견해도⁸⁾있다. 특히 박천수⁹⁾는 3세기 후엽부터 4세기 중엽의 시기에 아라가야 양식 토기는 남해안과 남강, 황강 수계에 분포권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이 정근¹⁰⁾과 정주희¹¹⁾도 승문계타날호·통형고배·노형기대 등 함안권에서 생산된 주요 기종이 주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식도질토기는 공통양식적인 속성이 강하지만 영남 전역에서 도질토기 생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긴 힘들다. 토기 생산의 선진지역에서 주변으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통적인 속성이 강하게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형고배·승문계타날호·노형기대·컵형토기로 기종이 한정되어 있고, 기형이 비교적 단순한 점도 넓은 범위에서 공통양식이 형성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라가야 양식 토기는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해당 지역의 토기 생산을 선도하였다. 토기에 남아있는 중첩소성흔이나 도부호는 함안산 토기를 판별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다. 김해·부산권, 경남 서부지역권에 유통된 통형고배, 승문계타날호 등은 함안에서 생산하여 유통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경주나 울산지역 출토품들도 함안에서 반입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¹²⁾.

아라가야는 금관가야, 신라·백제와 교류함과 동시에 남해안을 통해 일본 규슈(九州)와 주고쿠(中國) 지역과도 교류하였다¹³⁾. 나가사키(長崎)현 다이쇼군야마(大將軍山) 출토 양이부단경호는 승석문이 타날 되고 구연이 직립하는 것으로 함안 말이산 14호묘, 도항리 33호묘·35호묘 출토품과 흡사하다. 이밖에 나가사키현의 아사히야마(朝日山)고분, 미네(三根)유적, 세토바루(瀬戸原)유적, 고후노사에(コフノサエ), 하루노즈지(原の駕), 후쿠오카현 니시신마찌(西新町)유적에서 출토된 승석문타날단경호도 아라가야 양식으로 파악된다¹⁴⁾. 아라가야 수장층과 규슈·주고쿠 지역 수장층간의 직접적인 교섭은 동시기에 형성된 금관가야와 왜왕권의 관계만큼 뚜렷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관계를 지속한 것은 확실하다. 금관가야가 긴키지역의 왜왕권과 직접적인 교섭을 확대해 나간 틈을 아라가야가 대체해 나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근 조사된 창원 현동유적과 거제 아주동유적은 아라가야와 왜의 교섭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현동유적은 4~6세기 가야 고분군과 고상건물지, 수공업 생산과 관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의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혈군이 조사되었다. 특히 제련로와 철광석·송풍관편·철재·노벽체편·목탄 등이 다량 확인되어 제철과 관련한 대단위의 작업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11호·166호·289호·331호 수혈에서 왜인들의 생활용 토기인 하지키가 다량 출토되어 대외교역에 종사한 상당수의 왜인들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제 아주동유적은 일본 대마도로 항해하기 양호한 옥포만에 입지한다. 마한계 방형주거지와 아라가야 토기, 왜계 하지키가 다량 출토되어 마한-아라가야-왜로 연결된 교역망의 주요 거점으로 판명되었

8) 이성주, 1998, 『新羅·加耶社會의 起源과 成長』, 학연문화사, 349~356쪽.

9) 박천수, 2000, 『考古學으로 본 加羅國史』,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pp.133-136.

10) 이정근, 2006,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産과 流通』,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5-119.

11) 정주희, 2008, 앞의 논문, pp.11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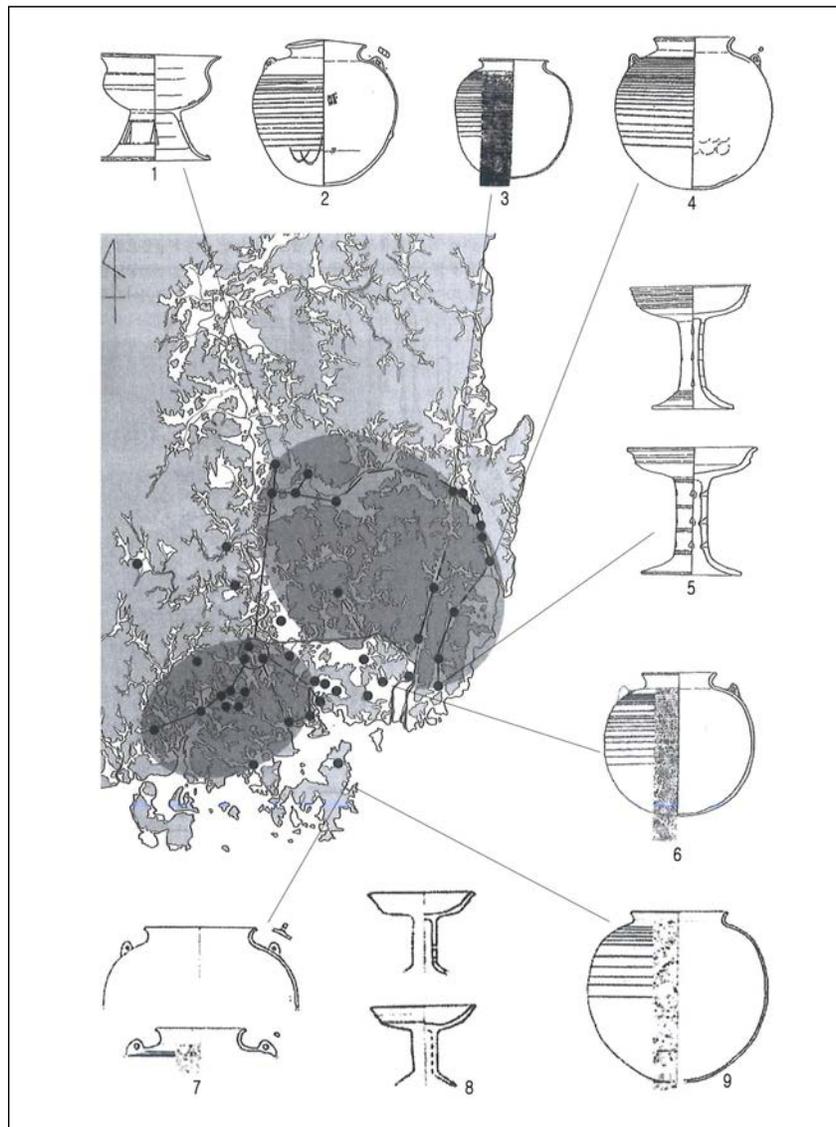
12) 정주희, 2008, 앞의 논문, pp.80-90.

13)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pp.85-87.

14) 박천수, 2007, 앞의 책, p.51.

다. 아라가야 토기는 승문계타날호·양이부단경호·통형고배·컵형토기로 함안 우거리 토기가마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흡사하다. 함안에서 지속적으로 토기들이 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왜의 토기인 하지키는 북부규슈에서 그 계보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¹⁵⁾. 거제도는 아라가야와 일본열도 교섭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토기양식의 분포로 보면 아라가야는 4세기부터 체계화된 토기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유통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교역시스템은 조직화된 정치체계의 성립을 반영한다.



도면 2. 신라권역, 거제도 출토 아라가야 토기(정주희 2008 논문 113쪽 도면 일부 인용)

1.칠곡 심천리66호묘, 2.칠곡 심천리50호묘, 3.경주 황성동33호묘, 4.울산 중산리 I A23호묘, 5.부산 북천동 57호묘, 6.김해 대성동 62호묘, 7·8·9. 거제 아주동9호·25호 건물지

15) 寺井 誠, 2014, 「馬韓と倭をつなぐ-巨濟市鵝洲洞遺蹟の検討を基に-」, 『東アジア古文化論攷』I, 中國書店, 福岡, p.380.

2) 고분군

아라가야 권역은 함안군 가야읍을 중심으로 군북면과 칠원면, 진동면과 마산면이 외곽을 형성한다. 가야읍 일대에는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 필동고분군, 선왕동고분군, 덕전고분군 등 대규모 고분군이 밀집한다. 군북면에는 규모가 큰 수곡고분군과 오당골고분군을 중심으로 30개소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칠원면에는 용산고분군을 중심으로 오곡리고분군 등 10개소의 고분군이 분포한다.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관묘는 49기로 묘광은 길이 240~285cm, 너비 84~185cm이다. 유물은 조합우각형파수부호·주머니호·원저호 등 와질토기와 이단병식 철검·철모·주조철부·무경역자식철촉 등이 다. 목관묘의 규모는 김해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부장유물의 격차는 크다. 청동제 위신재가 극히 적고, 중국·왜의 교역품이 전혀 부장되지 않는다. 말이산 <문>22호묘·26호묘에 청동제 장식품이 부장되지만 이를 근거로 말이산고분군이 주변을 아우르는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했다고 정의하기 힘들다. 목관묘 단계의 안야국은 김해의 양동리 집단이나 창원 다호리 집단에 비해 극히 열세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세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4세기부터 아라가야는 유력한 정치체로 발돋움했을 가능성이 높다. 말이산고분군에 목관묘가 급격히 늘어나고 고분군의 위계가 뚜렷해진다. 목관묘는 고분군의 북쪽부분에 축조되었으나 후대의 도로 및 철도 건설로 많은 수의 목관묘가 유실된 것으로 추측된다. 4~5세기 목관묘는 구조와 부장유물을 통해 3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1등급 목관묘는 마갑총과 <문>3·9·10·27·48호묘가 해당된다. 규모는 길이 6m 이상, 너비는 2.9m이다. 2종의 목곽과 목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36·48호묘는 주인공 공간에 철정을 깔아 관대시설을 마련하였는데 <문>36호묘는 40매의 철정을 깔았다. 갑주와 마갑·마주 등이 부장되었다.

2등급 목관묘는 <문>6·35·44·50호묘, <경>33호묘, <경상>11·12·13·15·16·17호묘가 해당한다. 1종의 목곽과 목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에는 특별한 관대를 마련하지 않았다. 규모는 길이 4m, 너비 1.5m 내외이다. 목관묘 중앙에 주인공을 매장하고 양쪽에 부장공간을 마련하였다. 토기류가 다량 부장되고 철기는 농공구 위주로 부장된다. 무기류는 대도·철모·철촉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1등급에 비해 갑주류와 마구류가 부장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3등급 목관묘는 말이산고분군에는 드물고 대부분 외곽의 중소형고분군에 축조된다. 목곽 내부는 주인공 공간과 유물부장공간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길이 4m이하로 소형이다. 유물은 토기류와 대도·철촉·철모·철부·철검 중 일부가 부장된다.

4세기 전반에는 2·3 등급의 목관묘가 확산되고, 1등급의 대형 목관묘는 5세기 전반에 집중한다. 대형 목관묘의 군집과 함께 무기류·무구류·마구류·갑주·장식대도 등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경>13호묘, 마갑총 등이 대표적인 유구이다.

16) 최경규, 2018, 「아라가야 권역 내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 검토」, 『가야고분군Ⅲ』,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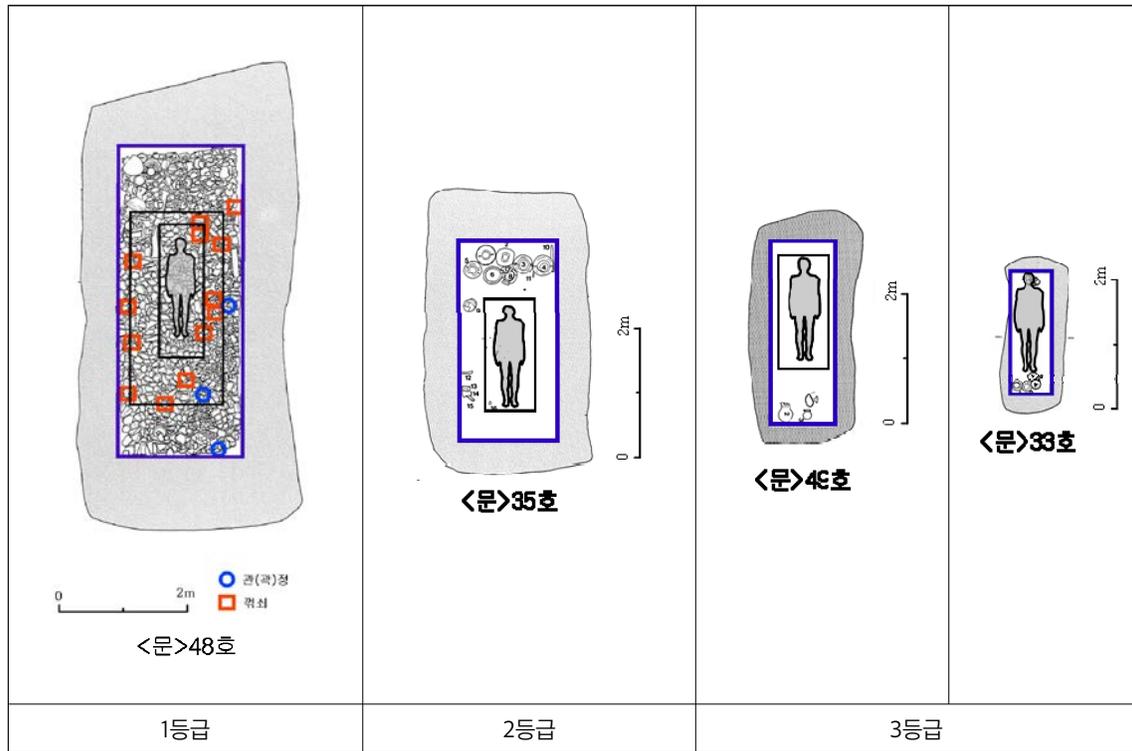


그림 2. 아라가야 목곽묘 분류(최경규 2018, 일부 개변)

3) 함안 가야리토성

가야리토성은 조선 중기 선조 20년(1587년)에 저술된 『咸州誌』에 기록되어 있는데, 토축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둘레가 1,606尺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 진위여부는 확실치 않았으나 2018년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가야리토성은 해발 43m의 독립구릉에 축조되어 있고, 토성의 추정 길이는 514.4m이다. 구릉은 남동쪽을 제외한 삼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성벽은 구릉의 가장자리를 따라 축조되어 있다. 토성 주변은 덕전고분군, 선왕동고분군, 남문외고분군, 말이산고분군 등 아라가야 고분군이 다수 분포한다.

성벽은 관측상으로 성토하였는데 높이는 약 10m이고, 상부 폭은 20~40m로 규모가 큰 편이다. 축조 과정을 살펴보면, 구지표면을 삭토하고 풍화암반토와 점질토를 갈아 정지면을 구축하였고, 상부에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성토하여 다짐하였다. 이때 성벽 내부에는 목주를 설치하고, 성벽 외부는 소결하여 흘러내림을 방지하였다. 성벽 상부의 외곽에는 2열의 목주를 설치하였는데, 목주의 간격은 1m, 목주 열의 간격은 2m이며, 목주의 직경은 30cm이다. 성벽 내측에서 고상건물지와 대형 건물지가 확인된다.

조사단은 토성의 축조시기를 5세기 중엽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城牆의 축조시기와 중심취락의 형성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토성 내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변의 고분군 분포상황을 고려하면 3, 4세기부터 중심취락이 형성되고 이후 5세기에 城牆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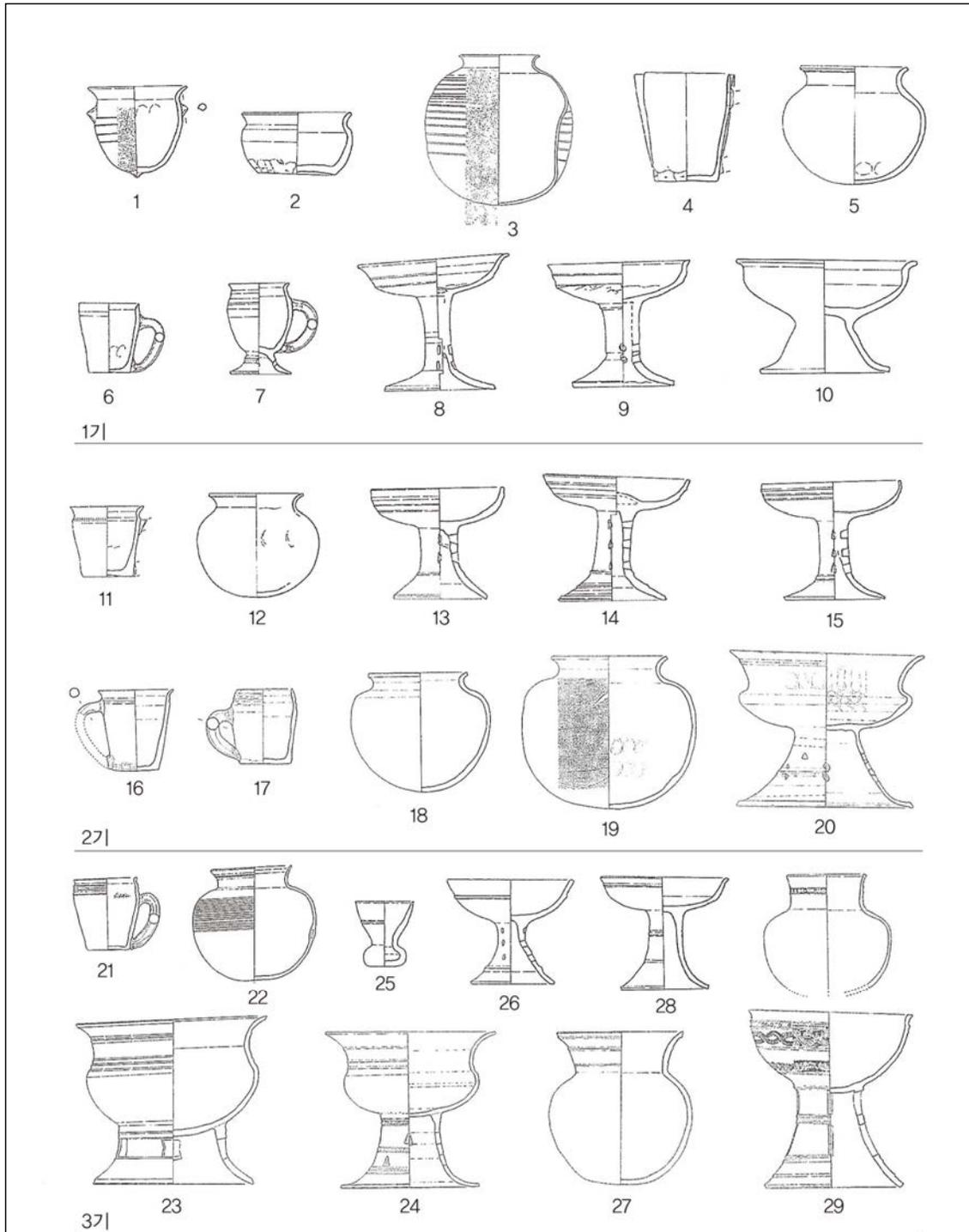
3. 경남 서부지역

1) 토기양식

가야는 3세기 후반부터 김해를 중심으로 새로운 토기제작 기술이 성립한다. 곧이어 인근의 함안에 서도 통형고배와 노형기대로 대표되는 고식도질토기가 다량으로 제작된다. 4세기의 가야는 공통적인 속성이 강한 고식도질토기문화권에 해당하지만 김해의 외절구연고배, 함안의 통형고배, 경남 서부지역의 완형무투창고배 등 일부 기종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색채도 뚜렷하다. 함안의 토기제작 기술은 고속회전판 성형, 타날조정, 고온 소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남 서부지역 토기 제작기술을 압도한다. 이로 인해 함안의 토기제작 기술은 남강, 남해안을 따라 경남 서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4세기의 경남 서부지역 토기문화는 함안토기 제작기술의 전파와 확산과정으로 요약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경남 서부지역에서 4세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진주·산청·합천·함양 등 남강수계와 하동권, 사천·고성을 포함한 남해안권으로 구분된다.

4세기 전·중엽은 진주권에 아라가야 토기가 확산된다. 안간리유적 출토품은 통형고배·양이부호·파배·양이부옹 등으로 함안지역 토기와 특징이 유사한 반면 우복리유적 출토품은 평저호·완형무투창고배 등 함안, 김해의 토기문화와는 이질적이다. 남강을 따라 함안토기 제작기술이 확산되나 남강 상류나 섬진강수계는 이질적인 토기문화권이 존속한다.

4세기 후엽에는 함안 토기 제작기술이 경남 서부지역 깊숙이 파급되고 남해안을 따라 고성, 사천을 넘어 전남 동부지역으로 확산한다. 토기 제작기술의 전파와 모방, 다양한 형태의 인적교류는 경남 서부지역이 공통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도면 3. 경남 서부지역 4세기 토기의 변천

1기(4C전엽): 1~3:안간리Ⅱ4호묘, 4:안간리Ⅱ6호묘, 5~9:안간리Ⅱ5호묘, 10:우복리10호묘

2기(4C중엽): 11·12·15:안간리Ⅱ8호묘, 13:안간리Ⅱ3호묘, 14:안간리Ⅱ7호묘, 16~20:무촌리2 24호묘

3기(4C후엽): 21~24:송학동1E-1호묘, 25~27:중촌리21호묘, 28·29:옥산리110호묘

2) 고분

경남 서부지역에서 1~3세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극히 적다. 합천 삼가고분군과 고성 솔섬유적, 고성 패총 등에서 전기 와질토기 단계의 목곽묘, 석관묘 등이 확인된 바 있으나 후기와질토기 단계의 목곽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가고분군 등 일부 중심고분군에 대형 목곽묘가 확인될 가능성은 있지만 김해 양동리고분군이나 대성동고분군과 같은 군집 양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왜와의 원거리 교역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래계 유물의 부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단, 고성 동외동유적의 사례를 보면 고성지역에서 원거리교역에 참가한 지배자의 대형 목곽묘가 발견될 가능성은 높다.

경남 서부지역에서 조사된 목곽묘는 대부분 4세기부터 5세기 전반에 속한다. 현재까지 22곳에서 900여기가 조사되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¹⁷⁾ 경남 서부지역 목곽묘는 97%이상이 평면비 1.5:1~3.5:1로 장방형구조에 속하고 김해·부산지역보다 함안지역 목곽묘의 구조와 유사하였다. 목곽묘는 길이 200~400cm에 속하는 것이 77.5%를 점하고, 길이 500cm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진주 안간리 II4호묘, 산청 옥산리 98호묘, 산청 중촌리 3호北 목곽묘, 진주 무촌리 2구47호묘·2구85호묘, 합천 삼가 II8호묘, 진주 단목리2-56호묘로 7기에 불과하다. 부장 유물의 질적, 양적 수준도 김해지역 목곽묘와 차이가 크다. 갑주류가 부장된 목곽묘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마구류가 부장된 것은 산청 중촌리 3호北목곽묘와 합천 삼가II8호묘, 진주 단목리 2-56호묘 3기이다. 도·검·모류, 살포·유자이기·거울 등 무기류와 의기류를 부장한 목곽묘도 전체의 15%를 넘지 않는다. 전체 목곽묘의 86.8%는 소량의 토기류와 철촉·철부·철검·철도자 등 극히 제한적인 농공구류만 부장하고 있다. 특히 철기 생산과 관련한 철정이나 판상철부는 합천 삼가1-1호묘, 진주 무촌리 2구11호묘에서 확인될 뿐이다.

면적과 부장유물로 보면 면적 10㎡ 이상에 해당하고 바닥에 할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갑주류 및 마구류를 부장한 목곽묘가 경남 서부지역 최상위층에 해당하였다. 이를 충족하는 대형 목곽묘는 현재까지 중촌리 3호北 목곽묘, 합천 삼가II8호묘 2기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면적 5.0~10.0㎡에 해당하고 도·검·모류나 살포·유자이기·거울 등 무기류와 의기류를 부장한 목곽묘는 19기 정도가 포함된다. 진주 안간리 II4호묘를 비롯하여 진주 무촌리 2구85호묘, 진주 이현동 62호묘, 산청 옥산리 98호묘 등이 해당한다. 각각의 유적에 1~5기 정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조사된 진주 사곡리유적과 단목리유적을 보면 200여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길이 5m 이하의 중·소형묘이며 대형묘는 수기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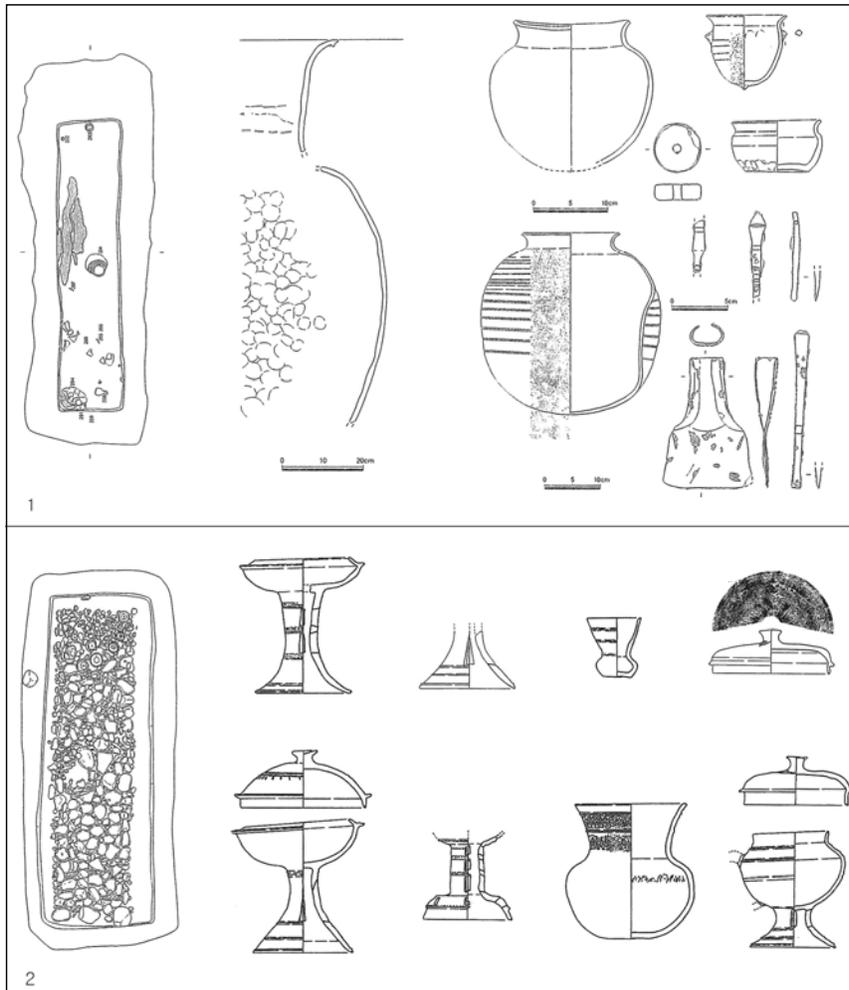
경남 서부지역의 목곽묘는 4세기 전반에는 소수이지만 4세기 후엽부터 크게 증가한다. 특히 남강수계를 따라 산청, 진주지역에 목곽묘의 축조가 활발해지며 집단 내 계층분화가 가속화되어 상·하위층 목곽묘의 존재도 뚜렷해진다. 산청 중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이 남강수계의 중심고분군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영향력은 극히 제한된 범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지역은 오히려 함안 아라가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4세기 전엽에 출현한 대형 목곽묘인 진주 안간리 II4호묘는 아라가야 목곽묘와 구조가 유사하고 출토된 토기의 기종구성과 특징도 흡사하며, 목곽묘의 길이와 폭, 무시설의 상면구조도 동일하다. 또한 木蓋 위에 단경호를 깨트려 부장하거나, 단경호를 깨트려 목곽내부와 木蓋 위에 분리하여 부장하는 행위, 봉토에 호를 매납하는 행위가 확인되는데 이는 함안 말이산<문10호>, <문>36호분에서 확인된 의례행위와 동일하다.

17) 하승철,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후 5세기 전엽까지 산청 옥산리, 진주 이현동유적 등지에 아라가야 문물이 대거 반입되고 있으므로 경남 서부지역에 아라가야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면 4. 좌 : 진주 사곡리유적 목곽묘 배치도, 우 : 진주 단목리유적 목곽묘 배치도



도면 5. 아라가야 목곽묘와 유물의 확산

1: 진주 안간리 114호묘, 2: 산청 옥산리 98호묘

3) 중심취락

경남 서부지역에는 가야의 토성이나 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강수계를 따라 진주 평지동유적, 산청 옥산리유적과 평촌리유적, 함양 화산리유적 등이 조사되었으나 성벽이나 방어시설로 둘러싸인 궁전이나 제단, 수공업 생산 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중 고성 동외동유적은 다소 진전된 취락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동외동유적¹⁸⁾은 당산으로 불리는 해발 30m 내외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구릉 정상부는 평면 원형의 대지상 지형이다. 유적은 모두 4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를 통해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4세기까지 주거지·패총·의례수혈·야철지 등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릉은 용도에 따라 철저한 공간분할이 이루어지는데, 구릉 정상부는 의례공간, 그 하단은 주거지, 주거지 아랫단에는 패총이 형성된다. 구릉 정상부에서 조사된 의례수혈은 수혈이 연속적으로 중복 조성되는 것으로 수혈의 전체 범위는 10m 이상이다. 내부에서 목탄과 갈판, 연질토기와 도질토기가 출토되고, C 수혈에서는 제사용으로 판단되는 조문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사면부에 조성된 주거지, 패총에서는 고자국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漢鏡, 왜의 광형동모와 야요이토기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冶鐵地는 동아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 철재와 송풍관으로 추정되는 토관이 출토되었다. 동외동유적의 곳곳에서 철재가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제철작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자국 성립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다.(그림 6)

동외동유적으로 판단하면 고성읍 일대가 고자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수장층 묘역이나 토성 등 수장의 居館이 확인되지 않아 반론은 만만치 않다¹⁹⁾. 동시기의 김해 봉황동토성과 대성동고분군, 합천 성산토성과 옥전고분군의 경관과 비교하면 고성읍 일대의 경관은 차이가 있다.

3~4세기 고자국은 김해 가락국에 비해 현저히 열세였으므로 선진지역과 유사한 수장층 묘역의 조성 및 토성의 축조는 힘들었을 것이다. 고자국 성립기의 취락은 고성만을 따라 형성된 자연제방과 송학동고분군 일대의 미고지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연제방은 동외동유적에서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취락이 입지하기에 양호하다. 송학동고분군에서 동서를 길게 뻗어있는 미고지 역시 취락이 형성하기에 적당하다. 『文化遺蹟總覽』에 따르면 고성여중 일대를 송학동패총으로 기록하고 있고 동외동유적과 비슷한 시기의 생활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만 송학동고분군은 미고지를 따라 점점이 분포한다.

18)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상노대도-고성 동외동패총』, 1984.

19) 조영제, 2018, 『小加耶의 古墳文化』,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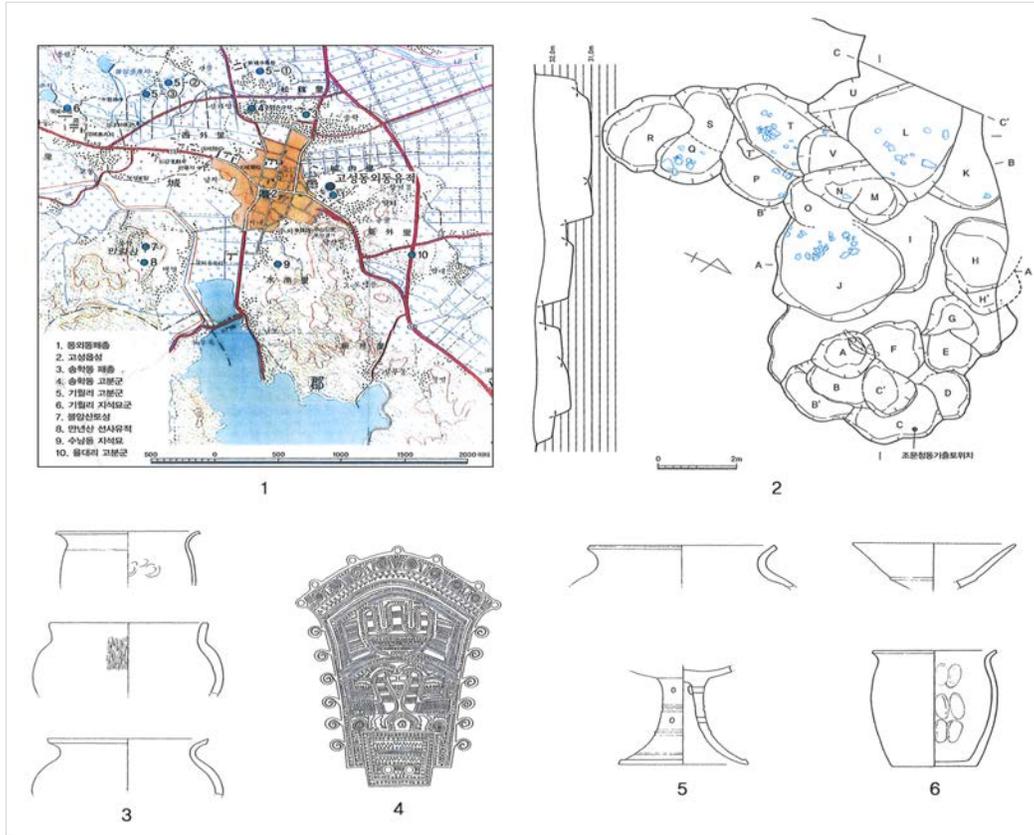


그림 3. 고자국 성립기의 유적과 유물

1. 고성 동외동유적, 2. 가지구 1호 수혈, 3. 가지구 1호 A수혈 출토유물, 4-5. 가지구 1호 C 수혈 출토유물, 6. 가지구 1호 D수혈 출토유물

종합하면, 고자국 성립시기의 생활유적은 미고지와 자연제방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수장층 묘역도 주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안가의 특성상 제한된 생활공간은 반복해서 재사용되면서 이전 시기의 유적은 상당부분 훼손되었을 것이다. 비교적 높은 지대에 형성된 동외동유적과 송학동고분군만이 남겨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자국 수장층의 대형 목곽묘는 송학동고분군 주변의 미고지(유물산포지)에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편, 동외동유적에서 출토된 왜계 광형동모와 하지키는 김해 세력에 의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성을 비롯하여 남해안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자국, 사물국, 골포국 등은 금관가야와 함께 중국과의 교역에 참가했을 것이다. 3~4세기 금관가야는 남해안의 일정 범위를 세력권에 두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4. 합천 옥전고분군과 성산리토성

합천 옥전고분군은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 입구에 축조되어 있다. 황강변에 접한 해발 80m 정도의 구릉 끝자락에 성산리토성이 축조되어 있고, 그 배후에 옥전고분군이 입지한다. 교역로를 배경으로 중심고분군과 토성이 인접하여 축조된 것은 김해 봉황토성과 대성동고분군의 경관과 유사하다.

옥전고분군에는 1~2세기 목관묘, 4~5세기 목곽묘, 5~6세기 석곽묘와 석실묘가 연속적으로 축조된다. 최근 구릉 말단부에서 목관묘가 조사되었으나 초기 목곽묘는 조사되지 않았다. 2~4세기 대형 목곽묘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국가 형성기의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5세기 후반까지 목곽묘 축조 전통이 이어진 점이 특징이다. 4세기에 축조된 목곽묘는 대부분 길이 4m이하의 중·소형급이다. 4세기 후엽에 축조된 54호묘는 길이 5.7m, 너비 3.2m로 장방형이며 목곽과 묘광 사이에 돌을 가득 채웠고, 목곽 상부에도 돌을 덮은 구조이다. 신라권역 목곽묘와 관련 깊다. 5세기 목곽묘는 주·부곽식 구조로 낙동강 주변의 김해, 창녕, 합천, 고령, 성주 등지에 유행한다.



그림 4. 옥전고분군과 성산리토성 전경

성산리토성은 옥전고분군 축조 집단과 관련된 다라국의 왕성으로 추정된다. 주변에 다라리, 죽곡리 고분군이 분포한다. 모두 3차례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성벽 기반부와 성토부, 목책열, 건물지, 의례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성 내부에는 상위층의 주거로 대벽건물을 축조하였다. 성산리토성의 규모는 남북은 약 285m이고, 동서는 약 155m이며, 총둘레는 1,050m이다.

성벽은 구릉의 가장자리를 따라 축조되었는데,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지면을 정지하고, 하부를 성토한다. 하부 성토 후 지면을 한 차례 정지하고 석축으로 보강한 다음 상단 체성부를 성토한다. 하단 성토부와 상단 체성부로 구분되는 성벽의 중간지점에서 석축시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구조상 성토부의 기저부 골격역할을 하는 석축으로 추정되고 있다. 급경사면에 축조된 관계로 증축이나 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상단 체성부에 목책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산리토성의 입지와 구조는 김해 봉황토성과 흡사하다. 양자는 황강과 낙동강을 통해 긴밀한 교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산리토성의 축조시기는 출토된 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 내부에서 4세기 토기편이 다수 확인되고 있고, 옥전고분군은 1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으므로 중심취락은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성벽은 구릉의 가장자리를 따라 축조되었는데,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지면을 정지하고, 하부를 성토한다. 하부 성토 후 지면을 한

Ⅲ. 3~4세기 가야의 국가적 성격

1. 금관가야

금관가야의 중심취락은 봉황대 구릉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고김해만과 해반천이 만나는 김해시 일대는 청동기시대부터 취락이 번창하였고 대형 지석묘들이 곳곳에 축조된다. 남부지역 최대 지석묘로 평가 받는 구산동 A2-1호와 구산동 취락유적, 대성동 구릉 정상부에 축조된 지석묘, 고지도에 남아있는 지석묘는 번성했던 당시의 사정을 말해준다. 이후 삼한시기에도 고김해만에 인접한 봉황대 구릉을 중심으로 패총과 환호, 무덤, 주거지 등이 밀집한다. 금관가야 시기에는 체계화된 공간 기획이 엿보이는데, 생활공간인 봉황동유적과 사후공간인 대성동고분군이 엄격히 분리되고 고김해만에는 접안시설과 창고군이 조성된다. 봉황동유적에는 城牆이 갖추어지면서 지배자층과 일반 민들의 주거 공간이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생산시설은 외곽으로 이전하여 조성된다. 대성동고분군에는 권력을 독점한 왕묘가 출현하고 권력의 계보를 반영하듯 구릉 능선을 따라 대형 목곽묘가 열상으로 배치된다. 하위층의 중소형 목곽묘는 구릉 하단부나 평지에 조성되어 사회 신분질서가 고분군의 입지와 규모, 부장유물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4세기에 금관가야는 국읍(도읍, 봉황토성과 대성동고분군)-읍락(양동리고분군)-일반취락(능동리·칠산동·내덕리·망덕리·유하리·덕정리·예안리·퇴래리·여래리)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²⁰⁾. 평야가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집중과 정치권력의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남해안-낙동강으로 이어진 교역로를 배경으로 한 관문사회의 역할에서 구할 수 있다. 초기 금관가야는 대성동과 양동리 세력의 결집을 통해 정치권력을 확대하였고, 이후 범위를 넓혀 부산의 복천동 세력까지 포함하게 됨으로 낙동강하류역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한반도 동남부 내륙을 관통하는 낙동강과 해양을 차단·관리함으로써 금관가야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 3~4세기 금관가야는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구야국과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독로국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맹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배층의 무덤 구조가 유사하고, 동일한 토기문화권에 속하며, 순장풍습을 공유한다. 연맹의 상징으로 통형동기의 공유를 지적하는 견해²¹⁾는 타당하다. 통형동기는 대성동과 양동리, 복천동, 망덕고분군에서 출토되는데 대성동 집단이 제작하여 복천동집단과 양동리집단에 분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성동고분군에 통형동기가 집중하고 15호묘와 같은 중소형묘에도 부장된다는 점, 복천동고분은 4세기 2/4분기부터 4/4분기의 기간에 한정되어 부장된다는 점을 들어 대성동 집단의 제작·배포설을 보강하고 있다²²⁾.

대성동 29호묘가 조성되는 3세기 후엽부터 대성동집단이 금관가야의 최고지배층을 형성한 것은 확실하며, 이후 100년간 그 지위를 유지한다. 양동리 집단은 3세기 이후 대성동 집단의 하위 집단으로 편

20) 이재현, 2018 앞의 논문, p.23.

21) 최근 홍해의 남성리유적에서 통형동기가 출토되었으나 금관가야 중심설은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22) 김영민, 2012, 「금관가야와 양동리고분군」, 『김해 양동리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p.147.

제되어 규제를 받게 된다. 복천동집단은 4세기부터 금관가야 연맹에 참여한다. 구야국과 독로국은 각자의 자율성을 가지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의례의 동질성을 높여가지만 복천동고분군은 독자적인 축조 전통이 이어지고, 대성동고분군이 쇠퇴한 이후에도 복천동고분군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 아라가야

아라가야에서 목곽묘가 군집화되는 기원전 1세기부터 2세기의 자료는 말이산고분군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3세기의 자료는 공백상태이다. 5세기의 대형 목곽묘 군집이 말이산고분군에서 확인되므로 초기의 대형 목곽묘도 말이산고분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5세기 중소형 목곽묘는 의령 황사리와 예둔리, 창원 현동, 함안 오곡리와 윤외리에서 확인된다. 말이산고분군을 정점으로 한 고분군의 위계가 뚜렷하다.

3~4세기 왕묘의 부재는 아라가야 토기양식의 확산과 교역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4세기 아라가야 양식 토기는 남강수계와 남해안에 확산하고 신라, 백제 권역에도 출토된다. 더불어 일본열도의 규슈지역에 아라가야 양식 토기가 유통된다. 아라가야는 창원 현동유적과 진동만을 통해 원거리 교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문 수공업 생산과 조직화된 유통체계를 통한 장거리 대외무역은 국가 조직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아라가야는 함안분지를 핵심권역으로 주변의 의령권, 함안 칠원면, 마산만 일대, 남강수계의 진주·산청 등지에 영향력을 미친다.

4-5세기 함안분지의 경관은 고도의 기획력이 엿보인다. 아라가야 왕과 수장층 묘역인 말이산고분군은 도성의 가장 중심부에 입지하며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아라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 중엽까지 유지된다. 묘역과 인접하여 왕궁을 조성하고 도성 중심지의 경관을 완성한다. 말이산고분군이 형성된 구릉의 남쪽 끝부분인 함안 충의공원 조성 부지에서는 대형 건물지와 수혈로 구성된 창고군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형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40m, 너비 16m로 일반민들의 주거 용도로 보기 힘들고 국가의 중요 건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지 좌우는 부속시설로 보이는 고상건물지와 저장용 수혈들이 군집되어 있어 구릉 전체가 특수한 역할을 담당한 공간임이 확실하다. 아라왕궁지 외곽에는 가야리 제방을 축조하여 남강의 역류를 방지하였다. 하천과 연결된 제방은 왕궁지를 방어하는 기능도 겸비했을 것이다. 가야리 제방의 축조로 인해 왕궁지 주변의 곡부가 수전지로 활용되었다. 아라가야의 주요 산업인 토기 생산지는 왕궁지와 이격되어 범수면 우거리 일대에서 대규모로 조성된다. 원료 공급과 남강을 통한 교역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 배치이다. 유량이 풍부한 남강은 지대가 낮은 함안분지의 여러 곳에 택지나 습지환경을 조성하고 가야읍 근처까지 수로 교통로를 형성하였다. 말이산고분군은 포구를 조망하기 용이한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고층이 형성된다.

3. 경남 서부지역

경남 서부지역은 진주·산청을 중심으로 한 남강수계와 고성·사천·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주권은 중소형고분군이 분포하고 대형 목곽묘가 군집된 중심고분군은 상정하기 힘들다. 취락도 중·소규모의 주거지가 밀집된 유적이 산재하여 확인되는데 남강변에 형성된 평거동유적, 구릉 사면에 형성된 가좌동유적과 안간리유적 등이다. 대형 건물지나 수공업 생산시설, 城牆을 겸비한 중심취락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5세기 전반까지 아라가야 유물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 세력의 통제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산청 중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은 4세기부터 중심고분군으로 발돋움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남강수계를 포함한 경남 서부 내륙지역은 소규모 집단이 산재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정치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 수준은 금관가야의 읍락으로 평가받는 김해 양동리 집단보다 열세였다.

남해안권의 사정은 남강수계보다 달랐다. 관련 자료는 미흡하지만 고성 동외동유적은 경남 서부지역 취락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의례공간, 주거공간, 패총이 구분되어 있고, 야철지가 운용되고 있었던 사실은 중심취락의 면모를 보여준다. 원거리 교역을 통해 중국·왜의 물품이 반입되는 상황도 차이가 크다. 김해 봉황토성과 같이 국읍으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더불어 3~4세기 대형 목곽묘의 존재여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장시간의 공백기를 갖고 5세기 후반에 새롭게 송학동고분군이 조성되는 이유도 흥미로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IV. 맺음말

박순발²³⁾은 성곽의 출현과 대형 분묘의 등장, 토기를 비롯한 물질문화 양식상의 통일성 등을 토대로 백제 국가의 등장시기를 설정한 바 있다. 3~4세기 가야는 토기양식이 성립하고 고분군의 위계가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성곽의 출현은 백제에 비해 미약하다. 3~4세기 가야사회의 발전 정도는 격차가 크다. 대형 목곽묘가 군집되어 권력의 독점을 보여주는 곳은 금관가야에 한정된다. 봉황토성은 4세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 증거는 부족하다. 5세기에 접어들면 가야 각지에 중심고분군과 도성이 출현한다. 그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관가야는 대성동 집단과 양동리 집단이 결집하면서 정치권력이 급성장하게 되고, 이후 4세기에는 부산 복천동 집단이 연맹에 참여하면서 관문사회로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 3~4세기에 금관가야는 국읍(도읍, 봉황토성과 대성동고분군)-읍락(양동리고분군)-일반취락(기타 유적)의 관계를 설정할 수

23) 박순발, 2007, 앞의 논문.

있다.

아라가야는 4세기부터 말이산고분군과 아라왕궁지 일대가 국읍으로 기능한다. 아라왕궁지는 城牆이 5세기 중엽에 축조되지만 이미 그 앞 시기부터 중심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4세기부터 발달된 토기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광역의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남강수계의 진주·산청은 3~4세기에 도성이나 중심고분군이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집단이 산재한다. 남해안은 고성 동외동유적이 중심취락으로 파악되며 향후 대형 목곽묘 군집이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 향후 고자국과 사물국 등 포상팔국의 실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鳳凰土城』.
- 김영민, 2012, 「금관가야와 양동리고분군」, 『김해 양동리고분군과 고대 동아시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김일규, 2018, 「김해 대성동고분군 목곽묘의 변천과 특징」, 『가야고분군 I』,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김정완, 2000, 「咸安圈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 變化」, 『伽耶考古學論叢』3, 伽耶文化研究所.
-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상노대도-고성 동외동패총』.
- 박순발, 2007,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2007.
- 박천수, 2000, 「考古學으로 본 加羅國史」,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 신희권, 2007, 「城의 출현과 國家의 형성-百濟의 都城 출현 양상을 중심으로-」,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고고학회.
- 이성주, 1998, 『新羅·加耶社會의 起源과 成長』, 학연문화사.
- _____, 2017, 「辰弁韓 '國'의 形成과 變動」, 『영남고고학』제79호, 영남고고학회.
- _____, 2018,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 제2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이재현, 2018, 「김해지역의 고대묘제 변천과 대성동고분의 특징」, 『가야고분군Ⅲ』,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이정근, 2006,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産과 流通」,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선, 2018, 「가야의 토성」, 『제16기 함안박물관대학 강좌집』, 함안박물관.
- 조영제, 2018, 「小加耶의 古墳文化」,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홍보식, 2000, 「考古學으로 본 金官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 정주희, 「咸安樣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0-81.
- 조영제,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9쪽.
- 최경규, 2018, 「아라가야 권역 내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 검토」, 『가야고분군Ⅲ』,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추진단.
- 하승철,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寺井 誠, 2014, 「馬韓と倭をつなぐ-巨濟市鵝洲洞遺蹟の検討を基に-」, 『東アジア古文化論攷』I, 中國書店, 福岡.



5~6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박 천 수 |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5~6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박 천 수 |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목 차

- I. 머리말
- II. 금관가야
- III. 아라가야
- IV. 소가야
- V. 대가야
- VI. 다라
- VII. 기문
- VIII. 비사벌
- IX. 가야의 국가형성과 문명의 역사적 의의

I. 머리말

해방이후 가야사 연구는 198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다른 삼국에 비해 매우 부진하며 그 동안 문헌사학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본고에서는 고고자료를 통하여 5~6세기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필자는 가야의 시기구분과 정치구도에 대하여 맹아기로서의 조기, 금관가야와 아라가야가 중심국으로 활동하는 전기와 대가야가 중심국으로 활동하는 후기로 설정한다. 전기와 후기의 구분은 400년을 기준으로 한다. 400년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경자년조의 고구려 남정을 획기로 한다.

먼저 400년 고구려 남정과 그와 관련한 가야사회의 변동에 대한 제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경철은 오사카부大阪府 오바테라大庭寺TG232요 출토 스에키의 출현과 일본열도의 초대형 전방후원분이 나라奈良북부에서 오사카大阪남부로 이동하는 변화의 배경을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경자년(400년)조의 고구려 남정에 의한 금관가야의 멸망에 따른 금관가야세력의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이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경철 1997).

조영제는 합천 옥전23호묘의 묘제와 유물에서 새로운 요소가 보이는 것을 김해 부산지역과 연결시키며, 이는 400년 고구려 남정 이후의 금관가야세력의 영남지역으로의 이동에 동반한 혼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금관가야세력의 이주에 의해 내륙지역에 다라국과 가라국 등이 성립되었다고 한다(조영제 2000:366-369).

그러나 금관가야의 멸망은 문헌자료로 볼 때 532년이 분명하고, 그 고고학적 근거인 옥전23호묘 출

토 금공품은 신라, 백제산이며, 토기도 창녕, 경주양식이다. 중국동북지방에 거주하던 기마민족이 김해 지역으로 이주하고 또한 이들이 다시 일본열도와 영남내륙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견해는 사실과 해석의 방법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거로 제시한 역연대가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 필자는 가야사회의 발전은 외부 선진세력의 이주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내부의 자체적인 동인과 외부의 자극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한편, 후보돈은 369년 『일본서기』 신공기 가라7국기사에 대가야가 가라, 금관가야가 남가라로 불린 것을 근거로 4세기 후반에 이미 가야의 중심국이 금관가야가 아닌 대가야로 설정하고 있다(주보돈 2014).

그러나 고고학 자료로 보면 4세기 말까지 금관가야가 중심국이며 이 문헌사료도 5세기 이후의 대가야가 중심으로 대두한 이후의 백제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또 4세기 고령지역에는 김해지역에 필적하는 유적이 보이지 않으며 대가야의 왕묘인 지산동고분군은 5세기 전엽이 되어야 축조가 개시된다. 따라서 4세기 대에 이미 대가야가 금관가야를 제치고 중심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무시하고 오로지 문헌사료에 의해 역사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신라사와 백제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가야사를 설명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400년 광개토왕비 경자년조의 왜와 함께 신라를 침공한 세력인 임라가라를 대가야로 보고 있으며, 그 임라가라 종발성을 낙동강 이동지역에 비정하고 있다. 나아가 400년 광개토왕비 경자년조의 임라가라 기사에 대하여 금관가야가 고구려 병력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세기 왜와 밀접한 세력은 대성동고분군 출토 왜계 문물로 볼 때 금관가야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임라가라 종발성은 김해의 봉황동토성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동안의 부산 화명동 일대는 가야시대 성이 없고 군선을 정박할 곳도 마땅하지 않다. 김해시 대성동고분군에서는 5세기에 거대한 왕묘가 보이지 않는데, 400년 전쟁으로 인해 왕권이 쇠퇴하고 왕통이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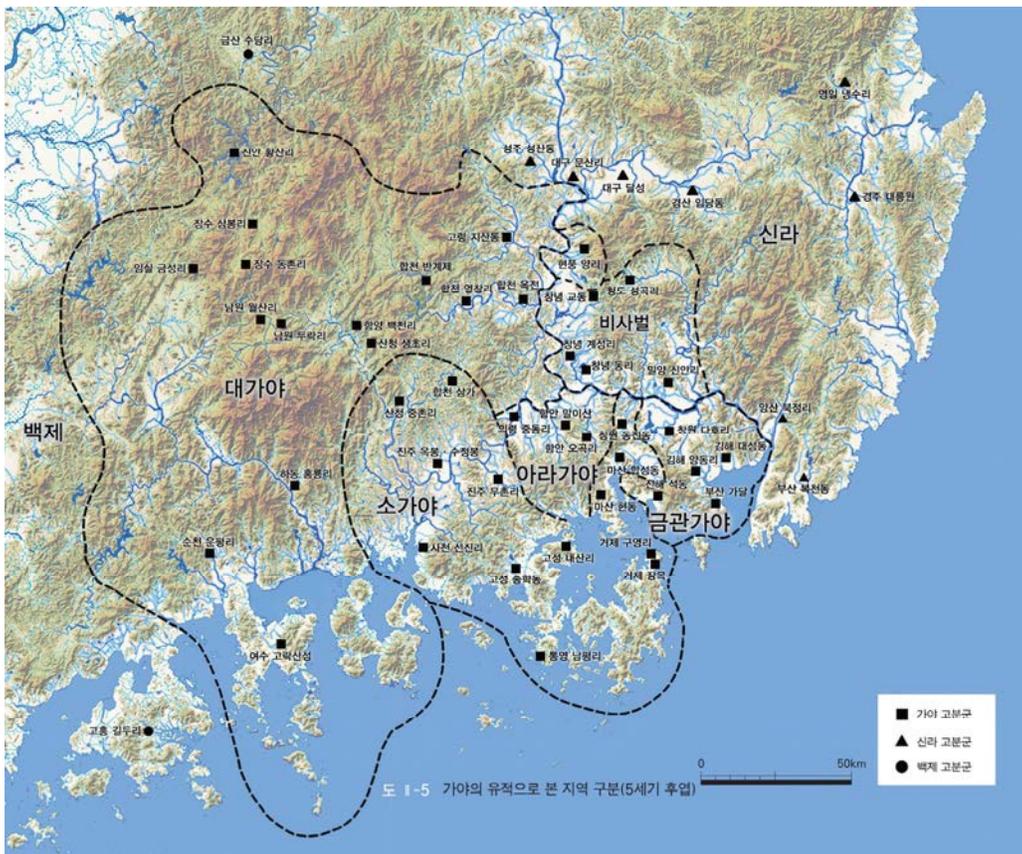
더욱이 후보돈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김해 금관가야로 보아온 임라가라를 고령 대가야로 보고 있다(주보돈 2017:164).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서기』 가라7국기사에 금관가야가 남가라로 불린 것을 근거로 이 시기 이미 가야의 중심국이 금관가야가 아닌 대가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왜가 일반적으로 신라를 침공하는 경로가 동해안과 양산단층대에 연한 교통로이며, 고구려군의 남하로 왜군이 내륙으로 퇴각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00년 이후 대성동고분군이 쇠퇴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으며,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임라가라 종발성은 김해 봉황동토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서기』 신공기 62년조(382년)의 기사를 신라가 가라의 공략에 나서 성공한 것으로 보고, 이때 신라가 공략한 가라가 곧 고령의 대가야이며 백제가 대가야의 사직을 복원시켜준 것으로 주장한다. 신라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백제의 사주를 받은 대가야가 왜와 함께 신라를 공격한 것이 『광개토왕비』의 경자년조(400년) 고구려 남정으로 보았다.

실은 문헌사학에서도 이 기사에 대해 『백제기』라는 확실한 출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현구외 2002:129). 더구나 그 공격 주체를 신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는 불확실한 사료에 근거한 주장에 불과하며 거듭 강조하지만 신라를 공격한 가야세력의 주체는 금관가야이다.

나아가 후보론은 광개토왕비의 안라인安羅人 수병戍兵을 안안(신)라인羅人 수병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신라인을 수비병으로 삼아 안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정통적인 견해를 반론할만한 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5세기 이후의 고고학적 자료와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즉, 400년 이후 토기의 생산과 유통에서 확인되는 영남 전역에 걸친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관계망이 일거에 쇠퇴하는데, 이 현상은 아라가야가 가야·왜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1.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권역(박천수, 5세기 후엽)

문헌사학의 가야사 연구의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무시하고 오로지 문헌사료에 의해 역사해석이 가능하다는 우월주의와 신라사, 백제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가야사를 설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김태식은 가야의 정치구도에 대해서 가야 전기 4세기까지는 김해 금관가야, 가야후기인 5세기 이후는 고령 대가야가 단일 연맹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았으며, 가야의 국가형성에 대해서는 복합수장사회와 같은 연맹체로 파악하였다(김태식 1993).

김태식의 단일 연맹체와 맹주론은 실은 『삼국유사』 오가야조에 의거한 이병도의 가야연맹체론(이병도 1976:388-389)을 계승한 것이다.

더욱이 이는 가야전기 아라가야를 배제한 일방적인 고고학의 금관가야중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신경철은 가야의 정치구도에 대하여 가야전기에는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는 가야연맹이 형성되었으며, 400년 고구려남정 이후 대성동고분군 축조 중단 후에는 일극 중심의 연맹체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신경철 2006:11).

한편 필자는 가야전기의 정치구도에 대하여 왕묘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광역분포권으로 볼 때 금관가야와 함께 아라가야에 의한 양대 세력으로 설정하였다(박천수 2007). 그리고 필자는 고고자료를 통하여 5세기 후반 대가야는 호남동부까지 걸친 권역을 형성하고 그 권역은 대왕인 대가야왕을 중심으로 편제화되었으며, 산성의 축조와 같은 역역동원체제가 형성된 고대국가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그 발전과 권역의 형성배경을 일본열도와와의 교역인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박천수 1995, 1997, 2016).

그 후 김태식은 가야의 국권이 300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국시대로 설정할 것으로 주장하였다(김태식 2004).

가야 전기는 물론 후기도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단일 연맹체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국시대를 제창하면서도 그 사회 발전 단계가 시종일관 연맹체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한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사국시대의 근거로서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고학에 의한 가야의 역사와 문명의 정당한 평가를 통한 사국시대의 설정이 필요하다.

거대 고총이 소재하는 5세기 창녕지역은 가야에 속하는지 신라에 병합된 것인지에 관한 여부가 쟁점이다.

이희준은 창녕지역이 4세기 후엽에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합천 옥전고분군의 창녕계, 경주계문물의 이입은 신라가 창녕지역을 통하여 다라多羅를 회유한 것으로 보고, 창녕계 토기의 낙동강 하류역 이동은 신라가 낙동강로를 확보하는 가운데 행해진 증류역과 하류역의 대서안對西岸 연대連帶, 즉 신라의 지방지배가 지역별 각개격파의 수준을 넘어 여러 지역을 연계하여 실시한 수준에 달한 표징으로 파악하였다. 또 부산 가달고분군에 창녕계 토기가 집중 출토되는 것을 신라화 과정에 수반된 사민徙民으로 추정하고, 이는 창녕의 약화와 낙동강 하구 지역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이희준 1998:104-110).

그러나 창녕산토기는 낙동강서안의 합천군 옥전고분군과 김해시 대성동고분군에 4세기 후엽부터 이입되기 시작하며, 5세기 전반에는 창녕양식 토기가 신라권역내 뿐만 아니라 낙동강 서안과 하류역의 가야지역에도 집중적으로 부장된다. 이러한 창녕산 토기의 이동을 신라가 교통로를 확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신라에 의한 창녕의 약화와 특히 낙동강하구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파악(이희준 2005)하고 있으나 이를 그렇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신라가 창녕지역을 복속시켰다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이 지역 세력에 대한 대외 활동의 통제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창녕양식 토기가 낙동강이서지역으로 이입되기 시작하는 4세기 후엽 이래의 연동하는 일련의 현상으로,

이는 창녕세력의 활동에 의해 가야지역과 백제지역에 이입된 것으로 본다. 사실 창녕지역이 『일본서기 日本書紀』 신공神功기 49년조 즉 369년에 가야에 속하는 비자발比自炁국이었던다는 분명한 기록은 확인되나, 4세기 후엽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기록은 소국 정복기사가 보이는 『삼국사기』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창녕지역 토기양식이 소멸되고 각지에 이입되던 이 지역 토기가 반출되지 않은 시점 즉 5세기 후엽이야말로 신라에 복속된 시기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서안에서 창녕지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온 합천 다라국 세력의 활동이 대가야에 의해 통제되는 5세기 후엽과 같이 연동하는 시기인 점에서 더욱더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창녕세력과 다라국, 금관가야, 소가야와의 반세기에 걸친 교섭은 단지 신라의 출선기구로서의 교역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평가한다.

최근 이희준은 황남대총남분을 내물왕릉(402년 몰)으로 보고 다시 창녕 계남리 1,4호분의 연대를 이에 선행하는 4세기 4/4분기 후반, 이에 선행하는 창녕 동리유적을 4세기 4/4분기 전반으로 설정하며 이 시기에 신라양식으로 토기가 이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소위 369년 『일본서기』 가라7국기사에 의거하여 369년 당시에는 가야에 속했으나 그 직후인 4세기 후엽에 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신라의 낙동강 수로 전역에 대한 개입이 실현되었고 369년 근초고왕 남정을 통해 낙동강유역에 진출함으로써 가야에 대해 모종의 이해관계를 수립했던 백제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야말로 바로 399년 백제의 후원아래 가야와 왜가 신라로 침입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이희준 2017:51-52). 즉 400년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경자년조의 고구려 남정이 신라가 창녕을 병합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근거인 황남대총남분은 동아시아 역연대 자료로 볼 때 내물왕릉으로 볼 수 없고 458년 몰한 눌지왕릉이 확실하고, 창녕 계남리 1,4호분의 연대도 4세기 말로 볼 수 없고 5세기 중엽인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그 자체의 논리가 아무리 정치할지라도 길을 잘못 들 어선 것이라서 도로徒勞가 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400년 경자년조의 고구려 남정을 증시한다. 그 이유는 경자년조의 고구려 남정은 문헌사료이나 고고자료와 정합성을 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고자료로 볼 때 전기의 중심국인 금관가야가 쇠퇴할 뿐만 아니라 아라가야도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후기의 중심국인 대가야가 흥기하고 소가야, 비사벌이 대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특히 신라양식과 같이 보이는 김해지역의 토기양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 권역 설정의 기준과 배경을 제시하지 못했던 5세기 금관가야의 토기 양식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소가야에 대하여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에 둘러싸여 있으며, 매우 복잡한 토기양식을 보이고 있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던 5~6세기 창원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학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5세기 전반 창녕의 비사벌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특히 창녕양식 토기가 낙동강하류역과 남해안에 50년 이상 유통되고 토기양식영향을 준 것에 주목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함께 대가야, 비사벌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남강상류역의 기문국, 황강하류역의 다라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영역국가로 발전한 대가야의 국가형성 과정과 문명을 규명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국시대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II. 금관가야(金官加耶)

고 지질 연구에 의하면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지역은 서쪽을 제외한 삼면이 바다에 면한 섬과 같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었다. 더욱이 낙동강을 이용한 교통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해당하였다.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다호리고분군이 위치한 고 대산만연안에 중심읍락이 위치하였다. 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김해에서 배후 분지인 진례로 넘어가는 통로상에 위치한 양동리고분군 일대의 조만천변이 중심지로 성장한다.

3세기 중엽부터 김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대성동고분군에서 양동리고분군을 능가하는 대형목곽묘의 조영이 개시되며 이때부터 대성동고분군과 봉황토성이 위치한 해반천변이 중심지로 성장한다.

대성동고분군의 남쪽에 위치한 봉황동토성이 위치한다. 봉황대를 둘러싼 하단 폭이 20m에 달하고 내외면을 치석한 황강암으로 증석한 성벽을 가진 평지성이다. 봉황동토성은 토성내 유구에서 4세기 후반의 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이 시기에는 이미 본격적인 왕성으로 기능한 것으로 본다.

봉황동토성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한 토성의 구조와 규모로 볼 때 백제의 풍납토성과 신라의 월성에 필적하며 북쪽에 왕묘를 배치한 금관가야의 정치적 중심지임과 동시에 의례, 생산, 물류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금관가야의 취락은 왕성인 봉황동토성을 중심으로 하계리유적, 여래리유적과 같은 제철취락, 접안시설이 확인된 관동리유적, 신방리유적과 같은 항만취락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동리유적에서는 도로가 확인되어 왕성과 거점취락이 도로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성동고분군의 금관가야의 왕묘는 구릉의 낮은 쪽인 북쪽에서 높은 쪽인 남동쪽으로 순차 조영되었다.

대성동고분군에서 최초의 왕묘는 3세기 중엽에 출현하는데, 북쪽 구릉 중앙 단부에 조영된 29호묘이다. 이 고분에서는 시신이 안치되는 바닥면에 판상철부 100여점을 열을 지어 깔았으며, 음식물을 공헌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점의 토기가 북방계 동북과 함께 부장되었다. 이 시기부터 음식물을 공헌한 토기가 다수 부장된 것에서 가야인의 내세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양동리고분군에 보이지 않던 순장(殉葬)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4세기 전반 북쪽 구릉 중앙의 정상부에 입지가 탁월한 곳에 조영된 대성동90호묘에서는 로마유리기, 중원의 연호문경, 전연(前燕)의 청동용기와 마구, 일본열도산 통형동기가 부장되고, 4인의 순장자가 확인되었다. 게다가 같은 시기 북쪽 구릉에 88호묘와 91호묘가 조영된다. 대성동88호묘에서는 중국 중원의 진핍식 대장식구와 일본열도산 파형동기, 통형동기, 중광형동모, 경옥제 곡옥, 방추차형석제품 등이

부장되고 4인이 순장되었다. 91호묘에서는 전연(前燕)의 청동용기와 마구, 로마유리기, 류큐열도琉球列島산 패제품 등이 부장되고 5인이 순장되었다.

4세기 후엽 최전성기에 조영된 왕묘인 1호묘에서는 5인이 순장되고, 철정, 통형동기가 8점, 마주, 등자, 안금구, 행엽 등의 마구 조합이 출토되었다. 또 이 시기 가장 조형미가 뛰어난 발형기대와 유개장경호를 조합한 토기류가 다수 부장된다.

5세기 초의 왕묘급 고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5세기 전엽의 왕묘급 고분인 73호묘는 남쪽 구릉 단부의 중앙에 조영된 석곽묘로서 판갑, 경갑, 주로 구성된 철제 갑주류, 금제 이식, 금동제 화살통이 출토되었다. 부장칸에서 순장자가 1인 확인되었다. 이 고분은 같은 시기 부산 북천동고분군의 최고 수장묘인 북천동10호묘의 석곽과 크기가 유사하고 갑주 일습, 금제 이식, 금동제 화살통 등이 부장되고 순장이 실시된 점에서 왕묘급 고분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73호묘에서는 이제까지 인지되지 못했던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출현하여 주목된다. 즉 통형기대는 대성동73호묘 출토품과 같이 하부가 장고형인 것이 특징이며 창녕 계남리1호분 출토품과 같은 기대의 영향으로 본다. 즉 앞에서 언급한 이단교호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단각고배, 통형기대, 발형기대, 대부장경호, 유대파수부완으로 구성된 금관가야양식이 출현한다. 발형기대는 대각부를 포함한 전면에 파상문을 시문하고 삼각형의 투창을 뚫은 것으로, 창녕양식 토기의 영향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본다.

5세기 금관가야의 권역은 이제까지 불분명하였으며, 이는 5세기대 금관가야의 토기양식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이다. 5세기 금관가야양식은 김해식 단각고배가 특징으로 지적되어왔을 뿐 현재까지 설정되지 못하였다. 이시기 금관가야양식은 독자적인 양식이 뚜렷하지 않으나, 창녕양식의 영향에 의한 이단교호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단각고배, 통형기대, 발형기대와 신라양식의 영향에 의한 대부장경호, 유대파수부완을 들 수 있다. 이단교호투창고배는 무개식이며 대각하단이 직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단각고배는 투창이 소형이며 대각이 짧은 점이 특징이다. 통형기대는 하부가 장고형인 것이 특징이다. 발형기대는 대각부를 포함한 전면에 파상문을 시문하고 삼각형의 투창을 뚫은 것이 특징이다. 대부장경호는 신라양식과 유사한 무개식과 창녕양식의 영향을 받은 유개식이 있다. 유대파수부완은 신라양식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시기 금관가야의 권역은 대성동73호묘에서 확인되는 창녕양식과 경주양식의 영향에 의해 성립된 이단교호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단각고배, 통형기대, 발형기대, 대부장경호, 유대파수부완으로 등으로 볼 때 다음과 같다. 동쪽으로는 신라식 고총인 연산동고분군이 소재하는 부산지역과 동북쪽으로는 신라식 고총인 북정리고분군이 소재하는 양산지역과 경계를 형성한다. 북서쪽으로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집중 부장되는 창원분지에서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곡간통로의 동쪽에 위치하는 다호리고분군이 소재하는 고대산만의 서쪽까지로 본다. 남서쪽은 6세기 전엽까지 지속적으로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집중 부장되는 석동유적이 위치한 진해지역까지이다.

그런데 5세기 전엽 왕묘급고분인 73호묘가 조영되지만 그 규모와 부장품에서 쇠퇴가 완연하며 그 이후에는 대성동고분군에서는 탁월한 왕묘의 존재가 인지되지 않는다. 대성동고분군에서는 5세기 전엽 이후 더 이상 탁월한 왕묘가 축조되지 않는다.



도 2. 5세기 전엽 금관가야 양식토기(김해 대성동73호호묘)

그래서 5세기 이후 금관가야에 대해서는 그 중심이 부산지역의 북천동고분군이 조영된 동래지역으로 이동되었다는 설과 6세기 이후에는 북정리고분군이 조영된 양산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는 금관가야가 532년이 되어서야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금관가야의 왕권이 그 권역 내에서 지속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금관가야의 왕족인 김유신 계의 활약으로 볼 때 그러하다. 금관가야의 왕묘는 대성동고분군 북쪽에 있던 것이 파괴되었거나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본다.

5세기 부산지역과 김해지역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는 토기양식이 완전히 신라화되지만 후자는 창녕양식과 신라양식의 영향에 의해 새로이 금관가야양식이 창출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토기양식에 신라의 영향이 보이는 점은 400년 경자년조의 고구려 남정기사에 보이는 신라의 금관가야에 대한 영향력 증가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5세기 전반 왕묘가 대성동고분군에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왕성인 봉황토성이 존재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김해시 부원동, 관동리, 창원시 여래리 등의 거점 취락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가장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치상 봉황동토성을 방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김해시 나전리보루성이 6세기 전엽에도 왕성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아라가야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지역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다. 아라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함안군 함안읍 말이산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50여기의 고총이 5, 6세기대를 중심으로 조영된 말이산고분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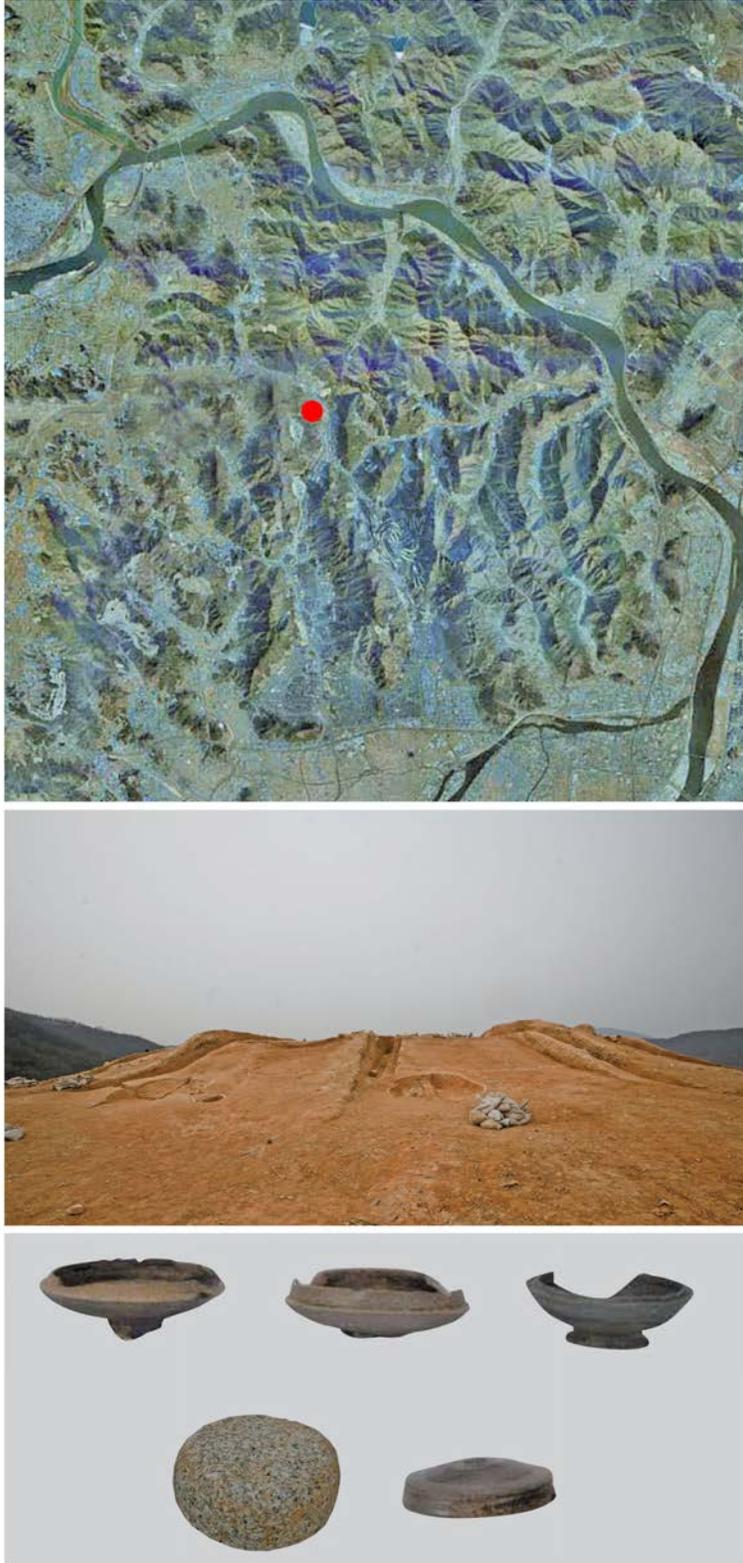
3~4세기 아라가야 대표적인 토기가마인 함안군 우거리요 출토 승석문호는 기벽이 매우 얇고 고화도로 소성한 것이 특징이다(李政根 2006, 정주희 2008). 동부의 함몰된 동부, 타원형의 구연부와 동부 측면의 중첩 소성흔으로 볼 때 옆으로 누인 채로 구운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이 승석문호는 같은 시기의 창녕군 여초리요, 대구시 신당동요, 경산시 옥산동요 등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한 도부호陶符號가 시문된 경우가 많아 그 식별이 아주 용이하다. 또한 횡치 소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3세기 후반 아라가야양식의 공자형고배, 통형고배, 노형기대, 승석문호는 3세기부터 4세기 후반까지 남강과 황강수계, 낙동강상류역을 포함하는 광역분포권을 형성하며 금강수계, 남해안 일대에서 출토된다.

5세기 초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남강하류역을 제외하고 낙동강상류역, 남강상류역, 황강수계, 남해안에 반출되지 않는다. 이 시기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쇠퇴하는 것은 5세기 초 광개토왕비 경자년조의 안라인安羅人 수병戍兵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쇠퇴하고 소가야가 이를 대신하는 것에서 그러하다.

5세기 아라가야 권역은 함안분지와 진동만 주변으로 파악된다. 서쪽은 4세기대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집중 이입되던 진주시 무촌리고분군 일대가 5세기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근을 경계로 하는 것으로 본다. 그 동쪽에 위치한 칠원분지에 소가야양식 토기와 창녕양식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점에서 함안분지의 동변을 경계로 한다.

아라가야양식의 승석문호는 3세기 중엽 함안지역의 말이산(문)35호묘에서 출현한다. 승석문호는 3세기 후엽 김해지역의 대성동59호묘, 대구지역의 문양리65호묘, 울산지역의 중산리75호묘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승석문호가 함안산인 것은 다른 지역이 함안지역보다 늦은 시기에 부장되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광역 분포권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 3. 6세기 전엽 금관가야의 보루성(김해시 나전리보루성, 동서문물연구원)

3세기 말 승석문화는 김해시 구지로1호묘에서 보이고 경주시 구정동1호묘의 3호곽에서는 횡치소성흔이 보이는 함안산의 소문화가 확인되기 때문에 아라가야세력이 김해지역과 울산지역을 거쳐 경주지역을 연결하는 관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본다. 이와 동시에 낙동강을 통하여 대구지역을 연결하는 관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세기 초 승석문화를 비롯한 함안산 토기가 영남지역 전역과 전남지역의 남해안일대와 전북지역의 호남동부지역에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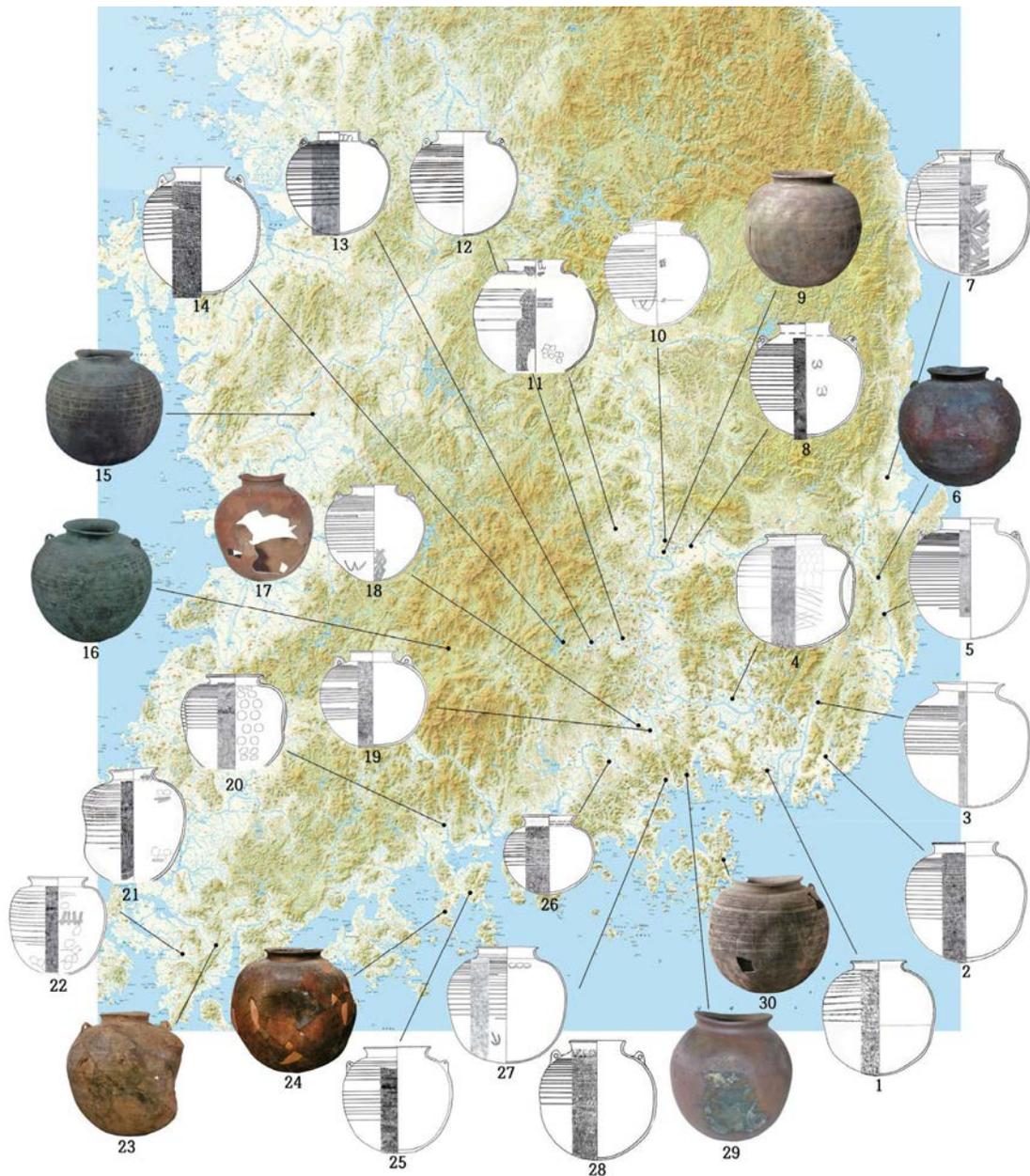
횡치소성흔과 도부호가 시문된 승석문화는 낙동강, 황강, 남강, 남해안일대에 분포권을 형성한다. 특히 금관가야의 대수장묘인 대성동13호묘, 동래지역의 대수장묘인 복천동38호묘, 다라의 대수장묘인 옥전54호묘, 대구지역의 수장묘인 비산동3호목곽묘에 함안산토기가 부장된다. 게다가 함안산토기는 가야지역 뿐만 아니라 경주시 구정동1호묘3호곽, 구어리1호묘, 울산시 중산리75호묘와 같은 신라지역의 수장묘에서도 부장되었다. 이처럼 함안지역산 토기가 가야 신라지역의 수장묘와 낙동강수계, 남강수계, 황강수계와 남해안일대의 교통로에 연한 거점 취락에 주로 이입되는 것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간의 경제적인 관계망뿐만 아니라 수장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분명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의 성립은 4-5세기 이 지역의 고분에서 철정과 이를 가공한 유자이가 다수 출토되는 것에서 철생산과 지리적인 이점을 살린 유통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초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남강하류역을 제외하고 낙동강상류역, 남강상류역, 황강수계, 남해안에 반출되지 않는다. 이 시기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쇠퇴하는 것은 5세기 초 광개토왕비 경자년조의 안라인安羅人 수병戍兵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안라安羅 즉 아라가야가 임라가라인 금관가야와 함께 고구려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타격을 입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쇠퇴하고 소가야가 이를 대신하는 것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가야 후기에도 아라가야의 위상은 『일본서기』 계체繼體23년(529년) 왜倭왕이 파견한 오우미노케나노오미近江毛野臣의 주재 하에 신라에 의해 멸망된 남가라인 금관가야와 탁기탄 등의 남부가야를 재건하는 회의가 아라가야에서 개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5~6세기 가야지역 내에서 함안군 말이산고분군이 고령지역의 지산동고분군 다음가는 대규모인 점에서 가야 후기에도 아라가야의 위상은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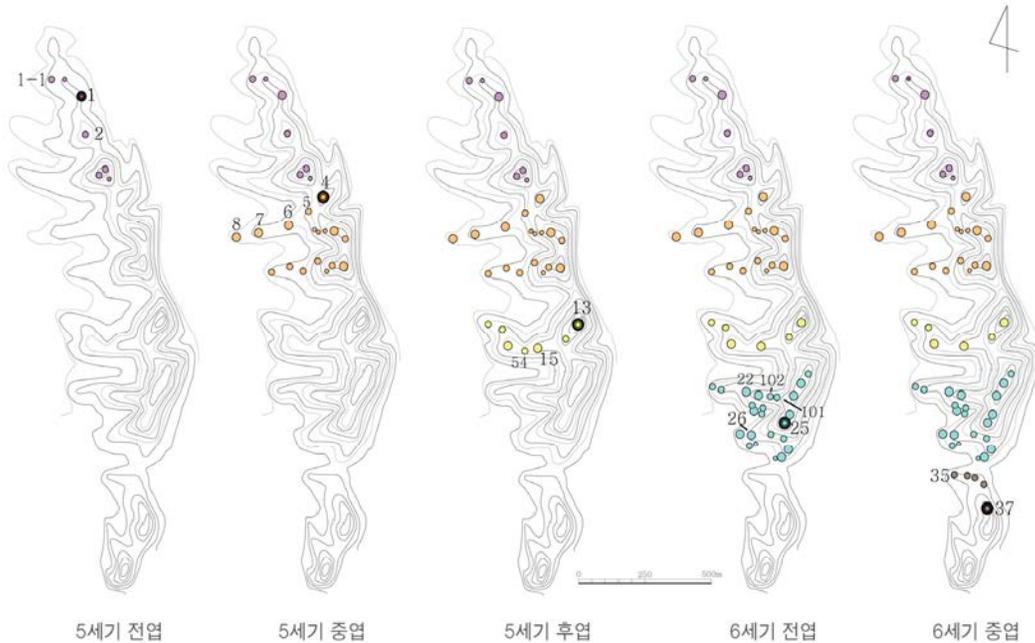
5세기 전엽 말이산 구릉 북쪽단부에 조영된 마갑총에서는 마갑 2령과 마주, 금동제 환두대도, 마구, 갑주, 무기가 출토되었다.

5세기 중엽 구릉 중앙부에 조영된 아라가야의 왕묘급 고총인 왕묘인 4호분에서는 심엽형 행엽, 왕족묘인 6호분에서는 철제 마주와 마갑, 철제 주胄, 금장 환두대도가 출토되었고, 왕족묘인 8호분에서는 금장 환두대도, 금동제 화살통矢筒, 은제 대장식금구, 금동제 심엽형 행엽과 편원어미형행엽 신라산 문물이 부장된다. 아라가야가 신라의 위신제인 금장 환두대도, 철제 마주, 마갑, 갑주甲胄, 금동제 마구를 도입한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아라가야가 대가야와 뚜렷이 구분되는 세력임을 말해준다.



도 4. 아라가야양식 승석문화의 분포(4세기, 박천수·정승복·이한별)

1김해대성동18호묘, 2부산북천동54호묘, 3양산소토리1호목곽묘, 4밀양귀명리310호목곽묘, 5경주구어리1호목곽묘, 6경주구정동3호묘, 7포항마산리149-4적석목곽묘, 8대구비산동2호묘, 9달성문양리30호목곽묘, 10칠곡심천리54호목곽묘, 11성주가암리45호(31호)주거지, 12합천옥전54호목곽묘, 13합천삼가(동) I 지구1-2호목곽묘, 14합천저포리A지구31호묘, 15공주남산리고분군, 16남원아영 출토품, 17,18함안우거리토기유지, 19함안도항리33호목곽묘, 20광양도월리(II)41호주거지, 21,22해남신금55호주거지, 23강진양유동6호주거지, 24여수화동6호주거지, 25여수고락산성3호주거지, 26진주무촌리3구39호, 27마산대평리2지구30호묘, 28마산대평리고분군, 29마산현동고분군, 30거제아주동9호주거지



도 5. 아라가야 왕릉의 축조 과정(박천수, 2016)

13호분이 위치하는 구릉사면에 위치한 5세기 후엽에 조영된 (문)54호분에 부장된 은장용문 환두대도는 용문과 제작기법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이 시기부터 대가야산 위신재가 이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6세기 초에 조영된 왕묘인 25호분에서는 신라산 금동제 화살통矢筒 1점 외에는 신라산 마구가 부장되지 않고 대가야산 금동제 화살통矢筒, 금동제 검릉형 행엽, 왕족묘인 26호분에서는 대가야산 금동제 검릉형 행엽과 내만타원형경관비, 대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되었다.

안야국에서 아라가야로의 성장은 4세기대 대형 목곽묘가 조사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나,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로 볼 때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관계망이 남강수계, 황강수계, 섬진강수계, 낙동강중상류역, 남해안일대에 형성되는 4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로 본다.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일본열도에까지 영향을 준 점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즉 시코쿠四國지방의 가가와현香川縣 미야야마宮山요, 미타나사부로이케三谷三郎池요와 같은 회청색경질토기인 초기 스에키須惠器요의 공인은 출토 토기의 형태뿐만 아니라 같은 시코쿠의 에히메현愛媛縣 사루카타니猿ヶ谷2호분과 후나카타니船ヶ谷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것에서 함안지역으로부터의 이주 민임을 알 수 있다.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광역분포권은 그 세력이 남강하구에서 수계를 거슬러 올라가 금강상류를 통해 백제지역과 교섭함과 동시에 일본열도와도 활발히 교섭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라가야 세력은 내륙교역의 회랑과 같은 남강수계를 통해 금강유역과 남해를 연결, 백제와 왜를 중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4세기 말 오사카大阪에서 개시된 일본 열도의 회청색 경질토기 생산에 금관가야계 공인이 주도한 점, 양동리, 대성동고분군 출토 중국·일본열도산 문물로 볼 때 아라가야세력에 의한 대외교섭의 중심적인 역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낙동강하류역에 분포가 한정되고 일본열도에서도 주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기나이지역에 주로 출토되는 것과 아라가야의 독자적인 관계망과 대외교섭으로 볼 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대외교섭의 독점과 이를 기반한 단일 연맹체설 및 금관가야 절대우위론은 성립될 수 없다.

6세기 아라가야는 일본서기의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실체인 안라왜신관安羅倭臣館이 설치되고 임나부 흥회의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에서 대가야와 함께 여전히 가야 후기의 중심국으로 대외 교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말이산고분군 왕묘의 축조 과정을 통하여 아라가야의 왕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세기 말 5세기 초 아라가야의 왕묘는 경전선 철로에 의해 절단된 구릉 북쪽 끝부분에 조성된 마감층이 배층처럼 사면에 조성된 점에서 현재 해동아파트가 위치하는 그 구릉 정상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세기 전엽에는 1-1호분 출토 토기로 볼 때 1호를 중심으로 북쪽 구릉 끝부분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

5세기 중엽에는 북쪽 구릉 중앙부 입지가 탁월한 곳에 왕묘급 고총인 4호분이 조성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조성된 8호분, 6호분의 경우 입지는 4호분에 비할 수 없으나, 수혈식석곽의 규모가 4호분과 같은 10m 내외이고 5, 6인이 순장된 점이 주목된다. 즉 왕릉인 4호분과의 배층 즉 왕족묘로 추정되는 6호분, 8호분과 격차가 보이지 않고, 더욱이 부장품 질과 양도 이에 필적하기 때문이다. 3기의 고분으로 볼 때 왕릉과 왕족묘는 같은 작은 구릉 위에 자리하고 모두 동일한 규모인 점에서 왕릉의 격절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5세기 후엽에는 구릉 중앙부에 왕릉으로 추정되는 13호분을 비롯한 고분이 조성된다. 이 시기에도 같은 규모의 고총이 여러 소구릉에 분지되어 조성된다.

6세기 전엽에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25호분을 비롯한 고총이 조성된다. 이 시기에도 이전시기와 같은 양상이 확인된다. 즉 왕릉으로 추정되는 25호분이 4호분, 13호분과 같이 구릉 정상부에 축조되나, 역시 같은 시기에 동일 능선에 조성된 26호분은 입지는 25호분에 비할 수 없으나, 수혈식석곽의 규모가 10m 내외이고 부장품과 순장자수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6세기 중엽에는 남쪽 구릉 끝부분에 35호분, 37호분을 비롯한 고총이 조성되며 규모가 축소된다.

그런데 아라가야의 왕릉은 1호분, 4호분, 13호분, 37호분의 순서로 축조되지만 각 왕릉은 각각의 독립된 구릉에 배층과 함께 완결되어, 왕릉간에는 단절이 보여 특기된다. 순장에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왕권이 특정 수장계열에 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왕릉에 필적하는 왕족묘가 6세기에도 존재하는 점에서 왕권의 한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간 아라가야는 562년 대가야와 함께 신라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파악되어왔으나, 말이산고분군의 조영이 정지되고 근래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으로 볼 때 그 이전에 멸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소가야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지역은 남해안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반도를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나아가면 사천을 거쳐서 남강중류역의 진주에 접한다. 동쪽으로 나아가면 당항만을 거쳐 진동만, 마산만, 고 김해 만에 달하고, 또 연안항로를 따라 나아가 거제도를 거치면 곧바로 쓰시마對馬에 도달한다.

소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5, 6세기대 고성군 고성읍 서북쪽 구릉의 정상부에 10여기의 고총으로 구성된 송학동고분군과 이곳에서 동쪽 동해면의 한려수도에 면한 60여기 고총군으로 구성된 내산리고분군이다.

고성읍은 송학동고분군이 현재 10여기에 불과하나 원래 수십기의 고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북부 규슈산 광형동모와 야요이토기가 출토된 동외동유적이 인접한 점에서 소가야의 중심지로 파악된다.

소가야권역은 5세기 전반 이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인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기대와 같은 토기 양식과 고성군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울대리고분군, 통영시 남평리고분군, 합천군 삼가고분군, 산청군 중촌리고분군, 진주시 가좌동고분군의 선분구식과 다곽묘라는 특유의 묘제의 분포로 볼 때 고성반도를 중심으로 남해에 면한 통영, 사천, 여수지역과, 산청남부와 합천남부, 진주를 비롯한 남강중류역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소가야권에 종래 토기양식이 복잡하여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마산만에 면한 창원분지와 구 마산지역의 덕동만일대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덕동만에 면한 현동고분군에서는 4세기대에는 함안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되다가 5세기에는 고성 소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된다. 또한 이시기부터 5세기 중엽까지 창녕양식 토기가 부장된다. 중요한 점은 거의 1세기에 걸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제작 사용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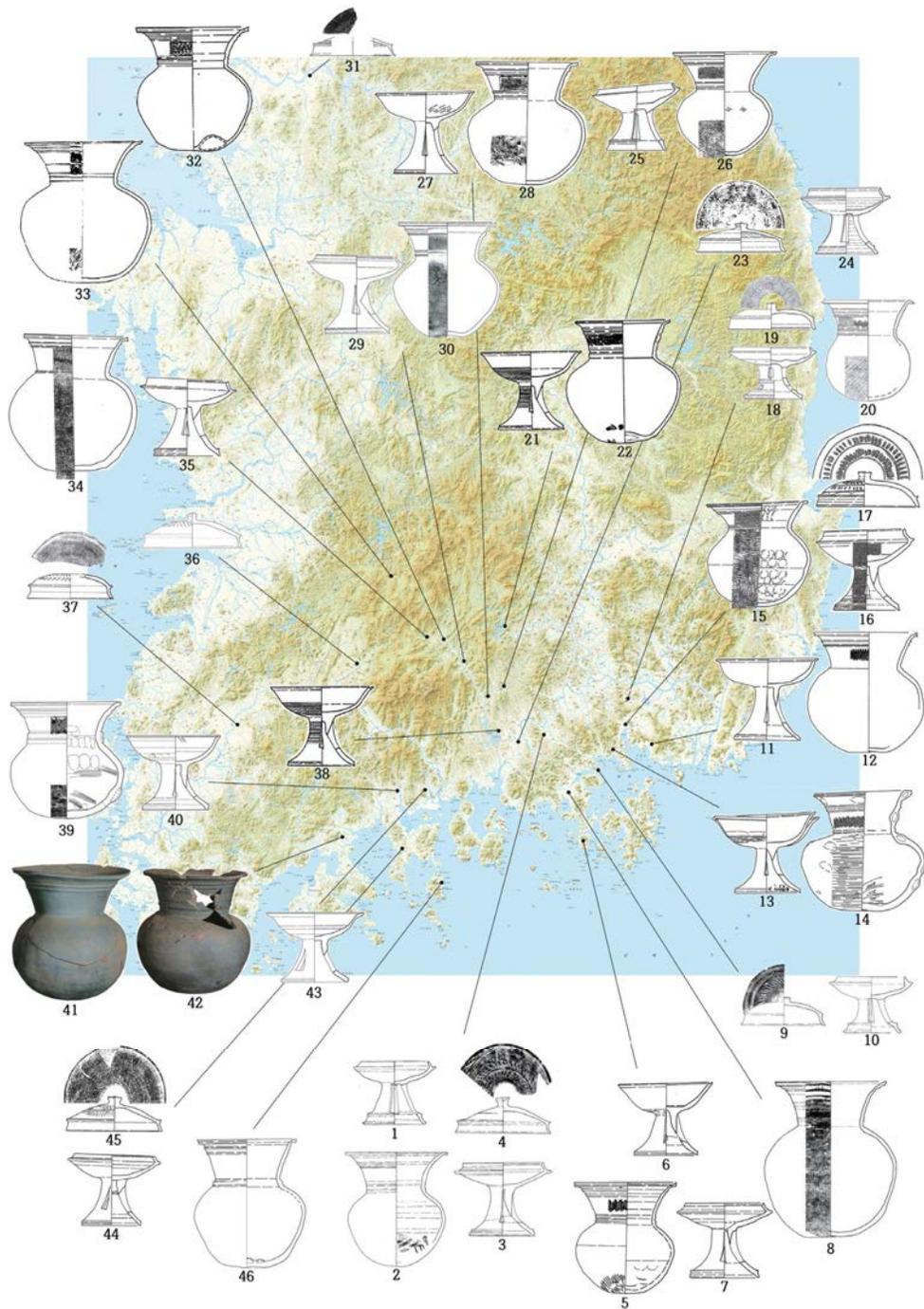
이는 5세기에 조영된 합성동고분군에서도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창녕양식 토기가 다수 부장되는 점은 현동고분군의 양상과 동일하다.

그런데 합성동고분군의 직경12.5m에 달하는 목곽분인 1호분은 4세기 후엽의 선분구식인 소가야형 목곽묘로서 규모가 탁월한 점에서 수장묘로 평가된다. 합성동고분군이 소재하는 팔령산 사면의 입지가 탁월한 정상부에는 연접한 2기의 고총이 존재한다. 이 고총의 시기는 분구 상면에 석곽이 노출된 점에서 분구식으로 석곽묘의 연대와 같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고총이 조영되어 고분군을 형성한 점에서 이 지역을 하나의 국이 소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산만과 덕동만에 면한 창원지역은 1세기에 걸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제작 사용되고 중심지가 존재한 것에서 소가야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국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세기 동외동유적과 송학동1호분 하층에서 출토된 토기가 함안양식의 장각 노형기대, 통형고배, 승석문양이부호인 점에서 4세기에는 고성세력이 아라가야의 관계망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세기대 소가야양식 토기의 중심분포권에 속하는 진주시 무촌리고분군에서도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같은 형식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4세기대에 부장되는 것에서도 그러하다.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토기가 아라가야양식을 교체하듯이 남강중상류역, 황강중상류역과 남해안에 걸쳐서 유통되고 또한 금강수계의 백제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와 남해안에 출현한다.



도 6.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5~6세기, 박천수·이한별)

- 1고성연당리18호분 2-4연당리14호분 5~6통영남평리1호석곽 7남평리10호분
 8고성송학동1A-1호묘 11, 12진해석동(동)62호묘 13마산현동(동)103호석곽묘
 15마산합성동60호석곽묘 16,17마산합성동30호석곽묘 18-20창원동전리10호묘 21,
 22합천저포리A지구1호묘 23,24진주가좌동39-6 1지구1호석곽묘 27,28산청중촌리3호북목곽묘
 29,30산청목곡리16호묘 31서울풍납토성경당지구 32함양손곡리2호묘 33장수삼고리13호묘
 34,35남원광평2호묘 36남원천사리2호수혈 37광주동림동102호북동구상유구 38진주우수리18호묘
 39,40보성조성리구상유구 41,42고흥장덕리장동M1호목곽 43여수죽포리고분군
 44,45여수죽림리차동15호주거지



도 7. 창원시(동)현동103호 목곽묘 출토 철정과 철기(동서문물연구원)

덕동만에 면한 현동고분군에서는 철정이 4세기에는 금관가야의 대성동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한 좌우 대칭형 철정인데 반해, 5세기에는 좌우 비대칭형 신라형 철정으로 변한다. 소가야는 4세기대는 금관가야산 철소재를 수입하였으나, 5세기에는 창녕양식토기와 철정이 공반하는 점에서 이 지역을 중계로 신

라산 철소재를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세기 금관가야의 철을 수입하여 교역하였으며 그 상대는 남해안과 서해안에 면한 영산강유역에서 좌우 대칭형 철정이 보이는 점에서 구 마한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400년 고구려 남정의 영향으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철의 교역 시장이 붕괴되자 창녕세력을 매개로 신라의 철소재를 수입하여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 교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양 지역의 묘제가 선분구형인 점과 영산강유역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다수 이입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창녕양식 토기가 남해안을 따라 이입되고 해남 일평리에서는 다수 출토된 점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시기 소가야양식 토기가 일본열도에서 출현한다. 특히 나가사키현長崎縣 쓰시마對馬에 집중하고, 후쿠오카현福岡縣 아사쿠라朝倉요와 에히메현愛媛縣 이치바미나미쿠미市場南組요의 초기 스에키須惠器요의 공인은 출토 삼각투창고배와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유공광구소호, 기대가 소가야양식인 점에서 고성지역에서 이주한 공인일 가능성이 높다.

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월산리M1호분은 M1-A호곽을 중심으로 동쪽에 6기의 중소형의 B-G곽이 연차적으로 봉토를 연결하여 축조된 다곽분이다. 합천 저포리A지구1호석곽묘는 목곽묘가 축조되던 이 지역에 돌연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석곽묘가 출현하는데, 이는 소가야와 연계하는 가운데 새로운 묘제가 수용된 것이다. 즉 소가야권역은 이전 시기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은 묘제가 공유되지 않으나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은 선분구식 다곽식의 묘제를 공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세기 소가야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이는 포상팔국 전쟁이다. 이 기사는 고성 고자국을 중심으로 한 5세기 초에 결성된 소가야연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포상팔국의 공격대상에 대하여 아라가야인 아라국阿羅國 또는 금관가야인 가라국加羅國으로 문헌사학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고고자료로 본다면 그 대상은 4세기 말, 5세기 초 남해안과 남강수계의 관계망을 둘러싸고 소가야가 경쟁하고 있는 아라국阿羅國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기년은 불분명하나 포상팔국 전쟁의 배경은 남해안의 교역을 둘러싼 포상팔국과 아라가야의 갈등으로 결국 아라가야가 승리하였으며, 이는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를 통한 광역관계망의 형성에서 추론된다.

그런데 소가야는 5세기에 접어들면 3~4세기 남해안과 남강유역의 교역을 주도하였던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수계와 남해안일대에 소가야가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 시기 아라가야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400년 광개토왕릉비 경자년조庚子年條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가야가 쇠퇴한 이시기 소가야는 남해안과 남강수계의 교역권을 아라가야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5세기 전반 소가야는 아라가야에 직접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경남 서부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시기에 형성된 각 국간에 형성된 관계망은 이전 시기의 포상팔국 연합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포상팔국 전쟁은 5세기 초에 형성된 소가야권의 범위와 형성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지역에는 왕릉을 포함하는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한다. 이 고분군의 북쪽에 인접하는 기월리2호분도 직경 50m 전후에 달하는 점에서 왕릉으로 판단된다.

5세기 후엽에 축조가 개시된 소가야의 왕묘인 송학동1호분은 고층이 연결하여 순차적으로 축조되어 일본 고분시대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같은 분구를 형성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하니와埴輪와 같이 분주토기를 수립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1A호분은 고성지역 재지의 수혈식석곽묘, 1B-1호분은 현문에 입주석이나 문비, 목봉木柵 설치되어 있고 석실 내부가 붉게 칠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본 북부 규슈九州지방과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기이紀伊 지방과 고분과 유사한 왜倭계 횡혈식석실묘, 1C호분은 현문에 입주석이나 문비가 없는 고성지역 재지의 횡혈식석실묘이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로 볼 때 1호분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까지 약 50년간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소가야의 성장은 고구려 남정 이후 대외 교섭의 중심이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남해안일대와 내륙지역에서의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해체하기 시작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즉 소가야의 성장은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관계망이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상류역, 황강상류역, 섬진강수계, 남해안일대에 형성되는 5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로 본다.

소가야는 고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소국연합이나 이 지역에도 송학동고분군에 필적하는 내산리고분군이 존재하고 산청군 중촌리고분군에도 대형분이 조영된 점에서 연맹국 간에는 대가야권, 아라가야권과 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명확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토기는 광양시 칠성리유적, 광주시 동림동유적, 서울시 풍납토성 경당지구 등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칠성리유적과 동림동유적, 풍납토성에 인접한 몽촌토성에서 일본열도산 스에키가 출토되어 이 시기 소가야세력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기반으로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계교역 활동을 한 것으로 상정된다. 즉 소가야세력은 남강 중류역의 산청군 옥산리·묵곡리유적 출토 백제문물과 서울시 풍납토성의 소가야양식 토기 및 몽촌토성의 스에키로 볼 때 함안세력을 대신하여 남강수계와 금강수계를 통해 백제지역과 교섭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일본열도를 중계했음을 알 수 있다.

5세기 후반에는 종래 소가야와 연계되었던 황강 상·중류역, 남강상류역과 남해안일대의 관계망이 와해되고 대가야에 의해 새로운 관계망이 구축된다. 즉 소가야 권역에 속했던 지역들이 대가야 권역에 편입되는 것이다.

6세기 전반에는 소가야 권역 내의 수장묘역인 고성군 송학동고분군, 울대리고분군, 산청군 중촌리고분군, 진주시 옥봉·수정봉고분군에서는 대가야산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 토기가 부장되고 대가야양식 토기와 소가야양식 토기가 함께 일본열도로 반입된다. 이는 『일본서기』의 이른바 임라사현, 기문, 대사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가야의 대외 교통로인 섬진강로가 백제에 의해 차단된 이후의 남해안에 새로운 출구를 확보하려던 대가야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송학동고분군에서 6세기 중엽 이후에 수장묘가 조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가야는 562년 대가야의 멸망을 전후하여 종언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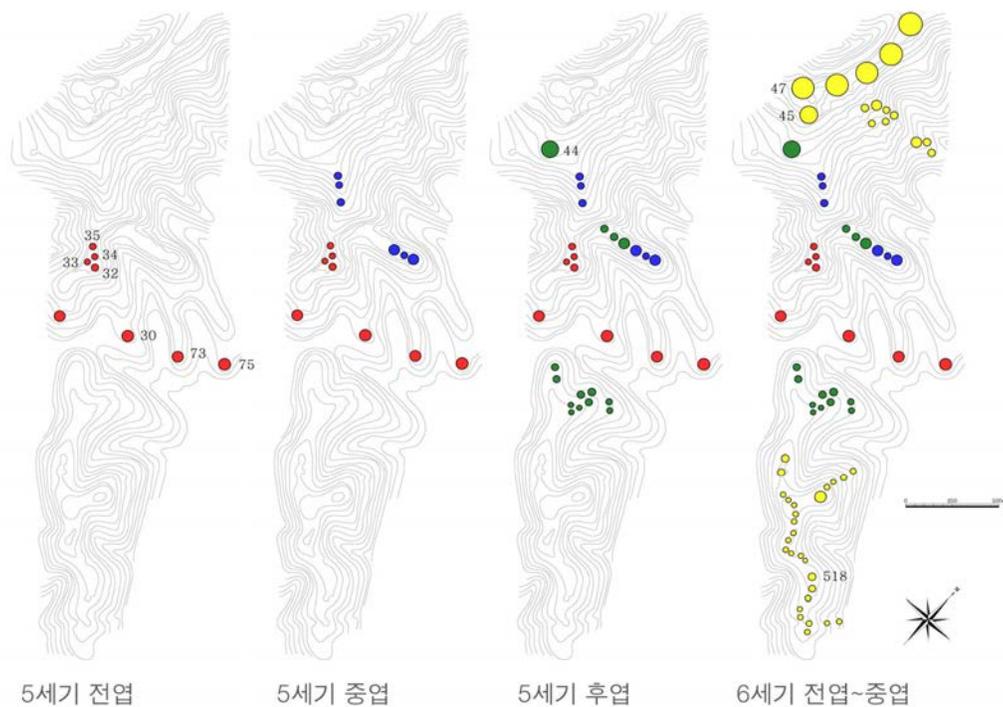
V. 대가야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지역은 내륙에 있으나 회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쉽게 낙동강에 접근할 수 있고, 안림천 지류에 의한 곡간통로를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면 황강에 접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대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배후의 가야산을 배경으로 고령읍을 감싸는 주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높은 구릉의 정상부에 거대한 봉토분이 열을 지어 일대장관을 이루고 있는 지산동고분군이다.

지산동고분군의 북쪽 산 정상부에는 대가야의 거점 산성인 주산성이, 또 동쪽 구릉 기슭에는 대가야 왕궁지가 위치하고 이 고분군의 외곽에는 규모가 작은 본관리, 월산리, 도진리, 박곡리고분군과 이에 연계된 산성이 포진하고 있다. 지산동고분군은 5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까지 조영된 가야지역 최대 규모의 왕묘를 포함한 대가야의 중심 고분군이다.

5세기 전엽 지산동고분군에서는 남쪽 가지 능선 말단부에 중형분인 30호분과 73호분, 75호분이 축조된다. 척릉 말단부에 조영된 55호분도 위치로 볼 때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왕릉인 73호분은 지산동고분군의 가지 능선 중 중간 능선의 말단 정부에 입지한다. 매장주체부는 목곽으로 하는 봉토분으로 주곽과 부곽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광의 충전보강적석 내부와 봉토 중에 순장곽을 배치하였다. 이 고분은 장대한 묘광과 목곽, 다수의 순장이 행해졌으나, 도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장품의 질과 양은 후장厚葬이라 보기 어렵다. 순장곽에서 출토된 금동제 조우형鳥羽形 신라산 관식과 백제산 환두대도가 보



도 8. 대가야왕릉의 축조 과정(고령군 지산동고분군, 박천수 2016)

여주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대가야양식의 금동제 장신구와 마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73호분은 이 시기 대가야의 발전상을 나타내면서도 그 한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5호분은 73호분에 비해 약간 늦은 시기에 지산동고분군의 가지 능선 가운데 동쪽 능선의 말단 부분에 축조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이혈 묘광내에 주곽과 부곽을 축조하였다. 석곽의 묘광내 장벽을 따라 거의 같은 간격으로 순장곽 8기가 사방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봉토내 순장곽을 포함하면 10인 전후가 순장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심한 도굴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황남대총과 금관총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14점의 철정과 마갑이 확인되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대가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제 내만타원형경판비, 검릉형형엽, 은장안고가 출현한 점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지산동고분군에는 분지한 구릉하부 선단에 앞에서 언급한 4기의 왕묘급 고총이 약간의 시기와 규모차를 보이면서 축조된다. 또한 각 분지한 구릉상에 지속적으로 고분이 축조되는 것에서 각 구릉은 하나의 수장 가계家系씩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각 왕릉급 고분의 시기와 규모의 차이는 각 왕과 왕에 필적하는 유력수장의 사망 시기와 권력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이처럼 5세기 초 지산동 고분군에서 여러 개의 왕릉급 고총이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주목된다. 즉 지산동고분군에 수장급 고총이 여러 개가 조영된 것은 대가야의 대내외적 성장이 대가천, 안림천, 회천 수계의 제 집단의 통합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즉, 지산동고분군의 조영 계기는 이 고분군의 성립기에 여러 계열의 왕릉급 고총이 확인되어, 특정 세력이기보다는 각 수계의 여러 세력의 결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5세기 중엽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척릉 중하위에 32~34호분 등이 조영된다. 이 시기 고령 대가야양식 토기와 묘제, 매장의례, 장신구, 무기, 무구, 마구, 농공구 등이 경남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동부지역에까지 확산된다.

남강상류역의 남원 아영지역에서는 수장묘로서 고총인 월산리M1호분이 출현한다. M1호분에서는 소가야양식 발형기대가 유존하는 가운데 고령지역에서 제작된 발형기대를 포함한 대가야양식 토기와 이를 모방하여 재지에서 제작한 토기가 부장된다. 그 결과 대가야양식 토기가 다수를 점유하고 소가야양식 토기가 적어진다.

그래서 5세기 중엽에 인접한 옥전 고분군과 반계제고분군이 소재한 황강 수계에 선행하여 남원 아영지역에 가장 먼저 대가야의 영향이 미친 것이 특기된다. 대가야의 분명한 진출 방향과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가야가 남강상류역의 아영지역을 확보하고 섬진강수계와 금강수계에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가야의 진출과정에서 가장 중시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5세기 후엽에는 지산동32-35호분과 44호분 사이 척릉에 87호분, 96호분, 97호분이 조영되고 동시에 동쪽 가지 능선에 77호분 등이 축조되는 것으로 볼 때 아직 특정 수장계보에 의한 왕권의 장악은 확인되지 않는다.

『남제서南齊書』열전 동남이전東南夷傳 가라국조加羅國條에는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 使來獻 詔曰 景廣始登 遠夷怡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遊 可授輔國將軍本國王”라는 기사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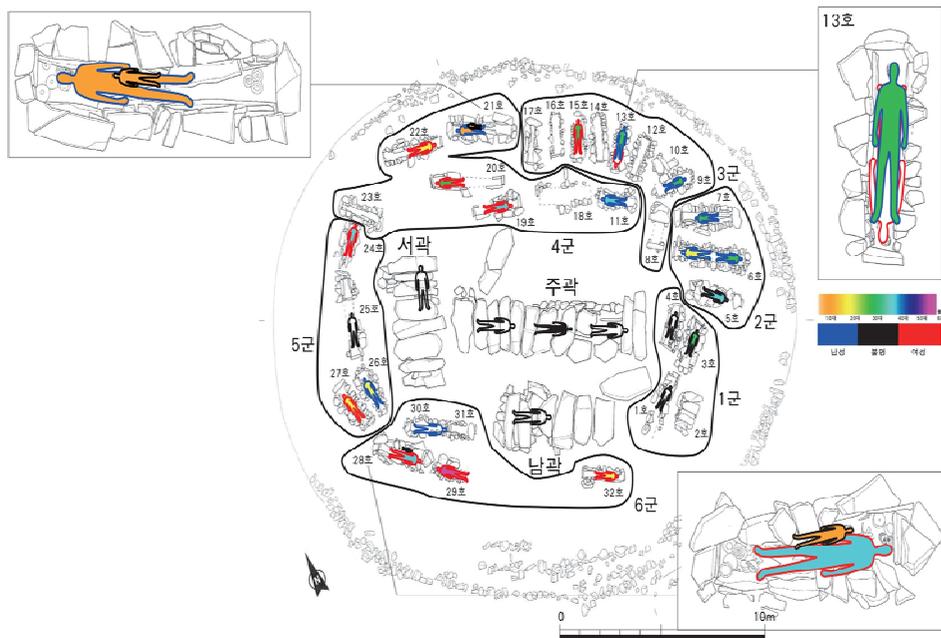
이 기사를 통해 대가야가 479년에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고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이란 작위를

제수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대가야가 멀리 중국의 남조와 통교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가야가 독자적인 힘으로 중국과 교섭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당시 대가야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가야는 중국과 통교함으로써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기회로도 활용하였을 것이지만, 보다 중시했던 것은 주변 가야 여러 나라들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5세기 후반대의 대가야는 그 세력이 섬진강 하구의 하동지역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직접 통교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내륙의 대가야가 단독으로 중국과 통교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대가야왕 하지가 제수 받은 '보국장군'은 남제의 제3품에 해당된다. 남제로부터 제2품을 받은 고구려, 백제, 왜의 국왕보다는 1급이 낮은 것이나 최초의 사신 파견으로 이러한 작호를 받게 된 것은 남제가 대가야의 국제적 지위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79년 대가야가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보국장군본국왕에 책봉된 것은 대가야가 가야의 여러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 나라임을 과시하고, 나아가 다른 삼국과 같이 한반도 내의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공인 받은 것이라 하겠다.

5세기 말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척릉 정상부 바로 아래에 44호분이 조영된다. 이 고분은 1기의 대형 주곽과 2기의 대형 부곽을 중심으로 주위에 방사상으로 32기의 순장곽을 배치한 구조로서, 순장자는 주곽과 부곽에서도 확인되어 모두 35인 이상이 순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 9. 대가야 왕릉의 순장(고령군 지산동44호분, 김용성 2013수정, 박천수·신상백)

지산동44호분에 순장된 사람은 호위무사, 의례관련자, 재산관리자, 시종, 비첩 등을 포함하여 묘주의 가까이에서 주인의 생활 각 방면에서 봉사하는 성격의 근신자들이며, 가족 단위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



도 10. 대가야양식 토기와 대가야산 금제이식으로 본 대가야권역(5세기 후엽, 박천수·김은숙)
 1고령지산동23-34합사유구, 2지산동44호분 3지산동45호분 4지산동45호분 5합천옥전M4호분
 6옥전28호묘 7옥전M4호분 8-9합천반계제다A호분 10,11거창출토품 12,13거창무릉리3호분
 14,15함양백천리1호분 16진안황산리고분군 17장수봉서리고분군 18임실금성리1호분
 19,20곡성방송리리고분군 21,22남원월산리M5,6호분 23남원두락리1호분 24,25두락리32호분
 26순천운평리M2호분 27운평리M1호분 28,29운평리M2호분 30하동흥룡리고분군
 31산청생초M13호분

이다. 이러한 순장의 근본 목적은 사후세계에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 데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용성 2013). 지산동44호분에서는 부장품으로 일본 오키나와 근방인 아마미오시마제도奄美諸島산 야광패夜光貝와 백제산 동완 등 외래의 위신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지산동44호분에서는 전시기의 지산동고분군에서 볼 수 없었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분은 대가야권의 같은 시기 다라국의 왕묘급 고총인 합천군 옥전M4호분뿐만 아니라 아라가야의 왕묘급 고총인 함안군 13호분과 소가야의 왕묘급 고총으로 추정되는 고성군 송학동1호분에 비해 2기의 부곽을 가진 것, 순장,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점이 특기된다.

그런데 44호분이 축조되는 시기에는 지산동고분군에서 이에 필적하는 대형분이 가지 능선에 더 이상 조영되지 않는데 반해, 본관동고분군, 박곡동고분군, 월산리고분군, 도진리고분군에서 수장묘인 고총의 조영이 개시된다. 이는 5세기 후엽까지 지산동고분군의 가지 능선에 고분을 조영하였던 대가천, 안립천, 회천수계의 수장이 그들의 본거지에 수장묘를 조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산동고분군은 5세기 말에 이르러서 특정 수장계열의 왕묘역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수 집단의 공립에 의했던 왕권이 특정 수장계열에 고정되어 세습화가 시작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시기는 대가야가 479년 남제南齊에 견사遣使한 직후인 점에서 대가야의 내 외적인 획기적 발전기로 평가된다. 그 증거로 남원시 월산리M5호분은 다곽식인 소가야 묘제에서 탈피하고 대가야양식의 금제 수식부이식, 갑주, 마구와 함께 중국 남조산 청자 계수호가 부장된 점을 들 수 있다. 대가야산 이식은 5세기 후반 월산리M5호분과 함께 6호분, 함양군 백천리고분군, 장수군 봉서리고분군, 고성군 방송리고분군, 순천시 운평리고분군 출토품으로 볼 때 대가야 양식의 토기와 묘제와 함께 대가야권역에 분포하는 위신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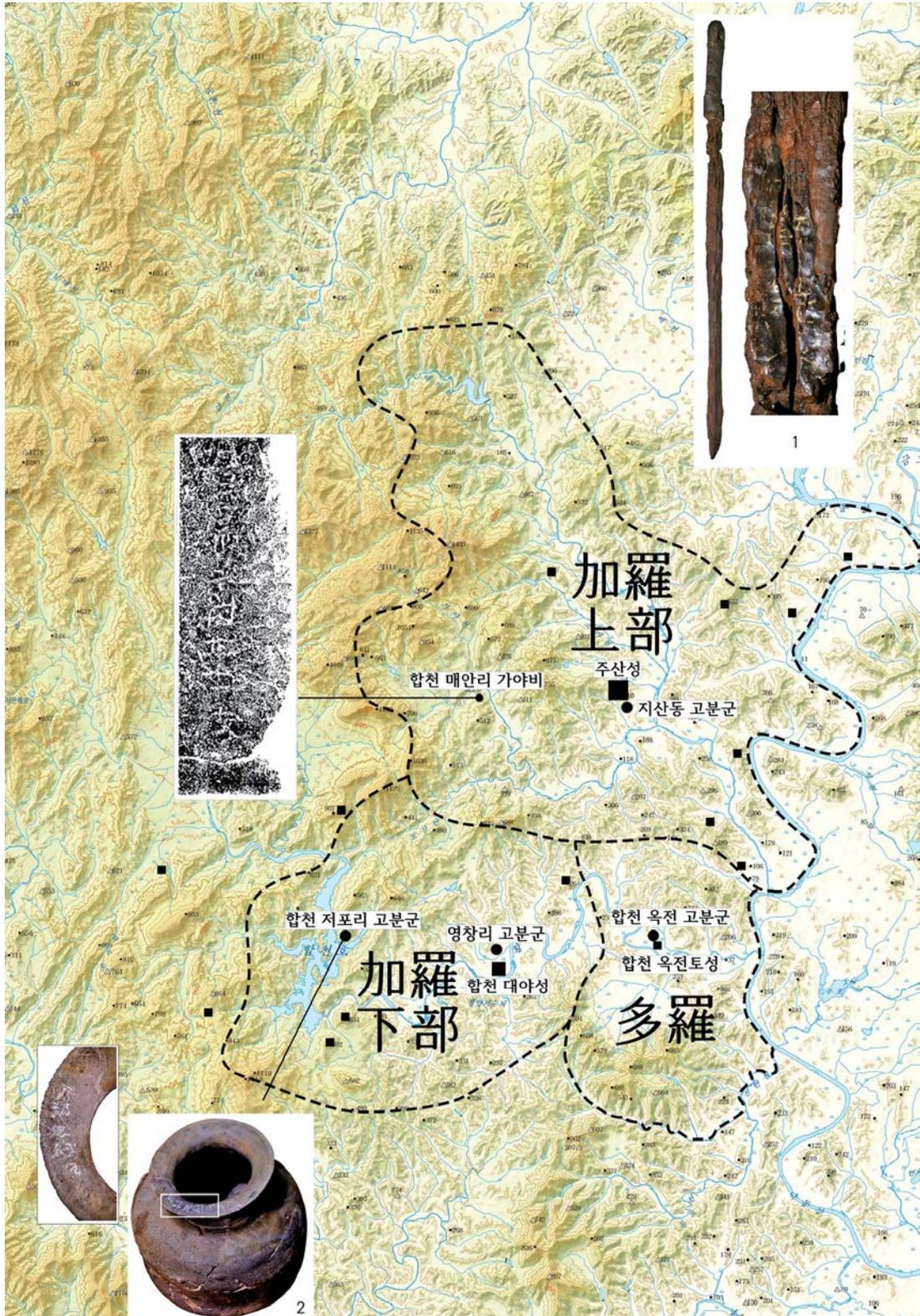
토기양식과 묘제의 분포로 볼 때 5세기 후반 전성기의 대가야권역은 고령을 중심으로 황강수계의 운봉, 아영, 섬진강수계의 하동, 남해안의 여수, 금강수계의 진안에 걸친 지역이다.

6세기 전엽에는 지산동고분군의 최릉 정상부에 직경49m에 달하는 초대형분인 47호분을 위시한 일계의 누세대적인 왕묘역이 형성된다. 이는 대가야가 아라가야나 소가야와는 달리 이전 시기부터 세습화가 시작된 왕권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창원 중동유적은 대가야양식의 통형기대, 발형기대, 장경호, 고배, 개배를 제작한 6세기 전엽에서 중엽에 걸친 요지인 점이 주목된다. 대가야가 공인을 파견하여 토기 양식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시기 대가야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6세기 전엽 섬진강로의 항구인 하동을 상실한 대가야는 진주를 통하여 사천만과 창원을 통하여 마산만의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6세기 중엽에는 대가야양식 대왕大王명 장경호와 함께 합천군 저포리E지구4호분 출토 하부下部명 단경호가 주목된다. 이 대가야의 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창녕 교동11호분 출토 명문대도에 상부上部가 보이는 점이다. 11호분 출토 명문대도는 원두 측면의 문양띠가 대가야의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와 마구에 널리 사용되는 점(金玉大 2017:250-251)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도 11. 대가야의 상부와 하부의 비정(박천수·이한별)

그리고 우륵于勒 십이곡에도 상가라도上加羅都 하가라도下加羅都가 보이는 점에서 대가야의 왕도는 상·하로 편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왕도를 상부로 하부명 토기가 출토된 합천지역을 하부로 편제한 것이다. 하부의 치소는 대야성으로 보며 그 범위는 합천읍에서 봉산일대까지로 본다. 이곳에 하부가 설치된 이유는 왕도에 인접한 점과 함께 합천읍은 삼가지역을 통하여 남강중류역로 나아갈 수 있는 요충지인 점과 봉산일대는 거창을 통하여 백제와 남강상류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황강하류역의 다라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인 점도 들 수 있겠다.

6세기 전엽 대가야는 왕도인 고령과 인접한 합천읍, 봉산면 일대를 하부로 두어 왕기王畿로 하며 그 권역을 중앙과 지방으로 편제하였다. 이는 『일본서기』 계체繼體 23년조(529년) 대가야왕이 하동지역을 대가야의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과 신라의 왕녀를 여러 현에 분산시켰다는 기사로 볼 때 영역관념의 형성과 그 내부를 중앙과 지방으로 편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대가야는 대왕을 칭하며 가야의 제 세력에 대한 구심체로서 결집을 시도했으나 6세기 전엽 백제가 섬진강하구를 점령하게 되면서 남해안의 제해권과 교역항을 상실한다. 이후 대가야와 일본의 교역도 퇴조하며, 이는 대가야의 쇠퇴 및 멸망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 후 신라가 낙동강을 넘어 가야지역에 진출하고, 금강상류역과 섬진강수계에 백제세력이 압박해 들어오는 가운데 562년 대가야는 신라에 의해 멸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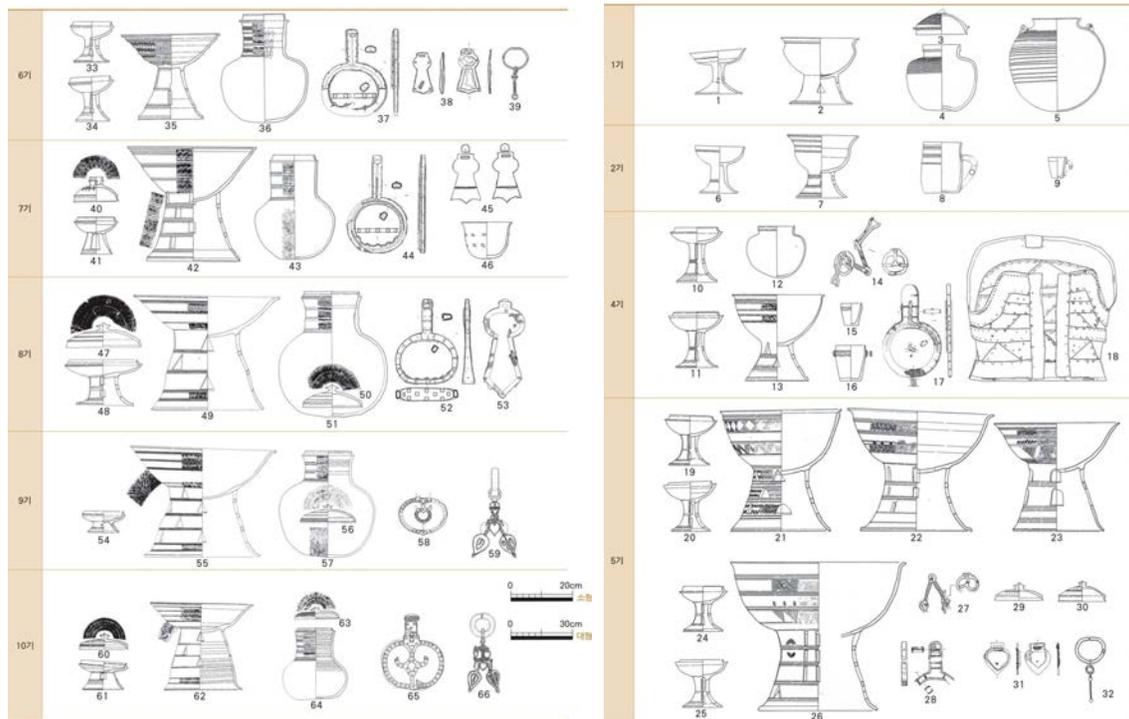
Ⅵ. 다라

다라국은 황강하류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황강 상류역에서는 북으로 신평령을 넘으면 백제영역인 금강수계인 무주와 연결되고, 서쪽으로 나아가면 남강수계인 함양과 연결되며, 창녕지역에 면하고 있다.

왕묘역인 옥전고분군은 낙동강과 합류하는 하구에 인접한 황강黃江 북안의 돌출한 구릉에 위치한다. 고분군의 동남쪽 황강 북안의 돌출한 해발 50m 구릉 말단부에는 성산리토성이 입지한다. 다라국은 황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는 합천 쌍책과 초계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자는 왕의 거주공간으로 후자는 민의 거주공간이다.

다라의 영역은 북쪽으로는 대가야와 경계를 이루고 동측은 낙동강에 접한다. 남쪽은 수장묘가 확인되지 않는 초계분지까지 포함한다. 서쪽 경계는 원래 황강을 거슬러 올라가 대병면 부근까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간에 위치하는 합천읍도 원래 다라의 영역이었으나, 5세기 후엽 이후는 대가야의 직할령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는 합천읍 소재지에 위치하는 영창리고분군과 대야성의 출현에서 알 수 있다.

옥전고분군은 몇 개의 능선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며, 수장묘역은 4세기에는 동편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조영되다가, 5세기이후 서쪽 건너편 능선으로 이동하여 조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동쪽의 능선 정상부에 왕묘인 54호묘, 23호묘 등이 조영되다가 5세기 전엽 봉토분이 등장하면서 건너편 서쪽 능선으로 묘역이 옮겨져 조영된다.



도 12. 다라국 고분의 편년과 출토 유물의 변화

1기(옥전54호목곽묘) 2기(옥전27호목곽묘) 4기(옥전68호목곽묘) 5기(옥전23호분)
6기(옥전35호분) 7기(옥전M1호분)8기(옥전M3호분) 9기(옥전M4호분) 10기(옥전M6호분)

54호묘는 4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조영된 대형의 장방형 위석식목곽圓石式木槨묘이다. 이 고분은 규모로 볼 때 왕묘로 파악되며, 부장된 토기가 아라가야양식인 점과 함께 그 구조가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23호묘는 4세기 말에 조영된 대형의 장방형 위석식목곽圓石式木槨묘이다. 부장품은 백제산 금제 이식과 금동제의 관모와 만곡종장관灣曲縱長板冑, 화살통, 심엽형행엽心葉形杏葉 등과 함께 환두대도, 철모鐵鉢, 갑주 등의 무구, 말투구, 등자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옥전고분군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목곽묘이며 출토유물로 볼 때 다라국의 왕묘로 파악된다.

이 시기 다라국은 23호묘의 묘제가 이전 시기의 왕묘인 54호묘의 묘제를 계승한 점이 주목된다. 양자는 5~6세기 왕묘역인 서쪽과 분리되는 4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동쪽묘역에 조영된 것에서도 친연성을 띤다. 이는 5세기 초 고구려 남정이후 김해 금관가야세력이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양자는 묘제를 달리하며 또한 김해지역으로부터 이입된 문물의 존재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라국은 23호묘에서 백제산 이식과 관모, 신라산 마구 등으로 볼 때 낙동강 서안에서 백제와 신라를 연결하는 중계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제 장신구가 백제산인 점에서 황강과 금강을 통하여 백제와의 통교가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 고분의 축조시기가 4세기 말인 점에서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神功기 49년조 369년 근초고왕대 백제와 가야의 교섭기록에 다라국이 보이는 것과 매우 정합성을 띤다. 이 시기 백제와 다라국이 통교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한편 신라와 다라국 사이를 중계한 것은 부장토기가 창녕양식이 주류인 점, 비사벌이 이 시기 백제와 가야의 교섭기록에 같이 다라와 등장하는 점으로 볼 때 창녕 비사벌세력으로 본다.

M1호분은 5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고총이 조영되는 서쪽 능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묘제는 주부곽으로 구성된 대형의 장방형 위석식목곽圍石式木槨이다. 부장품은 로마유리기인 반점문완, 신라산 금동제 대장식구, 마주馬冑를 비롯한 마갑, 금동제 안교鞍橋 등의 마구馬具, 대가야산 금제 이식, 금동제 시통矢筒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이 시기 옥전고분군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목곽묘이며 출토유물로 볼 때 다라국의 왕묘로 파악된다.

이 시기 다라국은 왕묘인 M1호분의 부장품이 신라를 경유한 로마유리기, 신라산 금동제 대장식구, 마구 등으로 볼 때 신라와의 통교가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시기에도 역시 신라와 다라국 사이를 중계한 것은 부장토기가 창녕양식이 주류인 점에서 비사벌세력으로 보인다. 신라 왕릉과 왕족릉에만 부장되는 로마유리기가 부장된 것은 다라국의 위상을 웅변한다. 한편 백제산 문물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낙동강 서안에서 백제와 신라를 연결하던 중계지 역할이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가야산 금제 이식, 금동제 시통矢筒이 부장되는 것에서 대가야와의 관계가 엿보이며, 이 시기 대가야가 호남동부지역과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에 기인한다.

M3호분은 5세기 후엽에 M1호분의 서쪽에 접하여 조영되었다. 묘제는 주부곽으로 구성된 위석식목곽이다. 부장품은 대가야산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龍鳳文環頭大刀 4점, 금동제 갑주, 마주馬冑를 비롯한 마갑, 금동제 안교鞍橋 등의 마구馬具, 금동제 시통矢筒, 토기, 신라산 금제 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이 시기 옥전고분군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목곽묘이며 출토유물로 볼 때 다라국의 왕묘로 파악된다.

이 고분에서는 이전시기 이입되던 신라 문물이 사라지고 양자를 중계하던 비사벌 창녕지역의 토기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대가야산 토기,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 금동제 갑주, 마구, 철제 무구, 무기가 부장된다. 이는 대가야가 황강하구를 통하여 낙동강이동지역과 교섭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다라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M4호분은 5세기 말에 M3호분의 서쪽에 접하여 조영되었다. 묘제는 수혈식석곽으로 평면 세장방형이며 서쪽에 유물 부장칸, 동쪽에 관대를 설치하였다. 관대 부분이 도굴 당했으나 대가야산 용봉문환두대도, 금제 수식부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이 시기 다라국은 이 고분에서는 M3호분 단계까지 축조되던 전통적인 묘제인 목곽묘가 사라지고 지산동고분군에 보이는 세장방형 석곽이 축조된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 한층 대가야 왕권과 다라국 왕권과의 결합이 엿보인다.

M6호분은 6세기 초에 M4호분의 북서쪽에 접하여 조영되었다. 수혈식석곽이며, 금동제 출자형 관과, 은제 관, 금제 수식부이식, 용봉문환두대도龍鳳文環頭大刀, 금동제 마구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신라양식의 금동제 출자형 관과 심형행엽이 부장되었으나, 이 시기 대가야 금공품에 신라의 영향이 엿보이기 때문에 제작지는 고령지역으로 판단된다. 이를 다라국의 독자적인 신라와의 통교로 보기 어렵다.

M11호분은 가장 서쪽에 위치한 고분으로 6세기 중엽에 조영된 횡혈식석실분이다. 금제 수식부이식, 식리飾履, 은제 대장식구帶裝飾具와 목관 부속구인 연관蓮瓣장식, 금으로 장식한 못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다라국 마지막 왕릉으로 석실 구조가 공주의 송산리식 횡혈식석실분 계통이고 장신구와 목관 장식구에도 백제 양식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고령지역에 전형적인 백제 석실인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이 존재한 점으로 볼 때 묘제도 직접 도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대가야에 도입된 백제 묘제의 영향하에 합천 저포리D지구1-1호분, 남원 두락리2호분 등과 같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다라국은 출토 유물로 볼 때 교통의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매개로한 교역 특히 낙동강 이동 지역과 가야 내륙지역 그리고 백제 지역을 연결하는 중계 교역과 교섭이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나, 한편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가야와 신라와 같은 외부세력으로부터 영향과 견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다라국의 왕릉은 화려한 부장품이 출토되었으나 150여년에 걸쳐 조영된 확실한 왕릉의 축조과정에서 그 입지와 매장주체부의 구조, 부장품에서 고령 지산동44호분과 같은 격절성을 띠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다라국 왕권의 한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본다.

6세기 후엽 옥전고분군이 위치하는 구릉 정상부의 동북쪽 사면에서 경주 방내리고분군과 유사한 신라형 횡혈식석실인 M28호분이 축조되어 다라국의 멸망을 알 수 있다.

Ⅶ. 기문

호남 동부지역은 호남정맥에 의해 자연지형상 영산강유역에 형성된 서쪽 해안의 평야지대와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산악지대이나 섬진강수계와 금강수계를 통하여 바다와 내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5세기 후반 기문의 중심지로 비정되는 남원의 운봉 아영지역에는 남원 월산리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식 고층이 출현한다. 이는 내륙에 위치한 대가야가 남해안의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호남 동부지역과 관계를 형성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6세기 전반에는 남원 초촌리고분군을 비롯한 백제식 횡혈식석실분과 함께 백제산성이 출현한다. 이는 한강유역을 상실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가야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호남 동부지역을 공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이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일본서기』에 보이는 이른바 임나사현任那四縣과 기문己汶, 대사帶沙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의 공방이다.

필자는 기문이 보이는 양직공도가 만들어진 530년대에는 상기문만이 보이는 점에서 기문은 크게 상하로 구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하기문인 남원분지는 이미 백제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상기문만이 남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남강수계의 남원 아영지역은 호남북부지역 최대의 고층군인 월산리와 두락리고분군이 위치한다. 한편

인접한 운봉분지에는 소규모 고분군이 분포한다. 그래서 아영분지의 세력이 두 분지를 통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박천수 1995).

금강수계의 장수지역은 장수분지와 장계분지로 구성되며 전자에는 동촌리고분군, 후자에는 삼봉리고분군이 위치한다.

섬진강수계의 임실 금성리고분군에서도 봉토분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 기문에서 상기문에 해당하는 아영분지의 월산리·두락리 축조세력이 고분군의 규모에서 탁월성은 인정되지만 같은 상기문에 해당하는 장수지역에도 그에 필적하는 고분군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원 두락리고분군 조영세력을 주축으로 분지를 초월하여 여러 분지가 하나의 단위로 결집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가야와 각각 개별적인 상하 관계 하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상정된다. 또한 장수분지와 장계분지에는 고분군의 규모차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두 지역 세력이 병립한 것으로 본다.

하기문에 해당하는 섬진강수계의 남원분지는 앞의 두 지역에 비해 고층의 존재가 현저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4세기 남원지역에 최초로 이입된 가야토기는 아라가야 토기로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아영지역 출토 승석문호와 노형기대 등이 있다. 이 시기 남원지역의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남강을 통해 이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이 아라가야와의 관계망과 연계된 것은 공주시 남산리고분군 출토 승석문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강과 금강을 연결하는 중계 역할을 담당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5세기 전엽 남강상류역의 남원 광평리고분군, 청계리고분군 출토 삼각투창고배와 수평구연호, 발형기대는 전형적인 소가야양식 토기로서 영남지방의 소가야토기 분포권 성립과 궤를 같이 한다.

5세기 중엽 월산리M1호분의 묘제도 소가야와 관련되어 주목된다. 이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꺾쇠와 관정으로 결합한 목관을 안치한 세장방형석곽과 같은 대가야형 묘제이지만, M1-A호곽을 중심으로 동쪽에 6기의 중소형의 B-G곽이 연차적으로 봉토를 연접하여 축조된 다곽분인 점이 주목된다. 아직 전시기 이 지역 수장묘가 조사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지만 5세기 중엽 고성지역과 같은 소가야식 묘제가 남원지역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남원지역도 소가야의 묘제와 토기 양식이 도입된 것으로 볼 때 소가야연합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인 M1-A호곽에서는 대가야형 묘제와 함께 대가야산 토기, 갑주, 무기가 확인되었으며, 월산리M5, 6호분에서는 대가야산 금제 수식부이식이 부장되었다. 대가야산 이식은 5세기 후반 함양군 백천리고분군, 장수군 봉서리고분군, 고성군 방송리고분군, 순천시 운평리고분군 출토품으로 볼 때 대가야 양식의 토기와 묘제와 함께 대가야권역에 분포하는 위신재라 볼 수 있다.

5세기 후엽 월산리M5호분 출토 중국 남조산의 청자 계수호가 출토되었다. 계수호는 이제까지 천안시 용원리9호분, 공주시 수촌리4호분과 같이 백제지역에서 확인된 바가 있으나, 가야지역인 월산리M5호분에서 출토되어 주목된다.

월산리M5호분 출토 계수호는 절강성浙江省 서안瑞安 용산隆山 송宋 대명大明5년(461년)묘 출토품과 형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백제를 통하여 이입된 것으로 보고있다(박순발 2012).

그런데 문제는 계수호의 이입 과정과 배경이다. 박순발은 묘제와 토기양식이 대가야 계통임을 인정하면서도 고령지역에서의 출토예가 없기 때문에 공반된 철제 초두와 함께 백제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백제 중앙정권이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하에 있었던 남원지역의 수장에게 사여한 것으로 보았다(박순발 2012:120).



도 13. 5세기 후엽 기문국의 유력 수장묘과 출토 대가야산 수식부이식과 남조산 청자 계수호
(남원 월산리M5, 6호분, 전북문화재연구원)

그러나 백제지역 출토 계수호의 부장 시기가 천안시 용원리9호분은 4세기 후엽, 공주시 수촌리 5세기 전엽이지만,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은 본고에서 편년한 바와 같이 5세기 후엽인 점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중국 남조산 도자기가 출토된 지역이 모두 백제 영역내에 속하지만, 이 지역만이 대가야 권역에 포함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박순발의 견해처럼 백제 중앙정권이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 하에 있었던 남원지역의 수장에게 사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백제지역 출토 계수호의 연대가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인 점, 중국 남조산 도자기가 출토된 지역이 모두 백제 영역내에 속하나, 이 지역만이 대가야 권역에 포함된 점에서 대가야 왕권에 의해 이 지역 수장에게 사여된 것으로 본다. 이는 부장 시점이 479년 대가야의 남제南齊 견사遣使가 이루어진 직후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475년 한성漢城이 함락에 의해 일시기 멸망에 빠진 백제가 과연 이 시기 남원지역 수장에게 이를 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시기는 백제와 남조와의 교섭이 단절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하의 기록에서 확

인된다. 즉 『삼국사기』 문주왕 2년(476년), 사신을 송에 보내어 조공하려했으나 고구려가 길을 막아 가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삼국사기』 동성왕 6년(484년), 추 7월 남제에 조공하려하였으나 서해 가운데서 고구려병을 만나 가지 못하였다. 백제와 남조의 교섭이 재개되는 것은 49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

필자는 월산리M5호분 출토 중국 남조산의 청자 계수호는 대가야의 남제 견사에 의해 남조와의 교섭에 이입된 것으로, 그 견사 기록을 실증하는 문물로 본다. 또한 기문이 대가야의 통제아래 있었으나 섬진강 수계를 통하여 남해안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금강수계를 통하여 백제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점에서 대가야 왕권의 특별한 배려에 의한 것으로 본다.

5세기 말에 남원 두락리32호분은 주곽과 부곽이 좌우로 병렬되게 배치된 구조이다. 주곽에서는 중국산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과 백제산 금동제 식리飾履가 부장되었으며, 부곽에서는 대가야산 발형기대가 13점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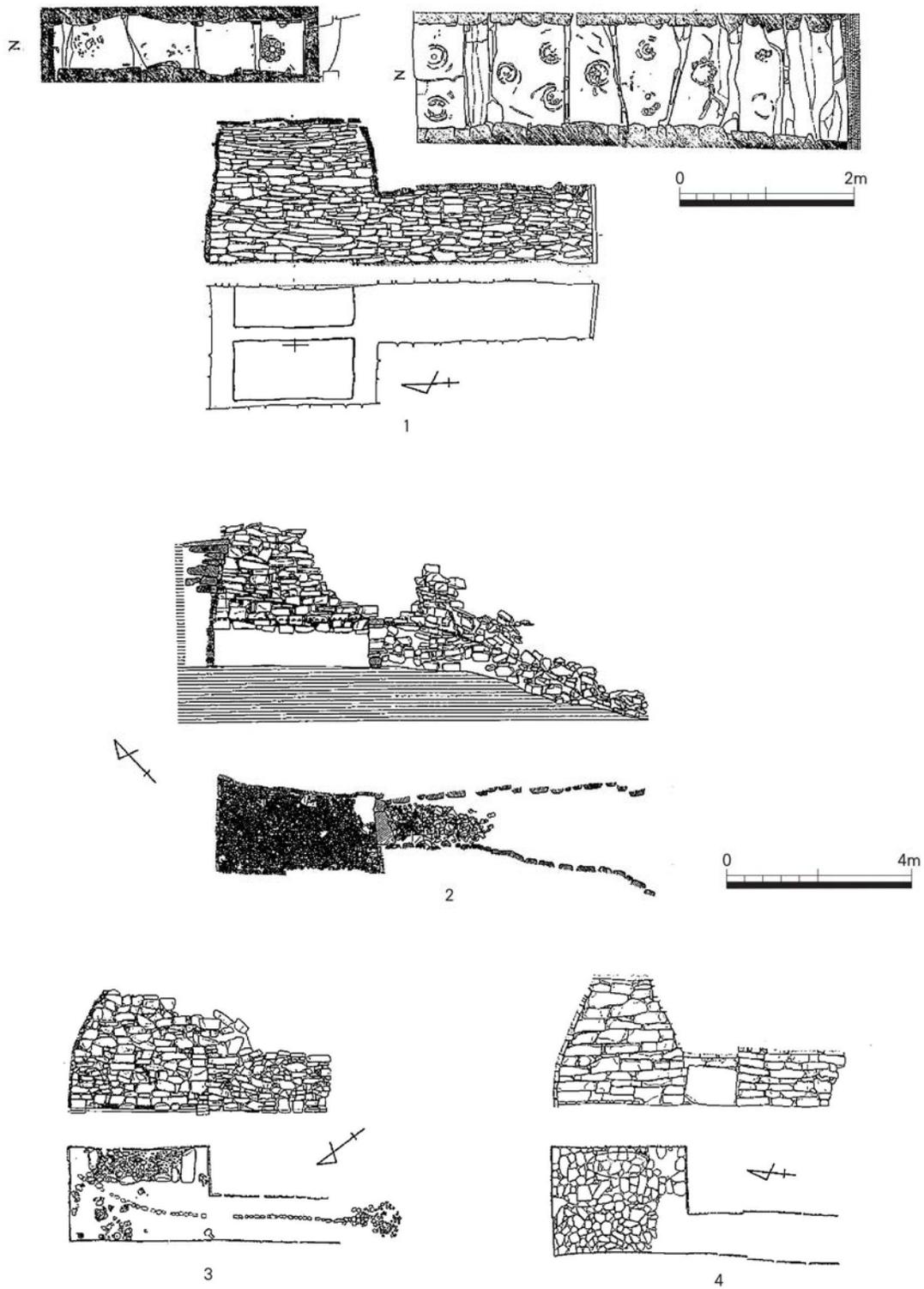
같은 시기에 조영된 산청군 생초M13호분도 주곽과 부곽이 좌우로 병렬되게 배치된 구조이며, 대가야산 용봉문환두대도와 발형기대가 16점 출토되었으며, 고령군 본관동36호분도 주곽과 부곽이 좌우로 병렬되게 배치된 구조이다.

이 세 고분은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다른 지역에 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토, 주 부곽의 규모와 배치가 매우 흡사하다. 특히 고령 본관동36호분과 규모와 구조가 유사한 점은 두락리32호분과 생초M13호분이 대가야 묘제의 축조 기획에 따라 조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고분에서 고령지역에서 제작·이입되어 부장된 발형기대의 개수도 유사한 것에서도 방증된다. 생초M13호분은 중국제와 백제산 위신제는 보이지 않지만 대가야산 금동제 용봉문대도가 부장되었다. 이 생초M13호분과 본관동36호분은 대가야권역의 제3등급인 상위수장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의자손수대경과 금동제 식리는 묘제와 그 외 대부분의 부장품이 대가야양식인 점에서, 대가야 중앙정권을 통해 사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6세기 중엽 황혈식석실분인 두락리2호분은 평면 형태와 규격이 합천군 저포리D지구1-1호석실분과 유사하다. 이 두 고분도 제3등급인 상위수장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볼 때 기문국은 대가야왕권이 지방의 수장을 편제하고 통제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독립된 존재로 보기 어렵다.

기문이 대가야와 관련된 것은 그 멸망시기인 562년을 전후하여 신라에 병합되는 점에 있다. 이는 대가야의 고아동유형 석실인 두락리2호분에 6세기 후엽 이후 추가장되면서 신라형 대장식구가 부장된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기문은 대가야권역의 일원으로 대가야와 성쇠를 같이하였다.



도 14. 6세기 중엽 대가야식 황혈식석실과 위계
 고령군 고아동벽화고분, 함천군 저포리D지구1-1호분, 남원시 두락리2호분

VIII. 비사벌

비사벌은 낙동강 중류역 동안의 화왕산 산록의 창녕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였다. 창녕지역은 북쪽으로는 나지막한 산지를 경계로 현풍지역, 서북쪽으로는 낙동강과 합류하는 회천하구를 마주보면서 고령지역, 서쪽으로는 황강하구를 마주보면서 합천지역, 서남쪽으로는 남강하구를 마주보면서 의령지역, 남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함안지역과 접하고 있다.

창녕지역의 낙동강을 통한 수로활동이 활발하였음이 남쪽 낙동강에 면한 신석기시대 창녕 비봉리유적에서 환목주丸木舟가 출토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비봉리유적에서는 해수성 조개가 출토되어 해수의 영향이 이 지역까지 미친 것으로 판명되었다.

창녕지역 4세기 토기양식은 고배, 노형토기, 승석문화의 형식으로 볼 때 크게 보아 낙동강유역 양식으로 좁게 보아 아라가야 양식으로 파악된다. 이는 창녕지역 집단이 낙동강을 매개로 남강하구와 황강하구, 회천하구를 통하여 가야세력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 후엽 창녕 송현동7호분의 녹나무제 주형舟形 목관은 일본열도산 녹나무제 선재船材를 목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낙동강을 통한 창녕세력의 교역활동을 상징하는 것이다. 창녕산 토기의 김해, 창원지역으로의 유입으로 볼 때 낙동강을 통한 교역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세기 창녕양식 토기의 특징적인 기종은 유충문 개, 유개식 상하일렬투창고배, 무개식 상하일렬투창고배, 직립구연 유개식장경호, 발형기대, 유충문이 시문된 소형의 유대파수부완 등이다. 개는 단추형 손잡이를 가진 신부에 점렬문이 시문된 것으로 그 형태가 유충문으로 불릴 정도로 폭이 넓은 것이다. 무개식고배는 대각의 형태는 유개식과 동일하나 그 가운데 상당수가 연질에 가까운 소성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유개식장경호는 구경부가 직선적인 점과 함께 대각이 달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무개식장경호는 경부에 점렬문이 시문되거나 대각의 투창이 횡장방향으로 넓은 것이 특징이다.

발형기대는 파상문을 주로 시문하며 투창은 삼각형에서 세장방향으로 변한다. 배신과 대각의 경계부에 유충문이 시문되는 것과 배신뿐만 아니라 대각에도 파상문이 시문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형의 유대파수부완은 창녕 동리7호분에 보이며 신부에 유충문이 시문된 것이 특징이다.

비사벌국의 범위는 토기양식의 분포로 볼 때 서쪽과 남쪽은 낙동강에, 동쪽은 산지에 면하고 있으며 북쪽은 현풍지역을 관류하는 차천과 우포늪을 거쳐 낙동강에 합류하는 토평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현풍정령리와 창녕 십이리 일대의 현재 도계道界를 형성하는 나지막한 산지가 경계이다. 그리고 밀양시 신안리, 미전리, 사포리고분군 등에서 창녕양식 토기가 일정 비율로 부장된 것에서 밀양강 수계도 그 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5세기 전반의 청도천, 밀양강수계의 유적 발굴이 기대된다.

4-5세기 전반의 중심지는 남쪽의 영산지역이다. 5세기 전반 영산지역의 중심인 계성고분군은 봉토 직경20m 이상 되는 대형분 10여기를 중심으로 조영되었다. 남북으로 형성된 3곳의 구릉 위에 분포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형고분이 조영되는 곳은 대가야, 아라가야에 불과하여 비사벌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5세기 중엽부터 남쪽의 계성고분군에 조영되던 대형분이 북쪽의 교동고분군에서도 조영되는데, 이는 5세기 전반까지 그 중심지가 남쪽이었으나 새롭게 북쪽이 중심지로 대두하는 것을 보여준다.

교동고분군은 인접한 송현동고분군도 연결되는 같은 고분군으로 본다. 이 고분군은 크게 3군으로 구분된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교동7호분이 중심을 이루는 1군, 교동89호분이 중심을 이루는 2군, 송현동6·7호분이 중심을 이루는 3군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창녕지역은 중심고분군에 2기의 최고 수장묘가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점에서 탁월한 왕권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

창녕양식 토기는 4세기 말 다라국 왕묘인 옥전23호묘에는 창녕산 토기가 확인되며, 이 고분의 신라산 문물, 백제계 문물은 쌍책의 다라세력이 황강상류를 통해 가야 내륙을 비롯한 낙동강 이서지역과 그 이동지역을 연결하는 중계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시기 쌍책지역의 창녕산 토기와 신라산 문물의 존재는 다라의 낙동강 이동지역의 교섭 창구가 창녕지역인 것과 이 지역 세력이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이서지역을 연결하는 다라국과 같은 중계역할을 담당할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옥전23호묘 출토 상하일렬투창고배의 대다수는 창녕산으로, 이 고배는 김해지역의 예안리117호묘 고배와 옥전 재지의 고배에 비해 뚜껑받이 턱이 U자형에 가깝게 깊게 파인 것이 특징이다. 또 옥전23호묘의 창녕산 고배는 김해지역산에 비해 기고에 비해 배신 지름의 비율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옥전 재지고배는 배신이 얇고 대각이 팔자형이며 각단이 곡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특징인 점에서 창녕산 고배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부산시 가달5호묘 출토 토기는 고배를 비롯한 모든 기종이 창녕양식이다.

그런데 필자가 상하일렬투창고배를 비롯한 이러한 토기군을 창녕양식으로 설정(박천수 2001)한 이래 반론이 제기되어왔다. 조성원은 필자가 제기한 김해 가달고분군 출토품 등 낙동강하류역의 이시기의 토기를 창녕양식을 설정할 수 없고 범영남식 창녕산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제기하였다(조성원 2010). 필자는 낙동강하류역 김해·부산지역과 창녕지역에는 유사한 형식의 장각의 상하일렬투창고배가 있었으나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고배와 뚜껑의 형식에서 낙동강하류역과 구별되는 형식이 출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필자가 설정한 창녕양식은 조성원이 설정한 것처럼 범영남식 창녕산으로 볼 수 없다.

그 후 창녕지역에 인접한 청도군 성곡리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창녕군 동리고분군에서 이러한 형식의 고배가 다수 출토되어 낙동강하류역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이 형식의 고배가 창녕산 또는 재지산 창녕양식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4세기 말 창녕군 계성리 8호 수혈주거지 출토품은 대형복합구연호는 서부 세토우치瀨內海계 또는 기나이畿內계 토기로 파악되고 있다(井上主稅 2008).이 계성리유적에서는 호남지역의 사주식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호남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사주식주거지내에서 하지키土師器가 출토되어 교역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호남지역가운데 특히 창녕양식토기가 다수 이입되고있는 해남반도로부터의 이주민이 철과 관련된 교역을 위해 창녕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한다.



도 15. 청도군 봉기리 성곡리고분군 출토품으로 본 창녕양식토기와 그 변화

1-2:봉기리4호석곽묘 3:봉기리2호목곽묘 4:4-5성곡리가25석곽묘 7-10:성곡리가47호석곽묘
11-14:성곡리가34호석곽묘 15-18:성곡리가21호석곽묘 19-22:성곡리가18호석곽묘)

5세기 초에도 이 지역 토기양식은 여전히 가야양식의 범주에 속하면서 창녕지역의 특징적인 양식이 출현한다. 이 시기의 옥전35호묘에는 재지산 토기와 함께 수점의 창녕산 토기,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옥전35호묘에서는 경주산 편원어미형행엽과 장봉철모長鋒鐵鉢, 고령산 금제 수식부이식, 단봉문상감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 옥전35호묘의 창녕, 경주산 문물과 대가야, 소가야 문물의 존재는 다라국이 황강상류를 통해 가야 내륙을 비롯한 낙동강 이서지역과 신라를 연결하는 중계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5세기 중엽 교동3호분에서는 신라의 마구·무기와 함께 삼각판형장판병용정결판갑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창원 덕동만에 면한 현동고분군에서는 5세기 전엽 105호묘, 5세기 중엽 115호묘, 5세기 후엽 6호석곽묘에서 좌우 비대칭형인 경주형 철정이 이입된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철정이 5세기 중엽 창녕 계남리1호분에 보이고 이 고분군을 비롯하여 마산만에 면한 창원지역에는 다수의 창녕양식 토기가 이입되고 또한 현지에서 모방 제작된다. 그래서 창녕세력이 신라의 철소재를 수입하여 소가야와 교역한 것으로 본다.



도 16. 5세기 전반 창녕양식 토기(창녕군 동리고분군)

5세기 전엽 통영 남평리고분군에서는 소가야식 다곽분이 축조된다. 10호분은 원형의 주구내에 4기의 목곽이 조영되었으며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창녕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창녕양식 토기가 소가야양식 토기와 같이 해남지역에 걸친 남해안 일대 전역에 출토되는 것이 주목된다. 양자는 창녕양식 토기가 마산 현동64호묘, 합성동77호묘, 함안 오곡리(경)11호묘, 진해 석동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등에서 소가야양식 토기와 공반된다. 이는 창녕세력이 낙동강중하류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한편 소가야세력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본다.

더욱이 이 시기 창녕산 토기가 나가사키현長崎縣 미시마箕島1호분, 돗토리현鳥取縣 나가세타카하마長瀬高浜유적, 시마네현島根縣 미타카타니弥陀ヶ谷유적, 시마네현 이주모코쿠후出雲国府유적, 교토부京都府 나구오카키타奈具岡北1호분, 니카타현新潟縣 미야노이리宮ノ入유적, 오카야마현岡山縣 사이토미齋富유적, 나라현奈良縣 오미야大宮신사, 미에현三重縣 다이니치야마大日山1호분의 제사유적 등 동해와 면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 면한 일본열도에서 다수 출토되어 주목된다.

5세기 중엽에 조영되는 계남리1호분 출토 경주산 금동제 관과 관식, 은제 과대와 금제 이식은 전형적인 신라의 착장형 위신재로 본다. 낙동강 이서의 가야지역과 이와 함께 상하교호투창고배와 대각도치형 손잡이의 개가 출현하는 것은 신라양식의 영향으로 본다. 또 이 시기 낙동강 대안에 위치하는 다라국의 왕릉인 옥전고분군에는 경주지역으로 부터 다수의 문물이 이입된다. 특히 왕릉으로 추정되는 옥전M1호분에 부장된 반점문완은 로마유리기로서 시리아 등 동지중해일대와 독일의 쾰른에서 제작된 것으로 흑해-카자흐스탄-몽골-중국동북지방-고구려를 거쳐 이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형식의 유리완은 경주시 대릉원고분군의 왕족묘인 금령총에서 2점이 출토되어 신라에서 이입된 것으로 본다. 이 고분에서는 창녕산 토기가 다수 출토되어비사벌의 중계를 통하여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5세기 말 창녕군 송현동7호분에서는 선재船材를 전용한 목관이 출토되었다. 목관은 직경1m의 녹나무 원목의 속을 파내어 만든 준구조선의 바닥재를 전용한 것이다. 일본열도의 선박이 이 지역에 도달한 후 목관재로 전용된 것이다. 같은 시기 교동89호분의 직호문녹각장검直弧文鹿角裝劍은 일본열도산이다.

비사벌의 창녕지역은 거대 고층이 소재하며 가야에 속하는지 신라에 병합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다.

532년 신라에 복속된 것이 분명한 금관가야의 토기양식은 신라양식과 같이 보이지만 창녕양식과 신라양식을 융합한 독자적인 양상이 보인다. 이는 금관가야양식 보다 더욱 독자적인 양상을 보이며 가야 지역으로 활발하게 이입되는 창녕양식 토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즉 창녕지역은 5세기대 신라에 복속된 문헌 기록이 문헌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6세기가 되어서야 신라에 복속되는 금관가야 보다 독자적인 양식의 토기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녕지역양식 토기는 금관가야와 소가야권 전역에 5세기 초부터 중엽까지 약 50년에 걸쳐서 이입되고 토기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4세기 아라가야양식,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5세기 후반 대가야양식과 같은 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에서 이미 인식되는바와 같이 분명한 정치 경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0년 이상에 걸친 창녕양식 토기의 생산과 유통은 비사벌의 활동과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비사벌은 금관가야와 소가야권역에서 창녕산토기와 함께 신라형 철정이 동반하고 다라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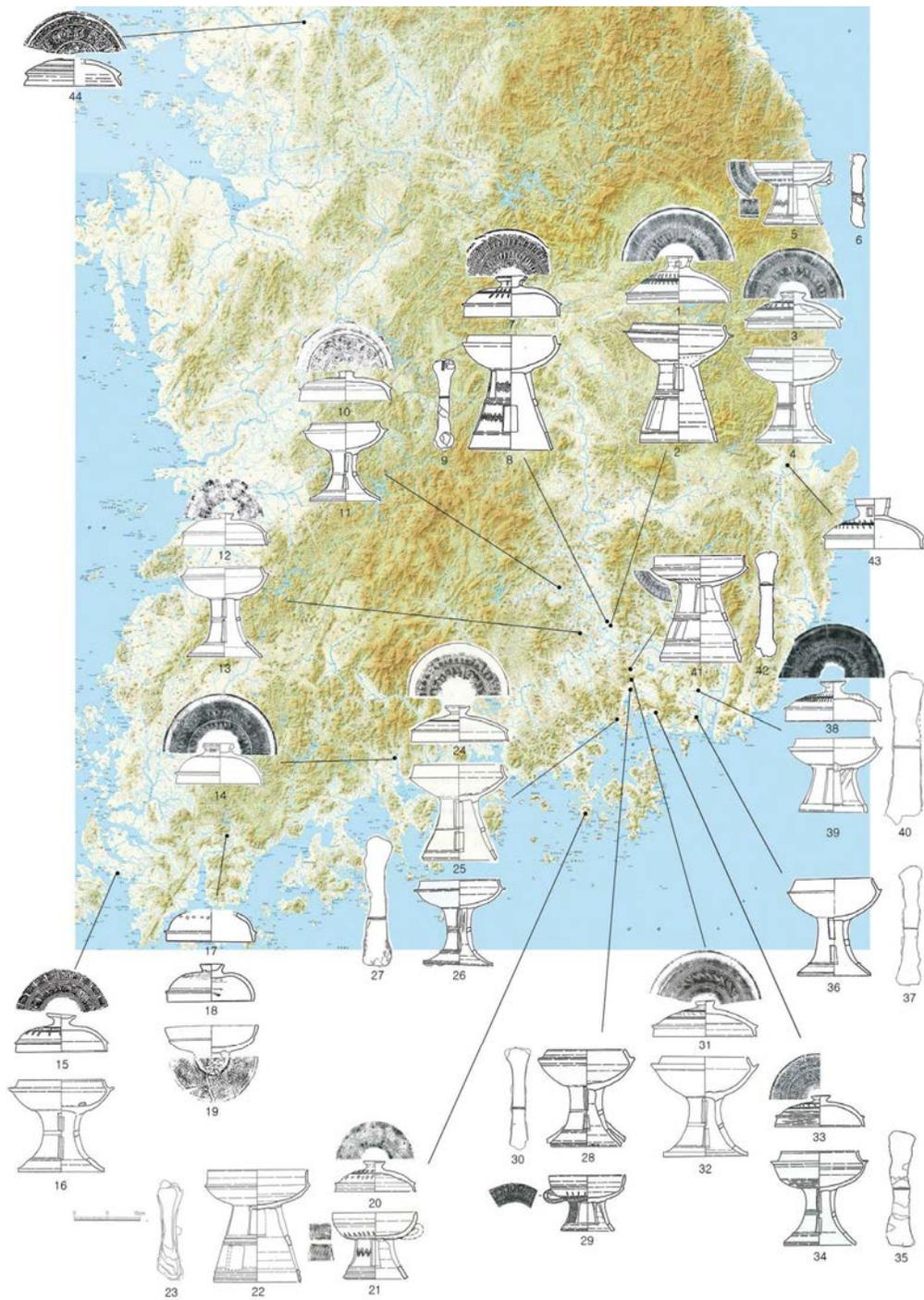
옥전고분군에 신라에 들어온 로마유리기가 창녕산토기와 공반하는 점에서, 신라와 낙동강 대안의 다라국,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 남해안의 소가야를 연결하는 철소재를 비롯한 중계 교역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창녕지역과 마주보는 낙동강 서안의 황강 하구에 위치하며 상호교류를 행해 온 합천 쌍책지역과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 소가야와의 관계로 볼 때, 창녕지역 토기양식이 소멸되고 각지에 이입되던 이 지역 토기가 반출되지 않은 시점 즉 5세기 후엽이야말로 창녕지역이 신라에 복속된 시기로 생각한다. 이는 낙동강 서안에서 창녕지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온 합천 다라국 세력의 활동이 대가야에 의해 통제되는 5세기 후엽과 같이 연동하는 시기인 점에서 더욱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IX. 5~6세기 가야의 국가형성과 문명文明的의 역사적 의의

400년 고구려 남정을 계기로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아라가야가 일시적으로 쇠퇴한다. 한편 이 시기에는 남해안의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가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호남동부지역에 걸친 광역 관계망을 형성하며, 창녕의 비사벌세력이 대두한다. 5세기 중엽 이후에는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가 성장하여 남강상류역, 금강상류역, 황강수계, 섬진강수계, 남해안일대에 걸친 대권역을 형성한다.

종래 가야후기의 금관가야는 5세기 토기양식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멸망한 것으로 보거나, 일부가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532년 멸망하였다는 문헌기록을 무시하고 신라의 발전을 과대평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본고에서 밝힌바와 같이 5세기대 창녕양식과 신라양식의 영향을 받아 융합한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기양식에 신라의 영향이 보이는 점은 400년 경자년조의 고구려 남정기사에 보이는 신라의 금관가야에 대한 영향력 증가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곧바로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도 17. 창녕양식 토기와 철정의 분포(5세기 전반, 박천수·김미나)

1-7창녕동리고분군 7-9창녕계남리1호분 10, 11합천옥전23호묘 12, 13의령유곡리고분군
 14여수화장동주거지 15, 16해남일평리토성 17장흥상방촌A3호주구묘 18상방촌A나2-3호주거지
 19상방촌B13호주구 20-23통영남평리10호분 24-27마산현동(동)103.(창)64호묘 28-30마산합성동고분군
 31,32창원도계동39호목곽묘 33-35진해석동 36,37부산가달4호묘 38-40김해대성동73호묘
 41,42창원동전리고분군 43경주안계리4호분 44서울풍납토성경당지구

그리고 소가야권역에 종래 토기양식이 복잡하여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마산만에 면한 창원분지와 구 마산지역의 덕동만일대를 포함시켰다. 덕동만에 면한 현동고분군과 마산만에 위치한 합성동고분군에서는 1세기에 걸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제작·사용되고 고총이 축조되는 중심지가 존재한 것에서 양 지역을 소가야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국으로 보았다. 소가야와 창녕의 철소재의 교역 창구를 담당하는 것은 철정의 부장이 탁월한 점과 교통로를 고려하여 마산만일대의 세력으로 보았다.

5세기 전반 소가야는 고성을 중심으로, 사천, 마산, 거제, 진주, 합천, 산청지역 일부를 포괄하는 이전 시기 포상팔국을 연합한 광역 소국연합으로 발전한다. 연합의 동인은 신라산 철소재와 일본열도산 스에키須惠器가 다수 확인되는 것에서 남해안과 일본열도와의 철을 중심으로 한 교역으로 판단된다.

비사벌의 창녕지역은 거대 고총이 소재하며 가야에 속하는지 신라에 병합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제까지 신라사의 입장에서 이 지역을 4세기 말에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가 제기한 바와 같이 먼저 그 근거가 된 4세기 말로 본 창녕 계남리1호분의 연대가 실은 5세기 중엽으로 잘 못된 것이며, 5세기 전엽까지 신라양식 토기와 전혀 다른 토기양식이 보이고 있으며 5세기 중엽에도 독자적인 양식이 보인다.

532년 신라에 복속된 것이 분명한 금관가야양식은 신라양식과 같이 보이지만 창녕양식과 신라양식을 융합한 독자적인 양상이 보인다. 이는 금관가야양식 보다 더욱 독자적인 양상을 보이며 가야지역으로 활발하게 이입되는 창녕양식 토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즉 창녕지역은 5세기대 신라에 복속된 문헌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창녕양식 토기는 6세기가 되어서야 신라에 복속되는 금관가야 보다 독자적인 양식의 토기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관가야와 소가야권 전역에 5세기 초부터 중엽까지 약 50년에 걸쳐서 이입되고 토기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4세기 아라가야양식,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5세기 후반 대가야양식과 같은 가야토기의 생산과 유통에서 이미 인식되는바와 같이 분명한 정치 경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0년 이상에 걸친 창녕양식 토기의 생산과 유통은 비사벌의 활동과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비사벌은 금관가야와 소가야권역에서 창녕산토기와 함께 신라형 철정이 동반하고 다라국의 옥전고분군에 신라에 들어온 로마유리기가 창녕산토기와 공반하는 점에서, 신라와 낙동강 대안의 다라국,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 남해안의 소가야를 연결하는 철소재를 비롯한 중계 교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비사벌은 신라와 가야사이의 완충지대적인 국이었다고 생각한다. 고대 국간의 관계를 현대 국가간의 관계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창녕지역과 마주보는 낙동강 서안의 황강 하구에 위치하며 상호교류를 행해 온 합천 쌍책지역과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 소가야와의 관계로 볼 때, 창녕지역 토기양식이 소멸되고 각지에 이입되던 이 지역 토기가 반출되지 않은 시점 즉 5세기 후엽이야말로 창녕지역이 신라에 복속된 시기로 생각한다. 이는 낙동강 서안에서 창녕지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온 합천 다라국 세력의 활동이 대가야에 의해 통제되는 5세기 후엽과 같이 연동하는 시기인 점에서 더욱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전시기 창녕세력과 다라국, 금관가야, 소가야와의 반세기에 걸친 교섭은 단지 신라의 출선기구로서의 교역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평가된다.

가야 후기의 중심세력인 대가야는 비록 가야 전체를 통일하지 못했으나 황강수계, 남강수계, 소백산맥, 섬진강수계를 넘어서 고령에서부터 남해안일대에 걸치는 당시 백제의 영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야사상의 최대 판도를 형성하였다.

대가야는 백제와의 교통로의 요충인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에 형성된 금강수계의 진안고원부터 남해안의 최대의 요충인 여수반도까지를 영유하는 내륙과 해양을 연결한 국가였다.

그 동안 대가야의 발전 시기에 대해 문헌사학뿐만 아니라 고고학에서도 479년 남제南齊 견사遣使 기록에만 의거하여 5세기 후엽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가야의 발전 시기는 대가야문물이 남강상류역에 출현하고,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물과 대가야지역의 일본열도산 문물이 이입되는 5세기 중엽으로 본다. 당시 적대국인 신라가 낙동강하구를 장악하고 경쟁상대인 소가야가 사천만과 고성만에 포진하고 있어, 대가야는 반드시 섬진강로를 확보하여야만 비로소 양자간 교통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5세기 중엽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물은 섬진강수계의 호남 동부지역이 대가야권역에 포함된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는 451년 대가야인 가라加羅가 『송서』 왜국倭國전에 등장하는 시점과 부합한다.

이제까지 대가야의 발전은 주로 고령과 안림천수계로 연결된 야로지역의 철산 개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여기에서 나아가 필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섬진강로의 확보, 특히 하동 대사진의 장악을 통한 대 일본열도 교역을 그 원동력으로 보았다.

필자는 대가야가 남강 상류역으로 진출한 후 남원분지로 남하하여 구례를 거쳐 섬진강하구의 교역항인 하동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던 여수, 순천, 광양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본다. 대가야는 하동의 확보만으로는 남해안의 안전한 교통이 불가능하여 해상 교통과 군사적 요충인 여수반도를 장악한 것으로 본다. 남해안의 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아라가야와 소가야의 내륙회랑인 남강로 뿐만 아니라 양 세력이 활동하던 남해안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백제와 왜의 교통뿐만 아니라 왜의 중국 교통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479년 대가야가 독자적으로 남제에 견사한 것은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6세기 고령지역의 왕릉인 지산동고분군은 신라의 왕릉인 서악동고분군과 조영원리가 유사하고, 왕성의 부속성인 주산성은 백제의 부소산성과 입지와 규모가 흡사한 점에서 대가야가 백제, 신라와 같은 사회발전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웅변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진강수계에 면한 지역 즉 임라사현任那四縣과 기문己汶, 대사帶沙 지역은 문헌사료와 고고자료에서 명백히 대가야권역임이 확인되었다. 섬진강 하구 서안의 순천시 운평리고분군, 여수시 고락산성, 하동군 흥룡리고분군, 남산리고분군의 대가야식 묘제와 대가야양식 토기는 6세기 전엽의 것으로 백제 진출 이전 섬진강 양안이 대가야권역이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후 곡성, 구례 등지에서 대가야관련 유적의 조사도 기대된다.

따라서 대가야는 소백산맥을 넘어 금강 상류지역과 노령산맥 이남의 섬진강유역 및 광양만, 순천만 일대의 호남동부지역을 영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문에 해당하는 남원 월산리M5호분과 두락리32호분의 중국제와 백제산 문물을 통하여 이 지역 세력이 독자적인 행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

나, 외래문물은 이 지역 세력이 직접 백제와 통교하여 입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기문이 대가야의 통제아래 있었으나 섬진강 수계를 통하여 남해안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금강수계를 통하여 백제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점에서 대가야 왕권의 특별한 배려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6세기 전엽 대가야는 왕도인 고령과 인접한 합천읍, 봉산면 일대를 하부下部로 편제하여 왕기王畿로 삼았으며 그 권역을 중앙과 지방으로 편제하였다. 이는 『일본서기』 계체繼體 23년조(529년) 대가야왕이 하동지역을 대가야의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과 신라의 왕녀를 여러 현에 분산시켰다는 기사로 볼 때 영역관념의 형성과 그 내부를 중앙과 지방으로 편제한 것을 알 수 있다.

514년 대가야가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공격하고 또 섬진강 하구에서 군사를 일으켜 왜를 공격하였다는 기사와, 553년 대가야가 백제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한 기사는 대가야가 대외 전쟁에 권역 내의 병사와 무기를 징발하여 신라, 왜와 교전할 수 있는 군사권을 확립한 사실을 보여주며, 더욱이 대가야군의 작전 범위가 금강수계, 섬진강 하구에 걸치는 광범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가야왕도의 주산성은 내성과 외성의 둘레를 더하면 2.1km 정도이며, 이러한 성곽의 규모는 여타 신라와 백제, 고구려에서도 중앙 또는 지방을 관할하는 중대형의 거점성곽에 해당된다.

이는 가야 전기 금관가야의 왕성과는 전혀 다른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왕성은 존재하나 이를 방어하는 주산성과 같은 거점산성이 보이지 않는 김해지역과 차별성을 띤다. 더욱이 왕도를 외곽에서 방어하는 성이 연결하면 나성과 같은 방어선을 형성하며 축조된다. 또한 이는 거점 산성인 봉산성이 보이거나 그 규모가 작고 왕도를 방어하는 외곽성이 존재하지만 방어망이 조밀하지 않는 함안지역의 아라가야와도 차별성을 띤다.

즉 주산성을 중심으로 10km 전후한 범위에 축조된 무계리산성, 강정리보루성, 도진리산성, 소학산성, 만대산성, 노고산성은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산성을 중심으로 5km 전후한 범위에 축조된 망산산성, 운라산성, 옥산리산성, 미송산성은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2차 방어선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낙동강 중류역의 서안으로는 신라와 대치하고 있는 대가야성곽이 존재하며, 이들은 일정시기 동안 상호 연계되어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고령의 입구에 해당하는 낙동강변에 접한 강정리 봉화산성에는 신라의 위천리 보루성과 대치하듯이 보루성이 축조되었으며, 도진리에는 신라의 석문산성과 대치하듯이 낙동강을 조망하는 능선상에 도진리산성이 축조되었다. 최근 강정리 봉화산성은 주산성과 같은 정교한 석축기법으로 축조된 산성인 점이 밝혀져 주목된다.

이러한 낙동강변에 보이는 대가야산성과 신라산성의 대치 관계는 의령지역과 창녕지역에서도 확인되어 대가야를 견제하기 위해 낙동강중류역 서안에 방어망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서기』계체繼體 8년(514)조의 반파伴跋 즉 대가야가 축성하여 자탄子呑, 대사帶沙를 만해滿溪에 연결하고 봉후烽候와 저각陴閣을 설치하고, 이열비爾列比, 마수비麻須比에 축성하여 마차해麻且奚, 추봉推封에 연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낙동강변에서 확인된 대가야에 의한 성곽의 방어체계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대가야 축성 기사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운봉고원 일대에 축성된 성곽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의 대가천

그리고 낙동강 이서지역 등 대가야의 북변과 동변에서 확인되는 성곽과 유사한 소규모 테피식 산성이 방어선을 형성하며 축조되어 있다. 이는 축성 주체가 대가야 동변인 낙동강 서안에 축조된 성곽과 같이 지역 세력이 아니라 대가야 중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대가야의 축성 기록이 보이는 하동지역을 포함한 섬진강수계에서 대가야 산성의 발견이 기대된다.

대가야의 왕도의 거점 성곽인 주산성과 왕도를 방어하는 성곽은 신라, 백제의 거점 성곽에 필적할 정도의 축성기술과 규모를 보이고 있어 대가야의 국력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가야지역내서 전기의 중심국인 금관가야와 후기의 중심국인 아라가야의 국력을 초월하는 대가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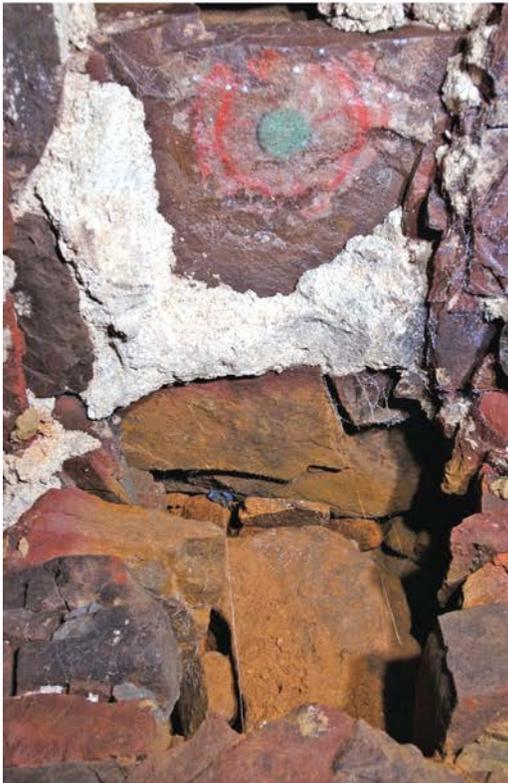
이 주산성을 중심으로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15기 전후의 산성이 축조되고 나아가 낙동강중류역 서안에 성곽에 의한 방어망이 형성된다. 이처럼 6세기 초를 전후하여 고령분지, 합천지역 및 의령지역을 포함한 낙동강중류역에 걸쳐 대가야식 산성이 연계하여 집중 조영된 것에서, 대가야는 그 권역 내의 민민을 동원할 수 있는 역역체제力役體制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대가야가 대두한 400년 이래 멸망하는 562년까지 신라와 국경을 형성하였음에도 1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라가 그 국경인 낙동강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는 대가야가 국경에 체계적인 방어망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침공에 대비한 국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도 18. 대가야의 문자 사용(산청군 하촌리1지구7호주거지
출토 이득지명 토기, 국립김해박물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명문환두대도, 창녕군 교동11호분 출토 명문환두대도, 하부명 단경호, 대왕명 장경호 등으로 볼 때 대가야에서 문자의 사용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산청군 하촌리취락유적에서 이득지二得知라는 인명이 새겨진 파수부완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 파수부완은 왕성과 수장거관이 아닌 하위취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는 문자가 일반 촌락에서도 어느 정도 일상화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도 19. 대가야의 불교적 세계관의 도입(고령군 고아동벽화고분:계명대학교박물관, 고령군 송림리요지:영남문화재연구원)

근래 발견된 고령군 송림리요 출토 연화문전은 고아동벽화고분에 보이는 연화문과 함께 대가야에 불교적 세계관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등 종교인 불교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주산성에서 승려인물문 전이 출토된 것에서도 그러하다. 장차 고령지역에서 불교와 관련된 사원지의 조사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1963년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 출토 연가延嘉 7년(539년)명 고구려 불상의 존재가 특기된다. 신라에 이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출토된 지역이 6세기 중엽 대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집단이 거주한 합천 삼가지역에 인접한 점에서 대가야에 이입되었을 가능성도 상정되기 때문이다. 또 『일본서기』 현종顯宗 3년 기노이쿠하노스쿠네紀生盤宿禰가 임라任那에 웅거하며 고구려와 교통하였다는 기사는 대가야와 고구려가 5세기 말 이래 교통(이용현 2007:58)한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대가야는 백제 또는 고구려를 통하여 불교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가야권역은 토기, 철과 같은 필수 물자와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와 같은 위신재의 생산과 유통으로 보아 호남 동부지역까지 지배 복속관계로 이루어진 동일한 정치·경제권으로 본다.

특히 5~6세기 가야 제국 가운데 독자적인 의장의 금공품을 제작한 곳은 대가야가 유일하며 특히 고령에서 제작된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는 가야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 이입되었다. 현재 확인된 대가야산 금공



도 20. 대가야의 금제, 금동제 위신재(박천수 2016)

품은 금관 2점, 금동관 5점, 또한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는 49점, 금제 수식부이식은 229점에 달한다. 그 외 금동제 마구도 다수 확인된다. 수백 점에 달하는 화려한 대가야의 금공품과 이를 통한 위신재 체계는 백제, 신라에 필적하는 독자적인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가야산 금공품의 수량은 신라에는 필적할 수 없으나 백제산 금공품의 수량을 웃도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대가야의 금공품은 신라와 백제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독자적인 양식이다. 더욱이 고령에서 성주로 연결되는 금광맥이 존재하고, 현대까지 활발하게 채굴된 점에서 금광의 개발을 통한 금공품 생산과 유통이 대가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의 장신구는 단순히 신체를 장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도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특히 금제, 금동제의 장신구는 착장자의 권력과 위세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5세기 후반 대가야는 신라,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관모, 이식, 대장식구를 제작하여 일본열도에 수출하였다. 당시 왜가 대가야산의 장신구를 수용한 것은 대가야와 왜와의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5세기 후반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화는 4세기에 금관가야가 전해준 철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금제, 금동제 장신구, 금동제 마구를 포함하고 있어 양자간 국가 경쟁력의 질적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대가야는 당시 왜가 원했던 말과 그 사육방법을 전해 준 점, 더욱이 국가체제의 정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문자의 사용을 본격화 시킨 점에서 대가야 문화는 일본열도의 문명화의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야의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4세기에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보이는 변한의 소국이 분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2-3세기의 소국단계에서, 김해 구야국과 동래 거칠산국이 연합하는 소국연합단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양자 간 관계는 구야국이 우월하나 거칠산국을 압도하는 세력으로 볼 수 없다.

5세기 전반에는 고성의 소가야를 중심으로 남해안일대의 이전 시기의 포상팔국과 같은 광역 소국연합단계로 발전한다. 이는 연합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구성국간의 분명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다.

5세기 후반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는 내륙과 해양을 연결한 그 권역의 범위가 넓으며 그 내부 구조가 명확한 상하관계가 확립되고 영역지배화가 이루어졌다(박천수 2016).

근래 김태식에 의한 사국시대론이 제기되었다. 삼국시대는 신라의 인식에 기원한 고려시대의 역사인식이며, 엄밀한 의미의 삼국시대는 가야멸망후인 562년부터 668년까지 10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태식 2014:129-131). 그리고 사국시대의 근거로서 신라, 백제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논한바와 같이 특히 대가야는 독자적인 문명과 불교라는 고등 종교의 도입, 광범위한 영역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군사권, 479년 중국 남제로의 견사, 문자의 사용, 왜와의 교섭에서 확인되는 외교권, 그리고 산성의 축조에서 파악되는 역역동원 체제를 갖추었다. 규모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신라, 백제에 필적하는 고대국가단계로서 나아가 신라,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야가 국제세계에서도 독립된 정치체로 활동한 것은 광개토태왕비, 『송서』, 『남제서』, 『일본서기』에서 잘 확인된다. 특히 『일본서기』에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까지 백제, 신라와 동등한 국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대가야가 대두한 400년 이래 멸망하는 562년까지 신라와 국경을 형성하였음에도 1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라가 그 국경인 낙동강을 넘어서지 못했다. 즉 낙동강 동안의 달성군 문산리고분군은 5세기 전엽에 조영을 개시하며 이후 문산리산성이 축조된다. 이는 5세기 초에 이미 대구지역에 신라에 의한 대가야 공략의 교두보가 구축된 것이다. 그럼에도 신라가 낙동강을 도하渡河하는 것은 150년이상이 경과한 이후가 되어서였다.



寶永乙卯年
南齊列傳三十九
八
松金日堂
加羅國三韓種也建元元年國王荷知使來獻
詔曰量廣始登遠夷洽化加羅王荷知款關
外奉贄東還可授輔國將軍本國王

도 21. 대가야의 남제 건사(남제서와 남조 황제릉, 박천수)

이는 엄밀한 의미의 삼국시대인 가야멸망후 562년부터 668년까지 10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대가야가 신라와 대치하는 국경선을 형성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제가 대가야와의 국경인 고흥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길두리 안동고분이 5세기 전엽 축조되는 것에서 그 피장자가 활동하는 5세기 초로 보인다. 백제가 대가야권역인 섬진강 수계인 기문과 대사, 임라사현에 공략을 개시하는 것은 6세기 전엽으로, 1세기 정도 백제와도 국경을 형성한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대가야는 신라, 백제와 1세기 이상 국경을 형성하며 국권을 유지하고 독자적인 문명을 창출하였다. 사국시대는 허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것이다. 앞으로 고고학에 의한 가야의 역사와 문명의 정당한 평가를 통한 사국시대의 확립이 기대된다.



[국문]

- 郭長根, 1999, 『湖南東部地域石槨墓의 研究』, 서경문화사.
- _____, 2010,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백제문화』4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_____, 2011, 「전북지역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3, 한한국고대사학회.
- 김규운, 2009,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소가야의 변천』,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 김용성, 2009, 「창녕지역 고총 묘제의 특성과 의의」,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 김용성, 2013,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순장과 사후세계』, 경상북도.
- 김준식, 2018, 「가야지역 횡혈식석실의 기원지와 계보」, 『동아시아 고분문화와 백제 왕릉의 위상』, 서울특별시.
- 김재홍, 2012, 「전북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7, 「위세품으로 본 전북가야의 위상과 성격」,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김현구외,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1, 일지사.
- 김태식, 1985, 「5세기 후반 대가야의 발전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12, 서울대국사학과.
- _____, 1993, 『가야문명사』, 일조각.
- _____,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2,3, 푸른역사.
- _____, 2004, 「가야, 가야 사람, 가야 역사」, 『가야 잊혀진 이름 빛나는 유산』, 혜안.
- _____,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 吉井秀夫, 2000, 「대가야계 수혈식석곽분의 목관 구조와 그 성격-못, 격쇠의 분석을 중심으로-」,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周年 紀念論叢』,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 高久健二, 1992, 「綜合考察-鐵製遺物」, 『昌寧校洞古墳群』, 東亞大學校博物館.
- 남재우, 2003, 『安羅國史』, 혜안.
-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 문화재연구원.
- 박영민, 2012, 『4-6세기 금관가야의 음악 구성』,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 박천수, 1990, 『5-6세기대 창녕지역 도질토기의 연구』,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 _____, 1993, 「三國時代 昌寧地域 集團의 性格研究」, 『嶺南考古學』13, 영남고고학회.
- _____, 1995, 「정치체의 상호관계로 본 대가야왕권」, 『가야제국의 왕권』, 인제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 _____, 1999, 「器臺를 통하여 본 伽耶勢力의 動向」, 『伽耶의 器臺』, 金海博物館.
- _____, 2000 「考古學으로 본 加羅國史」,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 _____, 2001, 「고고자료를 통해 본 가야시기의 창녕지방」, 『가야시기 창녕지방의 역사, 고고학적 성격』, 창원문화재연구소.
- _____, 2004, 「가야토기에서 역사를 본다」, 『가야 잊혀진 이름 빛나는 유산』, 혜안.
- _____, 2007, 『새로쓰는 고대한일교섭사』, 사회평론.
- _____, 201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 _____, 2016, 「가야고고학 연구 서설-소국에서 영역국가로-」, 『가야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29), 진인진.
- _____, 2018,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권역과 대가야 영역국가의 역사적 의의」,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가야 복원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대구, 계명대학교 인문학연구단 한국학연구원.
- _____, 2018, 『가야문명사』, 진인진.

- 신경철, 1992, 「金海 禮安里160號墳에 대하여」, 『伽耶考古學論叢』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_____, 1989, 「삼한·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사』1, 부산직할시사 편찬위원회.
- _____, 1995, 「金海 大成洞·東來 福泉洞 古墳群 點描-金官加耶이해의 一端-」, 『釜大史學』19, 釜山大學校史學會.
- _____, 2000, 「金官加耶土器의 編年 - 洛東江下流域前期陶質土器의 編年 - 」, 『伽耶考古學論叢』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_____, 2006, 「가야와 그 전환기의 고분문화」『가야와 그 전환기의 고분문화』, (제15회문화재연구학술회의),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_____, 2010, 「대성동고분군 발굴조사의 성과와 과제」『대성동고분 발굴20주년기념 대성동고분군과 동아세아』, (제16회가야사국제학술회의), 김해문화원.
- 임학중, 2007, 「낙동강 하지류역의 패총문화에 대한 재인식」, 『대동고고』1, 대동문화재연구원.
- 이병도, 1976, 『韓國史-古代編-』, 을유문화사.
- 이성주, 2000, 「분구묘의 인식」, 『한국상고사학보』32, 한국상고사학회.
- 이영식, 1993, 「창녕 교동 11호분 출토 환두대도명」, 『송갑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송갑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_____, 2017, 『가야제국사 연구』, 생각과 종이.
- 이용현, 2007, 『가야제국과 동아시아』, 통천문화사.
- 이주헌, 2000, 「阿羅加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 李政根, 2006,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産과 流通』,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嶺南大學校 大學院.
- 이희준, 1998a 「김해 예안리유적과 신라의 낙동강 서안진출」, 『韓國考古學報』39, 한국고고학회.
- _____, 1998b, 『4~5世紀 新羅의 考古學的研究』,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大學院.
- _____, 2005, 「4-5세기 창녕지역 정치체의 읍락 구성과 동향」, 『嶺南考古學』37,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7, 『신라 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 _____, 2010, 「皇南大塚 南墳 奈勿王說」의 提起 背景과 概要 그리고 意義」, 『皇南大塚』, 國立中央博物館.
- _____, 2017, 『대가야 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 이형기, 2016, 「대가야의 부체제에 대한 고찰」, 『대가야의 국가발전 단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 윤은식, 2006, 「4세기대 함안지역 토기의 변천과 영남 지방 토기의 樣式論」, 『東垣學術論文集』8,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조성원, 2010, 「고분출토 고배로 본 5세기 대 낙동강 하류역의 소지역성 연구」, 『영남고고학』55, 영남고고학회.
- 조영제, 1985, 「水平口緣壺에 대한 一考察」, 『慶尙史學』1, 경상대학교사학과.
- _____, 1990, 「三角透窓高杯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7,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0, 「多羅國의 成立에 대한 研究」,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원.
- _____, 2002, 「考古學에서 본 大加耶聯盟體論」, 『盟主로서의 금관가야와 대가야』, (第8回加耶史學術會議), 金海市.
- _____, 2006,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博士學位論文), 釜山大學校大學院.
- 조효식·장주탁, 2016 「가야의 성곽」, 『가야 고고학개론』, 진인진.
- 주보돈, 1995, 「서설-加耶史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 _____, 2009, 「문헌상으로 본 고대사회 창녕의 향방」,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 _____, 2014, 「가야사 새로 읽기」, 『가야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
- _____, 2017, 『가야사 새로 읽기』, 주류성.
- 전상학, 2017,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記念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 정주희, 2008, 『咸安樣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에 관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경북대학교

대학원.

- 鄭澄元·洪漣植, 1995, 「昌寧地域の古墳文化」, 『韓國文化研究』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 崔鍾圭, 1983, 「中期古墳の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7, 부산대학교 사학회.
- 하승철,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慶尙大學校博士學位論文), 慶尙大學校大學院.
- , 2017,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한국의 고도와 익산』,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 홍보식, 2000, 「考古學으로 본 金官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학술총서1), 한국고고학회.
- , 2006, 「토기로 본 가야고분의 전환기적 양상」, 『가야와 그 전환기의 고분문화』, (제15회 문화재연구학술 회의),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일본]

- 穴澤口禾光·馬目順一, 1975, 「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60-4, 日本考古學會.
- 大平裕, 2013, 「知っていますか任那日本府-韓国がけって教えない歴史-」, 『任那日本府』, PHP研究所.
- 定森秀夫, 1981 「韓國慶尙南道昌寧地域陶質土器の検討」, 『古代文化』33-4, 古代學協會.
- 朴天秀, 1995, 「渡來系文物からみた加耶と倭における政治的變動」, 『待兼山論叢』史學編29, 大阪大學文學部.
- , 1998, 「考古学から見た古代の韓·日交渉」, 『青丘學術論集』12財團法人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 , 2001, 「榮山江流域の古墳」,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 I - 墓制』, 東成社.
- , 2004, 「大加耶と倭」,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10,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 2007, 『加耶と倭』, 講談社.
- 金宇大, 2017, 『金工品から読む古代朝鮮と倭』,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田中俊明, 2001, 「新羅の加耶進出と比斯伐」, 『가야시기 창녕지방의 역사, 고고학적 성격』, 창원문화재연구소.



李 炯 基 | 해양수산부

가야사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통설이라 할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대개 국가적 성격을 연맹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잘 아시다시피 가야사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세한 문헌자료의 해석을 통한 대략적인 가야체제의 분석과 주변국과의 관계사 등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적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가야사연구는 활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고고학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고, 최근에는 고고학적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가야사 연구성과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세가 되었다.

역사학과 고고학은 과거사의 복원이 그 목적인다고 할 때, 그 분석대상은 과거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과 물질자료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학문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오늘날처럼 고고학과 고대사학자간의 만남을 통해 가야사회 규명에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승철선생님은 김해의 금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고고학 유적과 유물을 설명하고 이후 국가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고고학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는 토론자로서는 많은 오해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과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여쭙어 보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필자는 3~4세기 가야의 국가적 성격을 논하면서 하필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머리말에 고고학 자료를 통해 3~4세기 가야의 국가적 성격을 논의할 경우 금관가야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설명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경남 서부지역의 상호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설명없이 이들을 대상으로 서술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
2. 김해 세력이 인구의 집중과 정치권력의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로서 남해안-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관문 사회의 역할을 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는 등 거의 통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때 필자는 금관가야를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구야국과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독로국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맹을 형성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복천동 집단은 4세기부터 금관가야 연맹에 참가하는 것으로 부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연맹은 어떠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추가 설명하여 주시길 바란다. 대개 이러한 연맹의 형태는 지역연맹체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데, 필자의 생각도 함께 알고 싶다.

3. 4세기대 아라가야는 신라, 백제권역은 물론 일본열도의 규슈지역까지 창원 현동유적과 진동만으로 설명하는 원거리 교역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이는 국가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라가야의 당시 국가체계는 비슷한 시기 금관가야연맹과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4. 경남 서부지역을 설명하면서 진주권은 5세기 전반까지 아라가야 세력의 통제를 받는 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의 통제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5. 3~4세기 가야의 국가적 성격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는 포상팔국 관련 기록으로 생각한다. 가야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거기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아라가야 이해에는 떨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잠정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고 싶다.



李 炯 基 | 해양수산부

가야사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통설이라 할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대개 국가적 성격을 연맹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잘 아시다시피 가야사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세한 문헌자료의 해석을 통한 대략적인 가야체제의 분석과 주변국과의 관계사 등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적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가야사연구는 활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고고학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고, 최근에는 고고학적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가야사 연구성과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세가 되었다.

토론자는 대가야사를 1~3세기의 삼한소국단계를 지나 4세기의 지역연맹체단계, 5세기 이후의 대가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¹⁾ 모든 가야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야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외부사건은 필자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5세기 초 고구려군의 南征일 것이다. 대가야로서는 선진문물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유입되면서 기왕의 성장조건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대가야로 성장하게 되었고 서부경남지역으로 진출을 하면서 대가야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새로운 단계는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를 통해 '부체제'로 생각하고 있다. 비슷한 생각이지만 고대국가로 한단계 더 발전단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박천수선생님은 5세기 이후 가야사회 전반에 대한 고고학자료를 언급하면서 가야의 국가적 성격을 논하고 있다. 고고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토론자로서는 많은 오해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과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여쭙어보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필자는 5~6세기 가야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명칭들은 대개 『삼국유사』에 언급된 금관가야, 아라가야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삼국유사』, 오가야조를 가야사회 내 유력세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하는 발표자도 그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창녕지역은 유독 비사별로 언급한다. 발표자께서 기준을 달리하여 설명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

1) 李炯基, 2009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2. 금관가야는 5세기 전엽 이후 탁월한 왕묘의 축조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권역 내에서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성동고분군 북쪽에서 파괴되었거나 지역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후보로 생각하시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3. 5세기 소가야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팔국 전쟁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소가야는 사천, 마산, 거제, 진주, 합천, 산청 일부와 포상팔국을 연합한 광역 소국연합으로 설명하면서 그 시기를 5세기 초로 보고 있다. 기록상으로 3세기 초에 보이는 포상팔국 전쟁관련 기사를 5세기대 이후로 보는 필자 나름의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4. 5세기 소가야의 성장은 고구려 남정이후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망이 해체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서 연맹국 간에는 대가야권, 아라가야권과 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명확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라가야는 삼한 소국단계에 기록상 김해 구야국과 비견될 정도의 세력을 갖추고, 5세기 이후에도 관료의 분화가 확인되는 등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자는 관계망 해체를 말씀하고 계신다.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필자는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계수호를 대가야 왕권에 의해 이 지역 수장에게 사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지역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보완설명해주시기 바란다.
6. 발표자는 대가야의 성장을 부체제까지로 보면서 고대국가로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우 고대국가로 성장하고 난 이후 별도의 정치체는 언급되지 않지만, 가야의 경우는 멸망하는 시기에도 개별 소국명이 전해지는 이유도 있다. 발표자께서는 사국시대를 주창하시는데 이와 관련한 생각을 여쭙고 싶다.



하 승 철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본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은 건국신화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관한 내용이고, III장은 포상팔국에 대한 검토이며, IV장은 ‘하부’기록을 통해 대가야의 부체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1. 가야 건국신화는 김해의 가락국,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로서 가야를 이끌었다는 단일연맹체설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단일연맹체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만한 어떠한 사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독립성을 지닌 소국의 존재가 멸망 순간까지 존재하였다는 점, 소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몇 군데의 지역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국이나 소지역권도 전체 가야 속에서 확인되는 지역적인 특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2-4세기 김해 가락국은 가야의 관문사회로서 대표성을 발휘하고 있고, 고령의 대가야도 북부지역을 핵심권역으로 하지만 가야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 그것이 시종일관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단일 연맹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 발표자는 포상팔국 전쟁은 3세기에 금관가야연맹체, 아라가야연맹체, 소가야연맹체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전쟁의 결과 소가야연맹체가 몰락하고 김해세력이 교역의 중심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함안세력이 새로운 중심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김해의 금관가야는 4세기에 최전성기를 구가한다. 대성동고분군과 봉황토성을 중심으로 국읍의 경관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사실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 대다수의 연구자들도 견해를 같이한다. 그렇다면 포상팔국 전쟁의 결과로 김해 세력이 남해안의 교역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은가?

더불어 함안지역이 남해안의 고봉들로 해안과 차단되어 있어 대외 교역에 불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진동만까지는 24km에 불과하고 대현-진동만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청동기시대 이래 적극 활용되어 왔다. 진동만의 대평리유적과 마산만의 현동유적이 아라가야의 대외 교역항이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3. 발표자는 고령 중심지를 王都=上部, 함천담 상류지역인 봉산면 일대를 王畿=下部로 설정하였고, 함

천, 거창, 함양, 남원 아영분지는 대가야의 지방이지만 독립성이 강한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직접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접지배를 표현하신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하 승 철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본 글은 토기양식 등 고고학 자료를 통해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다라, 기문, 비사벌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각국의 분포범위, 존속 기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1. 금관가야는 문헌에 기록된 바와 같이 532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5세기에 도 봉황토성이 건재하고 주변의 거점 취락과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설명하였다. 상당부분 공감할 수 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대성동고분군은 5세기 중엽 73호묘를 끝으로 축조가 중단된다. 발표자는 금관가야 왕묘가 대성동고분군 북쪽에서 파괴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져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묘역 이동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5세기 주변지역 가야 각국의 고분 입지와 군집 양상을 고려하면 대성동고분군 북쪽으로 묘역이 이동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5세기 후반 봉황토성의 사정과 주변 중심취락의 관계로 보면 금관가야의 존속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심고분군의 존재가 분명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5세기 금관가야 권역, 금관가야 중심고분군의 향방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 발표자는 5세기 창녕 비사벌의 활동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낙동강과 남해안의 넓은 지역에 창녕양식 토기가 확산되는 것도 주목하였다. 비사벌의 중심세력은 5세기 중엽에 계성고분군에서 교동·송현동고분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5세기 후엽에 창녕지역은 신라세력에 복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토기양식, 금공품, 묘제 등 고고학 자료에 나타난 신라복속의 증거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세기 후엽에 가야에서 신라로 이행하는 뚜렷한 고고학적 증거는 무엇인지, 그것이 5세기 전엽 신라문화의 확산에 나타난 고고학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3. 발표자는 남원의 아영분지와 장수분지의 세력을 상기문으로 파악하고, 섬진강수계의 남원 분지를 하기문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문국은 대가야의 통제를 받는 지방으로 이해하였다. 기문의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아영분지와 장수분지가 가야와 관련되고 있음은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하기문으로 이해되고 있는 남원 서부지역은 고고학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 서부지역을 대가야의 지방으로 파악하는 구체적인 고고학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4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과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에 대한 토론문



박 천 수 |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1. 3~4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발표자는 4세기 후엽에는 함안 토기 제작기술이 경남 서부지역 깊숙이 파급되고 남해안을 따라 고성, 사천을 넘어 전남 동부지역으로 확산한다. 토기 제작기술의 전파와 모방, 다양한 형태의 인적교류는 경남 서부지역이 공통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발표자의 견해는 4세기 가야토기양식을 크게 금관가야와 아라가야로 보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4세기대 토기양식을 공통양식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또한 이 시기 함안산 토기의 생산과 유통을 인정하지 않는 연구자도 있다.

나아가 4세기 가야사회에 정치적 구도에 대하여 문헌사학과 고고학에서는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연맹체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2.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발표자는 浦上八國 전쟁의 성격은 3세기초 소가야연맹체로까지 발전한 고자국이 세력 확장을 더욱 꾀하기 위해 역시 지역연맹체로 성장하였던 금관가야연맹체와 교역권을 둘러싼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은 신라의 개입으로 인하여 포상팔국의 패배로 끝난다.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소가야연맹체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삼한 제 소국 가운데 대국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고성의 고자국이 대국화하려고 하였으나 좌절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포상팔국 전쟁을 거치면서 김해세력이 교역의 구심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함안세력이 새로운 구심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발표자는 포상팔국 전쟁을 고자국과 금관가야국간의 교역권을 둘러싼 전쟁으로 보고, 이로 인해 김해세력이 교역의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자는 기년이 불확실하나 포상팔국 전쟁에 대하여 4-5세기 고고자료로 볼 때 남해안의 교역권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고자국과 안야국으로 본다.

토론자는 3~4세기 가야의 대외교역의 중심은 대성동고분군 출토 유물로 볼 때 금관가야로 본다. 그래서 교역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4~6세기 加耶의 對百濟 · 新羅 관계



백 승 옥 | 국립해양박물관

4~6세기 加耶의 對百濟·新羅 관계

백 승 옥 | 국립해양박물관

목 차

- I. 머리말
- II. 4~6세기 동북아의 국제 정세
- III. 4~5세기 초 가야와 백제, 신라
- IV. 5~6세기 대 가야와 백제, 신라
- V. 맺음말

I. 머리말

가야사 복원의 어려움은 사료 부족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외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는 모두가 교섭 및 교류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만 기록되어 있다. 이를 가야의 입장에서 가야 중심의 역사 기술을 해야만 진정한 가야 대외 관계사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한계는 예상된다. 특히 관계사의 경우 인근의 여러 정치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사료 상 그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사료가 가지는 裏面性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야사의 시작은 논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 삼한 소국들 중 변한과 진한의 일부국이 성장 발전하여 가야 제국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출발은 기원전 3~2세기 무렵으로 소급해 볼 수 있다. 고조선 준왕이 남하하여 韓王이 되었을 때,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치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¹⁾ 삼한 소국들이다. 이들과 백제, 신라, 가야 제국(諸國)들과의 관계는 성장에 따른 국명의 전환만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본 연구 내용의 시간적 범위는 당연히 삼한 시기부터여야 할 것이지만, 4~6세기로 한정하고자 한다. 문헌을 통해 삼한시기 각국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공간적 범위는 가야 제국이 존재했던 지역과 백제, 신라가 존재했던 지역이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외관계사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제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연동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동북아 전체의 정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가야의 경우 당시 동북아 정세를 주도할 만한 정치적 입장은 아니어서 당시 주변 정세의 변동 여부에 그 대외관계

1) 백승옥, 2011, 「辰·弁韓의 始末과 內部構造」, 『博物館研究論集』 17, 부산박물관.

사가 좌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II장(4~6세기 동북아의 국제 정세)을 두었다.

III장(4~5세기 초 가야와 백제, 신라)과 IV장(5세기 중엽~6세기 전반 가야와 백제, 신라)으로 구분한 것은 4~5세기의 경우 김해 남가라(가락국, 금관가야) 중심의 대외관계가 진행되었으며, 5세기 중엽 이후 멸망 기까지는 고령의 가라국(대가야)이 가야 대외관계를 주도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²⁾ 그러나 가야 제국은 전시기 동안 단일 연맹체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³⁾ 각국이 분리된 채 존재하고 있었지만 각국들의 대외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술을 못할 뿐이다. 다만 함안에 존재했던 안라국의 경우 약간의 사료가 존재한다.

II. 4~6세기 동북아의 국제 정세

고고학적 연구 성과로 보아 동북아시아 전체가 연동되어 움직이는 시기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경우 생업적 관련성은 있지만 정치적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史記』에 朝鮮傳이 입전되고, 『산해경』에 倭의 모습이 보이는 등 이미 先秦시대부터 동북아 각지는 상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三國志』 서술 단계에는 동북아 제 정치집단들은 서로 간에 직접 통교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늦어도 3세기 단계부터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6세기에 국한해서 보면 중국 대륙은 남북조시대(439~589)로서 분열의 시대였다.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 남쪽으로 쫓겨난 漢族의 남조는 東晉(317~419)→宋(420~479)→南齊(427~482)→梁(502~557)→陳(557~589)의 왕조 교체가 이루어졌다. 북조는 호호 16국을 통일한 北魏(386~534)만이 150년 존속했을 뿐 대부분 20여 년 정도로 흥망성쇠를 반복했다. 북위가 분립되어 東魏(534~550)와 西魏(535~556)가 되고, 다시 동위는 北齊(550~577)가 되고, 서위는 北周(557~581)가 되었다.⁴⁾

반면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통합의 기운이 넘쳐난 시대였다. 일본열도의 倭가 문자자료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先秦 자료인 『山海經』에서이다.⁵⁾ 後漢 王充(27~97)이 찬술한 『論衡』에도 “周的 시대는 천하태평으로 倭人이 鬲艸(창초;香草)를 바쳤다”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正史의 기록으로는 後漢 班固(32~92)가 찬한 『漢書』 地理志에 보인다. 이 시기의 倭는 10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漢의 낙랑군에 조공을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後漢書』 東夷傳에는 서기 57년 倭 奴國왕의 사신이 후한의 낙양을 방문, 광무제에게서 印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⁶⁾. 이 기록은 1784년 일본 후

2) 김태식, 2017, 「가야의 대외교류」, 『가야, 백제를 만나다』,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도록 ; 2018,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 교류」, 『가야사 총론-가야고분군 연구총서 3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3) 백승욱,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출판사 ; 2014, 「加耶諸國의 존재형태와 ‘加耶地域國家論」, 『지역과 역사』제34호. 이영식, 2016,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종이.

4) 노종국, 2018, 「4~6세기 나제동맹의 성격과 의미」, 『나제동맹』,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8~30쪽의 내용을 정리함.

5) 『山海經』 「海內北經」, “蓋國在鉅燕南 倭北 倭屬燕”.

6) 『後漢書』 「東夷傳」 倭條, “建武中元二年 倭奴國奉貢朝賀使人…(중략)…光武賜以印綬”.

쿠오카의 지카노시마에서“漢委奴國王”이라고 새겨진 金印이 실제로 발견되어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

3세기 대 왜의 모습은 陳壽(233~297)가 편찬한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비교적 자세히 보인다. 이에 는 小國 간의 다툼이 격화되어 왜에 전국적인 대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보인다. 일본 열도의 소국들이 서로 다투는 혼란기가 계속되다가, 3세기에 접어들면서 멸망과 통합을 거듭하며 정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30여 나라를 지배하였던 邪馬台國이 가장 큰 나라였다고 한다. 야마타이국의 여왕 卑彌呼는 239년, 魏에 사신을 파견하고 다수의 구리거울과 ‘親魏倭王’의 칭호를 얻었다. 히미코 사후 야마타이국은 혼란에 빠지나 여왕 壹與가 왕위에 오른 후 안정을 찾았다. 일여의 泰始 2년(266), 晉에 사신 파견 이후 백여 년 동안 왜는 중국 사서에서 사라진다.

3세기 대 왜의 대외교류가 중국과의 冊封關係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4~5세기 대는 가야제국과 백제로부터의 鐵자원 및 선진문물의 수입과 관련한 것이었다. 왜의 한반도에 대한 반대급부는 소금 등의 특산물과 노동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派兵 형태의 군사지원도 이해관계에 따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세기 대 왜국의 상황과 대외교류를 살펴 볼 수 있는 문헌 자료로는 『古事記』, 『日本書紀』 등이 있지만 이는 전승 자료로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 시기 중국 측 사료는 결락되어 있어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사료는 없는 셈이다. 근년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초기의 대형 전방후원분의 출현 연대를 3세기 중엽까지 소급하고 있으며, 그 중심지가 奈良 분지라는 점에 거의 합의를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오랜 논쟁이었던 邪馬台國 소재지 문제의 종결을 의미한다. 한국 고대사와 관련하여서도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3세기 중엽 이후, 특히 광개토태왕릉비문에 보이는 倭의 존재를 일본 열도 어느 지역의 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4~6세기 일본 열도는 首長聯合으로서의 초기 야마토(大和) 정권이 성립되고 고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지속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갔으며, 그를 위한 鐵을 비롯한 선진 문물의 입수는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諸國으로부터였다.

3세기 후반 대까지 78여 개의 小國 분립 상태로 있던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4세기 대 들어 통합의 시대로 접어든다. 마한 제국은 백제가 중심이 되고, 진한 제국들은 사로국이 중심이 되어 통합되어 갔다. 다만 변한 제국들은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가야 제국으로 성장 발전한다. 영역의 확장은 경계 지점에서 충돌하게 되어 있다. 특히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要地일 경우는 이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4세기 대 한반도에서 波動의 진원지는 漢 군현이 존재하였던 낙랑과 대방 고지였다. 고구려는 313년 낙랑군을 치고 남녘 2,000여 口를 사로잡아 간다. 314년과 315년에는 각각 대방군과 현토군을 攻破한다. 낙랑과 대방 지역은 중국으로부터의 선진 문물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곳으로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이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교역로의 장악은 한반도에서 대표주자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었다. 백제 근초고왕은 즉위 26년(371)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한다. 이때 고구려 고국원왕이 流矢에 맞아 숨진다. 요지를 백제가 차지하게 된다. 백제가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격한 반면 고구려는 前燕과의 항쟁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7) 근초고왕이 東晉으로부터

7) 정재운, 2012,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제44집, 59쪽.

터 ‘領樂浪太守’를 수여 받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중국 측에서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세력을 백제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은 광개토태왕 즉위와 함께 기존의 전세가 역전된다. 광개토태왕은 신라와 연맹하여 백제를 압박하였다. 백제 아신왕은 倭를 끌어들여 대항하고자 하였다. 왜의 입장에서는 이전 낙랑·대방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백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세기 말 5세기 전 반 동북아의 형세는 이렇게 형성되었다.

이후 백제와 신라는 433년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른바 나제동맹의 결성이다. 신라는 5세기 중엽(464)이 되면 고구려와 결별한다. 이후 고구려의 창끝은 백제에서 신라로 향하게 된다.

가라국의 경우 줄곧 백제와 같은 길을 가지만, 6세기 들어 백제가 가야지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양국은 대립하게 된다. 가라국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522년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는 등 자구책을 도모한다. 그러나 신라 역시 가야지역을 병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존을 유지할 수 없었다.

Ⅲ. 4~5세기 초 가야와 백제, 신라

4세기 대 가야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세기 대 이전의 가야사를 복원하는 데에는 중국 역사서인 『삼국지』를 활용한다. 『삼국지』에는 3세기 중엽 이전까지 변한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를 잇는 『진서』의 기록에는 변한에 대한 독립된 기사가 없다. 3세기 중엽 이후 100여 년 동안 가야의 동향을 보여 주는 중국 기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 가야관계 기사는 3세기 초엽까지 단편적으로 간간히 그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212년에 가야가 신라에 왕자를 인질로 보내는 기사를 끝으로 가야는 그 모습을 감춘다. 가야가 『삼국사기』에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5세기 말인 481년 이다. 고구려가 말갈과 더불어 신라의 북경을 침입하자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군을 도우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삼국사기』에 한정할 경우 가야는 212년부터 481년까지 무려 269년 동안이나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5세기 대가 되면 가야는 광개토태왕릉 비문 경자년(400년)조 기사에 ‘임나가라(任那加羅)’의 형태로 보이고 있다. 고구려의 보병과 기병 5만의 군대는 신라 수도 경주에까지 침입한 왜적을 뒤쫓아 임나가라 종발성에 다다르고 있다. 여기에서의 임나가라는 낙동강 하류지역에 존재했던 가야, 즉 남가라(=금관가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남북조 시대 남제(南齊)의 역사를 기록한 『남제서』에는 479년에 ‘가라(加羅)’의 국왕 하지(荷知)가 남제에 사신을 보내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이의 가라는 경상북도 고령에 존재했던 가라(=대가야)로 생각되는데, 상당한 힘을 가진 고대국가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가야가 기록상 그 자취를 감추는 시기는 3세기 중·후엽부터 4세기 말까지이다. 4

세기 대 가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측의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 신공기를 연대 수정하여 4세기 대의 내용으로 볼 경우, 4세기 대 가야 대외 관계사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본기와 열전, 『삼국유사』에 보이는 이른바 포상팔국 전쟁 기사를 연대 수정하여 볼 경우 4세기 대 가야 대외관계사 추구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는 두 기사군들과 광개토태왕릉비문에 보이는 가야 관계 기사의 검토를 통해서 4-5세기 초의 가야의 대 백제, 신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神功紀」의 검토를 통해본 가야 제국과 백제

《日本書紀》神功紀 일련의 기사에는 탁순국과 가라국이 백제·신라와 관계를 맺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49년조에는 비자발(比自狹), 남가라(南加羅), 탁국(喙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 등 가야 7국의 국명이 등장하기도 한다.

사료 A) : 斯摩宿禰를 탁순국[사마숙네는 무슨 姓의 사람인지 모른다]에 보냈다. 이때에 卓淳王 末錦早岐는 사마숙네에 고하여 말하기를 “甲子年의 칠월 중에 百濟人 久氐와 彌州流, 莫古 삼인이 우리 땅에 와서 ‘백제왕은 東方에 日本이라는 貴國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신들을 보내 그 貴國에 가게 하였습니다. 고로 길을 찾아서 그 나라에 가고자 합니다. 만일 신들에게 길을 가르쳐 통하게 하시면, 우리 왕은 반드시 군왕의 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中略)- 그래서 사마숙네는 종자인 爾波移와 卓淳人 過古 둘을 百濟國에 보내어 그 왕을 위로하게 하였다. 백제의 肖古王은 기뻐하고 후대하였다. 오색의 綵絹 각 한필, 角弓箭과 아울러 鐵鋌 사십매를 이파이에게 주었다. 또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 각종의 진기한 물건을 보이며 “이 진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貴國에 공상하려 해도 길을 모른다. 뜻은 있어도 따르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사자에게 부탁하여 공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 때 이파이는 받아가지고 돌아와 志摩宿禰에게 고하였다. 그리고 卓淳에서 돌아왔다.⁸⁾

사료 B) : 봄 3월에 아라타 와케(荒田別), 가가 와케(鹿我別)를 장군으로 삼았다. (왜에 와 있던 백제인) 久氐(구지) 등과 같이 병사를 정돈하여 바다를 건넜다.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이때 흑자가 말하기를 군사가 적어서 신라를 깨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다시 사백, 개로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 줄 것을 청했다. 목라근자와 사사노궤[이 두 사람은 그 성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하여 精兵을 이끌고 가게 했다. 사백과 개로도 같이 보냈다. 모두 탁순에 모여 신라를 쳐서 깨부수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자발(比自狹), 남가라(南加羅), 탁국(喙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의 일곱 나라를 평정했다.⁹⁾

사료 C) : [신라가 조회를 하지 않았다. 이 해에 襲津彦을 보내어 신라를 치게 하였다(百濟記에는壬午年에 新羅가 貴國에 봉상하지 않으므로 貴國이 沙至比跪로 하여금 토벌하게 하였다. 신라인은 미녀 2인

8) 『日本書紀』 권9 神功皇后 攝政 46年(246) 春3月條.

9) 『日本書紀』 권9 神功皇后 攝政 49年(249) 3月條.

을 단장시켜 항구에서 마중하여 유혹하였다. 사지비궤는 그 미녀를 받고서는 도리어 加羅國를 쳤다. 加羅國王 己本旱岐 및 그 아들 百久至·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汶至 등이 그 인민을 거느리고 百濟로 도망 왔다. 百濟는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였다. 加羅國王의 여동생 既殿至가 大倭를 향해 가서 아뢰기를 “天皇은 沙至比麗를 보내서 新羅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미녀를 받고는 버려서 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형제 인민이 모두 유랑하였습니다.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와서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이 크게 노하여 곧 木羅斤資를 보내어 하여금 加羅에 이르러 그 사직을 되돌렸다(下略).¹⁰⁾

사료 B)를 보면, 倭가 比自倭 등의 가야제국을 정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①정벌의 주체를 왜가 아닌 백제로 이해하는 시각,¹¹⁾ ②주체는 백제이지만 정벌이 아닌 교역권의 장악이나 공납관계의 형성으로 보는 견해,¹²⁾ ③5세기 중엽 이후의 사실이 소급되어 반영되었다고 보는 견해,¹³⁾ ④6세기 전반기에 백제가 당위적으로 존재해야 할 역사상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¹⁴⁾ 등이 있어 왔다. 필자는 그동안 주로 ①과 ②의 입장에서 이들 기사들을 다루어 왔었지만, 내심 사료의 신빙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日本書紀》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닌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며 주관적 역사 기록이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기원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한반도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반도 諸國을 일본의 藩國으로 설정하여 일관되게 쓰여 졌다. 그기에 더해 과장과 허구로 날조된 일본(倭) 즉 家傳을 바탕으로 한 인물들의 설정으로 인해 신공기의 내용만으로 당시의 역사상을 그려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서에 주목하는 것은 《일본서기》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들로서 「백제기」, 「백제본기」, 「백제신찬」 등이 사용되어졌다.

田中俊明의 지적대로 신공기 49년조의 가야 7국명은 5세기 중엽 이후에야 등장할 수 있는 국명들이다.¹⁵⁾ 고령 대가야의 가라에 비해 김해 가야세력을 남가라라고 표기한 것은 고령 대가야가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시기의 국명 표기 나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공기는 계체·흠명기 보다 나중에 편찬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서기》는 持統朝(687-696)에 권14 雄略紀부터 권21 用明·崇峻紀와 권24부터 권27 天智紀가 먼저 만들어졌다. 권1 神代紀부터 권13까지는다음 대인 文武朝(697-707)에 찬술된 것으로 밝혀졌다.¹⁶⁾ 이는 신대기부터 권13까지

10) 『日本書紀』권9, 神功皇后 攝政 62年(262+120=382, 262+180=442) 春3月條.
 11) 千寬宇, 1977, 『復元加耶史』(中) 『文學과 知性』29 ; 1990, 『加耶史연구』, 일조각. 金鉉球, 1991, 『『神功紀』加羅七國 平定記事에 관한 一考察』, 『史叢』39 ; 1993, 『임나일본부연구』, 일조각.
 12)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이현혜, 1988, 「4세기 가야사회의 교역체계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1. 이도학, 1995,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김태식, 1996,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시고」,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 백제연구소.
 13)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이영식, 1995, 「백제의 가야진출 과정」, 『한국고대사논총』7.
 14)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 吉川弘文館.
 15) 田中俊明, 2018, 「『일본서기』를 통해 본 안라와 왜의 관계」, 『안라(아라가야)의 위상과 국제관계』, 학연문화사, 216-230쪽.
 16) 森博達은 『일본서기』의 음운과 문장을 분석하여 그 표기의 성격 차이를 바탕으로 α群(권14-21·24-27)·β群(권1-13·22-23·28-29)·권30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나아가 α群은 持統朝(687-696)에 續守言과 藤弘格이 正音에 의한 正格漢文으로 述作했으며, β群은 文武朝(697-707)에 山田史御方이 倭音を 바탕으로 한 일본식 한문으로 찬술하였다고 하였다. 권30은 元明朝(708-714)에 紀朝臣淸人이 찬술하였다 한다. 모리 히로미치 지음·심경호 옮김, 2006, 《일본서기의 비밀》, 황소자리.

의 내용이 이후 사실에 합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케 한다. 권13 이전의 기사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 점은 동일 사건이 양쪽에서 언급, 서술되었을 경우 권14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준다. 신공기의 내용을 가지고 倭는 물론이고 百濟도 加耶를 정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실상에 가장 가까운 것은 흠명기 2년(541) 하 4월조에서 백제 성왕이 회의에 참석한 가야 제국의 한기들에게 한 말의 내용일 것이다.

“옛적에 우리 선조 속고왕(速古王), 귀수왕(貴首王)의 치세 때에 안라(安羅)·가라(加羅)·탁순한기(卓淳旱岐) 등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고 상통하여 두텁게 친교를 맺어 자제로 삼아 항상 융성하기를 바랐다.” 자제라는 표현으로 보아 백제와 가야 제국 간에 우위는 있었다 하더라도 상통하여 친교를 맺어 지내는 사이였다. 이가 설사 6세기 중엽 백제가 바라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왕의 말이 전혀 근거없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양직공도』에 보이는 백제 傍小國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이에는 비록 백제 천하관에 입각하여 기록된 것이긴 하나, 당시 가야 소국들이 중국 남조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백제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만 479년 가라국의 남제 견사는 독자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이는 당시 가라국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동안 신공기 연대의 수정에 있어서는 3주갑 인하설¹⁷⁾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周甲(120년)을 내려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들 기사 속에는 2주갑 내지 3주갑을 인하하더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百濟系 자료와 倭系 전승 자료를 혼합하여 가상의 神功紀를 설정하여 기술한 까닭에 생긴 혼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百濟系 사료에 한정하는 한 薨去記事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기준은 2주갑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欽明紀 속의 百濟 聖王 언급기사와 더불어 神功紀 55년조의 “百濟肖古王薨”기사와 56년조의 “百濟王子貴須立爲王” 기사를 2주갑 인하하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近肖古王 三十年 “冬十一月 王薨” 기사와 近仇首王 元年의 “即位”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은 2주갑 인하설의 중요한 근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薨去와 即位 기사의 일치는 神功紀 기사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한 증거이기도 하다.

2. 포상팔국 전쟁 기사의 검토를 통해 본 가야와 신라

관련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해니사금 14년 추 7월조와 같은 책 물계자 열전, 『삼국유사』 물계자전에 나온다.

사료 D) : 포상팔국이 모의하여 加羅를 침략했다. 가라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하자, (신라)왕이 태자 于老와 이별찬 利音에게 명하여 六部の 군사를 이끌고 가서 加羅를 구하게 했다. 포상팔국의 장군을 쳐서 죽이고 사로 잡혔던 6000인을 빼앗아 (가라국에) 돌려 주었다.¹⁸⁾

17)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13~127쪽. 山尾幸久는 『日本書紀』 雄略紀 속의 『百濟新撰』의 기사를 주시하여, 神功紀 49년조를 중심한 神功紀의 기사를 3주갑 인하하여 새로운 역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은 5세기 대 倭五王의 시대를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18)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奈解尼師今14年(209年) 秋7月條, “浦上八國 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 與伊伐浪利音 將六部兵

사료 E) : 勿稽子是 奈解尼師今 때의 사람이다. (중략) 이 때 8포상국이 같이 모의하여 阿羅國을 쳤다. 아라국의 사자가 (신라에)와서 도움을 청했다. 尼師今이 왕손인 椽音으로 하여금 인근의 郡 및 六部の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하게 했다. 팔국의 병사들을 패배시켰다. (중략) 삼년 뒤에 骨浦 柒浦 古史浦 삼국 군대가 와서 竭火城을 공격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했다. 삼국의 군대를 크게 패배시켰다. (중략) (물계자가 말하기를) 전날의 浦上, 竭火의 싸움은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었다.¹⁹⁾

사료 F) : 제 십대 임금인 奈解王 즉위 십칠년인 壬申年에 保羅國 古自國[지금(고려 때)의 固城] 史勿國 [지금(고려 때)의 泗州] 등 팔국이 힘을 합하여 변경지역을 침범해 왔다. 왕이 태자 椽音과 장군 一伐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막게 했다. 팔국이 모두 항복했다. (중략) (왕 즉위)십년인 乙未年에 骨浦國[지금(고려 때) 合浦이다] 등의 삼국 王이 각각 군사를 이끌고 竭火를 공격해 왔다.[갈화는 아마도 屈弗일 것이다. 지금(고려 때)의 蔚州이다.]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았다. 삼국이 모두 패했다. (중략) (물계자가 말하기를) 무릇 保羅(아마도 發羅로서 지금(고려 때)의 羅州이다.), 竭火의 전쟁은 참으로 나라의 어려움이었다.²⁰⁾

사료 D)는 신라 내해기사금 14년조 기사로서 서력 기원 209년 해당하며, 17년은 212년, 20년은 215년에 해당한다. 전쟁의 시기를 『三國史記』 기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논자들도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초기기록은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쟁의 발발 시기를 신라본기의 편년 그대로 3세기 초로 보기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다.²¹⁾

『三國志』는 3세기 단계 변진한 소국들에 대해 그 국의 인구를 소국은 6~7백가 대국의 경우 4~5천가라 하고 있다.²²⁾ 이러한 인구 수준에서 전쟁 포로 6,000명의 발생이란 믿기 어렵다. 또한 280년 대 기록인 『삼국지』는 한반도의 삼한관계 기사의 경우 260년대를 그 하한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진한 사로국은 경주 분지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신라의 갈화성(울산) 장악은 3세기 말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었다.²³⁾ 그런데 사료 E)와 F)에 보이는 갈화는 이미 신라의 영역내로 보인다. 또한 3세기 초 단계에 경주의 신라는 김해 혹은 함안 지역까지 원군을 파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장 인물인 于老의 생물 연대의 검토를 통해 보아 포상팔국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3세기 말 4세기 초로 보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²⁴⁾

위 사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내해왕 14년(실연대는 3세기 말~4세기 초 사이의 어느 시기)에 포상팔국이 김해의 南加羅를 공격하지만, 구원군으로 온 신라에 의해 패배하고 사로잡았던 가라인 6000명마저 빼앗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내해왕 17년, 포상팔국은 함안의 阿羅國을 공격한다. 이때에도 포상팔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19) 『三國史記』卷48, 列傳8, 勿稽子傳, “勿稽子 奈解尼師今時人也 (中略) 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椽音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 (中略) --- 後三年骨浦 柒浦 古史浦三國人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中略) 前日浦上竭火之役 可謂危且難矣.”

20) 『三國遺事』卷5, 避隱8 勿稽子條, “第十奈解王即位十七年壬辰 保羅國 古自國[今固城] 史勿國[今泗州] 等八國 併力來侵邊境 王命太子椽音 將軍一伐等 率兵拒之 八國皆降 (中略) 十年乙未 骨浦國[今合浦也]等三國王 各率兵來攻竭火[疑屈弗也 今蔚州] 王親率禦之 三國皆敗 (中略) 夫保羅(疑發羅今羅州)竭火之役誠是國之難.”

21) 이하 본 절의 내용은 백승욱, 2011, 「포상팔국 전쟁과 지역연맹체」,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주류성을 부분 재정리 함.

22)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23) 백승욱, 「삼국시대의 울산」, 『울산광역시사』1-역사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24) 백승욱, 2011, 「포상팔국 전쟁과 지역연맹체」,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주류성, 123-126쪽.

국은 신라 구원군에 의해 패하게 된다. 내해왕 20년에는²⁵⁾ (포상팔국 중의)骨浦·柒浦·古史浦의 삼국이 竭火城(지금의 울산지역)을 공격하지만 신라왕이 몸소 이끄는 군대에 의해 대패하고 만다.

그동안 포상팔국 전쟁 발발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서는 가야와 신라간의 교역체계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었다.²⁶⁾ 이러한 시각은 사료 D)에 국한하는 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포상팔국과 南加羅는 모두 해상세력으로서 그 성장기반을 교역에 두고 있었다. 두 세력 간의 충돌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사료 D)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사료인 것이다.

『삼국지』에 의하면 3세기 중·후엽 변진지역에서 주도적인 國들은 구야국, 안야국이였다. 신지들에게 가우호한 상황을 보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들은 중국 군현들과의 전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며 주변 소국들과의 연맹을 통해 지역연맹체 단계로까지 성장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야국을 중심으로 하는 남가라연맹체에도 들지 못하고 안야국 중심의 안라연맹체에도 들지 못한 남해안 일대 일군의 소국들이 포상팔국이였다. 이들이 가라, 즉 남가라지역연맹체를 공격한 것은 곧 생존의 문제였다. 생존의 기반이 교역이었기 때문에 역시 교역을 기반으로 하는 남가라연맹체와는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반도 남부에 있어서 3세기 후반 4세기 초의 시기는 이른바 삼한사회에서 삼국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의 획기는 생산력 발달을 기초로 한 사회 제반의 변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문화적 양상의 차이도 뚜렷이 보인다. 한반도 남부에서의 대형 목곽묘의 출현은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4세기 대를 전후하여 토기의 器種과 器形의 분화가 진행되고 각 지역간의 지역성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²⁷⁾

포상팔국의 꿈은 신라의 개입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이에 포상국들은 내해왕 20년에는 신라의 대외 교역항이자, 남해안으로의 진출기지인 竭火(지금의 울산)를 공격한다.그러나 결과는 포상국들의 패배로 나타났다. 패배의 원인은 강력한 주도국이 없었다는 점과 결속력의 미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포상팔국의 패배는 역으로 戰勝國인 南加羅와 安羅國, 新羅의 약진을 가져오게 되었다.

3. 고구려군의 남정과 가야의 대 신라관계

광개토태왕릉비문에 의하면 5만의 고구려군이 경자년(400)에 신라 구원을 위해 신라의 수도 경주에 도달한다. 이후 도망가는 왜군을 뒤쫓아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이르자 성은 곧 歸服한다. 이에 고구려는 羅人戍兵을 안치한다. 다음 사료는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비문의 十年庚子條 부분이다.

25) 『三國遺事』卷5, 避隱8 勿稽子條의 원문에는 ‘十年 乙未’로 되어있으나, 이는 ‘十’字 앞에 ‘二’字가 탈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干支 ‘乙未’도 맞아진다.

26) 李賢惠, 1988, 앞의 논문. 白承忠, 1989,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 수로집단의 등장과 浦上八國의 亂을 중심으로-」, 『釜大史學』13.

27) 安在晧·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考察 -義昌 大坪里出土品の 通하여-」, 『嶺南考古學』1.

사료 G) : 十年庚子 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寇大*潰

기사의 대략적 내용은 (신라의 구원요청에 의해)고구려의 광개토왕은 庚子年(400년)에 步騎五萬을 보내 倭에 점령당한 신라를 구원하고 한반도 남부의 임나가라 지역까지 진출하며²⁸⁾ ‘安羅人戍兵’과도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야의 모습은 임나가라의 형태로 보인다. 『송서』 등에서도 임나가라가 보이는데 이에서는 임나와 가라가 별개국이다. 임나는 김해의 남가라국을 지칭하고 가라국은 고령 대가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개토대왕릉비문에 보이는 임나가라는 하나의 나라로 봄이 옳다. 왜군이 도망가자 고구려군이 추격하는 곳은 임나가라의 종발성이기 때문이다. 종발성을 두 나라가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任那에서 任은 남방을 가리키는 글자이고, 那는 羅와 통한다. 이는 곧 땅을 가리키는 말이다. 임나는 ‘남쪽 땅’의 의미이다. 임나가라는 곧 남가라를 지칭한다. 종발성은 종래 김해의 분산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분산성 조사 결과 삼국시대 산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靑山이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보이는 종발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靑는 嶺으로 우리말 종발이를 나타낸다. 최근 부산박물관의 발굴 조사에 의하면 배산에는 테피식 산성이 확인되었다. 5세기 대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고대에 축성된 산성임이 밝혀졌다. 향후 시기가 올라가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될 소지가 있다. 배산의 북쪽 구릉 정선부에는 5세기 말 6세기 초 조성된 고총고분인 연산동 고분군이 있다. 배산의 남면쪽으로는 바다를 전망하기 좋은 곳이다. 동쪽면 아래에는 수영강이 바다와 면하는 곳이다. 수영강은 바다로부터 왜가 침입하여 동래로 올라가는 곳이다. 왜가 이곳을 거쳐 동래 → 노포동 → 울산 → 경주로 가는 루터, 아니면 양산을 거쳐 경주로 가는 루터를 택했을 것이다. 고대의 진격 루터는 거점 이동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자의 가능성이 있다. 부산 동래에서 울산으로 가는 길에는 노포동 유적과 하대 유적 등이 존재한다. 당시 부산 지역에는 거칠산국이 존재했다.

비문에 보이는 임나가라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구려군이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자 성이 곧 항복해 왔다는 사실은 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이 항복해 왔다’라는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安羅人戍兵’의 해석을 ‘성이 항복해 오자 신라인의 지키는 군대를 안치했다’라고 해석한다면 당시 가야 지역에 신라 군대가 얼마간 주둔했다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安羅人戍兵’에서의 安羅를 함안 아라가야의 安羅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곳은 비문의 결락이 심한 곳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8) 비문에 나오는 ‘任那加羅’의 위치를 고령의 가야세력으로 볼 경우, 고구려군의 부산·김해지역으로의 진출은 부정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문 속의 ‘任那加羅’를 당시 부산·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가야로 보는 입장을 갖는다. 백승욱,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 89-100쪽.

IV. 5~6세기 대 가야와 백제, 신라

고령의 가라국과 함안의 안라국이 후기가야를 주도하는 5세기 중엽부터 가야 제국이 멸망하는 562년까지의 내용이다. 고령의 加羅가 획기적 발전을 구가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가야를 둘러싼 주위의 백제와 신라가 가야로의 적극적 진출을 시도 한 때이다.

고구려는 427년 환도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475년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다.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책에 대해 신라와 백제는 433년 이른바 羅·濟동맹을 결성한다. 고령 加羅國의 급격한 성장은 이러한 주위 정세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加羅는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남원, 진주, 하동까지 진출하여 가야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였다. 479년 중국 남제와의 교섭은 加羅 성장의 증거이다.²⁹⁾

고구려는 495년 百濟 雉壤城 戰鬪³⁰⁾ 전후해서 주 공격대상을 백제로 돌리게 된다. 이때를 틈타 신라는 백제와의 약속이행을 소홀히 하면서 내부기반 다지기에 진력한다. 즉 羅·濟同盟이 유효한 기간이었지만 502, 507, 512, 523, 529년에³¹⁾ 각각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지만 신라는 백제에 원군을 전혀 보내지 않고 있다.

6세기 전반 고구려는 내분이 이어졌으며,³²⁾ 대외적으로는 東魏를 계승한 北齊와 활기찬 팽창세를 보이는 突厥로 인해 중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고구려와 비록 부용적 관계라 할지라도 인질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세를 일찍부터 읽은 신라는 그 동안 고구려 때문에 유보해 두었던 가야로의 진출을 개시하였으며 漢江유역에서 백제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인한 뒤에는 洛東江 以西로의 進出도 감행했던 것이다.³³⁾

백제는 4세기 중엽 이후 비록 정치적 상하에속관계는 아닐지라도 洛東江 以西 加耶諸國에 대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의 西進은 백제와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백제의 신라에 대한 인식이 史書上에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興王 2年條(541년)에는, “百濟遣使請和 許之”로 되어 있어 당시 백제와 신라 사이는 우호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日本書紀』欽明紀 2年條(541)에는, 百濟 聖王의 主宰로 이른바 任那復興會議을 열고 있다. 이 임나부흥회의는 일종의 作戰會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적대국은 신라였다. 따라서 『일본서기』 기록대로라면 이때의 신라는 백제의 적대국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백제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당시 백제의 사정 때문이었다.

백제는 加耶諸地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적극적 대처는 신라와의 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야와 倭를 앞장세워 신라에 대응케 하고, 자신은 배후에서 조정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 같다.³⁴⁾ 이러한 점은 『日本書紀』흥명기 5년(544년) 11月條에 보이는 任那復興을 위한

29) 『南齊書』卷58 列傳39 東夷傳,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30)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照知麻立干 17年(495) 8月條. 卷26, 百濟本紀 東城王 17年(495) 8月條. 卷19, 高句麗本紀 文咨王 4年(495) 8月條.

31) 『위의 책』卷26, 百濟本紀 武寧王 2年(502) 11月條, 7年 10月條, 12年 9月條와 聖王 1年(523)條, 7年 10月條.

32) 『日本書紀』繼體紀, 25年(531)條. 欽明紀, 6年(544)條

3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興王 14年(553), 15年 7月條

34) 白承玉, 1992, 「新羅·百濟 각축기의 比斯伐加耶」, 『釜大史學』15·16合輯, 311~312쪽.

百濟聖王의 세 가지 계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백제는 513년 加羅와 경쟁하여 섬진강 하구 유역을 차지하고,³⁵⁾ 531년에는 그들의 군대를 安羅에 진주시켰다.³⁶⁾ 加羅가 新羅에 청혼하여 결혼동맹을 맺은 것도³⁷⁾ 이러한 백제의 가야잠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가야지역으로의 진출 야욕도 백제 못지않았다.

新羅는 529년 이전에 이미 김해의 南加羅를 점령하고 남부가야 지역에서 百濟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록에 보이는 532년의 南加羅 항복은 이미 복속시킨 지역의 왕족에 대한 新羅의 유화 정책이 실시된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시기 新羅가 가야지역을 두고 백제와 대치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인데, 이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시기 고려의 加羅國은 529년 결혼동맹 결렬³⁸⁾ 이후 신라와도 대립적 상황이었으며, 섬진강 유역을 둘러싼 쟁탈전 이후 백제와도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남부 가야지역에서는 安羅國이, 북부 가야지역에서는 加羅國이 중심이 되긴 했으나 가야제국은 전체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각각 분리되어 있었다. 이들은 이미 신라에 복속된 가야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부흥회의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야제국은 멸망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연맹체 상태로 멸망한 것도 아니었으며 단결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 『일본서기』 흠명기 2년 4월조에 보이는 내용은 이러한 상태를 잘 보여 준다.

사료 H) : 그대들은 탁순과 같은 화를 불러들일까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라가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오. 탁기탄은 가라와 신라 사이에 있어서 매년 공격을 받아 패하는데도 임나가 구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소. 남가라는 작고 협소하여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고 의탁할 곳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소. 탁순은 상·하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 國主가 스스로 종속되기를 원하여 신라에 내응했기 때문에 망했소. 이로 보면 세 나라의 패망은 참으로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이오.³⁹⁾

이는 백제 성왕이 가야의 한기 등에게 말하는 내용이다. 신라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야의 내분과 상호 비협력으로 인해 가야 제국이 패망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신라의 공작도 있었을 것이다. 백제 또한 가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외교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가야로서는 기댈 언덕이 없었다. 가야 제국의 멸망 원인으로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35)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7年(513)條,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廷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跋既殿 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滯沙 賜百濟國 是月 伴跋國 遣戍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36)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25年(531) 12月條, “[取百濟本記爲文 其文云 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 營乞七城]”

37) 『三國史記』法興王9年(522) 春三月條, “加耶國王 遣使請婚 王以伊滄比助夫之妹 送之”

38)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23年(529) 3月條

39) 『日本書紀』卷19, 欽明 2年(541年) 4월조, “別汝所善 恐致卓淳等禍 非新羅自強故 所能爲也 其喙已吞 居加羅與新羅境際 而被連年攻敗 任那無能救援 由是見亡 其南加羅 蕞爾狹小 不能卒備 不知所託 由是見亡 其卓淳 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 因斯而觀 三國之敗 良有以也”

V. 맺음말

4~6세기 대 가야의 대 백제·신라 관계는 주변 정세에 따라 변화했다. 4세기 대 한반도에서 파동의 진원지는 낙랑·대방 고지였다. 이 지역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은 주변 제국에 영향을 미쳤다. 남해안 주변의 가야 소국들은 교역 체계의 변화로 인한 생존 압력에 의해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포상팔국의 대 안라, 남가라, 신라와의 전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목적인 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라의 개입도 결국 교역 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 신공기 한반도 관련 기사는 가야 대외관계사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품고 있다. 그러나 사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많다. 연대도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倭 측 家傳에 의한 날조도 심하다. 고대 천황주의 藩國史觀에 입각한 왜국도 많이 이루어진 곳이다.

광개토태왕릉비문의 가야 관계 기사는 소략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를 관찰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다. 고구려 대군이 가야 지역까지 왔으며, 이후 가야 지역의 정치적 판도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후 가야제국은 때로는 백제 측과 연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라 측과 연계했다. 그 형태는 ‘講和’의 형태이거나 결혼동맹의 형태 등을 택했다. 6세기 대 가라국의 경우, 주변국들과 거의 동격의 상태에서 대외 관계를 진행했다.⁴⁰⁾

6세기 대에 접어들어 백제 신라 양국은 가야 지역 진출을 노골화 한다. 이의 저지를 위해 가라국과 안라국 등은 자구책을 강구하지만 결국 멸망되고 만다. 가야 제국 중 일부는 자진 항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끝까지 항쟁하다 복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단일 동맹체로서 저항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40) 이영식, 2016, 「가야와 신라 - 전쟁과 외교-」,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종이, 769-800쪽.



참고문헌

- 김태식, 2014, 『사국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 서경문화사.
- 김태식, 2017, 「가야의 대외교류」, 『가야, 백제를 만나다』,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도록.
- 김태식, 2018,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 교류」, 『가야사 총론 -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3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김현구 등,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Ⅰ)』, 일지사.
- 森浩一 編, 1985, 『倭人の登場』, 中央公論社
- 노중국, 2015, 「가야와 마한, 백제의 교류」, 『가야와 마한·백제』, 복천박물관 기획전 도록.
- 노중국, 2018, 「4~6세기 나제동맹의 성격과 의미」, 『나제동맹』,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모리 히로미치 지음·심경호 옮김, 2006, 《일본서기의 비밀》, 황소자리.
- 백승욱,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출판사.
- 백승욱, 2011, 「辰·弁韓의 始末과 內部構造」, 『博物館研究論集』17, 부산박물관.
- 백승욱, 2014, 「加耶諸國의 존재형태와 ‘加耶地域國家論」, 『지역과 역사』제34호.
- 선석열, 2018, 「가야와 주변국」, 『가야사 총론 -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유우창, 2017, 「6세기 加羅의 對羅·濟관계」, 『韓國古代史研究』88.
- 이영식, 2016,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종이.
- 田中俊明, 2018, 「“일본서기”를 통해 본 안라와 왜의 관계」, 『안라(아라가야)의 위상과 국제관계』, 학연문화사.
- 정재윤, 2012,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제44집.
- 주보돈, 2018, 「6세기 전반 나제동맹 관계의 향방」,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백제 · 신라



김 규 운 | 강원대학교 사학과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백제 · 신라

김 규 윤 | 강원대학교 사학과

목 차

1. 머리말
2. 가야와 백제 관계
 - 1) 가야와 한성기 백제
 - 2) 가야와 웅진·사비기 백제
3. 가야와 신라 관계
4. 맺음말

1. 머리말

가야의 대외교류에 대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광개토왕의 남정을 전후한 고구려-신라와 백제-가야-왜가 대립하는 양상을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 그러나 이는 광개토왕비문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의 문헌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고고자료를 통한 분석은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가야와 왜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문헌자료와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가야와 백제, 가야와 신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일부 기종별로 출토 사례의 언급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나마 가야와 백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기문, 대사와 임나사현 할양기사를 토대로, 경남 서남부지역과 호남 동부지역으로 지정되는 이 지역들을 둘러싸고 5세기 후반 대가야의 진출, 이후 6세기 전반 백제의 영역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비단 문헌사학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순천 운평리고분군을 비롯한 이 지역 수장묘가 조사됨에 따라 더욱 관심이 증가하였고, 가야와 백제의 관계는 거의 이 시기, 그리고 이 지역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평리고분군이 조사될 즈음 여러 학회의 학술발표회가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가야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는, 적대적 관계를 보이고 있고, 고고자료에서도 일부 유물의 교류 양상만을 파악해 왔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가야가 백제·신라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에 대해 고고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검토대상의 시기와 지역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본 발표의 제목

이 ‘가야와 백제·신라’인데, 언제부터 가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백제, 신라는 언제부터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역시 전사론과 전기론이 부딪히는 점이다.

여기서 전사론과 전기론에 대해 상론하거나 결론을 도출할 여력은 없으나, 검토대상의 시기는 5세기 이후부터 가야 멸망시기까지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고식도질토기 단계를 지나 명확하게 지역양식 토기가 성립하는 단계이면서, 백제, 신라의 영향으로 인해 금공품의 제작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기와 금공품을 중심으로 가야와 백제,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야와 백제

1) 가야와 한성기 백제

가야와 한성기 백제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고고자료는 역시 토기이다. 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마한·백제계 토기와 마한·백제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야계 토기에 대한 기왕의 검토가 있었다¹⁾.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우선 한성기 백제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소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중앙인 서울을 비롯해 금강유역, 남해안 일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포범위를 보이고 있다²⁾.

표 1. 한성기 백제지역 출토 소가야(계) 유물

유적명		출토유물	시기
풍납토성 경당지구	상층	개 1점	5세기 3/4분기
		대각편 1점	5세기 전반(?)
	9호 유구	개 1점	5세기 3/4분기
	178호 유구	대각편 1점	5세기 전반(?)
몽촌토성 서남부지구		대부직구호(?) 대각편 3점	5세기 전반(?)
		장경호 1점	5세기 전반
연기 송원리 KM046		대부완	5세기 3/4분기
청원 주성리 2호분		수평구연호 1점	5세기 전반
청주 신봉동	92-107호	수평구연호 1점	5세기 중반

1) 김규운, 2011, 「5세기 한성기 백제와 가야 관계」, 『중앙고고연구』9, 중앙문화재단연구원.
 서현주, 2012, 「백제 한성기 타날문 단경호의 지역성과 교류」, 『호서고고학』27, 호서고고학회.
 서현주, 2014,
 성정용, 2007, 「백제 권역에서 출토된 신라·가야계 문물」, 『4~6세기 가야·신라고분 출토의 외래계 문물』, 제16회 영남고고학회 합동 발표회, 영남고고학회.
 홍보식, 2007, 「신라·가야권역 내의 마한·백제계 문물」, 『4~6세기 가야·신라고분 출토의 외래계 문물』, 제16회 영남고고학회 합동발표회, 영남고고학회.
 홍보식, 2008, 「문물로 본 가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 『호서고고학』18, 호서고고학회. 등
 2) 가장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은 순천을 비롯한 호남동부지역인데 후술하겠으나 이 지역은 소가야의 권역 내에 포함되고(김규운, 2009,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소가야의 변동」,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후 대가야의 권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야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92-72호	수평구연호 1점	5세기 중반
금산 창평리 파괴분		유개식 삼각투창고배 1점	5세기 전반
		장경호 1점	5세기 전반(?)
익산 입점리 98-1호분		대부직구호 1점	5세기 중반
고창 봉덕유적 나지구 지표		무개식 삼각투창고배 1점	5세기 전반
장수 삼고리 13호분		수평구연호 1점	5세기 중반
장흥 지천리 나-13호 주거지		무개식 삼각투창고배 1점	5세기 전반
보성 조성리 구상유구		수평구연 발형기대 1점	5세기 중반
고흥 장덕리 장동유적		수평구연호 등(보고서 미발간)	5세기 중반

지금까지 가야권역에서 확인되는 백제계 유물은 금동관, 이식, 장식대도 등의 금공품이 대부분이다. 그 양상과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검토³⁾된 바 있고, 최근에는 대장식구를 통한 백제와 가야 관계에 대한 검토⁴⁾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용봉문 환두대도의 경우 대부분 대가야의 중심인 고령과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되고 그 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 한성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 그리고 이 지역들 외에는 소가야 권역인 산청 중촌리 3호 토광에서 한 점 출토되었는데 이 역시 한성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왕에 검토된 용봉문 환두대도 외에 이엽대도 역시 백제와 가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출토예로 공주 용원리 129호, 합천 옥전 95호, 고성 연당리 23호의 3점으로 백제와 가야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엽대도들은 5세기대의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는 곤란하나, 용봉문 환두대도와 연계하여 백제와 가야의 관계를 생각함에 있어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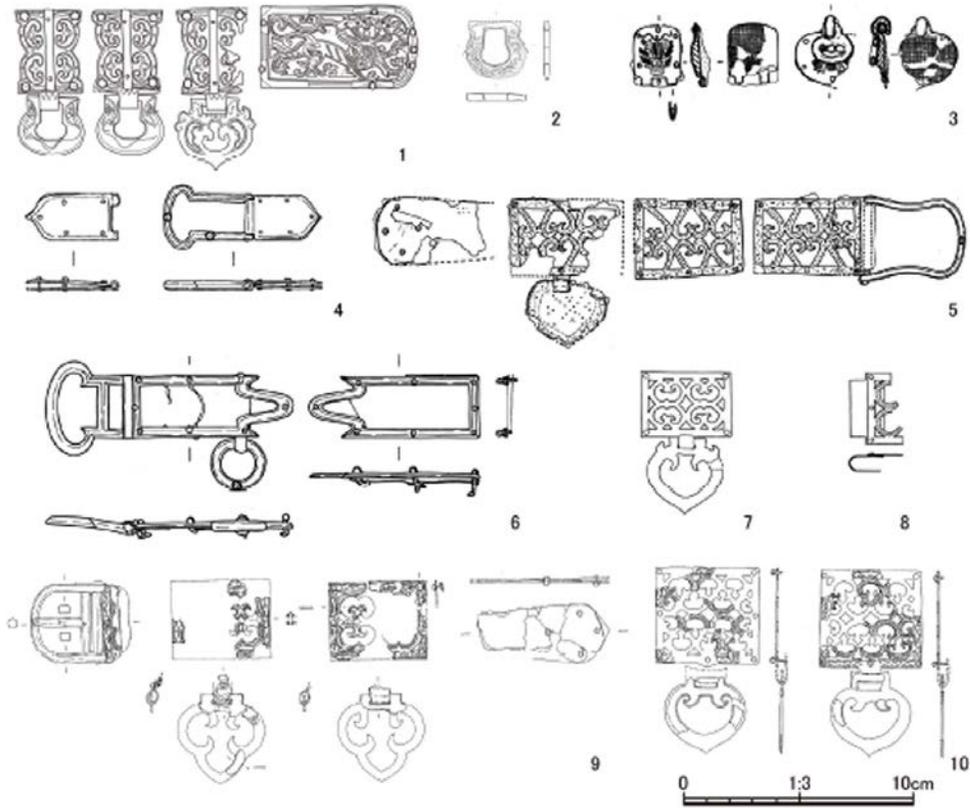
표 2. 가야지역 출토 백제계 환두대도 (박순발 2000, 수정 후 인용)

銀象嵌唐草文單鳳環頭大刀	고령 지산동 32NE-1호	5세기 2/4분기(박천수1998)
銅象嵌波狀點線文環頭大刀	창원 도계동 6호	5세기 2/4분기(박순발1999)
金銀象嵌龜甲文環頭大刀	남원 월산리 M1-A호	5세기 2/4분기(박천수1998)
銀象嵌連續渦文環頭大刀	합천 옥전 70호	5세기 후반(조영제1988, 박천수1998)
金裝龍鳳文環頭大刀	합천 옥전 M3호	5세기 3/4분기(박천수1998)
銀象嵌單鳳環頭大刀	합천 옥전 M35호	5세기 후반(町田 章1997)
金裝單龍文環頭大刀	고령 지산동 39호	5세기 중엽(穴澤和光·馬目順—1975)
銀象嵌龜甲文單鳳環頭大刀	합천 옥전 M4호	5세기 4/4분기(박천수1998)
龍文環頭大刀	산청 중촌리 3호 목곽	5세기 전반(?)

3) 박순발, 2000, 「가야와 한성백제」, 『가야와 백제』, 제6회 가야사 학술회의, 김해시.
이한상, 2006, 「장식대도로 본 백제와 가야의 교섭」, 『백제연구』43,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홍보식, 2007, 앞의 글.
4) 김도영, 2017, 「백제 대장식구의 전개와 특질」, 『백제문화』5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5) 박순발, 2000, 앞의 글.



도 1. 이엽대도(국립대구박물관 2007)



〈사진 13〉 가야지역 출토 대장식구와 관련 제품

- 1 김해 대성동88호분, 2 김해 대성동75호분 주곽, 3·5 합천 옥전M1호분, 4 의령 경산리2호분,
6 합천 옥전M11호분, 7 小倉竈穴, 8 大阪府饗田丸山古墳, 9 福岡縣月岡古墳, 10 奈良縣新湊千塚126호분

도 2. 가야의 대장식구(김도영 2017)

금공품 외 가야권역에서 출토되는 한성기 백제 유물은 대부분 소가야 권역인 산청, 진주지역에서 출토된다. 산청 묵곡리의 경우 백제계 토기가 출토되는데 태토 분석 결과 단순히 이입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⁶⁾. 진주 옥산리의 경우 역시 백제계 토기와 더불어 백제지역에 다수 분포하는 금층유리옥이 확인되고 있다⁷⁾.

5세기의 한성기 백제와 가야간의 교섭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백제권역에 분포하는 가야계 유물과 가야권역에 분포하는 백제계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주시되는 점은 가야권역에 분포하는 백제계 유물의 양상이 대가야와 소가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대가야의 경우 금동관모와 용봉문 환두대도, 이식 등의 금공품이 다수 출토되는 반면, 소가야의 경우 중촌리3호의 용봉문 환두대도와 옥산리의 금층유리옥을 제외하면 토기류만 출토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

경자년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인해 가야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대가야는 고령 지산동 73호, 75호 고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야의 가장 유력한 정치체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4세기부터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백제는 대가야와 정치적인 교섭을 맺었을 것이다.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대가야로 교섭의 대상이 옮긴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금공품과 철기 등의 자료이다. 백제로부터 단순히 환두대도 등의 금공품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기술, 그리고 분배 등의 이른바 위세품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보식⁸⁾은 대가야의 사절을 파견하거나 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백제 금공품의 제작기법과 신분표현 방법 등을 습득하고, 이와 같은 신분 표상을 나타내는 제도와 표시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야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행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백제로부터 금공품을 받아들이고 이후 제작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대가야 중앙의 고령지역⁹⁾과 옥전의 다라국¹⁰⁾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5세기 전반에 용봉문 환두대도를 획득하고 이후 이와는 다른 대가야의 금공품을 제작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축소모형철기와 공부다각형철모, 소환두도 등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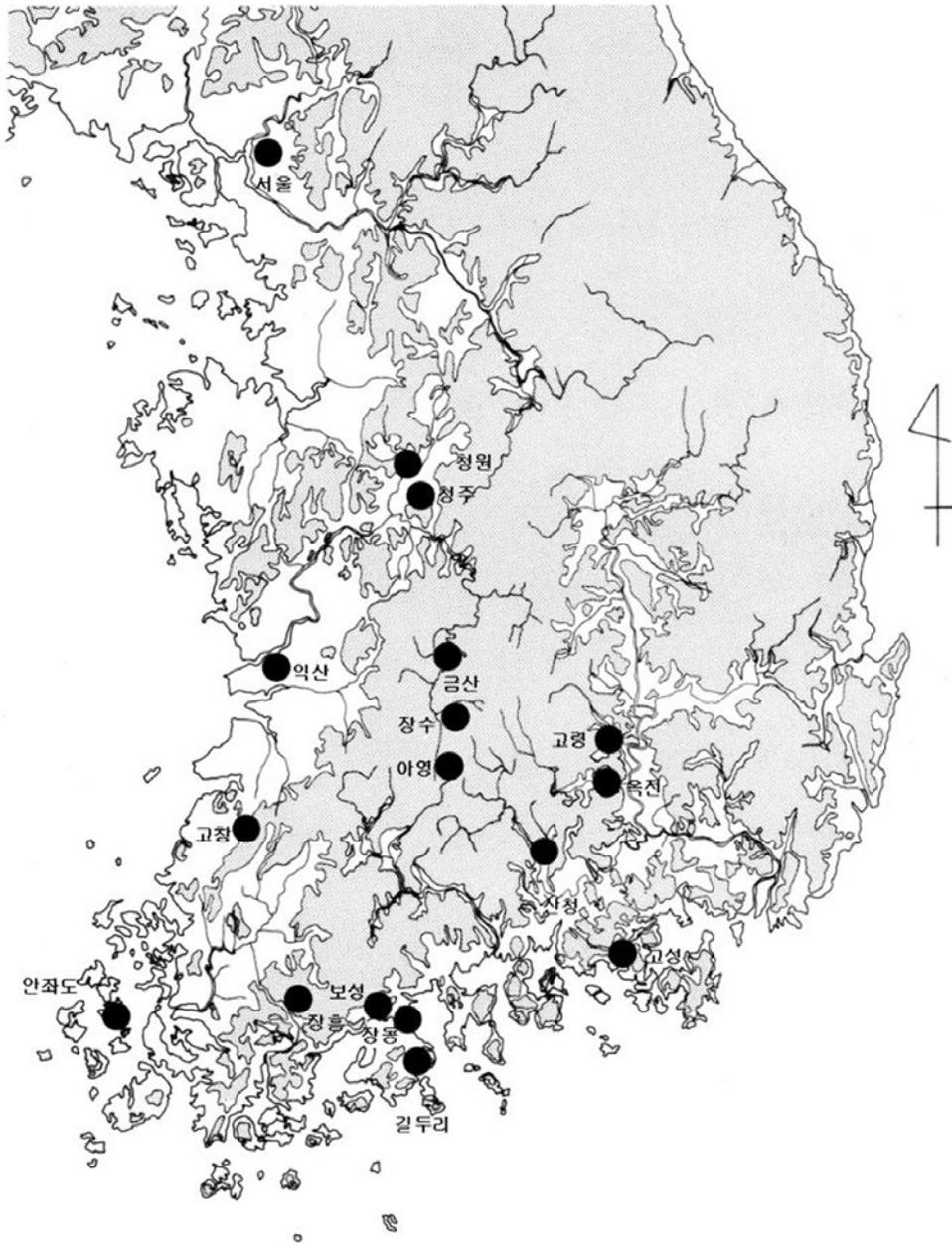
6) 김장석 외, 2006, 「토기의 유통을 통해 본 백제와 가야의 교섭-산청 묵곡리고분군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백제 생산기술과 유통의 정치사회적 함의』, 한신대학교 학술원.

7) 박천수, 2010.

8) 홍보식, 2007, 앞의 글.

9) 박천수, 2008, 「전남동부지역의 가야문화」,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 제36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10)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도 3. 5세기 가야와 백제 관계 유적분포도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동맹과 유사한 관계는 유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 지역만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으로 백제-가야-왜라는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이전의 금관 가야와 교섭하였을 때는 낙동강 하구와 남해안을 잘 이용할 수 있었으나, 5세기대는 대가야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와 일본열도로 나아갈 수 있는 교섭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바로 소가야와의 관계이다. 소가야는 비록 대가야와 같이 정치적으로 크게 발

달하지는 못했지만¹¹⁾ 역시 고구려 남정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남강수계와 남해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소가야와의 교섭을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해안을 통해 왜와의 교섭을 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 양상이다.

먼저 소가야양식 토기는 그 성립과정에서 이미 일정부분 백제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¹²⁾. 백제 중앙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금강유역에서 다수 출토되는 광구장경호와 대부직구호는 소가야의 수평구연호, 대부직구호와 전체적인 기형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호류의 경우 동체 상위는 물손질 정면으로 타날흔을 완전히 지우지만, 동체 하위는 그대로 남기는 기법이 많이 보이는 점 역시 유사하다. 단순히 기형이 비슷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청 묵곡리에서 백제계 토기를 제작하였다는 분석¹³⁾으로 보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가야는 다른 가야와는 다르게 먼저 분구를 쌓아 올리는 분구묘를 축조하거나 눈썹형 주구를 두르는 묘제를 축조하였는데 이 역시 백제와의 관련성을 상정하게 하는 자료이다.

이에 대응해 백제권역 내에서 출토하는 가야계 토기는 대부분이 소가야양식 토기이다. 그 외 대가야 양식 토기는 한성기에 해당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거의 웅진기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이를 통해 볼 때 백제의 일상적인 교섭의 대상은 소가야였을 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백제는 근초고왕부터 이어지는 기왕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대가야와, 그리고 일상적인 교역 또는 교역로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소가야와 교섭을 하는 등 다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백제권역 내의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백제의 위세품 분포양상과 남부진출루트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가 금강유역을 장악한 이후 남부로 나아가기 위한 교통의 요충지인 장수, 진안지역을 거쳐 고흥에 이르기까지 소가야양식 토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적분포와 지형을 검토한 광장근¹⁴⁾의 교통로와 일치한다.

물론 넓은 분포양상을 보아 모든 교역이 백제 중앙과 관련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금강유역이 교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행했던 것으로 상정하기도 한다¹⁵⁾. 역시 소가야 토기가 중국 도자기처럼 위세적인 성격을 띠는 물건이 아니므로 모든 교역을 중앙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가야권역에서도 산청지역에 백제계 유물이 많이 분포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금강유역에 딱히 집중하는 양상도 아니므로 한 지역이 매개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행하기보다는 친밀한 교섭 상대였기 때문에 백제 권역 내 제지역과 자유롭게 교역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백제는 남부로 진출하여 영역을 확장하는 루트를 따라 동시에 소가야와 교류하면서 남해안을 이용하고 나아가 왜와의 교섭을 행하였을 것이다.

11) 가야 정치체의 구조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가야는 고대국가 혹은 그와 유사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반면 소가야는 연맹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박승규, 1993, 「경남 서남부지역출토 도질토기에 대한 연구」, 『경상사학』9.
 하승철, 2001, 「가야 서남부지역 출토 도질토기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김장석 외, 2006, 앞의 글.

14) 광장근, 2008, 「백제 간선 교통로의 재편성과 그 의미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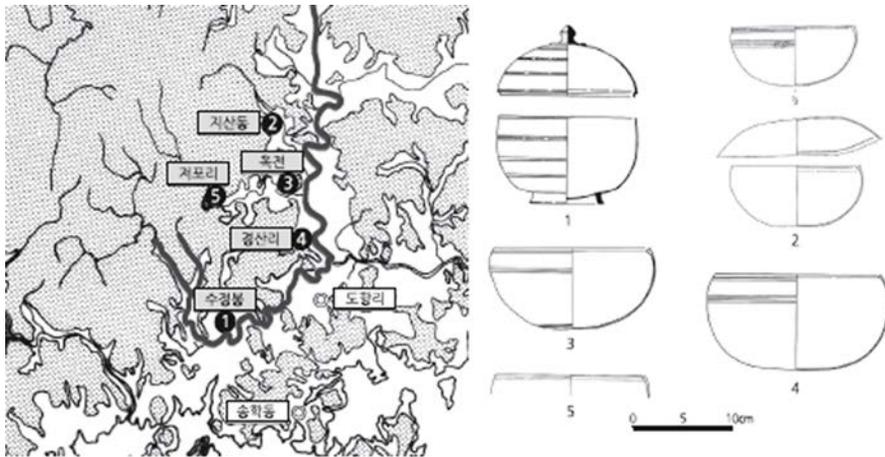
15) 박순발, 2000, 앞의 글.

이러한 교섭 루트를 한 번 더 증명해주는 것이 스에키의 출토양상이다. 전방후원분과 횡혈묘 등으로 인해 6세기 전반대에 왜계문물이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특수한 고분들을 제외하면 한성기 말에 스에키와 갑주 등의 왜계문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백제지역에서 스에키가 출토되는 경우 같은 유적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함께 출토된다. 물론 풍납토성을 비롯해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청주 신봉동유적, 고창 봉덕리유적 등은 모두 백제권역에서 각 지역의 중심유적들이므로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양식의 토기는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유적에서 유독 소가야양식 토기와 스에키만 공반된다는 점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없을 것이다. 소가야권역에서도 스에키가 다수 출토되고, 일본열도에도 소가야양식 토기가 다수 출토되는 점 역시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⁶⁾.

2) 가야와 웅진·사비기 백제

웅진·사비기에도 여전히 양 지역에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고고자료가 출토되긴 하나, 그 양상은 앞선 시기와 크게 달라진다. 우선 백제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야 유물은 여전히 토기가 중심인데, 중심지역에는 잘 확인되지 않고, 영산강유역과 남해안 일대에서 일부 출토될 뿐이다.

반면 6세기 이후 가야지역에서는 백제로부터 새로운 영향을 받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완과 횡혈식석실의 도입이다. 동완은 이 시기 백제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금속용기인데 백제로부터 직접 제작되어 대가야에 공여된 것으로 보는 견해¹⁷⁾와 이에 동조하여 제작지가 백제일 가능성을 지적¹⁸⁾하고 있다.



1.진주 수정봉 2호분 2.고령 지산동 44호분 3.합천 옥전M3호분 4.의령 경산리2호분 5.합천 저포리D I -1호분

도 4. 가야 고분 출토 금속용기(김준식, 2018,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의 성격과 대가야 지배층」, 『한국상고사학보』101, 한국상고사학회)

16)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17) 이한상, 1994,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 裝身具 分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홍보식, 2008, 「문물로 본 가야와 백제의 교섭과 교역」, 『호서고고학』18, 호서고고학회.

이와 더불어 백제의 영향에 의해 횡혈식석실이 도입된다. 주지하다시피 횡혈식석실은 기왕의 수혈식 석곽과는 구조와 매장관념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묘제로, 특히 횡혈식석실이라는 매장시설뿐만 아니라 관장식금구, 관고리와 같은 목관치장 등의 장제까지 백제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백제에 의해 횡혈식석실이 도입된 이후 다른 모든 고고자료와 마찬가지로 이내 가야의 스타일을 가미하여 세장방형의 횡혈식석실을 축조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6세기 중엽에 고아동 벽화고분과 같이 또 한번의 백제 영향이 보인다. 평면형태가 웅진기 백제 횡혈식석실과 거의 같고, 벽화가 그려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도 5. 공주 금학동89-1호분(左)과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右) 내부(김준식 2018)

여기서 또 하나 새롭게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불교의 도입이다. 벽화고분의 연화문을 근거로 불교가 도입되었음을 추정할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절터 등의 자료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해 고령 송림리 가마터에서 연화문전이 확인되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송림리 연화문전을 비롯해 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연화문 관련 유물을 분석하여 5세기 후반 대가야에 중국 남조로부터 불교가 직접 도입되었고 이후 6세기에 백제, 신라의 영향이 보인다는 견해²⁰⁾도 있으나 다른 고고자료의 양상으로 보면 역시 백제의 영향으로 연화문과 불교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한다.

19) 吉井秀夫, 2000

홍보식, 2007, 앞의 글.

20) 양은경, 2017, 「가야 연화문과 가야 불교」, 『고고광장』21.



도 6. 고령 송림리 가마 출토 유물

양 지역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고고자료를 살펴보았다.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주지하다시피 475년에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이는 비단 백제만 타격을 입은 것에 그치는 아니라 그와 중점적으로 교섭을 행해왔던 소가야도 타격을 입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남동부지역의 양상이다.

호남동부지역은 5세기 중반까지는 소가야의 권역 또는 관계망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다. 그사이 대가야는 신라와의 대치로 인해 낙동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섬진강 수계인 서쪽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남원 월산리 1A-1호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 이 시기까지는 대가야가 호남동부지역을 장악하지는 못하였다.

5세기 소가야는 내적으로 강력한 정치구조가 있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고²¹⁾, 넓은 권역에 걸쳐 교역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된 교역 대상인 백제가 타격을 입게 됨과 동시에 소가야도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대가야는 남원 아영분지를 시작으로 호남동부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고, 이와 같은 내적, 외적 발전에 의해 남조로부터 작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²²⁾. 남조 견사의 루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어찌되었든 호남동부지역을 대가야가 장악하면서 남조에 다다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작호를 받게 된 것으로, 남원 월산리의 계수호는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475년 이후 백제의 일시적인 약화와 대가야의 진출에 의해 두 정치체는 서로 대결 구도로 변하게 되고, 이후 임나사현과 기문, 대사 등을 두고 계속 경쟁하는 관계에 이르게 된다. 결국 호남동부지역은 소가야-대가야-백제로 권역의 주체가 변해가게 된다.

비록 호남동부지역을 둘러싸고 경쟁관계를 보이지만 여전히 가야는 백제를 통해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황혈식석실과 금속용기, 그리고 불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물이 도입되고, 송

21) 김규운, 2009,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소가야의 변동」,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박순발, 2000, 앞의 글.

학동1호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3. 가야와 신라 관계

서두에 언급한대로 삼국의 국제정세를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구려-신라 대 백제-가야-왜 라고 하는 대치관계이다. 더욱이 가야는 결국 신라에 의해 멸망하기 때문에 늘 대립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역사적인 배경은 그러한데 고고자료 역시 같은 양상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양 지역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신라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경주의 식리총과 호우총에서 가야 용봉문환두대도가 출토되었으나 그 외 신라 지역에서 가야계 유물이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그러한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도면이 바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대가야가 대치하면서 쌓은 성곽 분포도이다. 낙동강 중류역의 양안에 촘촘하게 성곽과 보루를 쌓은 양상을 통해 두 국가간의 경쟁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성곽을 집중적으로 쌓은 시기는 대체로 5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그 이전 시기에는 가야지역에서 신라의 영향이 보인다. 5세기 초에 축조된 고령 지산동73호의 서순장곽에서 신라의 조익형 관식이 출토되었다. 대가야의 공방에서 신라양식을 수용하여 만들었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데²³⁾, 생산지가 어찌되었든 대가야의 금공품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신라의 영향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마구에서도 확인된다. 옥전23호에서 확인되는 심엽형 행엽을 비롯하여 대가야의 초기 마구에는 신라의 영향이 확인된다고 한다²⁴⁾. 물론 전체적으로 백제의 영향이 더욱 강하고 이후 대가야만의 스타일로 변해가지만 대가야가 처음 금공품과 마구를 도입할 때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이후 독자적인 생산을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23) 이한상, 2016, 「가야의 장신구」,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4) 이현정, 2016, 「가야의 말과 마구」,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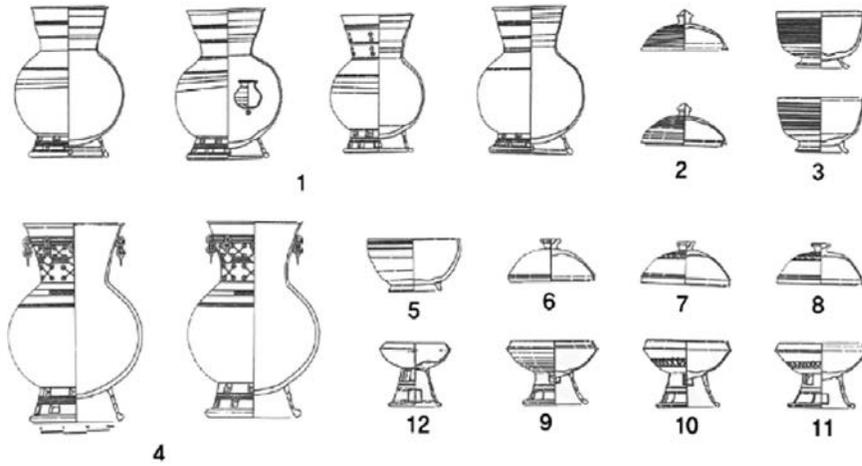
도 7. 낙동강 중류역의 산성과 보루(조효식, 2005, 「낙동강 중류역 삼국시대 성곽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부 권역으로 넣고자 했던 소가야와 5세기를 전후해 김해 예안리와 가달과 같은 전략 요충지를 장악하고 지배를 강화한 이후 서쪽으로의 진출을 피하던 신라²⁵⁾가 5세기 중후반 동안 이 지역에서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금관가야의 멸망기사 등의 문헌기록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이 지역은 5세기 중반이후 가야 멸망에 이르기까지 줄곧 접경을 이룬다. 이러한 접경을 이루는 현상이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소가야양식 토기 가운데 새로운 기종의 출현으로 이단 교호투창 고배와 통형기대가 그것이다. 이는 이단 고배의 대각에 교호투창을 배치하는 제작방식이 신라양식 토기와 같고, 통형기대역시 낙동강 이동지역의 그것과 형태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경남 동남부지역에서의 빈번한 교류 탓에 신라양식 토기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단계 이후 소가야양식 이단 교호투창 고배가 창녕지역에서도 일부 출토되는 현상 역시 그 가능성을 더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5) 이희준, 주155)의 전제서, pp. 345~346.

6세기 전엽



6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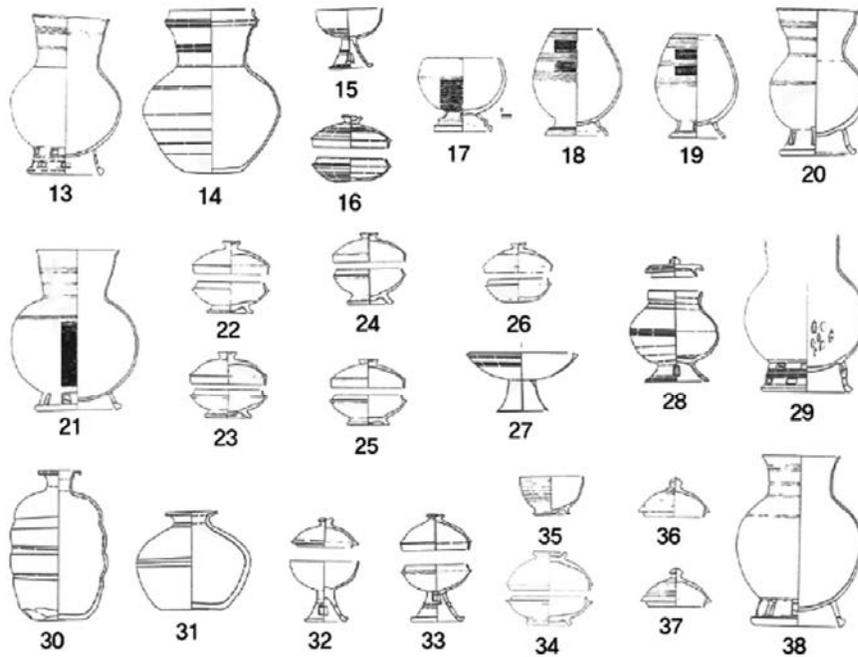


그림 63. 고성 출토 신라토기(송:송학동, 내:내산리, 율:율대리)

1~3:5:송1B-1호분, 4:내8호 주곽, 6~11:송1B 1TR, 12:율2호분, 13~17~20:내34호분, 14:송1A-11호분, 15:송1A-9호분, 16:송1B-3호분, 21~23:내21-1곽, 24~25:내21-2곽, 26:내21-3곽, 27:송1C호분, 28:송1A-10호분, 29:율3호분, 30~31:송1B-2호분, 32~33:내8-5곽, 34:내60호분, 35~38:내21-8곽

도 9. 고성지역 출토 신라토기(하승철,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후 6세기가 되면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는 더욱 서쪽으로 이동하여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신라양식 토기는 송학동1호분뿐만 아니라 내산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 울대리고분군 등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산리 8호 주곽에서 출토된 영락부 대부장경호 등을 통해 볼 때 송학동고분군 축조 세력, 즉 소가야 중심 수장층에 의한 일괄 교섭이 아니라 5세기 이후 서쪽으로 진출하려던 신라가 남해안을 이용해 고성지역의 제집단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그래서 5세기 후반에 신라와 가야가 각축을 다투었던 지역이 창원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소가야지역으로 옮겨진 듯한 인상마저 받는다. 물론 이 시기 소가야가 남해안의 해상 거점으로 대가야, 신라, 백제, 왜와의 교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호남동부지역 장악 이후 더욱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백제, 낙동강을 넘어 더욱 서쪽으로 진출하려는 신라, 그리고 남해안의 교류 루트를 확보하려는 대가야, 한반도와의 교류 창구가 필요한 왜가 각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망을 형성하였던 것이 송학동1호분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두 국가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었다. 특히 백제로부터는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게 되는데 5세기에 새롭게 토기 양식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소가야 양식 기종 일부에 백제의 영향이 보이기도 하고, 5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개배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환두대도, 이식, 대장식구 등의 금공품 생산에도 백제의 영향이 보이고 이후 대가야식으로 변해간다. 비록 호남동부지역을 사이에 두고 가야와 백제가 대립하는 과정도 보이지만 이 즈음에도 역시 백제의 영향으로 횡혈식석실과 동완, 불교 등의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게 된다.

신라와의 관계는 대가야의 초기 금공품과 마구 생산에 일정 영향을 끼치나 이후 낙동강을 경계로 대치하게 된다. 그리고 5세기 중엽 이후 본격적으로 낙동강을 넘어 서진하려는 신라의 의도가 경남동부지역 신라양식 토기로 확인되고 5세기 후반부터는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가야와 백제, 그리고 가야와 신라의 관계는 개별적인 교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과 호남동부지역 등의 점유 양상의 변화에 따라 함께 연동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6)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김교수님의 글을 읽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고고학 연구 성과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받는 소감은 역사고고학의 경우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는 고고학적 연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역사시대 고고학의 경우 역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선 하나의 설로 존재하는 내용을 고고학적 자료에 부합된다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제 고고학에서,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 기사를 주체수정론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역사학계의 연구를 사실로 받아 들여 연구하는 경향이 짙다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확대해석과 악순환을 거쳐 결국 학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학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간극을 해소 또는 좁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교수님께서 이번 발표에서 검토의 대상 시기를 5세기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고식도질토기 단계를 지나 명확하게 지역양식 토기가 성립하는 단계이면서, 백제와 신라의 영향으로 금공품의 제작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5세기 중엽 이후 가야 지역에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고총고분이 축조되면서, 이른바 ‘가야지역국가’들이 성립, 존재했던 시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²⁷⁾ 이러한 ‘가야지역국가’의 성립과 ‘지역양식 토기’의 성립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백제와 신라의 영향으로 금공품 제작이 후기 가야 제국들의 성립과 발전에 어떠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백제계 유물, 예를 들면 용봉문환두대도와 이엽대도 등으로 보아 백제와 가야의 관계가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인 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백제지역에서의 소가야계 토기 출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관계로 해석 가능한 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교수님께서 “경자년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인해 가야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대가야는 고령 지산동 73호, 75호 고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야의 가장 유력한 정치체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4세기부터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백제는

27) 백승옥,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출판사 ; 2014, 「加耶諸國의 존재형태와 ‘加耶地域國家論」, 『지역과 역사』제34호.

대가야와 정치적인 교섭을 맺었을 것이다.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대가야로 교섭의 대상을 옮긴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의 급진적 발전 원인을 고구려 남정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구려 남정이 김해 가야세력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해서 대가야가 급속히 성장 발전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가야의 성장 발전의 원인과 동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4세기부터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백제’는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고구려 남정 이후 가야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신라의 낙동강 東岸 진출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5세기 대에는 신라가 낙동강의 동안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 규 운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가야의 대외교류는 영성한 문헌기록 때문에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4~6세기 동북아의 국제정세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야와 백제, 신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각론에서는 주로 일본서기의 신공기 기사를 비롯해 포상팔국 전쟁, 고구려 남정, 그리고 임나부흥회 의와 같은 사건을 토대로 가야와 백제, 신라 관계를 살펴보았다. 문헌기록에 대한 세세한 토론은 불가능하지만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일본서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일본서기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닌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며 주관적 역사 기록이다.’ 라고 서술하였다. 일본서기의 관점 등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주관적이지 않은 역사 기록’이란 것이 있나? 문헌에 문외한 고고학도로서의 질문이다.
2. 1번의 연장선상에서, 신공기 기사에 대해 기왕의 입장에서 기록 자체에 신빙성의 의문이 있다는 관점으로 바뀌었다.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인가?
3. 역시 신공기와 관련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p.11에 4C 중엽 이후 백제가 낙동강 이서 가야제국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 상하관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기득권 유지는 어떠한 관계인가?
4. 지역연맹체에서 ‘안라연맹체’라는 구성 집단 혹은 범위 등에 대해 설명 바란다.
5. 가라가 백제를 통해 중국 남조 통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의 견사는 가라국 독자적이라고 하였다. 당시 대가야는 섬진강 하구를 장악했기 때문에 바다로 중국에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당연히 연안항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견사가 없고, 연안항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백제 도움 없이 이것이 가능한가? 부안 죽막동에서의 제사도 독자적으로 가능한가?
6. 5~6C 가라와 안라가 줄곧 주도한다고 했는데, 소가야는 어떠한가?

가야

문헌과 고고자료로본

총 괄 김삼기
기 획 강동석
집 필 강동석 박대재 이동희 남재우 김일규 이형기 하승철
 박천수 백승옥 김규운
편 집 김태희 서미례 정진희 한우림 권지현
행 정 지 원 조현수 석정미 강희숙

발 행 일 2018. 11. 14.
발 행 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용호동 8-4)
 Tel. (055) 211-9000 / Fax. (055) 211-9059
 www.gaya.go.kr

제 작 (주)브레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Tel. (055) 237-8067 / Fax. (055) 237-8069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39-01
I S B N 978-89-299-1403-5 93910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가야 駕洛國

고고자료로본

문헌과 三國遺事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회

韓國古代史學會

한국상고사학회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978-89-299-1403-5 93910